차 례

본 교재와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1
저자의 말: 저자의 해석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3

서론

I. 전문성을 지향하는 성경해석 경향에 대한 제안 5
II. 저자가 성경해석학을 가르치며 얻은 경험 11
III. 권위의 문제 13
IV. 비기교적 해석 절차의 필요성 15
가. 신자들의 무관심
나. 신자들의 교리주의
V. 성경에 대한 기본적 전제 17
VI. 문맥적 방법에 대한 일반적 진술 19
VII. 독자들에게 주는 몇 가지 일반적 제안 20

성경

I. 정경 22
II. 영감에 대한 주장 24
III. 성경의 목적 25
가. 규칙의 책이 아님
나. 과학책이 아님
다. 요술 책이 아님

IV. 성경에 대하여 저자가 가진 전제들 28

V. 성경이 초자연적이며 영감으로 되었고 권위를 가졌음을 입증하는 증거 28
가. 예언적 내용의 예언
나. 고고학적 발견
다. 일관성 있는 내용
라. 영속적으로 변화받은 사람들

VI.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관련된 어려움 30

VII. 우리가 가진 성경의 주요한 본문적 자료 31
가. 구약
나. 신약
다. 본문비평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본문비평의 기본적 원리
마. 필사된 사본이 지닌 문제점의 몇 가지 예
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
사. 하나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인간의 언어가 가진 제약

성경의 권위

I. 저자의 전제적 정의 42
II. 유효한 해석의 필요성 43
III. 해석적 남용의 예 44

해석자

I. 전제에 따른 정리 46
II. 복음적 정리의 몇 가지 예 48
III.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52
IV. 해석자의 책임 52

성경 해석을 위한 문맥적 방법

I. 문맥적 해석의 역사와 발전 54
가. 유대인의 해석
나. 알렉산드리아 학파
다. 안디옥 학파
라. 안디옥 학파의 기본적 원리

II. 해석을 위한 질문 58
가.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
나. 원저자가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다. 같은 주제에 대하여 원저자가 다른 곳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
라.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였는가?
마. 원래의 청중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였는가?
바. 이 진리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 이 진리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 해석자의 책임
자. 유용한 몇 가지 도서

해석가가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함정

I. 해석을 함에 있어서 논리적 과정과 문맥에 대한 초점을 함께 가져야 함 83
가. 문학적 문맥
나. 역사적 문맥
다. 묵학적 장르
라. 문법/구문
마. 단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 및 함축적 의미
바.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적절한 사용

II. 처음 다섯 가지 해석적 질문과 관련이 있는 남용의 예 85

해석의 실제적 과정

I. 영적인 면 93
가. 영적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나. 개인의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
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지식과 사랑을 구하는 기도
라. 새로운 진리를 당신의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하라

II. 논리적 과정 94
가.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으라
나. 앉은 자리에서 책 전체 또는 문학적 단위를 읽으라
다. 당신이 관찰한 바를 기록하라
1. 본문의 주요 목적
2. 본문의 장르
라. 성경연구를 돕는 여러 책을 사용하여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확인한다
마. 책 전체 또는 문학적 단위를 또 다시 읽고 주요 문학적 단위(즉, 진리들)를 구분한다. 또한 역사적 사항을 살펴본다(즉, 저자, 시기, 수신자, 상황)
바. 성경연구를 돕는 또 다른 종류의 자료들을 활용한다
사. 평행을 이루는 중요한 본문을 살펴본다
아. 동양인들은 긴장관계에 있는 쌍으로써 진리를 제시하였다
자. 조직신학
차.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활용

III. 연구를 위한 자료의 활용을 위한 순서에 대한 제안 103

필기를 위한 간략한 항목

I. 독서 계획 105
II. 석의의 과정 109
III. 학구적으로 신약의 단어를 연구하기 위한 기본 절차 111
IV. 간략하게 요약한 해석학적 원리 113

연구를 돕는 자료의 항목별 제시

I. 성경 115
II.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15
III. 해석학 115
IV. 기본적인 성경 개론서 116
V. 성경백과 및 성경사전 116
VI. 주석 116
VII. 단어 연구 117
VIII. 문화적 배경 118
IX. 신학 119
X. 변증학 119
XI. 성경의 어려운 표현 120
XII. 본문비평 120
XIII. 사전 120
XIV.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웹 주소 121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122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I. 간략한 히브리어 발전사 132
II. 술부 133
가. 동사
나. 어간
다. 태(법)
라. *와우* 접속사
마. 부정사
바. 의문문
사. 조건문

석의에 영향을 주는 헬라어의 문법적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I. 시제 138
II. 태 139
III. 법 139
IV. 헬라어 연구를 위한 도구 140
V. 명사 140
VI. 접속사와 접속어 141
VII. 조건절 142
VIII. 금지 143
IX. 관사 143
X. 강조를 나타내는 방법 143

필기의 예

I. 문학적 단위의 예 – 로마서 1-3 장 146
II. 신약의 책을 위한 필기 – 디도서 151
III. 어틀리 박사의 주석에서 제시한 상세한 필기의 예
가. 에베소서 2 장 158
나. 로마서 5 장 180
다. 로마서 6 장 197

부록

부록 1, 역사로서의 구약 209
부록 2, 당시의 근동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기록 213
부록 3, 구약의 이야기체 215
부록 4, 구약의 예언 218
부록 5, 신약의 예언 223
부록 6, 히브리 시 226
부록 7, 히브리 지혜문학 229
부록 8, 묵시문학 233
부록 9, 비유의 해석 235
부록 10, 해석학에서 사용한 용어의 해설 239
부록 11, 인용하고 추천한 도서의 목록 249
부록 12, 교리적 진술 253
해석학에 대한 시 (어떤 제자의 글) 255

본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맨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 (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맨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쇄*,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튜가르텐시아*, GBS, 1997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 (4 권), 조지 A. 버트릭 편저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5 권), 제임스 오르 편저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빅 쾰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 (페쉬타), 조지 M. 람사

LXX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NEB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ASB 새 개정 표준 성경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NRSV 새 개정 표준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암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5 권), 메릴 C. 텐니 편저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의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며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이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인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가.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나.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다.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4])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라.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적 구분을 제시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마.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 년 6 월 27 일

서 론

I. 전문성을 지향하는 성경해석 경향에 대한 제안

내가 처음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였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당황하게 되었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황홀한 탐험으로 생각하였던 일이 혼란을 주는 악몽으로 바뀌었다.

> "개인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개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든다. 아무런 공식적 훈련을 받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시 119 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영적 자양분을 취하도록 강력하게 제시한다"(메이휴 1986, 45).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종교적 훈련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도 절반만 맞는 진리였다. 종교적 훈련이 여러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을 열 수 있게 도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내가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많은 교육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할 뿐이었다. 내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수 년간에 걸친 언어적, 의미론적, 석의적, 해석학적, 신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됨을 어느 날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내가 받은 교육의 수준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은 '신학교육으로 나를 훈련시킨 각 전문가들이 성경을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실바 1987, 2-3). 그들은 각각 자신의 특별한 분야에서 교육받음으로써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어려운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신학교육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육을 받는 일이 모든 어려움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면에서라도 '신학교육을 받는 일'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 "성경은 너무 쉬어서 조금 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도 그 기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은 너무 심원하여 가장 훌륭한 학자라도 그 깊은 의미를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다" (슐츠와 인히 1976, 9).

우리는 성경해석을 학문적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을 '고도의 훈련을 받고 특권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었다.

위클리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쳤다.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가 더욱 더 명확하게 될 수록 더욱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라틴어 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써 교리를 제시하여야만 하듯이, 성경에 담겨 있는 교회의 신앙도 더 많이 알려짐으로써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평신도들은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교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가져야 한다"(메이휴 1986, 106).

사람들이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행한 일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1)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에게 한 일 (2)자신들만 가졌다고 주장하는 비밀스런 지식과 지식에 대한 강조로써 영지주의자들이 한 일 (3)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세기에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분화하여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게 된 일. 우리는 일반인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전문가들만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또 다시 말하고 있다. 의학이 의사들에게 강요한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우리는 성경해석에 강요하였다: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있지만 그 전문가들은 종종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같은 경향은 오늘날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에서 행해지는 학문적 훈련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어난다.

오늘날 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일지라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것을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일반 신자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잡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고든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성경해석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성경의 말씀을 받았던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행한 것은 바람이신 성령께서 '임의로 부사'(요 3:8), 전문가들을 제끼시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은혜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슐츠와 인히 1976, 126).

해석학(성경해석의 원리)과 석의(해석의 일)에 있어서, 성경을 받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성경을 빼앗아낸 것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니엘 웹스터는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경 본문은 명확하면서도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쓰여진 것임을 나는 믿는다. 온 세상의 구원과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 책이 비평가와 철학자들만 발견할 수 있는 신비와 의혹으로 그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주장을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이휴 1986, 60).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 사실을 고려할 때 분명히 잘못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누렸던 수준의 신학훈련을 받지도, 또 받을 수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석이나 성경사전 같은 참고도서가 성경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책이 성경학자들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기에 도움이 됨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난한 환경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그 책들을 갖게 되기까지 성경연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대부분은 평생 기다리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슈테렛 1973, 33).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문법적 요소를 각 언어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인의 상당수는 성경연구를 하기에 부적격하며, 성경은 특권을 누리는 일부의 사람만 다룰 수 있는 책으로 될 것이다" (트레이나 1985, 81).

교회는 (1) 교육과 (2) 초자연적 은사 사이에 균형을 취하여야만 한다.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요소(영적 동기, 헌신, 해석자의 은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 및 진리를 전달받는데 필요한 언어적 능력이다" (헨드릭슨 1973, 37).

성경의 해석은 영적 은사이며 동시에 훈련받아야 될 분야에 속하는가? 이 말은 모든 신자가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할 권리나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일 이상의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전도의 은사에서 들 수 있다. 은사를 통해 증거가 분명히 드러난다. 효과적이고 결실이 있는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함에 대한 성경적 책임을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각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훈련과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 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령께 대한 우리의 의존(실바 1987, 24-25)을 교육 및 실제적 경험에서 얻는 유익과 결합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지적 접근을 배제시키는 주장을 내가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펄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성령께서 다른 이들에게는 거의 말씀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헨드릭슨 1973, 41).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진리, 즉 하나님께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 및 신학교육이 이러한 일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실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제기한다.

첫째로, 우리가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함을 나는 주장하고자 한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눅 12:48).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회가

아니라 개선하여야 할 동기를 결여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기회에 대하여만 청지기적 책임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태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 "하나님께서 바로 해석가이시다. 그러나 성경 학도는 자신의 과제를 열린 마음과 훈련받은 자세로 감당하여야 한다. 믿음은 성경을 책임있게 읽는 일을 피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성경해석의 과업을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떠맡겨 버릴 수 없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해석의 과업을 회피할 수 없다. 어떤 이가 하는 말을 듣거나 어떤 이가 기록한 것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그 내용을 해석한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훌륭히 또는 얼마나 나쁘게 하는가가 핵심을 이룬다" (잰센 1968, 17).

열린 마음의 필요에 대하여 나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더라도 여전히 악하다(실바 1987, 23, 118).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과 연결 시킬 때에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계속 범죄하며,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진술에 따를 때, 가장 훌륭한 해석학적 원리나 석의의 절차 혹은 열린 마음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경향성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겸손함으로 임해야 한다.

> "적합한 해석학은 겸손을 요구한다. 이 말은 다른 이로부터 겸손함을 가지고 배우는 것 이상이다. 즉, 우리가 해석하려는 말씀의 심판 아래 겸손히 나아옴을 뜻한다. 해석의 일이 연구와 판단을 요구하지만, 해석가의 궁극적인 과제는 자신이 연구하는 말씀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말씀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다" (슐츠와 인히가 인용한 고든 피의 글, 1976, 127).

또 다른 해결 방법은 해석의 정도나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는 훈련을 받은 해석자가 가지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불완전한 지식이 결함을 가진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게 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스테렛 1973, 16).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로 이끄시는 일은(요 14:26; 16:13-14; 요일 2:20-21) 우리의 지적 능력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된 성경을 단지 읽는 것으로써 알게 된다. 바로 성숙과 균형을 통하여 신학적 교육이 귀중한 도움을 준다. 해석의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해나 신학적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것이지만, 이러한 일은 신학자들에게도 있는 일이다.

오늘날의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신자가 자신을 위하여 매일 의미있게 성경연구를 시작하는 일이다. 교회는 그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 "교회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연구를 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오스본과 우드워드 1979, 13).

이 점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 "깊이 있는 성경연구는 우리가 보았듯이 평신도인 학생이나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자를 막론하고 각 신자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석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연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는 일은 신자의 똑똑함이 아니라 훈련됨을 필요로 한다. 신실함과 제자도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오스본과 우드워드 1979, 82).

해석학적 기술을 상식의 개념으로 단순화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술은 사실 인간의 이성과 언어적 재능의 일반적 적용이기 때문이다(피 1982, 16; 사이어 1980, 51).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해석을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좋은 참고도서를 수시로 참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고든 피는 다음과 같이 유용한 제안을 한다.

> "전문가가 아닌 자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연구를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연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져야 할 도구는 이렇다: (ㄱ) 현대어로 된 한 종류 이상의 번역본.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종종 시사한다. 그는 시와 산문을 구분하며, 문단을 주의깊게 구분한 번역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ㄴ) 한 가지 이상의 좋은 주석, 특별히 이 글에서 제시한 해석학적 원리를 고려한 주석(예, C. K. 바렛의 고린도 전서; F. F. 브루스의 히브리서; R. D. 브라운의 요한복음). 다시 말하면 여러 종류의 주석을 통하여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된다. (ㄷ) 자신의 상식. 성경은 어두운 동굴에서 일하는 광부만 캐낼 수 있는 감추인 의미로 가득차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저자가 명확하게 말하려고 의도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표면에 가까이 있어 문법이나 역사를 조금만 참조하면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표면에 드러나 있어 전문가들은 먼저 파고 들어간 후에 살펴보려는 경향이 있어 종종 표면에 드러나 있는 핵심을 놓친다. 이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슐츠와 인히가 인용한 고든 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1976, 127).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

많은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점점 더 냉담하고 무관심하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개혁에서 아주 강조한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과 우리의 삶(즉, 영적 역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렇듯 놀라운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우리가 그를 상당히 존경한다 하더라도)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계하게 된다(참조, 고후 5:10).

오늘날 미처 소화되지 않은 성경공부(설교, 주석)가 왜 만연되어 있는가? 첫째로, 서구의 사회에서 제공되는 수 많은 종류의 해석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나는 본다. 아무도 성경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역사상의 주요한 기독교 진리와 주변적 내용을 구분지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주요 기둥을 모든 교단이 공유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 성경의 중심진리, 또한 모든 기독교인에게 공통점을 이루는 이같은 종류의 진리에 대한 것이다. 평신도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해석이, 영감받은 성경저자가 의도하여 성경 본문에서 표현한 내용과 일치하는 해석을 선택하여야 할 우리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해석 뿐 아니라, 해석자의 교단적 전통 또한 장애가 된다. 평신도는 성경을 읽기도 전에 그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종종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신학적 체계 안에서 편안함을 쉽게 느껴, 사람이 만든 이러한 체계가 교회의 역사에서 야기했던 문제점들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우리는기독교 공동체 안에 대립되거나 다른 체계가 많이 있음을 종종 망각한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단적, 문화적 전통이라는 안경을 벗고 당시에 비추어 성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교단적, 문화적 전통은 유용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반드시 성경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 반대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말한 바를 재확인하기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 목회자, 교사, 배우자, 친구들과는 별도로 각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부모, 출생지, 출생시기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바꾸거나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평신도들이 설교가들 만큼 성경을 잘 알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강조하는 오늘날 대중매체의 침해를 인하여, 전문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스스로 성경의 해석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 말은 은사를 가진, 소명받고, 훈련받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 성경을 분석하는 일 없이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와는 다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기독교의 주요 기둥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한편 주변적 또는 비핵심적 영역에 있어서는 해석과 행함의 폭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누리는 빛에 비추어,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적합하게 살아야 할 경계가 어디인가를 각자가 결정지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성경을 기록한 영감받은 고대의 저자가 의도한 것을 적절하게 이해하게 하는 원리들을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더욱 힘써야 함을 나는 말하고자 한다. 영감받은 성경의 저자가 전한 메시지를 참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경험적, 목회적, 교리적, 전통에 결부된 전제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때로 이러한 일은 우리가 가진 개인적 편향이나 교단적 전통과 어긋날 수 있다. 성경의 원저자의 메시지에 대한 참된 문맥적 해석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익숙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본문의 사용"(proof texting)의 기교를 버려야만 한다. 원저자(들)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영감받은 사람이다.

신자는 반드시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엡 4:11-16 에 비추어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것이다.

II. 저자가 지역교회, 강의실, 세미나에서 해석학을 가르친 경험에 대하여

15 년 동안의 목회와 16 년 동안의 교수생활을 통하여, 나는 여러 교단에 속하는 기독교인들과 해석학적 주제를 토의하고 또 관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다. 나는 남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하였고, 남침례교단에 속한 세 대학교(웨이랜드 침례대학 분교, 럽벅, 텍사스; 히스패닉 신학교, 럽벅, 텍사스; 동텍사스 침례대학, 마샬, 텍사스)와 은사중심적인 성경 초급대학(트리니티 성경원, 럽벅, 텍사스)에서 가르쳤다. 은퇴한 이후에는 여러 해 동안 OMS 엠마우스 신학교, 캡 하이티안 소재, 하이디; 침례교 미국 신학교, 예레반, 알메니아 및 초교파 신학교, 노비 솓, 세르비아에서 과목을 가르쳤다. 나는 또한 미국 감리교회 및 미국 장로교회의 회원이다. 나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 초교파 신학교인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였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 해 동안 교단적 경계를 넘어서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해석학적 개념과 그 절차에 대한 훈련이 명백히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의존한다

1.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본문의 사용
2. 문자주의
3. 우화주의/도덕화

4. 교단적 교조화

5. 개인의 경험

6. 문화적 환경

성경해석에 있어서 일관되며, 입증될 수 있고, 본문 중심적 해석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해석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1) 전문적이지 않은 용어 (2) 명료하게 진술된 원리 (3) 원리를 관련이 있는 여러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일.

평신도들은 개인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되며,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단순화된 해석 방법에 쉽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지역교회, 기독교 문서, 방송(라디오와 텔레비젼)에서 제시하는 성경공부가 자신과 상관성이 있는가를 신속히 파악한다. 나는 여러 환경에서 해석학을 가르쳤다.

1. 도시 규모의 신학교

2. 지역교회에서의 세미나

3. 주일학교 교실

4. 초급대학 강의실

5. 대학 강의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평신도들은 일관되며,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마음이 열려 있고 또 그것에 열렬히 반응함을 보았다. 성경을 알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하는 진지한 배고픔이 있었다. 그럼에도 다음의 이유에서 크게 당혹해하는 것을 보았다

1. 해석의 다양성

2. 해석의 상대성

3. 어떤 해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교단적 거만함

4.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

이 교재는 해석학을 전문적이고, 상세하고, 학문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 본문 중심의 해석을 한 학파(즉, 시리아의 안디옥)의 문맥적/본문적 접근을 소개하며 또 이러한 원리를 그들이 매일의 연구와 삶에 직접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본 개론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에 집중한다.

1. 해석학적 훈련의 필요성

2. 성경해석의 문맥적/본문적 원리

3. 오늘날의 해석학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오류

4. 방법론적 절차를 제시함

5. 오늘날 영어를 사용하는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성경 연구 교재

이 교재는 성경 해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책이다. 이것은 기초적 단계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단계를 이룬다.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여러 추가적 자료를 참고도서에서 제시하였다. 이 책의 커다란 목적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성경해석 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고, 평신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일관되며 입증될 수 있는 성경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기에, 본 개론서를 통하여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매일의 삶에서 '흥분되며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바른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III. 권위의 문제

'하나님이 계신가 혹은 안계신가'라는 질문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성경의 저자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받아들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목적으로 철학적 논쟁을 할 필요를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다섯 가지 증거는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증거를 구하는 자들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철학적 논쟁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께서 존재하심을 입증하지 못한다. 철학적 논쟁은 기껏해야 논리에 따른 신의 필요성, 제 1 운동자, 주된 원인자를 지적할 뿐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헬라 철학)도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였다. 이것은 자연계시를 통하여 나타난다: (1)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시 19:1-6; 롬 1:19-20) (2) 인간에 내재하는 도덕적 증거(롬 2:14-15). 그 뿐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제시된다 (딤후 3:15-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 율법,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참조, 마 5:17-19).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가장 지고하게 말씀하셨다(요 1:1-14; 히 1:1-3; 마 5:21-48).

내가 줄곧 가진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u>무엇을</u> 말씀하고 계신가였다. 이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성경을 알기를 소원하던 나는 온갖 종류의 상이한 성경해석을 인하여 깜짝 놀랐다. 개인적인 성격, 교단적 배경, 개인의 경험, 부모의 훈육에 따라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한 자신 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모두 강한 확신을 가졌고, 또한 남에게 자신의 견해를 확신시키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사람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는 묻기 시작하였다.

신학교에서 "성경의 권위"라는 개념을 소개받았을 때, 비로소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 나에게 분명해졌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전통적 방법론이나

신학을 방어하기 위한 상투적 표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학적 구조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미로에 처해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느낌을 해석에 임하면서 가졌었는데, 나는 같은 느낌을 해석학의 영역에서도 맛보았다. 사실 표현하던 표현하지 않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해석학의 여러 원리는 다양한 해석의 원인을 제공한다. 해석학의 여러 원리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 원리 자체가 영감을 받은 원리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학적 전통과 역사적 갈등을 통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체계마다 각기 경건한 해석가들이 있다. 어떤 체계를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입증할 수 있음”과 “일관성”이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다. 내가 과학적 방법이 지배적인 시대에 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편 해석에 있어서 범주를 어느 정도 정해놓아야 한다. 해석학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은사(예술)이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논리적 지침(과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해석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든지, 이 두 가지 관점을 균형있게 충족시켜야 한다.

안디옥 학파(시리아)의 해석은 가장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체계를 제공하였다. 이들의 문맥적/본문적 초점은 “입증성”을 상당히 이루었다.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하면서도 정상적 의미를 추구하는 그들의 성경해석 방법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안디옥 학파의 방법은 알렉산드리아의 우화적 학파(이집트)에 대한 역사적 반동임을 덧붙여 밝혀야만 한다. 이들의 방법은 과도한 단순화였다(실바 1987, 52-53). 하지만 성경해석을 위하여 교회가 사용한 두 가지 주요 방법을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사용한 안디옥 학파는 종교개혁/문예부흥 때의 해석을 위한 적절한 이론적 근거을 제공하였다. 문맥적/본문적 해석방법은 성경으로 하여금 먼저 당시에 대하여(한 가지 의미), 그 다음에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씀하게 한다(여러 적용). 이 해석방법은 오늘날의 지식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시간과 문화적 간격을 극복하게 돕는다. 지식층에서 이 방법을 수용한 이유는 이 해석방법이 고대의 모든 문학적 자료를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되었으며, 또 이 해석방법이 오늘날 현대적인 학문적 사고형태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석학이 나의 사역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됨에 따라, 나는 설교, 교수의 내용, 종교적 글을 보다 주의 깊게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남용을 보면서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교회가 성경을 예찬하는듯 하면서도, 그 메시지를 변형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평신도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일은

경건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석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놀랍게 헌신되고 사랑스러운 수 많은 신자들'이 내가 원저자의 목적(의도)을 파악하는 성경연구를 통하여 누리게 된 기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평신도들에게 안디옥 학파의 기본 원리인 문맥/본문에 충실한 방법을 소개할 목적으로 나는 이 교재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 당시(1977 년)에는 해석학에 관한 책이 별로 없었다. 평신도를 위한 해석학은 더더욱 없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과 우리가 알면서도 가지는 편향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이 교재에서는 문맥적/본문적 접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물론, 해석시 공통적으로 접하게 되는 신학적 오류의 목록을 함께 다룬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순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떤 이들로 하여금 다른 해석적 과제를 검토하며 또 참고할 연구 도구를 활용할 적절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IV. 비기교적인 해석의 과정

가. 신자들의 냉담

이 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목사와 교수의 일을 한 나에게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었다. 오늘날 신자들의 전반적인 성경 지식이 쇠퇴하는 것을 나는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뿌리는 성경지식의 결여에 기인한다. 이전 세대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만큼 오늘날의 신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이 쇠퇴하는 원인은 성경의 내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곧,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서 기인한다.

내가 보기에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던 일이 대부분의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냉담함은 현대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커다란 문제는 소비주의라는 우리의 문화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모든 필요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일에 익숙하다. "즉석요리"적인 산업적 사고가 우리의 문화적 표준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품과 그러한 즉각적인 소비에 길들어져 있다. 성경의 지식과 일상생활에 기초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이러한 문화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성경지식은 각 사람이 기도, 인내, 훈련, 규칙적인 연구, 개인적 적용에 힘씀으로써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질주하는 길'인 21 세기의 물질주의적 환경에서 살고 있어, 앞서 언급한 바 '개인이 지불하여야 할 희생'을 모두 피하려 든다.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이분적 사고인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특공대”라는 우리의 사고 구조는 대부분의 평신도들로부터 그들이 각각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설교가들에게 이 일을 맡겨라”가 지배적이 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목회자가 잘못 이해한들 무슨 상관인가?” 또는 “당신이 목회자들을 바꾼들 무슨 상관인가?”라는 문제를 조장한다. 이러한 냉담한 자세는 성경의 진리 및 종교개혁자들(루터)이 재강조한 “영혼의 역량”(벧전 2:5,9; 계 1:6)이라는 교리를 회피하게 만든다. 이것은 “무리를 이룬 사회”라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책임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게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현장에서 함께 뛰는 코치”(엡 4:11-12)가 아니라 중개인이나 현인들의 역할로 바뀌었다. 우리의 문화가 성스럽고 속된 것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성스러운 자들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세워 놓은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경연구에 대하여 가지는 냉담함은 전문성을 지향하는 현대적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훈련받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연구를 대하고 있다. 그 원리와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언어학, 헬라어, 히브리어, 해석학, 신학 박사학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느낀다. 이러한 생각은 지적으로 탁월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진리의 이해가 가능하다라는“현대적 영지주의”의 위험을 낳는다. 물론 지식인 조차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문적 기교를 사용하더라도 일치된 해석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고려할 냉담함의 원인은 해석의 다양성이다. 교단적 차이 뿐 아니라, 같은 교단에서도 상이한 견해가 제시된다. 대다수의 신자들은 교리적 형태로 강요되는 이러한 불일치를 인하여 혼란스러워한다.

나. 신자들의 교조주의

해석의 과정과 관련하여 혼란이 생기고 내키지 않아 하는 일은 이상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외적 요인들 외에도, 여러 가지 내적 요인이 있다. 성경연구에 대한 냉당함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한 냉담함,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된 해석, 배타주의가 가져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구의 성경학도들에게 교조주의적 사고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

이 일에는 여러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 첫째로, 우리가 자란 영적 전통이 관련되어 있다. 교조주의는 우리가 부모나 교회의 교사로부터 배워서 형성된 반응이다. 이것은 그들의 견해와 행함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동일시 또는 완전한 거부를 나타낸다. 대개 이러한 전이나 동화 혹은 반발은 개인이 하는 성경공부와 관련이 없다. 종종 우리가 가진 편향이나, 신학적 전제, 선험적 사고가 가족관계를 통하여 이어지는 경우이다.

부모가 우리에게 자신의 영적 입장을 각인시킨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의 교리적 유산이 된다. 우리가 믿는 많은 부분은 자신의 성경공부를 통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교단의 교리를 따라 형성된 내용이다. 오늘날 극소수의 교회에서만 그들이 무엇을 믿으며 왜 그것을 믿는가를 조직적으로 가르친다. 이러한 문제는 교단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의 지역적 위치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포스트모더니즘)가 우리의 신앙체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가 사는 지역적 위치도 그러하다. 교구주의는 선조들의 전통이나 교단적 전통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30 년 이상 동반자 복음전도에 관여하였고, 교회의 성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있는 같은 교단의 교회들에 가서 사역을 하였다. 같은 교단의 전통을 지닌 교회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믿는 것을 인하여 나는 놀랐다! 이 경험은 교단적, 교구적 교리화(성경을 읽는 것이 아님)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하였다.

신자들의 교조주의를 조장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을 개인적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부모에 의하여 영향을 받듯이, 각자가 가진 특성에 의하여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 교재의 뒤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개성, 개인적 경험, 영적 은사가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가진 교조주의를 때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또한 “이 일이 나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둘 다 거짓이다!

V. 성경에 대한 기본적 전제

이 시점에서, 내가 사용하는 전제적 가정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의하여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면, 왜 이 교재는 그러한 여러 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당신이 나에게 동의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관되며, 입증될 수 있는 비기교적인 성경연구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영감을 받지 않았고,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개발한 모델에 속한다. 내가 가진 기본적 전제는 이러하다.

가. 성경(신구약)은 홀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도구를 사용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참조, 딤후 3:15-17).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

나. 해석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그 목적을 이룬다(그란트와 트레이시 1984, 177; 칼슨 1984, 11; 실바 1987, vi).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셨다(히 1:1-3). 모든 성경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향한다. 그는 성취의 면류관이며 목적이 되신다. 그는 성경의 주이시다. 그 분 안에서 계시가 완료되었고 최종적인 것이 되었다(요 1:1-18; 고전 8:6; 골 1:13-20).

다. 성경은 일상적이고, 비기교적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 핵심을 단어, 절, 문장의 명백하면서도 일상적인 의미를 통하여 전달한다(실바 1987, 42). 성령께서는 진리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다. 이 진술은 성경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문화적 관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들어 있으며, 때로 서기관들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감추인 의미나 비밀스러운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성경이 역설적이거나 변증적 긴장의 형태로 진리를 제시하지만, 그것은 서로 상충적이지 않다(믿음의 유추).

라. 성경의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구속적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겔 18:23,32; 요 4:42; 딤전 2:4; 4:10; 벧후 3:9).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창 3:15; 12:3; 출 19:5-6). 이것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타락한)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특별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마. 성령은 적절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하신다.

1. 우리는 인간의 노력 및 경건함(딤후 2:15)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균형을 취하여야 한다(요 14:26; 16:13-14; 요일 2:20-21,27).
2. 성경적인 해석은 영적 은사에 속한 것이지만(전도, 구제, 기도처럼), 모든 신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 일은 은사에 속하지만,은사받은 이는 물론 모든 사람이 분석을 통하여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3. 인간의 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영역이 있다. 원저자들은 종종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록을 남겼다(미래의 사건, 점진적인 계시라는 면, 예언의 다중적 성취). 원래의 청중은 영감받은 메시지와 그 적용을 종종 이해하지 못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하사 성경 저자들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모두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모든 성경의 참 저자이시다.

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스파이어 1980, 82). 이 진술은 여러 영역에서 모호하다. 어떤 부분은 원래의 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잠겨 있고(즉, 고전 15:29) 어떤 부분은 "아직은 아닌" 상태로 역사 뒤에 감추어져 있다(즉, 단 12:4). 성경이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는 진리가 아니라 유추적인 진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믿음과 삶을 위하여 적합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성경의 어떠한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인 것을 알 수 있다(실바 1987, 80).

VI. 문맥적/본문적 방법에 대한 일반적 진술

이 교재는 문맥적/본문중심적 또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 안내를 제공한다. 이 방법은 주후 3 세기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우화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되었다. 후자의 방법은 이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시되었다. 고대에 시작된 이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 역사적 발전에 대하여는 뒤에 있는 단원에서 다룰 것이다. 이 서론적 단원에서는 안디옥 학파의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 진술을 하려고 한다.

가. 이것은 해석이 제대로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 해석이 바르며 본문에서 나온 것임을 사람들에게 입증시킬 수 있는 해석법이다. 이 방법은 영감받은 원저자가 의도한 것에 비추어, 해석된 본문에 대한 일관성과 확신을 제공한다. 고든 피가 말하였듯이 "어떤 것도 의미할 수 있는 성경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나. 이 방법은 학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해석방법이다. 원래의 청중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시간, 언어, 문화적 간격을 인하여 원래 말씀이 선포된 상황에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버클러 1981, 19-20). 당시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 역사, 문화, 관용법을 인하여 사라졌다. 따라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원어, 문장구조, 관용적 표현에 대한 지식은 매우 유용하다. 문화적 언어적 간격을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연구하는 자, 또는 최소한 다른 이들이 연구한 내용의 독자가 되어야 한다.

다.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경 저자들이 당시에 전하고 원래의 청중이 이해하였을 내용을 가능한 한 명료하게 이해하며, 이러한 진리를 오늘날의 문화와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해석도 무의미하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성경 본문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할 문맥과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 (본문비평)
2. 원저자가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석의)
3. 같은 주제에 대하여 원저자가 다른 곳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 (평행본문)
4.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였는가? (평행본문)
5. 원래의 청중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였는가? (원래의 적용)
6. 이 진리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날의 적용)
7. 이 진리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개인적 적용)

VII. 독자들에게 주는 몇 가지 일반적 제안

가. 죄가 모든 이의 해석(구원 이후에도), 교육, 기도,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구를 정화해야 한다. 나의 삶을 살펴 보고, 내가 편 논리를 고려하며,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허용하라.

나. 당신이 기존에 듣고 믿었던 것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이 교재에 대해 평가하거나 반응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로 하여금 당신이 가진 전통적 이해에 도전을 주도록 하라. 나는 종종 강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괴짜라고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말라!”

다. 내가 사용하는 예들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그 예들을 사용한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학과 성경연구 방법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또 이를 재점검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제시하려는 해석학적 원리와 석의의 과정에 대한 예시 가운데 당신이 놓친 부분에 대하여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말라. 이러한 예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의도한 것이다.
   1. 해석의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
   2. 잘못된 해석을 제시하기 위함
   3. 해석학적 원리를 예시하기 위함
   4.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함

라. 내가 가진 목적이 나 자신의 신학을 당신에게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기독교인들이 사용한 해석학적 방법과 그 적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내가 당신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전을 주어, 비록 당신이 가진 모든 종류의 질문에 언제나 답을 줄 수는 없을 지라도,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하여

지나치게 말하거나 혹은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해석의 과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 이 교재는 새신자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성숙하기 위하여 씨름하며 성경의 영역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길 추구하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성장은 자기 성찰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인하여 긴장으로 가득한 과정이다.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순례의 과정이다.

성 경

I. 정경

이 교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문맥적이고 본문적 원리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책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께서 정경의 과정을 이끄셨음을 받아들인다(아주 중요한 전제이다).

가. 저자의 일반적 전제

1.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가 그 분을 알기를 원하신다.
2.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ㄱ.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다(계시)
   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사 자신의 행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ㄷ. 하나님의 성령께서 독자(청중)로 하여금 기록된 계시의 주요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우신다(조명)
3.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제공하는 책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나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하여 안다). 성경은 총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특별한 상황과 때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이 이제는 모든 경우와 모든 시대에 영감받은 안내를 준다. 한편, 성경에는 당시의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지 못하는 문화적 진리가 일부 있다(즉, 일부 다처제, 거룩한 전쟁, 노예, 독신, 여인들의 지위, 머리 위에 수건을 얹음, 거룩한 키스 등).

나. 나는 정경화의 과정이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나 사건이 관련된 역사적 진행이었음을 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이끄셨다는 것이 내가 가진 전제이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받아들여 승인한 구약의 책들을 받아들였다.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볼 때, 초대교회가 신약의 정경을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초기의 교회회의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님).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분명히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다.

1. 기독교의 정경은 영감으로 된 모든 책을 가지고 있다; 정경은 마쳐졌다! (즉, “믿음,” 행 6:7; 13:8; 14:22; 갈 1:23; 6:10; 유 3,20 절)
   ㄱ. 구약을 유대인들에게서 받아들임
   ㄴ. 신약에서 27 권이 있다(점진적인 역사적 과정)
2.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 또는 사도들과 관련을 가진다(점진적인 역사적 과정)

ㄱ.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과(예수님의 형제)

ㄴ. 마가는 베드로와(로마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복음서로 기록함)

ㄷ. 누가는 바울과(선교의 동역자)

ㄹ.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과

3. 사도들의 가르침과의 신학적 일치(후에는 "믿음의 규정"으로 불림). 복음서는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보다 나중에 기록되었다.

ㄱ. 이단의 발생을 인하여(즉, 양자설,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몬타니즘)

ㄴ. 재림이 늦추어짐을 인하여

ㄷ. 열 두 사도의 죽음을 인하여

4. 성경의 책들을 읽고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됨

5. 초대교회와 후의 교회회의를 통하여 볼 때 정경의 목록에 대한 일반적 일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ㄱ. 오리겐(주후 185-254 년)은 네 복음서와 교회에서 회람되는 사도들의 서신이 있었음을 밝힌다.

ㄴ. 무라토리안 정경은 주후 180-200 년에 로마에서 기록됨(이것의 유일한 사본은 손상을 입은 후기의 라틴어 본문임). 이 책은 현재 신약의 27 권과 같은 목록을 가짐(단 베드로의 묵사록과 허마의 목양서를 추가하고 있음).

ㄷ.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주후 265-340 년)는 삼중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독교의 저작을 소개한다(오리겐도 그렇게함): (1) "받은," 따라서 받아들여진 책 (2)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따라서 모든 교회가 아니라 일부 교회가 받아들인 책 (3) "가짜인,"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읽기를 금하는 책.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책으로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3 서가 있다.

ㄹ. 북아프리카(주후 360 년)의 켈텐함의 목록(라틴어)에서는 현재의 신약 27 권과 같은 목록을 제시하는데 그 순서는 다르다(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제외하고는[히브리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바울서신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임].

ㅁ. 주후 367 년의 아타나시우스 이스터는 현재의 신약 27 권과 정확히 일치하는 목록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ㅂ. 권위를 가진 정경의 목록이라는 개념과 내용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

6. 참고도서

ㄱ. *신약의 정경*, 브루스 메츠거, 옥스포스 출판사

ㄴ.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제 1 권 709-745 쪽에 있는 정경에 대한 글

ㄷ. *성경개론*, 윌리엄 E. 닉스와 노만 가이슬러, 무디 출판사, 1968 년(특히 22 쪽에 있는 표)

ㄹ. *거룩한 책 – 성스러운 본문: 초대 기독교의 정경*, 존 바르톤,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출판사

7. 구약과 신약은 고대 근동의 문학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정경"으로 된 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책이다. 정경(즉, 권위를 가진)과 정경이 아닌 종교적 책에 대한 구분을 바꿀 수 있는 종교적 목록은 없다. 이 역사적 과정이 어떻게, 왜, 언제 일어난 것인가?

ㄱ. 이 일은 주후 3 세기와 4 세기에 있었던 교회회의의 결정에 의한 것인가?

ㄴ. 이 일은 주후 2 세기에 기독교의 저술을 남긴 자들에 의한 것인가?

ㄷ. 이 일은 주후 1 세기 후반부터 4 세기에 있었던 교회에 의한 것인가?

II. 영감에 대한 주장

오늘날 성경, 성경적 권위, 해석에 대하여 상충하는 주장과 진술이 있기에, 성경이 스스로 무엇을 주장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와 주장은 흥미롭긴 하지만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규정과 공식은 과장이라는 약점을 항상 가진다. 성경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과 교리의 중심에 계시기에, 이 주제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예수께서는 "산상 설교"(마 5-7 장)로 불리는 내용의 앞쪽에 있는 마 5:17-19 에서, 우리가 구약으로 부르는 거룩한 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명료하게 제시하셨다. 신자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구약의 말씀이 영원토록 중요함을 예수께서 강조하셨음을 기억하라. 또한 구약의 목적과 성취에 있어서 예수께서 중심에 계심을 기억하라. 이 본문은 구약이 신적 계시임을 나타냄은 물론, 그 계시가 예수께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기독론 중심적 모형론). 또한 21-26, 27-31, 33-37, 38-40 절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는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행한 구약의 전통적 해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계신다. 성경은 영감으로 되었고, 영원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진리이다. 우리가 가진 이해가 아니라 성경이 영감을

받아 된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오경의 전통적이고 역할 중심적 적용을 강조하셨으며, 그것을 불가능한 수준의 태도, 동기, 의도로 들어 올리셨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주요한 진술을 이방인의 사도인 다소 사람 사울이 제시한다. 딤후 3:15-16 에서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문자적,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임을 특별히 선언한다. 이 자리에서, 그의 선언이 신약의 모든 책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문적으로 말하기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 함축성을 고려할 때, 신약의 모든 책이 분명히 포함된다. 벧후 3:15-16 에서도 바울의 서신을 "성경"의 범주에 넣고 있다.

영감을 지지하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이 바울의 살전 2:13 에 나온다. 앞서 언급한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전한 말의 참된 원천이심을 제시한다. 이같은 진리가 사도 베드로의 벧후 1:20-21 에서도 제시된다.

성경은 기원 뿐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제시된다. 모든 성경은 신자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 주신 것이다(롬 4:23-24; 15:4; 고전 10:6,11; 벧전 1:10-12).

III. 성경의 목적

가. 규칙의 책이 아님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행하는 오해의 대부분은 그 목적을 잘못 취하기 때문에 시작된다. 어떤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진술하는 방법이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는 범죄한 인간이 가지는 경향인데,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여전히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경을 여러 가지 외부적 행동의 규정집인 "기독교인의 탈무드"로 바꾸어 버린다.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구속에 있음을 힘주어 말하여야 하겠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다(맥퀼킨 183, 49). 주된 관심사는 구원받음에 있는데(딤후 3:15), 이 일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이끈다(딤후 3:17).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커다란 목표이긴 하지만(롬 8:28-29; 고후 3:18; 갈 4:19; 엡 1:4; 살전 3:13; 4:3; 벧전 1:15), 이것은 처음 목표인 구속의 결과이다. 성경의 구조와 성격은 구속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체계화된 규정집 또는 교리집(즉, 기독교인의 탈무드)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지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않는다. 많은 주제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불완전하게 답한다. 성경은 조직신학적 책으로써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한 피조물을 다루시는 것을 선택된 역사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단순한 규정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규칙을 따라 살지 않고(골 2:16-23) 사랑을 따라 행하도록(고전 13 장) 요청받는다. 우리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두신 우선순위를 발견해야 한다(참조, 창 1:26-27).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바는 일련의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 새로운 초점, 새로운 삶이다.

성경이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규정이 들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영역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규정은 종종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내용을 제시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이나 범주를 정하여 준다. 성경을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게 되는 일은 성경의 이차적 목적이다.

나. 과학책이 아님

현대인들이 성경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추구하는 영역에 대하여 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많은 이들은 자연법, 특히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귀납법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철학적 틀을 성경에서 얻기를 간절히 구한다. 성경은 자연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과서가 아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의 책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그 영역에 있지 않다. 비록 성경이 물리적 실재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지만, 이 책은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 용어가 아닌 묘사적 언어(즉, 현상학적 언어)로서 그렇게 한다. 성경은 당시의 용어를 사용하여 실재에 대한 설명을 한다. 성경은 "세상에 대한 그림" 그 이상의 내용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성경은 "어떻게" 보다는 "누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사물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즉, 오감)를 따라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죽은 자가 정말로 땅 속에서 사는가? 오늘날과 같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도 죽은 자들을 묻었다. 따라서 묘사적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땅 속에 있었다(스올 또는 하데스).
2. 땅이 정말로 물 위에 떠 있는가? 이것은 세 층으로 된 우주의 모델과 관련이 있다. 고대인들은 물이 지하에 있음을 알았다(즉, 오아시스). 그들의 결론이 시적 표현으로써 제시되었다.
3. 오늘날 우리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는가?
   ㄱ. "태양이 떠 오른다"
   ㄴ. "이슬이 내린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책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와 현대 과학의 발전*, R. 후이카스

(2) *과학적 추구와 기독교 신앙*, 말콤 A. 지브스

(3) *과학과 성경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 버나드 램

(4) *과학과 해석학*, 번 S. 포이트레스

(5) *재판받는 다윈의 학설*, 필립 존슨

(6) 휴지 로스(펜사콜라 성경 교회, 펜사콜라, 플로리다)가 저술한 여러 책

(7) *과학과 신앙: 복음적인 대화*, 헨리 포와 지미 데이빗

(8) *처음의 전쟁*, 델 랏츠

(9) *과화과 평화를 이루기*, 다니엘 폭

(10) *순진한 기독교: 과학과 지적 디자인*, 윌리엄 데모스키

다. 요술 책이 아님

성경은 규칙의 책도, 과학책도 아니며 요술 책도 아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다소 특별한 방법으로 이 책을 다루게 하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먼저 기도한 후에 성경을 펼쳐 당신의 손가락이 놓여진 절을 들여다 본 적이 없는가? 이렇게 흔히 행하는 일은 성경을 마치 수정 구슬이나 신적 "점괘판"으로 다루게 한다. 성경은 메시지이지, 현대판 우림이나 둠밈이 아니다(출 28:30). 성경의 가치는 그 메시지에 있는 것이지 그것의 물질적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병원에 성경을 지니고 가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읽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너무나 큰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대신하고자 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수술을 받을 때에 당신의 성경을 곁에 두는 일은 병에서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침상 곁에 성경을 두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두는 일이 필요하다.

성경을 떨어뜨리거나 그 안에 기록하는 일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을 나는 보았다. 성경책은 소가죽(비싼 종류라면), 나무에서 온 종이, 잉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은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있는 범주에서만 거룩하다. 그 말씀을 읽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 우리의 문화는 성경은 존중하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역적이다. 이전에 우리의 법정에서는 한 손을 성경에 얹고서 진실을 말하기로 서약하였다. 그가 신자라면, 그는 거짓말을 어쨌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믿는 자도 아니고 또 자신이 손을

없어 서약하는 고대의 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마술적 주문의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줄이거나 빠뜨린 부분이 없이 상세하게 자연현상에 대하여 제시하는 교재가 아니며, 인생의 놀이와 관련을 가진 모든 영역에 대하여 자세한 지침을 주는 "카드놀이"를 위한 규칙의 책도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이다. 성경은 그의 아들을 제시하며 또한 그 손가락으로는 우리의 반역을 지적한다.

IV. 저자가 성경에 대하여 가진 전제들

성경이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사용법에 의해 남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한 유일한 지침이다. 나는 성경에 대하여 내가 가진 전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나는 성경(신구약)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분명한 자기 계시라고 믿는다. 신약은 구약의 완전한 성취이며 해석자이다(우리는 예수님과 신약의 새 계시를 통하여 구약을 이해하여야 한다. 신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근본적으로 일반화 시켰다). 홀로 영원하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감을 주사 정경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과 국가에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설명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 주는 유일한 자료이다(나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안다). 자연계시(참조, 욥 38-39 장; 시 19:1-6; 롬 1:19-20; 2:14-14)는 유효하지만 온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서 머릿돌을 이루신다(참조, 요 1:18; 골 1:14-16; 히 1:2-3). 성경을 바르게(그 영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참조, 요 14:23; 16:20-21; 고전 2:6-16).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며, 적합한 내용이며, 영원하며, 오류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다. 성경이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영감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한 책임을 신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V.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영감 받았으며 권위를 가졌음을 입증하는 증거

이 진술이 인간의 모든 다른 종류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추정적이지만, 여기에는 믿을만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증거 가운데 일부를 점검하고자 한다.

가. 성경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 매우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모형론적[호 11:1]이거나 묵시적[슥 9 장]이 아닌 역사적 예언). 모호한 형태가 아니라 종종 구체적이며 놀랄만큼 정확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두 가지 예를 들겠다.

1. 사 9:1 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질 것을 예언하였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 지역이 성전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있기에 율법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사역은 바로 이 지역에서 행해졌다.

2. 미 5:2 에서는 예수께서 출생하실 장소를 특별히 기록하였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로서 이새의 가족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유일한 장소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출생하시기 750 년 전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곳이 메시아의 출생지가 될 것임을 제시하였다. 헤롯의 궁전에 있던 학자들인 랍비들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 2:4-6). 어떤 이는 주전 8 세기에 속하는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연대를 의심할지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70 인역(이것은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본으로서 주전 250-200 년 경에 번역되었다)은 예언이 성취되기 적어도 200 여년 전에 이미 이러한 예언이 선포되었음을 제시한다.

나. 또 다른 증거는 고고학이라는 현대의 과학적 분야와 관련을 가진다. 최근 수 십 년 동안 괄목할만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다. 내가 아는 한,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부인할만한 발견이 전혀 없었다(넬슨 글룩, *광야에 있는 강들*, 31 쪽, "성경의 역사적 진술에 반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도 없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 고고학은 거듭 거듭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하였다.

1.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주전 1,000-2,000 년에 속하는 누지 서판과 마리 서판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이름이 창세기에서도 나온다. 그들은 동일인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름은 특정한 시기와 장소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데라"와 "나홀"이라는 이름은 성경과 고대 서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 소아시아에 있던 힛타이트 문명의 실재는 또 다른 실례를 제공한다. 오랜 기간 동안(19 세기까지) 세계사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린 '안정되고 잘 발달된 문화'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알처 1982, 96-98, 210). 그러나 창 10 장과 성경의 역사서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였다(왕하 7:6,7; 대하 1:17). 고고학은 그들의 존재 뿐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존재한 강대국이었음을 확증하였다(즉, 고고학자들은 1950 년에 아나톨리아 및 힛타이트로 불렸던 나라의 왕궁 도서관에서 2,000 개의 쐐기문자 서판을 발견하였다).

3.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존재(단 5 장)가 종종 부인되었다. 세계사에서 바벨론의 문서를 통해 가진 10 개의 바벨론 왕 목록에는 벨사살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다. 계속적인 고고학적 발견을 통하여, 벨사살이 섭정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스린 자였음이 드러났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어머니는 달 신인 *신*을 섬기는 여제사장이었다. 나보니두스는 *신*(나나)을 열렬하게 섬겨, 이집트와 전쟁을 한지

10 년이 된 해에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인 테마(아라비아)로 가서 살았다. 그는 자신의 부재기간 동안 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 성의 통치를 맡겼다.

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특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그 메시지의 일관성에 있다. 성경에 역설적인 내용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본질상 상반되지 않는다. 성경이 1600/1400 년 동안 기록된 책이고(출애굽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즉, 주전 1495, 1290 년), 저자들의 교육수준이 아주 다르며, 그 문화적 배경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된다. 성경은 여러 문학적 장르로 이루어졌으며,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히브리어, 아람어, 코이네 헬라어).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즉, 줄거리의 구성)가 통일을 이룬다.

라. 끝으로, 성경이 독특한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교육적 수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속한 남자와 여자들이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을 산 것을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성경을 읽는 각 곳에서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성경이 성경을 훌륭하게 옹호한다.

VI.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관련된 어려움

앞서 말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쉽다거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언어가 가진 성격상, 손으로 필사된 사본의 해석에 따르는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분석적 자세로 이해하여야 한다.

오늘날 성경의 독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현존하는 사본의 다양성에 있다. 이 문제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서도 나타난다. 뒤에 나오는 단원에서 이 주제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만 지적하고자 한다. 이 분야는 종종 본문비평으로 불린다. 이 분야의 근본적 과제는 성경의 원 본문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 분야에 관한 좋은 책은 다음과 같다:

가. *성경 비평: 역사적, 문자적, 본문적*, B. K. 왈트키, D. 거스리, 고든 피, R. H. 해리슨

나. *신약의 본문: 그 전달, 오류와 회복*, 브루스 M. 멧츠거

다. *신약 본문 비평 입문과 서기관, 두루마리, 성경*, J. H. 그린리

라. *책과 양피지*, F. F. 브루스

마. *신약의 초기 역본들*, 브루스 M. 멧츠거

바. *신약 사본들: 이것들은 신뢰할 만 한가?*, F. F. 브루스

사. *흠정역에 대한 논란: 현실성에 대한 간청*, D. A. 칼슨

아. *고대 동양과 구약*, K. A. 키친

자. *성경의 정통주의적 오류*, 바르트 D. 에르만

차. *신약 본문비평을 재고함*, 데이빗 알란 비치 편저

VII.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의 주요한 본문적 자료

오늘날의 구약 성경은 맛소라 본문(주후 100 년에 랍비 아퀴바가 확립한 사본으로서 자음으로 된 본문임)이라는 히브리 본문에서 왔다.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본문일 것이다. 그들은 티투스가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살아 남은 유일한 종교적 학파였다. 이 본문의 이름은 아무 표기(모음이 없음)도 없는 히브리 본문 위에 모음 부호, 악센트, 여러 가지 본문적 설명을 삽입시킨 유대인 학자의 그룹을 일컫는 말에서 온 것이다(이 일은 주후 9 세기에 마쳐졌다). 구약과 신약의 주요 사본을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한다.

가. 구약

1. 맛소라 본문(MT) – 이것은 주후 100 년에 랍비 아퀴바가 확립한 사본으로서 자음으로 된 본문이다. 후에 맛소라 학자들이 모음 부호, 악센트, 난외주, 휴지, 본문비평 비교 자료를 삽입시켰는데, 이 일은 주후 9 세기에 마쳐졌다. 이 본문을 미쉬나, 탈무드, 탈굼(아람어 역), 페쉬타(시리아 역), 벌게이트(라틴역)에서 인용하였다.
2. 70 인역(LXX) – 전통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위해 70 명의 유대 학자들이 70 일동안 이 번역을 마쳤다고 한다. 이 번역은 어떤 유대인 지도자가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왕인 톨레미 II 세(주전 285-246 년)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이집트의 톨레미 군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자랑하였다. 이 전통에 대한 내용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온다. 70 인역은 랍비 아퀴바의 히브리 본문(MT)과 다르다. 두 가지 본문이 사해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이 두 본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예레미야서와 호세아서의 경우는 두 책이 크게 다르다. 1947 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후에, 맛소라 사본과 70 인역이 각기 고대의 사본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맛소라 본문은 구약의 기본적 본문으로 삼는데, 본문의 이해가 어렵거나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70 인역을 보충적으로 사용한다.

   ㄱ. 70 인역은 MT 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한 가지 예):

      (1) LXX 역의 사 52:14, “많은 자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2) MT 의 사 52:14, “많은 자들이 너를 인하여 놀랐듯이”

   ㄴ. 사해사본은 MT 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한 가지 예):

(1) DSS(1Q 이사야)의 사 21:8 – "그 후에 내가 서 있는 파수대를 향하여 보는 자가 외쳤다. . ."

(2) MT 의 사 21:8 – "그리고 내가 사자를 외쳤다! 내 주여, 나는 낮에 . . . 항상 파수대에 서 있습니다. . ."

ㄷ. 70 인역과 사해사본은 함께 사 53:11 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1) 70 인역과 사해사본 – "그의 영혼이 고생을 한 후에 그가 빛을 보게 된다, 그가 만족할 것이다"

(2) MT – "그가 자기 영혼의 고생을 볼 것이다. 그가 만족할 것이다" (MT 에서는 동사를 두 번 사용하였지만, 처음 목적어를 생략하였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기록했던 원본이나 그 원본의 사본이 아니라, 필사본을 거듭 거듭 필사한 사본이다.

3. 사해사본(DSS) – 이것은 기원전의 로마 시대부터 신약 성경의 기록이 마쳐지는 시기에 "에센파"로 불리는 유대인의 분파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그들은 성전에서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패한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히브리 사본이 1947 년에 사해근처에 있는 여러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에는 MT 또는 LXX 를 각각 지지하는 계통의 본문이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맛소라 본문과 신약에서 인용하는 구약의 본문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있다. 민 25:9 과 고전 10:8 은 이 문제를 잘 드러낸다. 구약에서는 24,000 명이 죽은 것으로 말하는데, 바울은 23,000 명이 죽은 것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여기서 손으로 필사된 고대 사본이 가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일은 필사를 한 서기관의 실수에 기인하거나, 바울이 기억에 의존하여 한 인용의 문제, 또는 랍비들의 전통에 근거한 인용에 기인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상이점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움을 안다(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영감에 대한 전제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경에서도 이러한 소소한 종류의 문제가 일어난다.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마 27:9 에서 제기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서의 인용으로 제시하지만 이 본문은 스가랴서로 여겨진다. 나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상이점이 발생한 몇 가지 이유를 당신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1 페쉬타로 불리는 5 세기의 시리아역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제거하였다

2. 어거스틴, 루터, 카일은 마태복음의 본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는 필사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4. 제롬과 에발트는 이 본문이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돌리는 위작의 인용인데 그 위작은 없어졌으며 또한 이 인용이 스가야서의 내용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5. 메데는 예레미야가 스가랴 9-11 장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한다.
6. 라이트푸트는 예레미야서가 예언서의 목록에서 가장 앞에 있기에, 이러한 용법은 다른 예언서에 대한 지칭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7. 헹스텐베르그는 스가랴가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칼빈은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오류가 본문에 생긴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식있고 경건한 자들이 주장하는 수 많은 이론을 고려할 때, 우리는 모른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문제를 부인하는 것(1 항)은 답이 되지 않는다. 상투적인 문구나 전제 뒤로 숨어버리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역본은 우리가 반드시 분류해 내어야 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현대역본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면, 당신이 사용하는 연구성경의 난외주에 "가장 오래된 좋은 헬라어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다"라는 말이 있다면 그 본문에 기초하여 어떤 교리를 형성하지 말기를 제안한다. 어떤 교리에 대하여 명확히 가르치는 평행본문을 찾으라.

나. 신약

오늘날 5,300 개 이상의 헬라어 신약사본이 존재한다(전체 또는 조각의 형태로). 대략 85 개의 사본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대문자체로 기록된 사본이 268 개 있다. 후기인 주후 9 세기경에는 흘림체(소문자체)가 사용되었다. 소문자체에 속하는 헬라어 사본이 대략 2,700 개 있다. 우리는 예배에서 사용한 예식서로 불리는 성경본문의 형태로 2,100 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 다음 사항은 신약의 자료에 대한 간략한 개요이다.

1. 파피루스 – 현존하는 대략 85 개의 사본은 신약 본문을 헬라어로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이다. 이 사본은 주후 2 세기 경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3 세기와 4 세기에 속한다. 신약 전체가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은 없다. 그중 어떤 사본은 전문가인 서기관이 필사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보다 덜 정확하게 급히 필사된 사본이다. 오래된 사본이라는 것 만으로는 정확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시내 사본 – *알레프*라는 히브리어(א), A, (01) 등으로 표기된다. 이 사본은 티센도르프가 시내 산에 있는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 사본의 연대는 주후 4 세기에 속한다. 이 사본에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들어 있다. 이 사본은 B 사본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본문"이다.

3. 알렉산드리아 사본 – “A” (알파) 또는 (02)로 알려졌다. 이 사본의 연대는 주후 5 세기에 속하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복음서만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본문”이다.
4. 바티칸 사본 – “B” 또는 (03)으로 알려졌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의 연대는 주후 4 세기 중반에 속한다. 이 사본에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들어 있다. 이 사본은 א 사본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본문”이다. 이 사본의 뿌리는 P^{75} 의 연대인 2 세기에 속한다.
5. 에프래미 사본 – “C” 또는 (04)로 알려졌다. 주후 5 세기에 속하는 사본으로서 일부가 손상되었다. 이 사본의 뿌리는 P^{45} 의 연대인 3 세기에 속한다. 5 세기에 속하는 W 사본도 이 사본과 같은 계통이다.
6. 베자 사본 – “D” 또는 (05)로 알려졌다. 이 사본의 연대는 주후 5 세기 혹은 6 세기에 속한다. 엘돈 제이 엡에 따르면, 옛라틴역과 옛시리아역, 많은 파피루스 단편에 근거하여 볼 때 이 사본의 뿌리는 2 세기에 속한다. 그런데 쿠르트와 바바라 이랜드는 이 계통에 속하는 사본을 어떤 파피루스와도 연결시키지 않고 4 세기 이후의 것으로 제시한다. 한편 그들은 약간의 전구적 사본을 제시할 뿐이다(즉, P^{38}, P^{48}, P^{69}). 이 사본은 “서방 본문”의 대표적 사본이다. 이 사본에는 많은 첨가가 나타나는데,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헬라어 신약 제 3 판의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의 헬라어 본문은 흠정역의 기초를 이루었다.

신약의 사본은 세 가지(혹은 네 가지) 계통으로 묶을 수 있다. 같은 계통의 사본은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사본이 속한다
   ㄱ. P^{75}, P^{66} (주후 200 년 경) 복음서
   ㄴ. P^{46} (주후 225 년 경) 바울서신
   ㄷ. P^{72} (주후 225-250 년 경)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
   ㄹ. 바티칸 사본으로 불리는 “B” 사본(주후 325 년 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들어 있다
   ㅁ. 오리겐이 인용함
   ㅂ. 이 계통의 본문에는 א, L, W, 33 이 있다
2. 북아프리카에서 온 서방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본이 속한다
   ㄱ. 북아프리카에서 인용함: 터툴리안, 사이프리안, 옛라틴역
   ㄴ. 이레니우스가 인용함

ㄷ. 타티안과 옛시리아역에서 인용함

ㄹ. D "베자" 사본

3. 비잔틴 본문

ㄱ. 5,300 개의 사본 가운데 80% 이상이 이 계통에 속함(대부분은 소문자체임)

ㄴ. 시리아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인용함: 캅바도시안, 크리소스톰, 테오도렛

ㄷ. A 사본의 복음서

ㄹ. E 사본(8 세기의 것)의 신약 전체

4. 네 번째 계통으로 볼 수 있는 "가이사랴 본문"

ㄱ. 주로 마가복음에서 나타남

ㄴ. P^{45}, W, H 가 이에 속함

다. "하등비평"으로도 불리는 "본문비평"의 이론과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어떻게 사본적 변이가 생겼는가?

ㄱ. 부주의나 우연에 의한 것(대부분의 경우는 이에 속한다)

(1) 눈이 지나쳐감

(ㄱ) 필사를 할 때, 비슷한 두 단어의 두 번째 것으로 건너 뛰어 처음 단어를 모두 빠뜨리는 일(homoioteleuton)

(ㄴ) 어떤 단어나 구에서 중복되는 철자를 빠뜨리는 일(haplography)

(ㄷ) 필사를 할 때, 헬라어 구나 행을 실수로 반복하는 일(dittography)

(2) 불러주는 내용을 귀로 들으며 필사를 할 때,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로 읽어 일어나는 오류(itacism). 종종 다른 종류의 헬라어 단어나 철자를 낳는다

(3) 초기의 헬라어 본문에는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고, 구두점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어 사이의 띄어쓰기도 없었다. 단어를 잘못 구분하여 다른 단어로 표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ㄴ. 고의적인 것

(1) 본문의 문법적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한 변경

(2) 성경의 다른 본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한 변경(평행본문의 조화)

(3)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본적 변이를 하나로 종합하기 위한 변경(이본합성)

(4) 본문에 나타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한 변경(참조, 바르트 에르만, *성경의 정통주의적 오류*, 146-50, 히 2:9 에 관하여)

(5) 교리적으로 더 정통적인 내용이 되게 하려고 행한 변경(참조, 요일 5:7-8)

(6)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적합한 해석을 제공하는 내용을 난외주에 추가하였는데, 이것을 그 다음 서기관이 본문에 넣은 경우(참조, 요 5:4)

라. 본문비평의 기본적 원칙(사본적 과정에 있어서의 가능성)

1. 문법적으로 가장 어색하거나 이상한 본문이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서기관들이 본문을 매끄럽게 하려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2. 가장 짧은 본문이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서기관들이 평행을 이루는 본문에서 추가적인 내용이나 구를 가져와 추가 하려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이다(최근 이 항목은 파피루스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도전받는다)
3. 오래된 본문이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부분에서 같다면, 역사적으로 앞선 시기의 것이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지리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나온 본문이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5. 왜 본문의 변이가 생겼는가를 설명하려는 시도.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긴다
6. 성경 저자의 문학적 스타일, 어휘, 신학을 분석하여 원래의 단어(형태)를 추정한다
7. 교리적으로 약한 형태의 본문을 선호함(특히, 사본적 변이가 일어난 시기에 있은 주요한 신학적 토론과 관련된 경우, 요일 5:7-8 에서의 삼위일체론과 같이). 나는 이 시점에서 J. H. 그린리의*신약 본문 비평 입문*을 인용하려고 한다.

> "어떠한 기독교 교리도 논란이 있는 본문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신약 학도는 자신의 선택한 본문이 영감을 받은 원저자보다 덜 정통적이며 교리적으로도 약함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68 쪽)

8. W. A. 크리스웰은 버밍햄 뉴스의 크렉 개리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자신(크리스웰)은 성경의 모든 단어가 영감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적어도 번역가들이 수 세기에 걸쳐서 현대의 대중에게 제시한 책은 영감된 것이 아니다." 크리스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어 말한다 – "나는 본문비평을 아주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나는 마가복음 16 장의 후반부 같은 본문이 이단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영감받은 내용이 아니라, 단지 조합된 내용일 뿐이다 . . . 당신이 여러 사본들을 돌이켜 비교해 본다면, 마가복음의 결론부분과 같은 내용이 없음을 알게 된다. 어떤 이가 이 부분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 ."

>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는 남침례교단의 선구자도 요 5:4 에 "삽입"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행하신 일을 다룬다. 크리스웰은 유다의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참조, 마 27 장과

행 1 장)의 차이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은 자살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 있다면, 그것은 설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유다의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성경에 나온다.” 크리스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말한다: “본문비평은 그 자체가 놀라운 과학이다.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무례한 과제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중심적인 과제이다. . .”

성경의 현대역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인쇄술이 발달되기까지 성경은 손으로 필사되었다. 필사자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거나, 자신이 필사하는 사본을 “교정하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신약에 많은 추가적 내용이 있게 하였다.

마. 필사한 헬라어 신약 사본의 문제를 나타내는 몇 가지 예

1. 막 16:9 이하 – 마가복음의 헬라어 사본에는 4 가지 다른 결말이 나타난다. 흠정역에 나오는 12 절의 긴 결말이 א, B 에는 없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및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서도 이 긴 결말이 없다. 긴 결말은 A, C, D, K, U, $א^{C}$ 에 나온다. 이 긴 결말에 대한 초기의 증거가 교부인 이레니우스(주후 177-190 년에 사역함)와 사복음 대조서(주후 180 년)에 나온다. 이 긴 결말은 마가의 글이 명백히 아니다(즉, 영감받은 본문이 아님).

   이 부분에서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와 신학이 나온다. 여기에는 이단적 요소도 나온다(즉, 독을 마시며 뱀을 집는 일).

2. 요 5:4 – 이 절은 P^{66}, P^{75} 및 대문자체 사본인 א, B, C, D 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A 사본에서는 나온다. 이것은 서기관이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추가시킨 내용임이 분명하다. 이 절은 왜 많은 사람이 이 못에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유대인의 민간전승적 대답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물을 휘저어 그 물에 처음 들어간 자에 대한 보상으로 육체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3. 요 7:53-8:11 – 이 본문은 고대의 헬라어 사본이나 초기의 교부의 글에 나타나지 않고, 주후 6 세기의 베자 사본(D)에 나온다. 헬라 교회의 교부들은 12 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본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헬라어 요한복음 사본에서 7:36 이후에, 7:44 이후에, 21:25 이후에 나온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21:38 이후에서도 나타난다. 이 내용은 요한의 본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즉, 영감된 내용이 아님). 이것은 아마 예수의 생애에 대한 구전일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예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영감을 받은 사도의 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이 성경의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마 6:13 – 이 절은 א, B, D 사본에 있지 않다. 이 본문은 K, L, W 에 나오지만 변이가 있는 형태로 나온다. 이 본문은 주기도문에 대한 초기의 교부의 글에서 빠져 있다(즉, 터툴리안[주후 150-230 년], 오리겐[주후 182-251], 사이프리안[주후 248-258 년에 사역함]). 이 절이 흠정역에 나오는데, 그것은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본문 제 3 판에 이 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5. 눅 22:43-44 – 이 본문은 대문자체 사본인 $\aleph^{*}$, $\aleph^{2}$, D, K, L, X, 델타에 나온다. 이 본문은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히포리투스, 유세비우스, 제롬의 인용문에도 나온다. 그러나 이 본문은 $P^{69[아마],75}$, $\aleph^{C}$, A, N, T, W 및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사용한 사본에도 빠져있다. UBS^{4} 는 이 구절의 생략에 "확실함"(A)이라는 등급을 준다.

   바르트 D. 에르만(*성경의 정통주의적 오류*, 187-194 쪽)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고난받으심을 부인한 도세틱(불가지론적) 기록론을 반박하기 위하여 2 세기 초에 삽입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교회가 기독론적 이단과 갈등한 일은 초기에 있었던 많은 사본적 변화의 원인이었다.

   NASB, NRSV 는 이 절을 괄호 안에 넣에 제시하지만 , NKJV, TEV, NIV 에서는 "어떤 고대 사본에서는 43 절과 44 절을 생략하고 있다"고 각주에서 말한다. 이 사항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내용이다.

6. 요일 5:7-8 – 이 구절은 א, A, B 및 다른 헬라어 사본(주후 12 세기에 속하는 4 가지 사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어떤 헬라 교부도 이 본문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삼위일체론을 변호할 때에도). 이 구절은 제롬의 벌게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고대의 번역본에도 빠져 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론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나중에 삽입한 본문임이 분명하다. 이 절이 흠정역에 나오는데, 그것은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본문 제 3 판에 이 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현대의 성경 번역본에는 본문적 문제가 약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교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RSV 의 번역가 가운데 한 명인 F. C. 그란트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도 본문의 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못한다. 같은 이유에서, 사본에 나타나는 수 천 가지의 본문적 변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기독교 교리의 개정을 요구할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적 변이 가운데 90%

이상이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변이의 대부분이 다르게 읽는 것의 유래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점은 가장 초기에 속하는 좋은 사본을 통하여서도 입증되고 있다" (고든 피, *엑스포지터스 성경 주석*, 제 1 권 430 쪽).

나는 우리가 가진 영어 번역본들을 반드시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위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피와 스튜어트 1982, 30-34 쪽). 성경의 본문에는 분명히 본문적 문제가 있다. 나는 본문적 변이를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문제는 실제로 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변이는 극히 부분적이며, 그 어느 것도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실 다른 종류의 고대의 글과 비교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본문적 변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

사본적 변이의 문제 이외에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모든 번역은 간략한 주석이다. 번역이론을 이해함으로써 (1) 우리가 연구할 때 한 가지 이상의 번역본을 사용하게 되며 (2) 서로 다른 번역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번역가가 사용하는 세 가지 기본적 모델이 있다.

1. 문자적 번역으로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다.
2. 관용구로서 관용구를 번역하는 방법으로서, 단어가 아니라 절이나 구에 기초하여 고대의 본문을 번역한다.
3. 사상 대 사상의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으로서, 원본의 글자적 용어나 구가 아니라 개념에 기초하여 번역한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의 표로써 보다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

KJV	NIV	앰플러파이드 성경
ASV	NAB	필립스 역
NASB	TEV	LB
RSV	JB	
	NEB	
	윌리엄스 역	

문자적	관용구 대 관용구	사상 대 사상
단어 대 단어	절 대 절	자유로운 번역
형식적 일치	역동적 일치	풀어쓰기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글이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32-41 쪽에 나온다. 또한 이 면에 있어서, 유진 A. 니다가 세계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번역이론과 실제에 대한 책이 큰 도움을 준다.

사. 인간의 언어로써 하나님을 묘사함에 따르는 문제

우리가 어떤 곳에서 불명료한 본문을 만나게 될 때 뿐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 및 코이네 헬리어에서 막힐 때, 영어 성경에서 다양한 번역을 접하게 된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죄악됨을 인하여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제한적으로 나타내며, 또한 계시의 내용과 범주를 한정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사한 표현으로써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적합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없으며 궁극적인 것은 못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을 잘 예시하는 한 가지 경우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즉 인간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용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사용할 다른 방도는 없다.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며, 인간의 범주로써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예를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1. 신인동형적 표현(인간의 용어로 묘사되는 하나님)
   - ㄱ. 인간의 신체로서 하나님을 표현함
     - (1) 걸으심 – 창 3:8; 18:33; 레 26:12; 신 23:14
     - (2) 눈 – 창 6:8; 출 33:17
     - (3) 보좌에 앉으심 – 사 6:1; 단 7:9
   - ㄴ. 여성이신 하나님
     - (1) 창 1:2(성령님을 어미새로)
     - (2) 신 32:18(하나님을 어머니로)
     - (3) 출 19:4(하나님의 어미새로)
     - (4) 사 49:14-15; 66:9-13(하나님을 유모로, 또한 호 11:4)
   - ㄷ. 하나님께서 거짓을 조장하심(참조, 왕상 22:19-23)
   - ㄹ. “하나님의 오른 손”이라는 신약의 예(참조, 눅 22:69; 행 7:55-56; 롬 8:34; 엡 1:20; 골 3:1; 히 13:1; 8:1; 10:12; 12:2; 벧전 3:22)
2. 인간의 호칭을 하나님께 사용함
   - ㄱ. 목자(참조, 시 23 편)
   - ㄴ. 아버지(참조, 사 63:16; 시 103:13)
   - ㄷ. 고엘 – 복수를 행하는 친족(참조, 출 6:6)
   - ㄹ. 사랑하는 자 – 남편(참조, 호 1-3 장)
   - ㅁ. 부모, 아버지, 어머니(참조, 호 11:3-4)

3. 물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함
   ㄱ. 바위(참조, 시 18 편)
   ㄴ. 산성과 성채(참조, 시 18 편)
   ㄷ. 방패(참조, 창 15:1; 시 18 편)
   ㄹ. 구원의 뿔(참조, 시 18 편)
   ㅁ. 나무(참조, 호 14:8)
4. 언어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존재의 모든 영역(언어도 포함하여)에 영향을 미쳤다.
5.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하나님께 관한 완벽한 지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부정의 형태, 유추, 은유적 표현을 통하여 알려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와 더불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됨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성경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이해'를 결코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실바 1987, 118 쪽).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칼빈). 그렇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풍성하신 공급하심도 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교리주의는 점점 제한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점점 많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목적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해석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찬양하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이다(골 1:13).

성경의 권위

I. 저자의 전제적 정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로 다른 성경해석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현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성경해석이 상충됨을 보인다. 믿게 될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주제는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가진 혼동을 드러내며, 중요한 질문을 이룬다. 일반 신자들이 듣거나 읽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 나는 "성경적 권위"에 대한 전제적 정의에서 나의 답을 찾는다. 나는 내가 처한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전제"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생의 모든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루어 진다.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다른 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나는 약간의 범주를 두고자 한다. 이것이 '내가 어떤 진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문화적, 교단적, 경험적 오해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리라고 느낀다. 사실 문맥적/본문적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하여 적게 말하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내용에 보다 더 헌신하게 한다.

나는 "성경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신앙, 즉 성경의 권세로 정의한다. 성경저자가 당시에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또한 그 진리를 나의 시대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그의 시대, 그의 논리, 그의 목적에 나를 두는 것을 뜻한다. 성경저자, 책, 사건, 비유에 대하여 "그렇다면"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성경 본문의 해석에서 내가 왜, 어떻게, 어디서로 해석하는지를 다른 이에게 알릴 수 있어야만 한다. 나는 임의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게 해서는 안된다(리휄트 1984, 6). 성경이 자유롭게 말씀하여야 한다; 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어야만 한다. 성경의 원저자가 기록한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또 그 영원한 진리를 나의 삶에 실천하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나는 비로소 참된 "성경적 진리"에 참여하게 된다. 해석에 있어서 "그 때에는"과 "지금"에 대한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제한시키며, 성경본문으로부터 우리의 이해를 확증하여야 한다.

II. 유효한 해석의 필요성

신교의 종교개혁으로 인한 한 가지 폐해는 해석의 다양함이다(이것은 교단주의의 결과이다). 이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에 기인한다. 나는 하늘의 이 쪽 편에 의견의 일치가 있을 것이란 희망이 전혀 없지만, 일관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빛에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리(믿음)와 행함(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문학적, 문법적, 역사적 문맥을 고려함으로써 성경이 말씀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을 방어해야 한다.

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일반적 용법

나. 원저자가 본문에서 의도한 내용

다. 모든 성경의 균형

라. 그리스도를 닮음

오늘날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일'과 '영해'로 인한 저주는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광신적 신앙에서는 우리의 접근법을 배워 아주 효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사이어 1980, *성경의 왜곡*; 칼슨 1984, *석의적 오류*; 실바 1983, *성경의 단어와 그 의미*). 이 교재가 기대하는 바는 해석의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 뿐 아니라, 당신이 다른 해석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해석을 방어해야 하며, 다른 이의 해석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의 일반적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다.

나. 현대의 해석가들은 여러 종류의 문서(설)에 기초하여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다.

1.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
2. 문학적 문맥(책 전체, 문학적 단위, 문단)
3. 장르(역사적 이야기체, 예언, 율법, 시, 비유, 묵시)
4. 본문의 구성(즉, 요 3 장 – 종교적 남자, 요 4 장 – 비종교적 여성)
5. 구문(문법적 관계와 형태)
6. 원래의 단어가 가진 의미

ㄱ. 구약

(1) 친족 언어(셈어)

(2) 사해사본

(3) 사마리아 오경

(4) 랍비들의 저작

ㄴ. 신약

(1) 70 인역(신약의 저자들은 길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한 히브리적 사상가였다)

(2)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3) 헬라어 문학

다. 모든 성경이 한 분의 신적 저자(성령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 균형이 있다(평행을 이루는 본문들)

라. 그리스도를 닮음(예수께서는 성경의 목적이고 성취이시다.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참된 인성의 완전한 본이 되신다).

각 본문에는 단 한 가지의 적합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원저자의 의도라는 것이 기본적 전제이다. 저자가 의미한 바는 원래 한 가지의 적용점을 가진다. 이러한 적용(의미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각 적용은 원래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참조, *해석의 목적*, E. D. 힐쉬).

III. 해석적 남용의 예

부적합한 해석이 충만함(복음적인 자들에게도)에 대하여 내가 예시하는 내용을 다음에 제시한 예문을 통하여 파악하라.

가. 신 23:18 은 신자들이 자기들의 개를 "팔지" 말아야 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개는 신명기에서 가나안인의 다산숭배적 종교에 따른 남창을 뜻한다.

나. 삼하 9 장을 우리의 죄를 가리는 은혜로 해석하여, 므비보셋의 절름거리는 발은 우화적으로 "우리의 죄"를 뜻하고 다윗의 식탁은 그 죄를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시된다(고대 인들은 발을 식탁 아래에 두지 않았다).

다. 요 11:44 은 부적절한 습관, 동기, 행동을 가리키는 "묶는 것들"로 사용되었다.

라. 고전 13:8 은 방언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본문으로서 사용되었다. 문맥에서는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쳐지게 될 것을 말한다.

마. 골 2:21 은 절대 금주에 대한 본문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의 인용이다!

바. 계 3:20 은 전도용 본문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곱 교회 중 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문맥에서 떼어 내어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는 인용법'과 영해의 폐해는 크다.

가. "어떤 문장, 사상, 개념을 그 문맥에서 떼어 내는 일을 바울서신에 행할 때 치명적인 결과를 항상 가져온다. 문맥에서 떼어 내어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는 인용법'은 어떤 이단이 행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다"라고 H. A. A. 케네디 교수는 말한다. 제임스 스튜어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15 쪽.

나.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한 성경 인용법'을 바울 서신의 해석에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을 명백히 무시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영원하며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진리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뜻'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온전한 진리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얻을 수 있는 신학이다" G. E. 래드, *신약신학*, 379 쪽.

그렇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정의를 재점검하여야 한다. 우리의 해석이 원저자나 원래의 청중을 놀라게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려면, 각자 고백, 기도, 부지런한 연구의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실력있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즉, 성경의 좋은 독자, 목차에 있는 "독자들에게 주는 몇 가지 일반적 제안"을 보라). 겸손함, 배우려는 자세, 믿음으로 매일 걷는 일은 우리를 여러 종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각 문단이 한 가지의 주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단어는 문장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문장은 문단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문단은 독특한 문학적 단위와 관련을 가진다). 너무 세세한 해석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성령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각 문단의 주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우실 것이다)!

해석자

I. 조건적 전제

우리는 모두 역사적 제약을 받는다. 완전한 객관성은 기대할 수 없다(칼슨, 성경적 해석과 교회 1984, 12). 한편 우리가 가진 편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다면(최소한 그러한 편향이 일어나는 영역이 알려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편향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던칸 퍼거슨의 *성경적 해석학*(6-22 쪽)에서 우리가 사전에 가진 이해에 대하여 다룬 훌륭한 논의가 나온다.

> "우리 모두가 제각기 선입관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내용만 보기가 너무 쉽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며 교화를 주는 새롭고 더욱 온전한 계시인 진리를 지나쳐버리기가 너무나 쉽다. .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가진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이해하려 하기 보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성경 안으로 밀어 넣는 독서를 하기가 너무나 쉽다"(스팁스 1950, 10-11).

우리가 가진 전제가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다.

가. 우리의 개성은 아주 커다란 요소가 된다. 개성은 많은 혼동과 불일치를 신자들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와 같은 생각이나 분석을 다른 이도 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책은 존 뉴포트와 윌리엄 개넌이 저술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두고 싸우는가*이다. 어떤 신자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 사고 방법이 조직적이지만, 어떤 이는 보다 감성적이며 세세하고 조직적인 면에 약하다. 그럼에도, 모든 신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그 진리의 빛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을 가진다.

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 및 우리의 경험도 한 요소를 이룬다. 우리의 개성 뿐 아니라 우리가 남성인 것이나 여성인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뇌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세상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자신의 직접적 경험은 물론 우리와 가까운 자들이 경험한 일도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였다면, 그러한 일을 성경 안에서와 다른 이의 삶에서 발견하려고 살펴 볼 것임이 분명하다.

다. 영적인 은사는 개성적 차이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고전 12-14 장; 롬 12:3-8; 엡 4:7,11-12). 우리가 받는 은사의 종류는 종종 우리의 개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시 139:13-16). 출생 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에 은사를 받는 것이다(고전 12:4,7,11). 그러나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영적 은사를 받는 일은 은혜를 따라서 동료 신자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고전 12:7)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함(고전 12:12-30)이 아니다

(특히 성경해석과 관련하여). 개성은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는 조직적으로 분류를 하며 성경에 접근하고, 어떤 이는 보다 실제적 삶과 경건의 목적을 중시하며 성경에 접근한다. 우리가 성경에 다가가는 이유는 종종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주일학교에서 5 살 짜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대학에서 사용할 강의안을 준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해석의 과정은 같아야 한다.

라.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우리의 출생지이다. 같은 나라에 있는 경우에도 문화적, 신학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문화권 및 민족적 차이와 결부될 때 더욱 커진다. 우리가 가진 커다란 편향은 성경에서 오기보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온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는 미국인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이다.

마. 우리의 출생지와 더불어 출생 시기도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유동성을 가지는 요소이다. 같은 문화와 지리적 배경을 가진 경우에도 “세대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수 십 세기를 걸쳐 생긴 세대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뛰어 넘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착오가 발생할 여지 또한 많다. 우리는 21 세기의 과학적 사고와 우리들이 속한 사회적 구조와 기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각 세대 마다 제 각기 좋아하는 “맛”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면, 반드시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바. 우리의 지리적, 시대적, 문화적 환경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는 훈련도 성경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큰데, 이것은 때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가진 편향이 자녀들에게로 전해지기도, 또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이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배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에 교단적인 요소가 추가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떠한 전제를 가지게 될지는 명약관화하다. 슬프게도 기독교계에 일어난 수 많은 분열을 통하여 제 각기 다른 이 보다 뛰어난 권위와 탁월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현상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직접 읽거나 연구하여 보기도 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특정한 관점을 따라 교리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것이고 또 매우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세대의 신자는 각기 자신의 전통을 성경에 비추어 분석 하여야만 한다; 전통은 우리를 보호할 수도 눈 멀게 할 수도 있다(“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사. 우리는 모두 죄와 반역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며, 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공공연히 또는 부주의함으로 죄와 반역으로 인한 영향을 받으며, 또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해석은 항상 우리의 영적 성숙 또는 미성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상당히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가장 육적인 신자라도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 소망스럽게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속 자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에 따라 걸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경에서 더 많은 빛을 언제라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및 하나님 자신과 더 깊이 접촉할 수록, 우리의 해석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뇌사 상태"에 있는 것이다!

II. 복음적 환경의 몇 가지 예

이 시점에서, 나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로 인한 '상대적인 모습'의 몇 가지 구체적 예를 제시하려고 한다.

가. 어떤 교회에서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들이 함께 수영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룬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교회는 손쉽게 수영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다.

나. 어떤 교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심각하게 다룬다(특히 남미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교회는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신자들은 종종 자신을 남과 구분하여, 담배 피우는 지체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이 일을 문제삼는다).

다. 미국에서 여러 종류의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는데,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 1920 년대의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을 성경의 영향보다 더 크게 받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발효시킨 포도주를 분명히 드셨다.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겠는가?

다음에 제시하는 특별주제는 어틀리 박사의 주석에서 옮긴 내용이다. 당신은 이 모든 주석을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주제: 술(발효)과 술취함(술 중독)에 대한 성경적 입장

I. 성경적 용어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 9:21; 출 29:40; 민 15:5,10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가 즙을 짜낸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특징적인 구절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 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욜 1:5; 사 49:26).
4. *세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를 가리킨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야인*과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티로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이다.

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욜 2:19,24; 암 9:13; 슥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장).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를 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배경을 나타내었다(암 9:13: 욜 3:18; 슥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집회서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전 5:23).
5.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전 3:3,8; 딛 1:7; 2:3; 벧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2: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벧전 4:3; 롬 13:13-14).

III.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심각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권에서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다. 남용의 여부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물질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참조, 막 7:18-23; 롬 14:14,20; 고전 10:25-26; 딤전 4:4; 딛 1:15).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나.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이 포도주를 십일조로 드리기에 적당하다(*마 아세로쓰* 1:7)라고 유대의 전통은 말했다.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렸다.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엘휴요쓰* 6:1).

마. 포도주의 앙금(오래된 포도주) 위에 있었던 포도주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야 했다.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숙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반드시 물로 묽게 해야만 했다.

사. 최근 100 년 동안에서야 멸균적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의 사용으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신학, 당신의 성경해석을 가지고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인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적/교파적 편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적 자세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 만약 우리가 완전한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 십일조에 대하여 (1) 부자가 되는 방법(이러한 주장은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문화권에서만 강조됨) 또는 (2)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르친다. 다음 내용은 어틀리 박사의 주석에서 옮긴 내용이다.

특별주제: 십일조

마 23:23 과 눅 11:42 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십일조에 대한 언급을 하는 본문이다.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이 자잘한 일에까지 흠을 잡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약이 십일조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일반적인 드림(어떤 것이든지)에 대한 신약의 지침은 십일조를 훨씬 능가하는 내용으로서 고린도후서 8 장과 9 장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일 단지 구약의 지식만 가진 유대인이 10-30 퍼센트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다면(구약에는 십일조에 대하여 둘 혹은 세 가지의 명령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들여 십일조에 대하여 논할 필요조차도 없다!

신약의 신자들은 기독교가 새로운 율법의 준행을 요구하는 것(기독교 탈무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신약에서 재확인하지 않은(참조, 행 15 장) 옛 언약의 규칙을 이끌어 내어 특별히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번영을 약속한다(참조, 말 3 장)고 주장(현대 설교자들에 의해)하는 내용으로 교리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하다!

다음은 프랭크 스태그가 이것에 대해 한 말이다, *신약 신학* 292-293 쪽.

> "신약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드림의 은혜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신약에서 십일조를 오직 세 번 언급한다: (1) 심지어 정원의 소출에 대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한다는 비평에서(마 23:23; 눅 11:42) (2) 자기는 매주 2 번씩 금식했고 자신의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렸다고 '자신에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교만을 폭로하는 본문에서(눅 18:12) (3) 멜기세덱의 높음을, 그러므로 레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높음을 주장하는 본문에서(히 7:6-9)이다.
>
> "예수께서 성전 체계의 일부분으로 십일조 하는 것을 인정하셨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또한 원리와 행함을 위한 성전과 회당의 일반적인 관습을 지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성전 예식의 어떤 부분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지적은 없다. 십일조는 대부분 농산물이었다. 십일조를 드린 사람이 먼저 성전에서 먹었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었다. 구약에서 진술한 십일조는 동물 희생의 체계 위에 세워진 종교적 제도에서만 실행될 수 있었다.
>
>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입조가 드림을 위한 적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임을 발견한다. 그것이 강제적이거나 율법적 체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행복한 내용이 될 것이다. 어쨌든 신약에서 십일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근거있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의식으로 인식된 것이지(마 23:23; 눅 11:42) 그리스도인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관점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십일조는 유대인의 희생체계에 속한 고대의 의식적 관습과 희미하게 닮았을 뿐이다."

폴 스테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십일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할 의무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를 획일적으로 강요함에서가 아니라 각 신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는 신자가 구약의 관습을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십일조가 구약의 관습과 관계가 있다면 이는 기껏해야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전과 제사장 조직 및 사회적 종교적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부과되었던 것과 매우 희미한 유사성을 가질 뿐이다.

주후 70 년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유대교에서 의무조항으로 부과했던 십일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와 신약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매우 빈번히 십일조를 특징짓는 강제성, 율법주의, 돈벌이의 동기, 거래의 이유에서 행해지는 십일조는 신약이 지지하고 있지 않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체계에서는 많은 부분을 십일조를 드린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십일조는 반드시 은혜를 따라 구속받은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십일조는 드리는 것이 효과있다'라는 주장은 단지 세상의 실용적인 생각이 주는 유혹을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많은 것들이 "효과있다"라고 말해진다. 만일 신약 신학의 맥락에서 십입조를 드리고자 한다면, 십일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III.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목록은 계속 이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인적 요소가 주변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더는 단순화시킬 수 없는 기독교의 신앙의 형태로 분석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세대, 어느 문화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필요한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에 헌신하여야 한다. 하지만 핵심이 아닌 영역에 나타나는 각자의 문화적, 개성적 차이에 대하여는 사랑으로써 임해야 한다(참조, 롬 14:1-15:13; 고전 8-10 장). 나 자신과 성경에 대하여 더 잘 알수록, 내가 더는 단순화시킬 수 없다고 여기는 핵심적 내용은 더욱 작아진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일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분의 사역에 기초한다. 이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외의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바뀐다. 성숙은 우리를 덜 교리 주의적이게 하며, 덜 판단하는 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모두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 그 전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며, 정리하여 제시한다. 한편, 우리는 전제가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안경, 여과장치 같은 종류의 것을 가지고 있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특히 4 장과 5 장)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영원한 것과 문화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나에게 도움을 준 책이다.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내용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

IV. 해석자의 책임

앞서 논의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해석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 사항과 관련을 가진다.

1.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성경을 해석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이 일은 신자의 제사장직으로 종종 불린다(영혼의 역량). 이 구는 성경에서 단수형이 아니라 항상 복수형으로만 나온다(참조, 출 19:5; 벧전 2:5,9; 계 1:6). 해석은 공동체가 가진 믿음의 과제이다. 서구의 개인주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이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전 12:7).
2. 성경은 해석을 요구하는 책이다(즉, 마 5:29-30). 우리는 성경을 조간신문처럼 읽어서는 안된다. 성경은 역사적 배경에서 진리를 제시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그 때"와 "이제"의 간격을 연결시켜야 한다.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석을 한 경우에도, 해석에 어느 정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에 비추어 행하여야 한다.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신자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즉, 롬 14:1-15:13; 고전 8-10 장).
4. "경험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이것은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도와 순종은 우리의 해석적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5. 해석학은 각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없다. 하지만 각 본문이 의미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문맥적 성경해석 방법

I. 문맥적 해석의 역사와 발전

가. 유대인의 해석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일관성이 있는 방법은 역사적-문법적-사전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본 교재에서는 이 방법을 문맥적/본문적 방법으로 부른다). 이 방법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주후 3 세기에 우화적 방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 우화적 방법은 이 보다 수 백년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방법은 주전 20 년부터 주후 55 년에 살았던 유대인 해석가인 필로가 차용한 방법이다. 필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랍비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헬라적 지식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 이 도시는 학문의 중심지였다. 필로는 구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랍비들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히브리인의 성경과 헬라 철학가들(특히 플라톤)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다고 믿었다. 따라서, 본문의 모든 면이 의미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였다 – 각 문장, 절, 단어, 철자, 심지어 본문에 나타난 가장 사소한 장식이나 특이한 면 까지 포함하여.

랍비들의 해석은 어떤 본문이 모세의 율법과 가지는 "특별한 관련성"에 집중하는 방법이었다. 비록 필로가 문법이나 철자의 특이성에 관심을 갖기는 하였으나, 그는 플라톤주의와 관련이 있는 본문에서 '감추인 의미를 찾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필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플라톤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제를 행하기 위하여 그는 구약의 역사적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 "그의 생각을 제대로 나타낸다면, 그가 유대교에서 받은 통찰력은 헬라의 철학에서 제공하는 최상의 통찰력과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헬라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그란트와 트레이시 1984, 53-54).

그가 사용한 기본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본문을 우화화하는 것이었다:

1. 본문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하나님의 몸)
2. 언제라도 본문에서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3. 언제라도 본문에서 역사와 관련을 가진 문제가 있을 때
4. 본문을 자신의 철학적 세계관에 맞추어(우화화하여) 제시할 수 있을 때(그란트와 트레이시 1984, 53)

나. 알렉산드리아 학파

필로가 사용한 해석방법의 기초를 같은 도시에서 시작된 기독교 학파가 계승하였다. 그 학파의 처음 지도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였다(주후 150-215 년). 그는 성경이 여러 수준의 의미를 갖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의미는 성경 말씀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 문화, 시기에 적합하게 작용한다고 여겼다. 그 여러 수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역사적, 문자적 의미
2. 교리적 의미
3. 예언적 또는 모형론적 의미
4. 철학적 의미
5. 신비적 또는 우화적 의미(그란트와 트레이시 1984, 55-56)

이 해석법을 오리겐(주후 185-254 년)이 계승하였다. 그는 고대 교회의 중요한 사상가였다(실바 1987, 36-37). 그는 최초의 본문비평가, 변호가, 주석가, 조직신학가였다. 그가 사용한 방법의 예를 잠 22:20-21 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이 본문을 살전 5:23 과 관련짓는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이 점에서 세 가지 수준의 의미를 가진다.

1. “신체적” 또는 문자적 의미
2. “마음적” 또는 도덕적 의미
3. “영적 또는 우화적/신비적” 의미(그란트와 트레이시 1984, 59)

알렉산드리아의 해석법은 신교의 개혁이 있기까지 교회가 행한 해석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다. 이 방법을 어거스틴(주후 354-430 년)이 네 가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1. 문자적 – 역사적 사건을 가르친다
2. 우화적 – 당신이 믿어야 할 내용을 가르친다
3. 도덕적 – 당신이 행하여야 할 내용을 가르친다
4. 신비적 – 당신이 기대하여야 할 내용을 가르친다

문자적이지 않은 방법(2, 3, 4 항)은 순수한 영적 통찰력을 교회 전체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역사적, 비문법적 방법의 남용은 해석에 있어서 또 다른 학파의 형성을 가져왔다. 역사적-문법적 본문에 집중한 시리아의 안디옥 학파(3 세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하여 우화주의자들을 비난하였다.

1. 본문에 의미를 강요하기
2. 모든 본문에서 감추인 의미를 강요하기

3. 가공적이고 억지인 해석을 강요하기
4. 단어나 문장이 명백하면서도 정상적인 의미를 제시하지 않게 하기(사이어 1980, 107)
5. 인간의 주관적 해석을 사용하여 원저자의 명확한 메시지를 무시하기

우화적 방법은 잘 훈련을 받은 경건한 해석가가 사용할 때에만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예수님(마 13:18-23)과 바울(고전 9:9-10; 10:1-4; 갈 4:21-31)은 이 해석방법의 성경적 선례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애용하는 신학적 교리를 입증하거나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 해석방법은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이 해석방법이 가진 커다란 문제는 본문 자체가 제시하는 의미를 대체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실바 1987, 74). 인간의 죄악성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방법(또한 어떤 면에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며, 또 그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여기게 한다.

> "성경에 자신이 다른 곳에서 받은 사상을 밀어 넣어 읽고, 또 그 결과를 권위적인 것으로 여겨, 그것으로써 책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인 자기해석(eisegesis)은 언제나 위험하다"(오늘날의 성경적 권위에 대한 세계교회회의의 심포지움, 옥스포드, 1949).
>
> "오리겐은 자신과 함께 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성경의 참 의미를 저버리도록 성경을 붙잡아 고문하였다. 그들은 문자적 의미가 너무 천하고 형편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들은 문자의 표층 밑에 숨어 있는 더 심원한 신비적 의미를 추구하였다. 오직 우화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내리쳐야만, 신비적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전혀 어렵게 여기지 않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사색을 함에 있어서 견실한 교리보다는 기발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항상 선호하였고, 또 언제나 그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 . 무법한 체계가 점차적으로 승인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성경을 다루는 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칭찬을 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바꾸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형태로 능히 바꿀 수 있는 솜씨 좋고 똑똑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없었다. 이러한 일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켜 성경을 읽을 때에 누리는 참된 유익을 없애 버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수 임이 확실하다. 거짓된 성경 해석으로 성경의 진실된 의미를 훼손시키는 신성모독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다. 성경은 비옥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성경이 모든 지혜의 풍성하고 다함이 없는 원천이 됨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들의 기분이 내키는대로 다양한 의미를 제공하게 하는 비옥함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성경의 참된 의미는 자연스러우며 분명한 의미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굳건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자.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런 의미에서 떠나게 하는 '부패하고 거짓된 해석'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해석을 물리치자" (존 뉴포트의 논문, N.D., 16-17).

다.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가 아닌 해석가의 명석함을 강조'한 일로 비난받은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어떤 해석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안디옥 학파의 방법은 성경본문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미를 찾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코울 1964, 87). 그 기본적 강조점은 원저자가 전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들의 해석방법을 역사적-문법적 방법으로 부른다.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 문맥 및 언어의 정상적 용법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비유법, 예언, 상징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의 목적, 역사적 환경, 스타일, 원저자가 사용한 장르를 고려하게 하였다.

> "안디옥 학파는 성경계시의 역사적 실재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상징과 그림자의 세계에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플라톤적 접근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을 취하였다"(그란트와 트레이시 1984, 66).

다음과 같은 이들이 이 학파의 초기 지도자였다: 루시안, 다소의 디오도로스, 몹슈스티아의 테오도르, 존 크리소스톰. 이 학파는 예수의 인성에 큰 강조점을 두었다. 이것은 네스토리아 이단으로 낙인받았다(예수께서 두 본질을 가지셨다, 하나의 신적 본질과 하나의 인간적 본질)—이것은 이단적 주장이었다(참조, 요일 4:1-3). 이 점 때문에 이 학파는 영향력과 추종자를 잃었다. 이 학파의 본거지는 시리아에서 페르시아로 옮겨져 로마교회의 연구와 멀어졌다.

라. 안디옥 학파의 기본적 주장

비록 안디옥 학파의 기본적 주장이 외진 곳에서 계속 이어졌지만, 리라의 니콜라스에게서 싹을 틔운 후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하여 활짝 피어났다. 본 교재에서 소개하려는 해석학적 방법은 근본적으로 역사와 본문을 강조한 이들의 방법이다. 오리겐이 가진 장점이었던 적용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안디옥 학파의 방법은 석의와 적용을 뚜렷이 구분하였다(실바 1987, 101). 본 교재에서는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신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에, 여기서 사용하는 성경본문은 원어보다는 주로 번역본에 대한 사항이다. 연구를 돕는 자료를 소개하고 추천하지만, 많은 경우 원저자가 의도한 분명한 의미를 이러한 외부적 자료 없이도 알 수 있다. 경건하고 부지런한 학자들의 책은 성경의 배경,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이해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성경의 명백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 먼저 애써야 한다. 이 방법은 우리의 특권이요, 책임이며, 우리가 보호하여야 할 내용이다. 성경, 성령,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비전문가적 수준에서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는 일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 문맥적/본문적 접근의 두 기둥을 이룬다.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본 교재의 중요한 목표이다. 제임스 W. 사이어는 *성경의 왜곡*에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

> "조명이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임한다. 성경적 기독교에는 권위자, 조명받은 특수층, 다른 자들이 적절한 해석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성령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유일한 해석자'로 여기지 않으신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대하여도 권위를 지닌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상고함으로써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야 한다."
>
> "요약하자면, 내가 이 책 전체를 통하여 추구하는 전제는, 성경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며, 성경이 철저히 신비적인 내용이 아니고 모든 문화에 속한 보통 사람들이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다"(17-18 쪽).

우리는 어떤 이나 교단의 성경해석을 순진하게 신뢰하여서는 안된다. 이 일은 우리의 현재의 삶 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교재가 기대하는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의 해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일이다. 본 교재는 각 신자가 자신의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또 다른 이의 해석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자들이 행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지만, 본문에 대한 자신의 적절한 분석과 연구를 거쳐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

II. 해석을 위한 질문

'역사적인 면을 고려하고 본문에 집중하는 해석방법'은 모든 성경의 본문에 대하여 7 가지 질문을 묻는 일과 관련이 있다.

1.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 (본문비평)
2. 원저자가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석의)
3. 같은 주제에 대하여 원저자가 다른 곳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 (평행본문)
4.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였는가? (평행본문)
5. 원래의 청중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였는가? (원래의 적용)
6. 이 진리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날의 적용)
7. 이 진리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개인적 적용)

가. 해석을 위한 첫 번째 질문

1.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본문을 읽어야 함

처음 단계는 원문을 확정짓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는 고대의 언어인 히브리어, 아람어, 코이네 헬라어라는 주제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러한 언어를 알아야 하고, 또 모든 종류의 사본적 변이를 알아야만 하는가? 내가 성경에 대하여 가진 전제를 다시 한 번 제시하고자 한다.

ㄱ.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창조의 근본적 목적임, 창 1:26-27)

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 목적, 행하심에 대하여 기록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ㄷ. 하나님께서는 가장 특별한 계시인 자신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신약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 및 신약저자들의 해석을 제시한다

ㄹ.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겔 18:23,32; 요 3:16; 딤전 2:4; 벧후 3:9)

ㅁ. 세상에 사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번역본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ㅂ. 우리는 학자들을 무오한 해석자로 여겨서는 안된다. 학자들도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해야 한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 학자들도 그 분야에서 항상 일치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트리아나 1985, 9)

ㅅ. 학자들의 연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고전 12:28; 엡 4:11). 하지만 그들의 도움 없이도, 신자들은 성경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있다. 신자들이 완벽하거나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성경학자가 인식하는 정도로 세세하게 보지는 못할지라도, 믿음과 행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내용을 신자들도 알 수 있다

2. 현대의 번역본의 활용

현대의 번역본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산물이다. 학자들은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에서 번역하였다. 어떤 번역은 단어(단어 대 단어)나 절(역동적 등가)에 기초한 번역이 아니라 자유롭게 개념(풀어쓰기)을 제시한다. 이렇듯 많은 연구와 수고가 있었기에, 신자들은 여러 번역본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많이 얻게 된다(신자들이 각 번역본의 배경에 있는 전문적 과정이나 이론을 모르는 경우에도). 여러 번역본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신자들은 원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영어로만 읽는 자들은 번역가(들)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성경 번역가들은 원저자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진정 말하기 원하였던 내용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경우가 종종 있다"(피와 스튜어트 1982, 29).

"성경학도는 좋은 주석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원어를 모르고 번역본에 의지하는)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각 사람이 위험에 대해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학도는 본문을 연구할 때 반드시 번역본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어떤 번역본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오스본과 우드워드 1979, 53).

내가 영어역본의 적합성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인하여 당신이 격려받기를 나는 원한다. 서로 다른 번역 이론에 기초한 두 종류 이상의 번역본을 사용하여 성경을 연구하기를 나는 제안한다. 당신은 문자적 번역(즉, 직역)에 충실한 성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관용적 표현을 살린 번역본(등가 번역)의 내용과 비교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두 종류의 번역본을 비교하면, 단어의 뜻, 문장 구조, 본문의 변이와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면, 전문적인 주석과 참고도서의 내용을 찾아 보라.

3. 히브리어 사본 및 헬리어 사본에 나타나는 변이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본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가 직접 쓴 원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 우리가 가진 사본은 원본과는 수 백년 떨어진 시기의 것이다. 사해사본을 1947 년에 발견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가졌던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은 맛소라 본문으로 불리는 주후 9 세기 경의 사본이었다. 맛소라 학자들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히브리 본문에 모음(모음부호)을 집어넣은 일단의 유대인 학자였다. 이 일은 주후 9 세기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사해사본은 이 히브리 본문을 기원전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확증할 수 있게 하였다. 사해사본은 맛소라 본문에 기초한 우리의 구약본문이 가진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학자들은 히브리어 사본을 여러 헬라어 역본(70 인역, 아퀼라역, 심마커스, 테오도티안)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역본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신약에서도 같은 정도의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는 사도들이 직접 쓴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상 우리가 가진 사본은 원본보다 수 백년 이후의 것이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은 일부 책의 파피루스 조각이다. 이 사본들의 경우 주후 2, 3 세기에 속하나 신약 전체가 들어 있는 사본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헬라어 사본은 4~6 세기에 속한다. 이 사본들은 마침표, 문단의 구분이 없이 모두 대문자로 기록되었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사본은 수 천 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12-16 세기에 기록되었다(소문자체로). 그 어느 사본도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사본적 변이도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야만 하겠다(브루스 1969, 19-20).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비평이라는 과학이 등장하였다. 이 방면의 학자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본문을 분석하여 "계통"(families)으로 묶어 놓았다. 같은 계통에 속하는 사본에는 공통된 실수나 첨가가 나타난다.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알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ㄱ. *책과 양피지*, F. F. 브루스

ㄴ. "구약의 본문과 사본," *존더반 성경 그림 백과*, 제 5 권, 683 쪽 이하

ㄷ. "신약의 본문과 사본," *존더반 성경 그림 백과*, 제 5 권, 697 쪽 이하

ㄹ. *신약 본문 비평 입문*, J. H. 그린리

본문비평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이 분야에 존재하는 혼란의 적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의 각주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본문비평가들의 수고를 거의 모른다"(리휄드, 1984, 41).

이러한 사본적 문제를, 오늘날 사용하는 연구성경(영어)에 있는 난외주의 설명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RSV 와 NEB 에서는 다양한 해석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번역본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번역본은 가능성이 있는 다른 견해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책은 컬티스 보근이 편집한 *성경의 26 개 번역본*(AMG 출판사)이다. 세 권으로 된 이 책은 흠정역을 볼드체로 제시하고 26 개 번역본 중에서 3-5 가지 번역본을 제시한다. 이 책은 본문적 변이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변이를 주석이나 참고용 도서에서 다룬다.

4.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를 다룸에 있어서, 인간의 언어가 가진 모호성이 문제를 제기한다. '근본적으로 단어와 개념의 유사성에 기초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유한성, 죄성, 육체적 제한, 시간적 경험(과거, 현재, 미래) 모두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만 이러한 개념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퍼거슨 1937, 100). 이러한 은유적 형태의 묘사는 신인동형적(인간의 형태) 표현이다. 이러한 특성은 랍비들, 필로, 오리겐이 우화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실바 1987, 61).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사성에 기초하여서만 가능하다(즉, 부정, 유추, 은유). 이러한 표현은 완전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전제에 기초한 것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법이 적합한 것임을 믿는다.

인간의 언어가 가진 이 문제는 기록된 형태에서 더욱 복잡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말하는 이의 억양, 몸짓을 통하여 그가 전달하는 미묘한 차이도 이해하게 되는데, 기록된 글에서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여야 할 많은 부분을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모호성을 줄여 주며, 세 가지 언어(히브리어, 아람어, 코이네 헬라어)의 번역에서 오는 불명료성을 줄여 준다. 우리가 모든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분야에 대한 좋은 도서는 유진 니다의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경 대부분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호성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나. 해석을 위한 두 번째 질문

1. 문학적 단위의 개요

기록된 문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의 목적과 그가 제시하는 주요 단락(즉, 문학적 단위)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게 하였다. 우리가 전체적 목적과 주요 단락을 파악할 때, 더 작은 단위도 잘 이해하게 된다(문단과 단어들). 이러한 연역적인 접근에 있어서 (오스본과 우드워드 1979, 21), 그 열쇠는 개요를 파악함에 있다(테니 1950, 52). 성경의 어떤 문단을 해석하기에 앞서, 앞 뒤에 있는 본문과 관련이 있는 그 단락의 목적 및 책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이 부담스럽겠지만, 자꾸 실행하면서 이 일이 해석에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 "성경이나 문학에서, 독자가 행하는 가장 큰 실수는 연구하려는 절이나 본문의 앞뒤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지 않는 일이다"(사이어 1980, 52).

> “문맥적 해석의 원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학적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다(적어도 이론상). 때로는 그 지침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힘겹다”(실바 1983, 138).
>
> “문맥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실제적으로 의미를 만든다”(실바 1983, 138).
>
> “어떤 본문이 그 문맥에 잘 들어맞는가—이것은 책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게 하며, 책의 구조는 이것을 파악하게 돕는다—석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스튜어트 1980, 54).

이 과제를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는 한 번에 해석의 여러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원저자가 의도한 것에 비추어 어떤 본문을 해석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저자가 기록한 모든 글(책)을 읽고 또 그것에 친숙해져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에 친숙하게 되려고 그 책을 여러 번 읽을 때에, 자신이 관찰한 바를 기록하여야 한다. 처음 읽을 때는 그 책의 주요 목적과 장르를 파악하라. 두 번째 읽을 때는 문학적 단위로 불리는 큰 단락을 파악하라. 로마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를 가지고 있다.

ㄱ. 간략한 서론과 주제(1:1-17)

ㄴ. 모든 이가 잃어버려짐(1:18-3:21)

ㄷ. 칭의는 선물이다(4:1-5:21)

ㄹ. 칭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6:1-8:39)

ㅁ. 유대인과 칭의의 관계(9:1-11:36)

ㅂ. 일상생활에서 칭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실제적 부분(12:1-15:37)

ㅅ. 인사, 작별인사, 경고(16:1-27)

> “본문에 있는 본래의 주요 단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개요를 구성하라. 다른 말로 하면, 개요는 자연스러워야 하며, 인위적이거나 본문과 걸맞지 않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각 주제 안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양적), 그 요소들의 강도나 중요성(질적)을 주목해야 한다.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당신이 새로운 주제, 제목, 사항, 개념 등을 발견할 때, 당신은 새 주제를 대지에 넣어야 한다. 주요 개요의 대지를 형성한 후에는, 좀 더 작은 단락인 문장, 절, 구에 대한 개요를 작성 하라. 대지는 인위적이거나 억지로 보이지 않는 한 가능하면 상세한 것이 되어야 한다”(스튜어트 1980, 32-33).

문단적 수준(또는 그 이상)의 개요는 원저자가 말하게 하기 위한 열쇠이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매달리거나 주변적인 것에 치우지지 않게 한다. 당신이 작성한 대지를

NIV 연구성경, NASB 연구성경, 성경백과, 주석 등의 자료와 비교하라. 그러나 먼저 성경의 책을 여러 번 읽고 당신 자신의 임시적 대지를 만들라.

> "이것은 석의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다행한 점은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묻지 않고도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이다"(피와 스튜어트 1980, 24).

일단 큰 문학적 단위를 분리해 놓은 후에는, 더 작은 단위들을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다. 사상의 작은 단위들은 여러 개의 문단 또는 장이나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학적 단위에서, 문단은 해석을 위한 열쇠가 된다(리휄드 1984, 90). 우리는 문단보다 더 작은 단위를 해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절이 단어에 대하여 문맥을 이루듯이, 문단은 절에 대하여 문맥을 이룬다. 의미 있는 기본적 단위는 문단이다.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문단의 핵심을 이루는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똑같은 원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각 문단은 '저자가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진리' 안에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룬다. 우리가 이 목적을 파악하고 진리를 '설명적인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자가 사용한 골격에 대한 우리의 대지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해석이 원저자의 목적이나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남용할 뿐이며 성경적 권위도 가지지 못한다!

> "장과 절의 구분을 신뢰하지 말라. 그 구분은 원래의 것이 아니며 종종 크게 잘못되었다" (스튜어트 1980, 23).

> "문단의 구분은 때로 주관적인 일이다. 따라서 모든 편집자가 문단 구분에 일치하지 않음을 당신은 보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편집자도 문단의 시작으로 삼지 않은 곳에서 본문을 시작하고 또 어떤 편집자도 문단의 끝으로 삼지 않은 곳에서 문단을 마친다면, 당신이 한 결정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스튜어트 1980, 45).

2. 역사적 및 문화적 상황을 주목하라

문학적 단위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한 설명은 처음 질문인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본문비평) 뿐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인 "원저자가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석의)를 위해서도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두 질문은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구분이 되는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해석에 있어서 '의미'와 관련을 가지는 세 가지 중요한 면에 초점을 둔다.

ㄱ. 저자 및 책에 나오는 사건의 역사적 배경

ㄴ. 메시지가 기록된 문학적 형태(장르)

ㄷ. 본문의 문법적, 언어적 면

우화적 해석의 한 가지 특징은 역사적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문의 해석을 하는 것에 있다. 역사적 문맥을 고려하는 것은 문맥적/본문적 해석 또는 안디옥 학파의 해석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마틴 루터가 이 원리를 재강조하였다. 해석에 있어서 배경을 이루는 자료에 대한 강조는 광의의 의미에서 "고등비평"을 낳았고, 원래의 본문에 대한 관심은 "하등비평"을 낳았다. 고등비평에서, 내적(성경의 책 자체) 및 외적(세속사, 고고학 등)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ㄱ. 저자에 대한 내용

ㄴ. 저작시기에 대한 내용

ㄷ. 수신자에 대한 내용

ㄹ. 저작 환경에 대한 내용

ㅁ. 저작된 책 자체에 대한 내용

(1) 반복적인 용어 또는 독특한 용어

(2) 반복적인 개념 또는 독특한 개념

(3) 메시지의 기본적 흐름

(4) 메시지의 형태(장르)

> "세계관에 대한 혼동은 '성경을 읽는 자가 성경 자체의 지적, 문화적 골격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실패하고 이질적인 구조를 사용할 때에 일어난다. '성경의 진술, 이야기, 명령, 상징'은 성경의 골격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관련성이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것들을 성경의 골격에서 빼내어 다른 골격에 집어 넣을 때에 이러한 일이 항상 일어난다. 그 결과 원저자가 의도했던 의도를 잃거나 왜곡시키게 되며,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대신하게 된다"(사이어 1980, 128).

많은 경우 이러한 설명은 기록된 글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해석의 역사적 측면은 구조의 경우와 같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 당신이 성경의 어떤 책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기록하라. 이렇게 당신이 모은 자료는 당신에게 놀라움을 줄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대부분 성경에서만 나온다(보통 처음 몇 절에). 주석에서는 종종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이론은 실제로는 성경적, 역사적 증거에 기초하기 보다 전제에 기초한 이론이다. 당신이 성경을 통하여 모은 명백한 모든 정보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참고도서를 사용할 때에 당신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ㄱ. 구약과 신약의 각 책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개론서

ㄴ. 성경백과, 성경사전, 성경핸드북에서 성경의 각 책 별로 한 설명

ㄷ. 주석의 서론

ㄹ. 연구성경의 서론

이러한 참고도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간략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고대 역사의 여러 면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책은 일반적으로 비전문적 표현을 사용한다. 당신이 이미 보았듯이, 내가 해석을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 접근은, 먼저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세세하게 각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3. 문학적 종류(장르)

원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해석의 다음 단계는 문학적 장르와 관련이 있다. 이 용어는 스타일, 형태,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진 특별한 문학의 종류를 나타내는 불어이다. 이 사항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어떤 저자가 사용한 스타일은 우리가 그의 글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언서나 시문의 "문자적"해석에 기초한 우스꽝스러운 해석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안디옥의 "문자적" 방법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일상적 의미에 기초한 해석법이었다. 묵시적 글에 대하여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은 시문, 관용적 표현, 은유적 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산문에서 문단으로 표현되는 '사상의 기본적 단위'는 장르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을 위해, 사상의 단위를 간추려 내는 일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ㄱ. 시에 있어서 기본적 단위는 연이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단위를 함께 구성하는 일련의 시행으로 정의된다(부록 6 을 보라).

ㄴ. 잠언에 있어서 기본적 단위는 절의 중심적 주제나 요약적 주제이다. 이 주제는 같은 책, 같은 저자가 기록한 다른 책, 또는 다른 지혜문학에 나오는 같은 종류의 주제와 관련을 가진다. 여기서는 따로 분리해 낸 잠언이 아니라 의미상의 주제가 해석의 열쇠를 이룬다. 같은 주제의 동의적(같음), 반의적(반대됨), 합성적(추가적인 내용) 면을 파악하는 것이 히브리 지혜문학의 적절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다(부록 7 을 보라).

ㄷ. 예언에 있어서 기본적 단위는 그 예언의 전체 내용이다. 이것은 한 문단, 한 장, 여러 장, 또는 책 전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 주제와 스타일에 기초하여 예언의 단위를 구별할 수 있다(부록 4 와 5 를 보라).

ㄹ. 복음서에 있어서 기본적 단위는 각 본문에서 사용한 문학적 형태와 관련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그 단위는 한 사건, 한 곳에서 가르치신 일, 한 가지 주제 등이다. 이것은 한 가지 또는 일련의 사건, 한 가지 또는 일련의 비유, 한 가지 또는 일련의 예언과 관련을 가지지만, 모든 관심을 한 가지 주요 주제에 둔다. 대개의 경우, 한 복음서의 문학적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복음서에서 평행을 이루는 본문에 두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ㅁ. 서신과 역사적 이야기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문단이 기본적 단위를 이룬다. 한편, 여러 문단은 대개 더 큰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 작은 단위를 적합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문학적 단위를 파악하고 규명하는 일이 요청된다. 다음의 예는 큰 문학적 단위의 예이다.

(1) 마 5-7 장(산상설교)

(2) 롬 9-11 장(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3) 고전 12-14 장(영적 은사) [또는 고전 11-14 장,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

(4) 계 2-3 장(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는 4-5 장(하늘)

문학적 종류의 분석은 적합한 해석을 위해 중요하다(피와 스튜어트 1982, 105). 대지의 파악 및 역사적 배경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일반 독자들이 시와 산문을 구별하는 번역본을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피와 스튜어트 1982, 24). 문학적 장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석의 일반적 사항을 위하여 뿐 아니라 각 문학적 유형마다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리적 이유에 기초한다. 각 유형이 인간이 행하는 여러 종류의 의사소통을 나타낸다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자명해진다.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정죄받듯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내용을 빠트리는 것도 정죄받는다.

4. 장르와 관련이 있는 해석의 특별한 절차

나는 여러 특별한 장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별한 지침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ㄱ. 시

(1) 구조의 파악이 중요하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리듬이 아닌 사상(각 행에서 강세를 따라 표현됨)을 중심으로 시를 구성하였다.

(ㄱ) 동의적(같은 사상)

(ㄴ) 반의적(반대 사상)

(ㄷ) 합성적(사상의 발전)

(2) 시는 문자적이 아니라 회화적 표현이다. 시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열망과 경험에 대하여 말한다. 은유적 표현을 규명하고(스테렛 1973, 93-100) 그 역할과 목적을 이해하라.

ㄴ. 잠언

(1) 잠언이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적용을 찾으라.

(2) 여기서는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보다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더 큰 도움을 준다. 같은 적용을 제시하는 잠언의 목록을 만들라. 또한 같은 내용의 진리, 반대되는 내용의 진리, 혹은 발전시킨 내용의 진리를 설명하거나 이를 발전시켜 제시하는 본문의 목록도 만들라.

(3) 잠언에서 사용한 은유적 표현을 규명하고, 그것을 사용한 목적을 확인하라.

(4) 유별난 방법을 사용하여 잠언을 해석하지 말고 상식적인 의미를 따라 하라.

ㄷ. 예언

(1) 예언이라는 장르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당시의 상황 및 그 전후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역사적 배경은 이 장르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2) 우리는 중심 진리를 파악하여야 한다. 오늘날 또는 마지막 때에 적합한 일부 내용에 집중하여 그 예언의 전체적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자주 행하여지는 실수이다.

(3)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종종 말한다. 예언에 대한 남용의 문제 때문에, 나는 구약에 있는 예언의 해석을 신약에 기록된 특별한 경우로 제한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신약의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ㄱ) 그 예언의 구약적 용법 또는 암시

(ㄴ) 예수님의 가르침

(ㄷ) 평행을 이루는 신약의 다른 본문

(ㄹ) 그것의 문맥적 배경

(4)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 특히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진다: 성육신과 재림(실바 1987, 104-108).

ㄹ. 네 복음서

(1) 우리에게 네 종류의 복음서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각 복음서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 저자가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발전시켰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료를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정한 저자가 나타낸 의미를 파악한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2) 복음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학적, 역사적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서 논의하는 전체적(유리된 일부분이 아닌) 주제의 문학적 범주를 파악하라. 이 주제를 1 세기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교에 비추어 살펴보라.

(3)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기록한 것이고, 그 내용을 교회의 특수한 환경에서 해석한 것이 서신서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신서에 나오는 평행을 점검하라.

(4) 예수께서 모호하고 어려운 내용을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예수께서는 많은 내용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다—거기서 시작하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행동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도 종종 분명해 진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것이다(단 12:4).

(5) 비유와 관련하여

(ㄱ)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라. (1)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 (2) 예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 목적은 무엇인가 (3) 얼마나 많은 종류의 비유를 연속하여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라. 예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하시는지를 살펴보라.

(ㄴ) 세세하게 파고들지 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라. 보통 각 비유 또는 각 주요 인물은 단 한 가지의 중심 진리를 가진다.

(ㄷ) 비유에 기초하여 중요한 교리를 형성하지 말라. 교리는 자세하며 명료한 가르침이 있는 본문에 기초하여야 한다.

ㅁ. 서신과 역사적 이야기체

(1) 다른 문학적 장르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장르는 해석하기에 가장 쉽다.

(2) 문맥적 배경(역사적, 문학적)이 열쇠를 이룬다.

(3) 문학적 단위와 문단은 열쇠가 되는 문맥적 단위일 것이다.

문학적 종류와 관련이 있는 이 특별한 해석학에 대하여, 다음에 제시한 여러 좋은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1.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2. *개신교 성경해석*, 버나드 램
3. *언어학과 성경해석*, 피터 코테렐과 맥스 터너
4. *문학적 성경해석 방법*, 트렘터 롱맨 III
5. *석의적 오류*, D. A. 칼슨
6. *보습과 전정가위*, D. 브렌트 샌디
7. *성경 해석에 대한 기초적 안내*, 로버트 H. 슈타인

5. 구문과 문법적 면

원저자의 의도와 그가 나타내고자 한 의미를 파악하는 일의 또 다른 면은 구분 또는 문법적 구조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과정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의 어휘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관용적, 구조적 차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이것은 많은 유익을 제공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일과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하는 일은 큰 도움을 준다.

> "문법이 항상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법은 가능성이 있는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본문에 거슬리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문법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문법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정상적 법칙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스테렛 1973, 63).

문법은 일반인이 그 용법을 알고는 있지만 전문적 정의를 가지지 않고 사용하는 그 어떤 것이다. 우리가 말하기를 배울 때 문법을 배운다. 문법은 사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문법적인

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왜 원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할 필요는 있다. 문장의 구조는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을 종종 나타낸다. 여러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ㄱ. 여러 영어 역본을 읽을 때에, 그 본문의 문장 순서를 주목하라. 이에 대한 좋은 예를 히 1:1 에서 찾을 수 있다. KJV 에서는 문장의 주어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제시하지만, RSV 에서는 설명적인 구인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가 먼저 나온다. 이것이 저자의 참된 의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는가(계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있는가(영감)? RSV 역이 코이네 헬라어의 어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가 맞다(원어의 행 사이에 번역본을 넣은 성경을 사용하라). 이러한 어순과 문법적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주석이 도움을 줄 것이다.

ㄴ. 여러 영어 역본을 읽을 때에, 동사의 번역을 유념하여 보라. 해석에 있어서 동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요일 3:6,9 에서 찾을 수 있다. KJV 를 여러 현대 역본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현재시제의 동사이다. 이 동사들은 "죄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덜 지음"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문법 용어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목차를 보라).

ㄷ. 여러 영어 역본을 읽을 때에, 사상을 연결시키는 연결어를 주목하여 보라. 이 일은 절의 목적이나, 절과 문맥이 서로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가를 당신이 알 수 있도록 종종 도울 것이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연결사를 주목하라(트레이나 1985, 42-43).

(1) 시간을 나타내는 연결어

(ㄱ) 후에(계 11:11)

(ㄴ) ~하면서(행 16:16)

(ㄷ) 전에(요 8:58)

(ㄹ) 이제(눅 16:25)

(ㅁ) 그 때(고전 15:6)

(ㅂ) ~까지(막 14:25)

(ㅅ) ~할 때(요 11:31)

(ㅇ) ~하는 동안(막 14:43)

(2) 위치나 지역을 나타내는 연결어(그곳에, 히 6;20)

(3) 논리를 나타내는 연결어

(ㄱ) 이유

왜냐하면(롬 1:25)

때문에(롬 1:11)

이기에(롬 1:28)

(ㄴ) 결과

그래서(롬 9:16)

그렇다면(갈 2:21)

그러므로(고전 10:12)

따라서(고전 8:12)

(ㄷ) 목적

할 목적으로(롬 4:16)

하도록(롬 5:21)

(ㄹ) 대조

비록(롬 1:21)

그러나(롬 2:8)

더욱 더(롬 5:15)

그럼에도(고전 10:5)

그렇지 않으면(고전 14:16)

아직(롬 5:14)

(ㅁ) 비교

또한(고후 1:11)

하듯이(롬 9:25)

~과 마찬가지로(롬 5:18)

~것 처럼. . . ~도(롬 11:30-31)

비슷하게(롬 1:27)

역시(롬 4:6)

(ㅂ) 일련의 사실

그리고(롬 2:19)

첫째로(딤전 2:1)

끝으로(고전 15:8)

또는(고후 6:15)

(ㅅ) 조건(즉, "만일," 롬 2:9)

(4) 강조를 나타내는 연결어

(ㄱ) 참으로(롬 9:25)

(ㄴ) 오직(고전 8:9)

사상을 연결시키는 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조직적 성경공부*(로버트 A. 트레이나, 42-43 쪽)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그가 제시한 예가 대부분 바울의 글, 특히 로마서에서 온 것이지만, 이것은 이러한 연결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파악할 것인가를 잘 예시한다. 구약과 신약의 현대 번역본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암시적이며 드러나는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된다. 트레이나는 63-68 쪽에서 문법적 구조에 대한 뛰어난 요약을 제시한다. 주의 깊은 독자가 되라!

ㄹ. 당신이 여러 영어역본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용어나 구를 주목하라. 이것은 원저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구, "~의 계보는 이러하니라,"(2:1; 5:1; 6:9; 10:1; 11:10,27; 25:12,19; 36:1,9; 37:2). 이 구는 저자 자신이 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2) "안식"이라는 용어를 히 3-4 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함. 이 용어는 세 가지 종류의 의미를 가진다.

(ㄱ) 창 1-2 장에서 안식일의 안식

(ㄴ)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간 약속의 땅

(ㄷ) 하늘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놓친다면, 우리는 저자가 의도한 바를 놓치게 되며, 광야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멸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6. 관용어와 단어 연구

여러 영어 역본을 읽되, 특별히 NASB 처럼 직역을 한 번역본을 등가번역을 한 역본(NIV)과 더불어 사용하라.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관용적 표현을 찾아낼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언어에 기이한 것이나 기이한 표현이 있다. 관용적 표현을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스러운 표현이 될 것이다. 그 좋은 예를

"미워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신약의 용법을 주목하여 본다면(특히 롬 9:13; 눅 14:26; 요 12:25), 이 관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용어의 히브리적 배경과 창 29:31,33 또는 신 21:15 에서의 용법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 단어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워하다"가 아니라 비교를 나타내는 관용어임을 분명히 보게 된다. 전문적인 주석은 이러한 사항을 다룸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두 종류의 주석이 이에 속한다: (1) 틴델 주석 시리즈와 (2) 뉴 인터내셔널 주석 시리즈이다.

두 번째 질문인 "원저자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단어 연구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이 사항을 맨 끝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어 연구가 가장 심각하게 오용되기 때문이다. 제임스 바, *성경 언어의 의미론*; D. A. 칼슨, *석의적 오류*; 모이세스 실바, *성경의 단어와 그 의미*는 오늘날의 해석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 연구의 기교를 재평가하도록 돕는 책이다. 성경 해석가들 전체가 언어적으로 수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 "단어 연구가 석의적 오류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설교가들과 성경 교사들이 겨우 성구사전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만큼 밖에 헬라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여겨진다. 헬라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연구하여 알게 된 것을 과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칼슨 1984, 66).

어원이 아니라 문맥이 의미를 결정지음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오류의 뿌리는 '각 단어가 그 형태나 요소와 결부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의미는 어원의 연구에 의하여 결정된다"(칼슨 1984, 26).

>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그 이후에 이 단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모른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점은 성경의 저자의 원래의 청중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 .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성경의 저자가 의식을 가지고 사용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중요성에 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당시에 사용한 코이네의 상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헬라어의 역사적 발전을 고려하는 일'은 부적절한 일이 된다"(실바 1983, 38).

> "용법이 매우 중요하다. 해석자를 보호해 주는 방법은 어원의 연구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고, 해석자 자신은 문맥과 용법을 부지런지 살피는 것이다"(미켈슨 1963, 121-122).

우리는 반드시 원래의 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원저자가 의도하였고 또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자들이 쉽게 이해하였을 의미를 찾는 것이다.

성경의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의미론적 범위)를 가진다. D. A. 칼슨은 석의적 오류(25-66 쪽)에서 이 점에 대하여 아주 도움이 되는—고통스럽지만 도움이 되는—설명을 한다. 예시하자면, 영어 역본에서 시대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주목하는 것이다.

ㄱ. 살전 4:15 에 대하여, KJV 에서는 "잠자고 있는 것들을 막지 마라"로 번역하였다. ASV 에서는 그 용어를 "진행하라"로 제시하였다. "막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크게 변하였음을 주목하라.

ㄴ. 엡 4:22 에 대하여, KJV 에서는 "옛 남자가 이전에 한 대화를 벗어버리라"로 번역하였다. ASV 에서는 그 용어를 "삶의 태도"로 제시하였다. "대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크게 변하였음을 주목하라.

ㄷ. 고전 11:29 에 대하여, KJV 에서는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로 번역하였다. ASV 에서는 "정죄"라는 용어를 "심판"으로 번역하였다. 용어의 의미가 변하였음을 주목하라.

우리가 가진 신학적 체계나 교단적 배경에 따라 가지는 용어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성경의 용어를 정의하려는 약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ㄱ. 우리의 교단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것이 아닌, 원저자의 의도를 따른 정의를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ㄴ. 어떤 용어에 대하여 우리가 전문적이고 종교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맥에서 그 단어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정의한 의미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저자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종종 다른 의미에서 그 용어를 사용한다.

ㄷ.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예수께서 "세상"을 사용하신 용법

(ㄱ) 물리적인 행성(요 3:16; 요일 4:1,14)

(ㄴ)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고 또 그렇게 작용하는 인간의 사회(요일 2:15; 3:1; 5:4-5)

(2) 바울이 "몸"을 사용한 용법

(ㄱ) 신체적인 몸(롬 1:3)

(ㄴ) 죄성(롬 8:3-4)

(3) 바울이 "성전"을 사용한 용법

(ㄱ) 교회 전체(고전 3:16-17)

(ㄴ) 신자 개개인(고전 6:19)

(4) 야고보가 "구원"을 사용한 용법

(ㄱ) 영적 구원(약 1:21; 2:14)

(ㄴ) 신체적 구원(약 5:15,20)

어떤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번역본을 점검하여 그 차이점을 기록하는 일이다. 그 용어를 로버트 영의 *분석적 성구사전*이나 제임스 스트롱의 *빠짐없는 성구사전*처럼 자세히 제시한 종류의 성구사전을 살펴보라. 이 때 그 저자가 사용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라. 신약 또는 구약에서 다른 저자는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왈터 헨드릭슨은 성경 해석을 위한 평신도 가이드(1973, 54-56 쪽)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한다:

ㄱ. 저자가 그 용어를 사용한 용법

ㄴ. 그 용어와 직접적인 문맥과의 관계

ㄷ. 당시의 글에 나타난 그 용어의 용법

ㄹ. 그 용어의 어근적 의미

신약 용어의 기본적 의미를 구약에서 확인하여 보라(신약의 저자들은 코이네 헬라어로 저술한 히브리 사상가였음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단어 연구, 성경백과, 성경사전, 주석 등을 사용하여 당신이 가진 정의를 점검하라(116 쪽을 보라). 나는 신약 단어의 연구를 위한 학문적 안내를 117 쪽에서 예를 들고 있다. 이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특정한 문맥에서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여야 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라. 해석을 위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

해석자가 가져야 할 다음 질문은 "같은 주제에 대하여 원저자가 다른 곳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이다. 이것은 네 번째 질문인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였는가?"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동심원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묘사에 속한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핵심은 '영감을 받은 저자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였고 신학적 개념을 제시하였는가'이다. 이 해석 원리는 "성경의 유추"라고 불린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기준은 성경 자체이다; 따라서, 성경의 참되고 충분한 의미(이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이다)에 대하여 질문이 생길 때,

> 이에 대한 답을 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본문에서 얻고 알 수 있게 된다" (웨스트미니스터 고백, 제 9 장).

이것은 세 가지 전제를 가진다.

-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딤전 3:15-17, 피와 스튜어트 1982, 209 와 비교하라)
-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자는 성경이시다(실바 1987, 68,92,94)

이러한 전제가 맞다면, 어떤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감받은 저작이 이루는 동심원적 문맥이다.

1. 직접적인 문맥(문단 또는 문학적 단위)에 나오는 같은 주제나 같은 용어
2. 성경의 같은 책에 나오는 같은 주제나 같은 용어
3. 동일한 저자가 사용한 같은 주제나 같은 용어
4. 같은 시대, 장르,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용된 같은 주제나 같은 용어
5.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같은 주제나 같은 용어

우리가 해석하려는 특정한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록,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영향력은 더욱 일반적인 것이 되며 잠정적인 것(어느 정도)이 된다.

> "큰 문맥보다 작은 문맥에 비추어 해석하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널리 지지받고 있다. 한편 어떤 용어나 본문을 '성경 전체에 대한 폭 넓은 적용점에 비추어 연구하기'에 앞서, 먼저 그 용어나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오스본과 우드워드 1979, 154).

해석의 이 단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전체 계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크게 도움을 준다(맥퀼린 1983, 43; 실바 1987, 83; 스테렛 1973, 86).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 과정을 다루었다

1. 석의(위의 1 항)
2. 성경 신학(위의 2, 3, 4 항)
3. 조직신학(위의 5 항)

우리는 돋보기에서 망원경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옮겨가기에 앞서, 우리의 본문이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조직신학 책의 한 가지(유일한 것은 아닐 지라도) 목적이다(IX 항의 신학들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119 쪽에서 보라). 이렇게 옮겨가는 일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부담이 이 일에 따른다. 우리 자신의 배경, 선입견, 교리화된 교단적 신앙이 언제라도 끼어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평행을

이루는 본문을 사용한다면(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단순히 그 본문에 같은 용어나 구가 들어있는가의 여부 뿐 아니라 그 본문이 진정으로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종종 균형을 가져다 준다. 내가 성경 해석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사실은, 성경이 종종 역설적 표현이나 변증법적 짝으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동양적 사고구조). '단순화시킨 진술을 제시하거나, 규정화된 진리를 제시하거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신학적 입장을 옹호하려고' 성경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긴장을 제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영감으로 된 어떤 본문을 사용하여 '영감받은 다른 본문'을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낮추어서는 안된다! 성경의 진리에 나타나는 긴장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성도의 견인 대 인내의 필요성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하나님이신 예수님 대 인간이신 예수님
5. 성부와 동등하신 예수님 대 성부에 복종하는 예수님
6.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 인간 저자
7. 죄가 없음 대 죄를 적게 지음
8. 최초의 즉각적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
9. 믿음으로 인한 칭의(롬 4 장) 대 행함으로 확증되는 칭의(참조, 약 2:14-26)
10. 기독교인의 자유(참조, 롬 14:1-23; 고전 8:1-13; 10:23-33) 대 기독교인의 책임(참조, 갈 5:16-21; 엡 4:1)
11.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의 내재하심
12.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
13. 바울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
    ㄱ. 양자됨
    ㄴ. 성화
    ㄷ. 칭의
    ㄹ. 구속
    ㅁ. 영화
    ㅂ. 예정
    ㅅ. 화목함

14.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15.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구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회개
16. 구약은 영원하다 대 지나가 버렸고 아무 가치가 없게된 구약(참조, 마 3:17-19 대 5:21-48; 롬 7 장 대 갈 3 장)
17. 신자들은 종/노예들이다 대 신자들은 자녀들/상속자이다

모이세스 실바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가지는 긴장을 다음과 제시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1. 성경은 신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형태로써 우리에게 왔다.
2.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그 기록의 역사적 문맥은 어떤 요소를 상대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3.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명확하다. 하지만 많은 본문은 모호하게 보인다.
4.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존한다. 하지만 학자들의 도움은 참으로 필요하다.
5. 성경은 문자적익 역사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회화적이고 비역사적인 내용(예, 비유)도 직면한다.
6.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는 해석자의 개인적 자유를 요구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동체의 권위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
7. 성경 메시지의 객관성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전제는 해석의 과정에 주관성을 어느 정도 밀어 넣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실바 1987, 36-38).

이러한 역설적 내용에서 어느 쪽이 맞는가? 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나는 양쪽이 다 “맞다”고 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둘 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두 쪽 다 성경적이다. 우리가 해석자로서 할 일은 큰 그림을 파악하고, 단지 우리가 좋아하거나 가장 잘 알려진 요소 뿐 아니라 모든 요소를 통합시키는 일이다. 해석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쪽 가운데 단 한 쪽만 취하여 그 긴장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다(실바 1987, 38). 이러한 균형은 성구사전이나 조직신학 책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취할 수 있다. 당신이 속한 교단적 배경을 가진 조직신학 책, 또는 당신이 동의하는 관점의 조직신학 책만 참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이 당신을 훌쩍거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전하며 당신에게 소리치게 하라. 이러한 일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개념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교리적 체계를 형성하거나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의 본문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은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행해지며, 대개의 경우 교리적 입장을 형성시킨다. 주로 설명적인 특징을 가지는 성서신학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성서신학적 연구방법은 적은 양의 성경 본문을 다룬다. 이것은 한 저자, 한 시대, 또는 한 가지 장르로 그 범위를 스스로 제한시킨다. 이것은 아주 제한된 범위의 성경적 틀에서 자신의 신학적 영역을 제시한다. 성경의 본문을 제한시킴으로써,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다른 절에서 제시하는 암시를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진술에만 종종

매달린다. 이러한 일은 한 저자가 말한 내용만 우리가 전적으로 취하게 만든다. 이러한 일은 성경의 저자가 생기 있고 분명하게 말한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지 균형을 추구하는 자세는 아니다. 성경에서 역설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양극을 함께 이해하는 일에는 고통스런 씨름이 따른다. 우리는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세 가지 동심원을 살펴 보았다. 각 단계를 각 문맥에서 진행시키기를 기대한다.

1. 저자가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석의)
2.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저자가 다른 곳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 같은 시기에 속하는 성경의 저자들은 무엇을 말하였는가?(성서신학)
3. 이 주제 및 이것과 관련을 가진 주제에 대하여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조직신학)

평행본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너지는 문맥의 오류"로 불리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 "서로 관련이 없는 본문이 마치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다룰 때에, 무너지는 문맥의 오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는 일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일인데, 그 이유는 완벽하게 좋은 원리인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기"와 관련을 가진 잘못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각 본문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말하지 않도록 할 독자로서의 책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사이어 1980, 140).

> "어떤 구절을 서로 연결시키고 또 어떤 구절을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를 해석자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요점은 이렇게 본문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다른 본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틀을 제공한다는데 있다"(칼슨 1984, 140).

이러한 문제를 잘 드러내는 예를 이 교제에서 제시하였다—오리겐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와 상관이 없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문과 연결시킨 일.

마. 원래의 청중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였는가? 이것은 해석을 위한 네 번째 질문이다. 이 항목은 단지 일부분의 장르와 관련을 가진다(즉, 이야기체 역사, 사도행전). "원래의 청중이 들었던 것 같이 듣기"는 해석자가 추구하는 내용이기에, 이 항목은 우리에게 매우 도움을 준다.

바-사. 해석을 위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

1. 적용

지금까지는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해석적 질문을 다루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시대와 나의 삶에 대하여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이 단계를 처리한다면, 해석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 성경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더 깊고, 더 가까운 교제에 있다. 신학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 "키엘케가드에 따르면,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인 면에 대한 연구는 성경연구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전제적 연구일 뿐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려면, 우리는 마음의 입으로 읽되 까치발을 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성경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거나, 부주의하게 읽거나, 학적으로 읽거나, 전문가적 마음을 가지고 읽는 일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연애편지를 대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된다'"(*개신교의 성경해석*, 램, 75 쪽).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다(오스본과 우드워드 1979, 150). 한편, 적용은 해석보다 덜 복잡하다(이 영역에서는 해석자요 선포자의 창의성과 삶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단 한 가지의 원래적 의도가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확장된다(다중적인 예언 성취 또는 확장된 비유). 원저자의 의도는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이 맞지만, 종종 그것은 성령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은 아니다. 적용은 종종 다음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ㄱ. 필요

ㄴ. 상황

ㄷ. 성숙도

ㄹ. 하나님을 알며 따르기 원하는 소원

ㅁ. 문화적 교단적 전통

ㅂ. 현재의 시대적 상황

"그 때"에서 "이제는"으로 뛰어 넘는 것이 명백하게 모호한 일이다. 규명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많은 요소가 있다. 우화적인 방법이 일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현재의 필요에 적용하기를 소원하는 것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적용을 위하여 우화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실바 1987, 63,65), 나는 그러한 주장을 거부한다. 성령께서는 해석 뿐 아니라 적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안내를 주신다. 적용은 영감을 받은 원저자가 의도했던 의미와 반드시 긴밀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

2.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

ㄱ. 본문의 사소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저자가 중요성을 가지고 의도한 내용을 적용하라.

ㄴ. 우리의 모든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자세하게 말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성경의 "원리들"은 종종 우리에게 지침을 줄 뿐이다. 한편, 우리가 이러한 면을 구성하는 것은 영감에서 한 단계 멀리 있는 일에 속한다. 또한 그 적용은 종종 분명한 전제 속에 행해진다. 어떤 해석자는 모든 본문에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한다. 폭넓은 가르침을 주는 본문에서만 우리의 원리를 발견하도록 제한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한 성구인용으로 원리가 바뀌어 버린다.

ㄷ. 모든 진리를 즉각적으로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종종 성경이 옹호하지 않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모든 세대, 모든 상황, 모든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본문과 상반된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

ㅁ. 적용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과 상반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극단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적용도 위험하다.

ㅂ. 모든 성경 본문에 대하여 적용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질문할 내용을 리차드 메이휴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1986, 64 쪽)에서 제안한다.

(1) 따를 본이 있는가?
(2) 순종하여야 할 명령이 있는가?
(3) 피하여야 할 잘못이 있는가?
(4) 버려야 할 죄가 있는가?
(5) 붙들어야 할 약속이 있는가?
(6)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있는가?
(7) 살면서 가져야 할 원리가 있는가?

아. 해석자의 책임

여기서는 성경의 영원하고 타당한 진리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해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이 애매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함을 이미 언급하였다. 내가 보기에 이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동기와 자세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는 여부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지 않듯이, 당신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관점을 사랑으로써 제시하되, 성경의 어떤 특별한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성경의 새로운 빛을 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만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가 가진 빛에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더 큰 빛을 누리게 될 것이다(롬 1;17). 우리가 가진 이해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 보다 항상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잘 기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롬 14:1-15:13 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다. 한편, 자신과 같은 편에 있는 자는 좋은 형제(강한 자)이지만,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자는 모두 약한 자로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여기는 일이 만연해 있음을 인하여 나는 항상 놀라고 있다. 우리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 진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 장점과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성경이, 괴로운 자는 평안하게 하지만 평안한 자는 불편하게 한다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긴장으로 가득한 영적 성장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동안 결코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빛에 따라 행하라—그것은 성경의 빛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주께서 빛에 거하시듯이 빛 가운데 행하라”(요일 1:7). 빛 가운데 행하기를 계속하자.

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도서

1. *성경의 적용*, 잭 쿠핫첼
2. *성경의 이해와 적용*, J. 로벗슨 맥퀼킨
3. *성경을 따라 삶*, 하워드 G. 헨드릭스
4.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놓고 다투는가*, 존 뉴포트

해석자가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함정

I. 해석을 함에 있어서 논리적 과정과 문맥에 대한 초점을 함께 가져야 함

해석의 여러 원리가 남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해석학은 순수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교재에서 이미 제시하였듯이, 해석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일은 그들이 적합하지 않은 원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문맥/본문에 충실한 원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발생한다. 문맥/본문에 충실한 원리는 어떤 면에서 과학적 방법이다. 그 결과가 입증되어져 다른 사람들이 이를 계속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방법론, 해석의 관점과 논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선명한 자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는 문맥 및 본문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여러 영역에서 제공될 것이다.

가. 본문의 문학적 문맥

1. 직접적 문맥(문단)
2. 관련을 가진 여러 문단
3. 큰 문학적 단위(사상의 단위)
4. 성경의 한 책 전부(저자의 목적)

나. 본문의 역사적 문맥

1. 저자의 배경과 무대
2. 청중이나 독자의 배경과 무대
3. 그들의 문화가 가진 배경과 무대
4. 본문에 나오는 문제의 배경과 무대

다. 문학적 장르(글의 종류)

라. 문법/구문(문장의 구성요소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위에 있는 문장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마. 단어의 본래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

1. 의미적 범주
2. 저자의 용법
3. 같은 시기에 속하는 다른 저자들
4. 성경의 다른 저자들

바.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적절한 사용(중요성의 동심원)

1. 같은 문학적 단위
2. 같은 책
3. 같은 저자

4. 같은 시기
5. 함께 구약 또는 신약에 속하는 책
6. 성경 전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해석을 분석할 수 있다. 우리의 해석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본문 자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너무나 자주 보고 듣는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해석자와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음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입증될 수 있는 적합한 과정을 거쳐 해석을 제시하는가에 근거하여 냉철히 평가하여야 한다.

인간의 모든 언어에서 그러하듯이, 인간의 의사전달(말 또는 글로써)에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 해석학이 고대의 문학을 해석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학적 원리 또한 남용될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해석의 모든 기본적 원리에는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파악하게 된다면, 해석의 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때에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II. 처음 다섯 가지 해석적 질문과 관련이 있는 남용의 예

가. 우리의 전제 – 종종 우리의 개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교단, 우리의 문화가 안경이나 휠터로써 작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하려고 한다. 이러한 실제적 편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러한 편향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화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기에 앞서 성경이 당시에 말씀하고자 한 내용을 말씀하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함정을 다음에 제시한 항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윌리암 바클레이가 마 15:37-39 에서 한 해석, 이것은 예수께서 기적으로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가져 온 음식을 무리가 서로 나누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바클레이가 사용한 '논리적 실증주의라'는 철학적 휠터는 마태복음의 분명한 의도를 근본적으로 변질시켰다. 먹고 남은 빵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음을 기억하라(마 16:37).
2. 사역에 함께한 여인들에 관한 기록을 출 15:20; 삿 4:4 이하; 왕하 22:14; 대하 2:22; 사 8:3; 눅 2:36; 행 21:9; 롬 16:1; 고후 11:5; 딤전 3:11 에 나온다. 고전 14:34 과

딤전 2:11-15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본문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해석을 변질시키는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특별주제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주석한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다.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I. 구약
  가. 문화적으로는 여자를 재산으로 여겼다
    1. 재산 목록에 포함됨(출 20:17)
    2. 노예 여자에 대한 대우(출 21:7-11)
    3. 여자가 한 맹세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남성에 의해 취소될 수 있었다(민 30 장)
    4. 전쟁의 전리품인 여자(신 20:10-14; 21:10-14)
  나. 실제적으로는 남녀 간에 친밀함이 있었다
    1.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음(창 1:26-27)
    2. 부모를 공경함(출 20:12[신 5:16])
    3. 부모에 대한 존경(레 19:3; 20:9)
    4. 남자와 여자가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민 6:1-2)
    5. 딸들도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민 27:1-11)
    6. 언약백성의 한 구성원이 됨(신 29:10-12)
    7. 부모의 가르침을 지킴(잠 1:8; 6:20)
    8. 헤만(레위 족)의 아들 딸이 성전에서 음악을 지도함(대상 25:5-6)
    9. 새 시대에 아들 딸이 예언할 것임(욜 2:28-29)
  다. 여자가 지도력을 가짐
    1.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불림(출 15:20-21)
    2. 회막을 건설하는 일을 위해 여자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음(출 35:25-26)
    3. 여선지자(참조, 삿 4:4) 드보라도 모든 지파를 이끌음(삿 4:4-5; 5:7)
    4. 요시아 왕이 불러 와 새로 발견한 "율법 책"을 읽고 해석하게 한 훌다가 여선지자였다(왕하 22:14; 대하 34:22-27)
    5. 경건한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이었다
    6. 경건한 여인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했다
II. 신약
  가. 유대교와 헬라-로마 세계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인권과 특권을 거의 가지지 않은 이등국민으로 여겨졌다 (단, 마게도니야는 예외였음).
  나. 여성 지도자
    1. 경건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눅 1-2 장)
    2. 경건한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긴 안나(눅 2:36)
    3. 신자요 가정 교회의 지도자였던 루디아(행 16:14,40)
    4. 여선지자였던 빌립의 네 딸(행 21:8-9)
    5.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뵈뵈(롬 16:1)
    6.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가(브리스길라) (행 18:26; 롬 16:3)
    7. 바울의 여성 동역자인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의 자매(롬 16:6-16)

8. 유니아(KJV)는 아마도 여사도였다(롬 16:7)
9.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

III. 다양한 성경의 예를 오늘날의 신자가 어떻게 균형있게 취할 것인가?

가. 원래의 문맥에서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진리로부터 어떻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영원히 유효한 진리를 구별해 낼 수 있는가?

1. 우리는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우리는 명백히 역사적 환경 가운데 영감을 받은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ㄱ. 이스라엘의 예배(즉, 예식과 의식)
   ㄴ. 제 1 세기의 유대교
   ㄷ.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조건적인 바울의 진술
      (1) 이교도인 로마의 법적 제도
      (2) 노예로 남아 있는 것(7:20-24)
      (3) 독신(7:1-35)
      (4) 처녀(7:36-38)
      (5) 우상에게 바친 음식(8 장; 10:23-33)
      (6) 주의 만찬에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11 장)
3. 하나님은 자신을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시대에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우리는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역사적 환경에 맞추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다.

나.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적절한 해석의 기초요 중요한 면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야만 한다. 이제 여기에 여자 지도자의 문제가 제기된다(해석에 있어서 실제 문제는 그 용어의 정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목사외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여집사와 여선지자는 지도자로 여겨졌는가?) 고전 14:34-35 과 딤전 2:9-15 에서 여자는 공공 예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바울 당시의 문화나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잠잠케 하기를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 바울 당시에는 그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너무 풀어져 있다. 바울의 말과 가르침은 제 1 세기의 지역교회 상황에만 들어맞는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상당히 불편하다. 내가 누구라고 내 생각이나 내가 속한 문화로 하여금 영감받은 저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한단 말인가!

한편 성경에 여성 지도자들의 실례가 나오는데(바울서신에서 조차, 참조, 로마서 16 장)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바울이 공공예배에 대해 고전 11-14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바울이 11:5 에서는 여자가 공공예배에서 머리를 가리고 설교나 기도를 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4:34-35 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집사들(참조, 롬 16:1)과 여선지자들(참조, 행 21:9)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나로 하여금 바울의 언급(여자에게 제한을 주는)을 1 세기의 고린도와 에베소에 국한시키게 한다. 두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새롭게 얻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참조,

브루스 윈터, *바울이 떠난 후의 고린도*). 즉 그 교회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였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여야 했다.

오늘날은 바울 시대의 상황과 정반대이다. 오늘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복음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공적 예배의 궁극적 목적인가? 바로 복음전도와 제자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들을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기뻐하시는가?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다!

나는 바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내가 가진 신학도 바울신학이 주된 내용이다. 나는 현대의 여성운동자들로부터 과도하게 영향을 받거나 그들에 의해 조종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편 교회는 노예제도, 인종차별, 편협주의, 성차별 등의 부적절한 관습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따름에 있어 느렸다고 나는 느낀다.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히 행동함에 있어서도 느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여성을 자유롭게 하셨다. 문화적으로 묶여져 있는 본문이 그들에게 다시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나는 담대히 주장한다

한 마디 더: 해석가인 나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어지러운 교회였음을 안다. 은사를 갖고 자랑하고 과시했다. 여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었을 것이다. 나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 거짓교사들은 여자들을 이용하여 에베소의 가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리하여 말하게 했다.

다. 추가적인 독서를 위한 제안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61-77 쪽)
고든 피의 *복음과 성령: 신약의 해석학과 관련된 질문*
왈터 C. 카이저, 피터 H. 데이빗, F. F. 브루스, 맨프렛 T. 브랜치의 *성경의 난해구절* (613-616; 665-667 쪽)

3. 로마 카돌릭에서는 요 21:15-17 의 본문을 주교제도를 옹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 본문을 살펴볼 때, "어린 양"과 "양"을 주교와 사제 및 그들의 사역에 맡겨진 자들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는 일 – 이것은 본문의 역사적 문맥 및 문학적 문맥과 관련을 가진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남용은 오늘날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어떤 본문에서 저자의 시대 및 저자가 의도한 목적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어떤 것이라도 다 말하게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오류는 터무니 없는 지적이 아니라, 흔히 행해지고 있으며 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1. 과거에 어떤 설교가는 신자들에게 개를 팔지 말아야 함을 신 23:18 에 근거하여 가르쳤다."개"라는 용어는 신전의 남창(신명기)에서 짐승(오늘날)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은 무법한 행위에 대한 본문으로 골 2:21 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절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하는 내용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3. 오늘날의 구령자들은 이 말씀을 기독교 교회의 문맥(계 2-3 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계획"에 따른 최종적 호소로 사용한다. 이 본문은 최초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재헌신이 그 교회의 각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본문이다.
4. 오늘날 몰몬교에서는 "죽은 자들 위한 침례"에 대한 본문으로 고전 15:29 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절의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없다. 이 본문의 직접적 문맥에서는 구원의 유효성을 다룬다. 이 절은 같은 진리를 확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예 가운데 하나를 이룬다.
5. C. I. 스코필드는 딤후 2:15 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며(분변하며)"를 인용하여, 성경을 7 가지로 구별되는 언약을 따라 나누는 일을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사용한다.
6. 로마 카톨릭에서는 요 6:52 이하의 본문을 화체설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화체설은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주장임). 이것은 이러한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요한은 주님의 만찬 자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나눈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요 13-17 장). 이 본문은 문맥적으로 볼 때 성찬이 아니라 오천 명을 먹이신 것과 관련이 있다.
7. 갈 2:20 에서 성화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칭의의 완전한 효과에 둔' 문맥적인 초점을 무시하고 행하는 설교이다.

다. 우리가 문학적 장르를 무시하는 일 – 이것은 원저자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이 오해는 원저자가 말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형태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다. 각 문학적 형태는 해석을 위한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문자주의자는 시 114:3-6 의 시를 이야기체인 역사로 바꾸려고 애쓴다—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자신의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자주 판단한다.
2. 어떤 사람은 계 12 장과 13 장에 있는 묵시적 단락을 글자 그대로 '사람들과 짐승들'로 해석하려고 애쓴다.
3. 어떤 사람은 눅 16:19-21 의 비유에서 "지옥"을 묘사하려고 애쓴다. 이것은 시리즈를 이루는 5 가지 비유 가운데 다섯 번째 비유이다. 이 연속적인 비유는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의도하신 한 가지 내용과 관련이 있다(눅 15:1-2). 여기서 사용한 용어는 *게헨나*가 아니라 *하데스*이다.

라. 우리가 은유적 표현이나 문화적 관용법을 무시하는 일은 또 다른 종류의 오류이다. 우리는 모두 상징적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이나 관용법이 얼마나 이상한 표현이 되겠는가? 나는 어떤 인디안 목회자가 굉장히 즐거웠다라는 뜻으로 나에게 "괴로울 만큼 간지럼을 탔다"라고 한 말을 회상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의 사용을 재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무섭도록 좋았다"; "나는 모든 귀를 열고 있다"; "그것은 나를 정말 죽인다"; "가슴에 십자를 긋고 죽기를 바라는 자세로 (맹세한다)."

1. 성경에는 관용어도 나온다.
   ㄱ.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눅 14:26; 요 12:25; 롬 9:13; 말 1:2-3 에 나오는데, 이것은 비교를 나타내는 히브리적 관용어이다. 이 표현은 창 29:31,33 과 신 21:15 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많은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ㄴ. "손이나 발을 끊어 버려라"와 "네 눈을 빼버려라"라는 마 5:29-30 의 표현은 문자적으로 취할 명령이 아니라, 동양적인 과장법에 속한다.
   ㄷ. 막 1:10 에서는 성령을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나 성경은 "비둘기 같이" 또는 "비둘기로서"(참조, 눅 3:22)라고 말한다.

마. 우리가 지나치게 단순화함에 따른 오류.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는 의미에서 복음서가 단순한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음서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종종 그 요약이 불완전함을 인하여 오류에 빠진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이 요약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개념을 빠뜨리고 있다(롬 1:18-2:16).
2.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요약은 각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개념을 빠뜨리고 있다(막 1:15; 행 20:21).
3. 구원은 거저로 누린다(엡 2:8-9). 하지만 이 요약은 구원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빠뜨리고 있다(엡 2:10).
4.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이 요약은 예수께서 참으로 인간이시라는 개념을 빠뜨리고 있다(요일 4:2).

바. 우리가 취사선택함의 오류 –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일 및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한 성구인용과 비슷한 종류의 오류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학을 지지하는 성경구절만을 선택하거나 그러한 구절만 모아 제시한다.

1. 한 가지 예를 요 14:13-14; 15:7,16; 16:23 에서 볼 수 있다. 이 구는 "너희가 기도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이다. 적절한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다른 기준을 주장하여야 한다.
    (ㄱ)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 7:7-8
    (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일 5:14-15,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가 의미하는 바이다
    (ㄷ) "의심을 하지 말고," 약 1:6
    (ㄹ)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약 4:1-3
2. 민 6:5; 레 19:27 과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고려할 때, 고전 11:6 의 본문을 사용하여 긴 머리를 가진 남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고전 11:5 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고전 14:34 에 기초하여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지나친 과장이다. 두 본문은 같은 문학적 단위에 들어 있다.
4. 고전 14:5,18,39 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고전 13:8 에 기초하여(고전 13 장은 사랑외에는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주장한다) 방언을 금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하는 일은 부당하다.
5. 마 15:11 및 보다 간접적 본문인 행 10:10-16 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음식과 관련이 있는 레 11 장의 규정을 강조 하는 일은 부당하다.

사. 우리가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오류 –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느라, 우리는 종종 원저자의 의도를 놓친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1.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창 4:17
2.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하데스에서 계시는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인가를 궁금해 한다. 벧전 3:19
3.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를 궁금해 한다. 벧후 3:10

아.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로 여김으로 인한 오류 – 성경에서 옹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종종 있다(피와 스튜어트 1982, 85). 우리는 단순한 역사 기록에 근거하기 보다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학과 윤리를 형성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남용하는 오류. 예상하듯이,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이시다(그란트와 트레이시 1984,95).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리킨다. 그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시다(골 1:15-

23). 비록 구약이 스스로 서 있지만,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뜻한다(스테렛 1973, 157-171). 우리가 반드시 신약의 새로운 계시에 비추어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구약의 강조점은 바뀌었고 세계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었다. 새 언약이 모세의 언약을 대신하였다(참조, 히브리서와 갈 3 장).

이러한 오류의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어떤 이는 지나치게 해석하고, 어떤 이는 못 미치게 해석하고, 어떤 이는 거짓되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문맥상에 나타난 원저자의 주요 의도를 붙잡으며, 또 기도와 겸손함으로 성경에 나아온다면, 우리는 이러한 오류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야기체로 된 성경의 본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일까?—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성경 안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 1. 그들은 절망적이다, 즉 자기들의 상황에 적용하기 원하는 내용을 절실히 구한다
> 2. 그들은 인내하지 못한다: 지금, 이 책에서, 이 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갖기 원한다
> 3.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즉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개인적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기대한다" (피와 스튜어트 1980, 84).

해석의 실제적 과정

I. 영적인 면

성경연구는 성령님께 대한 의존 및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와 분석을 예리하게 하는 일의 조합이다. 성경연구의 영적인 면을 논의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해석을 경건하고, 학식이 있고, 신실한 신자들이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각각 성경을 알려고 하고 있고 또 확증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많이 다르고 심지어 서로 적대적인 점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신자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예시하는 내용은 각 해석자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우선권"을 가진다. 기도는 참된 해석으로의 자동적인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그 양이나 질에 상관없이). 오히려 이것은 첫 단계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성령님 없이 성경연구를 하는 것은 물 없이 수영을 하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석의의 질과 상관이 있음을 뜻하려는 것이 아니다. 석의의 질은 다른 추가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 진리를 알 수 없다(칼빈).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기를 내키지 않아 하시는 것을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함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것이다(요 14:26; 16:13-14; 고전 2:10-16).

나. 또한 개인적인 정화가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으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죄 없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영적 진리이며, 죄는 영적인 것에 대한 장애물이다. 우리는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요일 1:9). 우리는 성찰을 위하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한다(시 139:1,23-24).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발전시켜야 한다(시 9:7-14; 42:1 이하; 119:1 이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 오시며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슥 1:3-4; 약 4:8).

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알게 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것을 실천하기).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아는 성경적 지식은 많이 있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요일 1:7). 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가진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이다. 적용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일 행해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이미 가진 빛을 따라서 산다면, 더 큰 빛을 누리게 될 것이다(롬 1:17).

> "성경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제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보화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이것은 그러한 지식적 이해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이해에 그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가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영적 보화인 영적 이해로 나아가야만 한다. 또한 그 영적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깨어 있는 일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따라서 성경학도가 자신이 가진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넘어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책의 풍성한 유산을 누리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과 영적 수용성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 *성경의 관련성*, H. H. 라울리(19 쪽).

II. 논리적 과정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분석적 독서와 개요를 만드는 일이 이해에 있어 열쇠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성경의 한 책을 반복적(4 번에 걸친)으로 읽는 독서방법을 제시한다.

가. 여러 번역을 읽으라.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들을 읽으라.

1. 축어적 역본(단어 대 단어)
   - ㄱ. 킹제임스역
   - ㄴ. ASB
   - ㄷ. NASB
   - ㄹ. RSV
2. 등가적 역본
   - ㄱ. NIV
   - ㄴ. NAB
   - ㄷ. TEV(현대영어성경)
   - ㄹ. 예루살렘 바이블
   - ㅁ. NEB
   - ㅂ. 윌리암스 역
3. 개념 대 개념으로 제시한 역본
   - ㄱ. 앰플러파이드 성경
   - ㄴ. 필립역

ㄷ. 리빙 바이블

당신이 연구를 위해 늘 사용하는 성경은 1 항이나 2 항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 또한 여러 역본을 하나로 제본한 성경은 동시에 여러 번역본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

나. 성경의 한 책 또는 한 문학적 단위를 단번에 전부 읽으라

1.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들여 읽으라(정해진 시간 또는 일정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독서는 다른 사람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당신은 연애편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읽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한 책을 단번에 읽도록 하라.
2. 본문에 초점을 둔, 비기교적인 이 방법의 열쇠는 읽고 또 읽는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친숙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교재의 실제적인 방법은 이러한 과정에 초점을 둔다.

ㄱ. 해석을 위한 7 가지 질문

ㄴ. 4 단계의 독서 및 과제

ㄷ. 연구를 위한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함

다. 당신이 본문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라(즉, 기록을 잘하라)

당신이 읽은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라. 이 항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그것은 성가신 것이 아니다. 다른 이의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즉석식 성경지식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조절하여야만 한다.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위해서 기도, 시간, 훈련, 지속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혜택은 매우 크다.

1. 당신이 연구하려는 성경의 한 책을 단번에 읽으라. 먼저 신약의 짧은 책으로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그 책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주 좋다. 이 방법은 시간에 대한 당신의 청지기직을 위하여 좋으며, 또 연구 시간을 통하여 배경을 이루는 내용 및 문맥을 당신이 파악하기에도 쉽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당신에게 성경적인 균형을 제공할 것이다. 이 일은 당신이 어렵고, 친숙하지 않고, 역설적인 진리를 가진 본문을 다루어 나가게 할 것이다.

   성경의 저자가 그 책을 기록할 때에 가진 전체적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당신 자신의 말로써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또한 이러한 중심적 주제를 열쇠가 되는 절, 문단, 장에서 파악하라. 그 목적이 문학적 장르를 통하여 종종 드러남을 기억하라. 그 책의 장르가 이야기체로된 역사가 아니라면, 그 문학적 장르에 대한 특수한 해석학적 과정을 참조하라(*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2. 같은 번역을 사용하여 또 다시 읽으라. 이번에는 저자의 사상(생각)을 제시하는 주요한 구분을 주목하라(문학적 단위). 주제, 시간, 제목, 억양, 장소, 스타일 등은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게 한다. 여기에서 책의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주제의 분명한 변화에 집중하라. 영어 성경의 장절에 따른 단락의 구분이 되지 않게 하라. 영어 성경의 장절은 종종 부정확하며 잘못 이끈다. 간략한 묘사적 문장으로 당신이 구분한 각 단락의 요점을 제시하라. 이 문장은 각 단락의 주제나 제목을 나타낸다. 각 단락을 파악한 다음에, 서로 관련이 있는 주제, 대조, 비교, 인물, 사건 등으로 이 단락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 과정은 겉으로는 관련이 없는 본문들로 보이지만, 사실상 저자가 가진 전체적 구조에서는 큰 규모의 문학적 단위를 이루는 본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종류의 문학적 단위는 원저자가 가진 생각의 흐름을 나타내며, 또 그가 원래 의도하였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낸다.

라. 이 시점에서, 당신이 파악한 대지 및 전체적 목적을 다른 신자들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당신이 혼자 해석한 내용이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문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과 다른 결론으로 이끈다면, 당신의 마음 속으로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헨드릭슨 1973, 38).

> "석의가 단순히 다른 이의 생각을 기계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석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당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이 단계에 임하기 전에 필요하다"(스튜어트 1980, 39).

>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이해를 다음 항목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 1. 우리의 목회자
> 2. 우리의 동료 신자
> 3. 역사상 정통적인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한 성경"(사이어 1980, 15)

당신이 사용하는 연구성경에서는 각 책의 서론에서 대지를 소개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각 장의 주제를 페이지의 위쪽 또는 본문의 특정한 위치에서 제시한다. 당신 스스로 대지를 갖기 전에는 다른 이의 대지를 참고하지 말라. 당신의 대지를 수정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를 지나친다면, 문학적 단위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불구의 상태로 만들 것이다.

성경의 각 책에 대한 대지는 연구성경 뿐 아니라 다음의 항에서도 나온다

1. 주석

2. 구약개론이나 신약개론에서 성경의 각 책에 대한 내용

3. 성경백과나 성경사전에서 성경의 각 책에 대한 내용

마. 성경의 한 책 전체를 또 다시 읽으라.

1. 당신이 구분하고 대지를 구성한 문학적 단위(다른 주제)에 따른 성경의 문단 구분을 다른 종이에 기록하라. 대지는 원저자의 개념과 그 개념이 서로 가지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다. 문단은 문맥적 단위 보다는 작은 단위의 논리적 구분이다. 당신이 각 문학적 단위를 이루는 문단을 구별해 낼 때에 그 문맥을 한 문장으로써 설명하라. 당신은 책의 큰 문학적 단위에 대하여 이미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대지를 만드는 간단한 절차는, 당신이 사소한 것에 매달려 커다란 것을 못보는 일이 없게 당신을 도와 줄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단 한 가지 번역본만 가지고 씨름하였다. 이제는 당신이 구분한 것을 다른 번역본의 구분과 비교하라.

   ㄱ. 큰 단위의 구분

   ㄴ. 문단의 구분

   차이가 발견되는 곳에 차이점을 적으라

   ㄱ. 주제의 구분

   ㄴ. 문단 구분

   ㄷ. 사용한 단어

   ㄹ. 문장 구조

   ㅁ. 난외주(이 항목은 대개의 경우 사본 간의 변이와 관련이 있다. 이것에 관한 전문적 사항은 주석을 참조하라)

2. 여기서는, 다음 질문(역사적 배경)에 대한 답을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절에서 찾아보라.

   ㄱ. 누가 본문을 기록하였는가

   ㄴ. 누구에게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가

   ㄷ. 왜 이 본문을 그들에게 주신 것인가

   ㄹ. 이 본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ㅁ. 어떠한 역사적 환경이 관련을 가지는가

   이러한 종류의 내용은 책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 있는 책들의 역사적 배경을 그 책 자체(내적 증거), 또는 이와 평행을 이루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한다. 이 시점에서 "전문적인" 주석을 참조하는 것이 빠른 길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당신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기쁨이 커지고, 확신이 더 생기고, 또 당신이 "전문가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된다 (오스본과 우드워드 1979, 139; 젠센 1963, 20).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적어놓으라: 반복되는 단어나 구가 있는가? 주목할만한 구문이 있는가? 성경의 다른 책과 연속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있는가? 당신이 가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책 전체를 다시 읽으라. 당신이 가진 이러한 여러 질문과 각기 관련을 가진 부분을 본문에서 발견한다면, 그 단원에 그 내용을 기록하라. 실행과 주의깊은 독서를 통하여 스스로 본문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경험하며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바. 당신이 관찰한 내용을 점검하라

드디어 당신이 성경의 한 책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에 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해석은 사회적 과정이다. 가장 좋은 결과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합쳐질 때 얻어진다. 어떤 시대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 다음 세대에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또 누릴 수 있는 유산이 된다. 다음 시대의 학자들은 이전 시대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반드시 활용하여야 한다. 이전의 세대가 초래한 결과를 무시하고, 모든 면에서 이전의 결과에 완전히 맞서 나가는 신약의 어떤 해석자도 지혜롭지 못하다. 그는 이전의 성취된 내용에 가능한 한 깊이 익숙해져야 한다. . . 이전 세대의 학자들이 저술한 주석들은 해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다나 1946, 237).

> "찰스 H. 스펄전. . ."성령께서 자신에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드러내 주셨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다른 이들에게는 상당히 조금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헨드릭슨 1973, 41).
> "자기 스스로 먼저 연구하는 일에 대한 강조는 주석의 내용을 확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반대로, 적절한 곳에서 주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결한 단계에 속한다. 스펄전은 옳게 지적하였다. '성경학도가 범하는 두 종류의 상반되는 실수는 이렇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중고품을 취하려는 경향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것도 거부하려는 경향이다'"(트레이나 1985, 9).

자신의 언어로 된 주석이나 연구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숙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저술한 성경적 도서나 노트로서 그곳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이 단계를 대신할 수 있다. 당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자들이 연구한 것을 활용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온 것이든지 또는 역사적 자료에서 온 것이든, 역사적 배경에 대한 주석가들의 이론 및 역사적 환경에 대한 그들의 논의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저자의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히브리서에 대한 추정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제 6 장과 10 장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 추정적인 역사적 환경이나 교단적 전통에만 근거하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 평행을 이루는 중요한 본문을 살펴보라

해석적 중요성을 가지는 동심원적 평행본문을 주목하라. 한 특정한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일은 해석에 있어서 큰 위험이 된다. 한편,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시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당신은 어떻게 성경의 폭넓은 진리를 바라보는가? 이것에 있어서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난다(퍼거슨 1937, 101). 그러나 우리가 연구에서, 책의 원저자와 문맥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사 그 시대에 어떤 것을 말하게 하셨다. 어떤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다른 본문과 연결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본문에 대하여 잘 알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좋아하고, 친숙하며, 또 교단적 배경에 따른 이해를 가지고 임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조직신학 또는 교단적 편향으로써 영감받은 본문을 망가뜨리며 대치시키게 된다! 본문에 우선권이 있다! 내가 동심원적 해석으로 부르는 접근방법은, 단계별로 절차를 따라 특정한 본문에서 출발하여 성경 전체로 나아간다.

1. 전체 성경 안에서 당신의 본문이 가진 논리적, 문학적 입장을 주의깊게 관찰하라. 성경의 한 책을 전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먼저 전체를 관찰한 후에 각 부분의 중요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는 저자로 하여금 그의 배경과 목적을 말하게 해야 한다. 특정한 본문과 그 본문의 직접적 문맥이 스스로 요구하지 않는 한, 결코 그 본문과 문맥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감을 받은 어떤 특별한 성경저자가 말한 내용을 진지하게 다루어 보기도 전에, 모든 종류의 문제에 답하는 일을 우리가 종종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신학적 편견을 방어하려 든다!
2.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여 그 기본적 메시지를 충분히 파악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 속하는 논리적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 단계는 동일저자가 기록한 성경의 다른 책에 대한 것이다. 이 단계는 쌍을 이루는 다음의 책을 다룸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3. 해석적 동심원의 다음 단계는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다른 저자들에 대한 것이다.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와 미가, 학개와 스가랴에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동심원은

같은 주제를 다룬 같은 종류의 문학적 장르와도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을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본문은 비록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였지만,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으며 묵시적 장르로 기록된 본문이다. 이 동심원은 종종 "성경신학"으로 불린다. 이것은 인식하고 있는 기초에 근거하여, 성경의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석의가 파이의 한 입에 해당된다면, 성경신학은 한 몫에 해당된다. 석의가 독창에 해당된다면, 성경신학은 합주에 해당된다. 우리는 사상적 사조, 주제, 동기, 특징적 단어, 구, 당시의 구조, 문학적 장르, 제목 또는 저자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으며(딤후 3:16)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성경의 유추)는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하여야만 한다. 석의가 파이의 한 입에 해당되며 성경신학은 한 몫에 해당된다면, 조직신학적 교리는 대규모 합창단에 해당된다. 당신이 해석을 위한 각 동심원을 철저히 밟지 않는 한, "성경이 말씀하기를. . ."이라고 결코 말하지 말라.

아. 동양인들은 진리를 긴장관계에 있는 쌍으로 제시하였다

성경은 진리를 종종 변증법적 쌍으로 제시한다. 균형(역설)을 이루고 있는 진리를 놓친다면,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 메시지를 왜곡시키게 된다. 균형을 상실한 진리의 제시는 오늘날 교단주의자들이 가진 특징이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영감을 받은 다른 저자들)도 말하게 해야 한다. 이 해석의 단계에서는 관련이 있는 평행본문(확증하거나, 보충하거나,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이 크게 도움을 준다. 성경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일은 성경의 메시지에서 어떤 내용을 제거하는 일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해야 하겠다.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고 단순한 진술로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진술의 관계는 때때로 상당히 복잡하다. 해석에 있어서 꽃은 큰 그림, 곧 균형을 이룬 진리이다.

자. 조직신학

우리가 어떤 교리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신학의 경우와 비슷하다. 우리는 개념, 주제, 단어들의 안내를 받으며 다음 사항을 이해한다.

1. 관련을 가진 다른 본문들(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2. 그 주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는 본문
3. 같은 진리에 속한 다른 요소들
4. 구약과 신약의 상호교차

성경이 진실되게 말하지만, 어떤 문맥에서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항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관련된 진리가 가장 분명하게 제시된 성경 본문을 발견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연구를 위한 어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가장 적게 해석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세한 성구사전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사전을 통하여 평행을 이루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상이나 개념적 평행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종종 충분하다. 성구사전은 같은 영어단어로 번역된 여러 성경의 원어를 제시할 것이다. 오늘날 영어로 된 성구사전으로는 KJV, NASB, NIV 역에 대한 것이 있다. 우리는 영어 단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동의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성구사전은 원어의 목록을 따라서 제시하며, 또한 그 단어가 성경의 어느 곳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제시한다. 이 시점에서, 동심원적 접근(평행을 이루는 본문들)이 또 관련을 가진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그 문학적 단위의 직접적 문맥
2. 책 전체라는 보다 큰 문맥
3. 같은 저자
4. 같은 시기, 문학적 장르, 또는 구약이나 신약
5. 성경 전체

조직신학 책은 기독교 진리를 범주별로 나누어 놓은 후, 그 주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룬다. 그들은 모든 자료를 철저히 교단적인 입장을 따라 종종 연결시킨다. 조직신학은 모든 연구도서 가운데 가장 편향이 심하다. 한 권의 조직신학 책만 참조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고, 왜 그것을 믿으며, 또 성경의 어디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당신 자신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조직신학 책들을 활용하라.

차.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활용

당신이 연구하는 단어에 대한 평행본문이 적을 경우에는, 그 평행본문을 전부 읽고, 그 단어가 나오는 문단도 모두 읽으라. 만일 관련 자료가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동심원적 방법을 또 다시 사용한다. 즉, 직접적인 문맥을 이루는 문학적 단위에서 나오는 평행본문을 읽고, 책 전체를 포함하는 보다 큰 문맥에 속하는 본문을 읽으며, 같은 저자가 저술한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여러 곳을 선택하여 읽으며, 같은 시기에 속하는 책, 같은 문학적 장르에 속하는 본문, 구약이나 신약, 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활용하라.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라. 성경의 본문을 분리시켜 생각하도록 하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장르가 함께 섞여 있는 본문을

각각의 문맥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은 채, 뒤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평행을 이루는 본문(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시도하라.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늘의"라는 단어의 용법. 이 단어는 언뜻 보기에 "우리가 죽을 때에 가는 천국"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단어가 사용된 5 본문을 비교하여 볼 때, 이 단어는 "우리와 함께 현재 공존하고 있는 영적 영역"을 뜻한다(엡 1:3,20; 2:6; 3:10; 6:12).
2. 엡 5:18 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 이것은 많은 논란이 되는 구이다. 골로새서에서는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는 본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골로새서에서 이 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부요하게 거하시게 하라"를 뜻한다(골 3:16).

이러한 종류의 좋은 평행본문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자료는 좋은 연구성경의 활용에 있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습은 발전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이러한 과정을 따라 연습할수록, 이 일은 더욱 더 쉬워진다. 이것은 연구 자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신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연구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그것은 조직신학 책의 활용이다. 대부분의 조직신학 책은 본문 및 제목 별로 색인을 잘 해 놓았다. 색인에서 당신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를 점검하라. 관련이 있는 페이지 번호를 기록하라. 그것이 어떤 "신학적 범주"에 속하는지를 주목하라. 그 페이지로 가서 당신의 본문이 위치한 곳을 찾으라. 해당 문단을 읽으라; 그 문단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사고를 자극한다면 그 페이지를 다 읽으라(또는 항 전부).

당신의 문맥이 전체적인 기독교 신학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라. 이 본문은 이 주제를 다룬 유일한 본문일 수도 있고,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이 본문은 다른 교리에 대한 변증적인 역설을 나타내는 본문일 수도 있다. 당신이 다양한 교단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저자가 저술한 다양한 조직신학을 비평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책은 큰 그림을 보는데 있어서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교재의 결론부분에서 좋은 조직신학 책들의 풍부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IX 119 쪽). 이러한 종류의 책은 가볍게 읽을 경건서적이 아니라, 당신이 큰 그림을 가지는데 있어서 유용한 책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을 말하고자 한다. 조직신학 책들은 매우 해석적인 책이다. 우리가 가진 신학을 어떤 구조 속에 밀어 넣을 때 그것은 왜곡되고 전제를 가진 것으로

바뀐다. 그 점은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저자(책)만 참고하지 말고 여러 저자(책)를 참고하라(이러한 점은 주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저자가 저술한 조직신학 책 또는 당신과 다른 교단적 배경을 가진 저자가 저술한 조직신학 책을 읽으라. 그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그들의 논리를 파악하라. 성장은 갈등을 통하여 온다.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근거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당신에게 제시하게 하라:

1. 문맥(직접적 및 더 큰)
2. 구문(문법적 구조)
3. 어원과 당시의 용법(단어 연구)
4. 평행을 이루는 본문(동심원)
5. 원래의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수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또한 더 작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조명하시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실바 1987, 21). 믿음의 공동체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해석을 막는다. 과거와 현재에 은사받은 자들이 저술한 책을 읽으라. 그들이 기록한 것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당신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걸름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모두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이다.

III. 연구 자료의 활용 순서에 대한 제안

이 교재를 통하여, 당신은 스스로 분석 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단계를 지나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른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학자같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능하고, 경건하며, 은사를 받은 학자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 및 그들의 저술에 대한 비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 영어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차고 넘친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안한다. 먼저 당신 스스로 본문에 대한 기초적 관찰을 모두 한 후에, 다음 절차에 따라 당신의 자료를 보충하라(당신이 설명하는 내용 및 각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다른 이의 자료를 다른 색의 잉크를 사용하여 기록하라).

가. 먼저 역사적 배경을 다루라

1. 성경의 개론서

2. 성경백과, 성경핸드북, 성경사전의 항목

3. 주석의 앞부분

나. 여러 종류의 주석을 사용하라

1. 간략한 주석

2. 전문적 주석

3. 경건적 목적의 주석

다. 전문적인 참고도서를 보충적으로 사용하라

1. 단어 연구용 도서

2. 문화적 배경을 돕는 도서

3. 지리에 관한 도서

4. 고고학 도서

5. 변증적 책

라.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이해하도록 시도하라.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양의 진리를 얻게 됨을 기억하라. 당신의 연구에서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손 쉽게 결과를 얻으려 기대하지 말고—이 과정을 그대로 따르라. 해석에 있어서 긴장과 불일치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라. 해석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작업인 동시에 논리적 과정임을 기억하라.

성경을 분석적으로 읽고 참고자료를 비평적으로 사용하라. 연습을 통하여 완전하게 된다. 지금 시작하라. 하루에 적어도 30 분 이상을 조용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라. 먼저 신약의 작은 책을 골라 시작하라. 여러 성경역본과 연구성경을 사용하라. 종이와 펜을 들고, 기도하며, 시작하라.

필기를 할 항목의 예

먼저, 작업표나 기록할 양식의 사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당신이 성경을 읽는 동안 어떤 종류의 정보를 기록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직접 관찰한 내용을 한 가지 색을 사용하여 기록한다면, 다른 색으로는 다른 연구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하라. 여기서 제시하는 작업양식은 임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 스스로 순서나 제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작업양식은 단순히 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에 관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당신이 사용할 작업양식에서는 각 항목 사이의 여백을 좀 더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작업양식의 예는 우선적으로 여러 제목 및 각 제목이 독서의 네 단계와 관계된 것이다. 본 교재의 끝부분에서는 로마서 1-3 장(문학적 단위임)과 디도서(책의 요약)에 대한 것을 예로 제시한다.

필기하기

I. **독서의 여러 단계**

가. 첫 번째 독서

1. 책 전체의 전체적 주제나 목적은 이렇다: (간략하게 적는다)

2. 이 주제는 어디에서(한 곳을 선택하라) 예시되고 있다

ㄱ. 절

ㄴ. 문단

ㄷ. 장

3. 문학적 장르는 이것이다

나. 두 번째 독서

1. 주요한 문학적 단위나 내용에 따른 구분은 이렇다

ㄱ.

ㄴ.

ㄷ.

등

2. 주요 구분마다 각각의 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라(설명적인 한 문장으로). 또 각 부분이 서로 어떠한 관계(시대적, 논리적, 신학적 등)에 있는지를 설명하라

3. 당신의 대지에서 어디를 당신이 점검하였는지를 기록하라

다. 세 번째 독서

1.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적 정보(장절을 말하라)

ㄱ. 책의 저자

(1)

(2)

(3)

ㄴ. 저작 시기나 사건의 시기

(1)

(2)

(3)

ㄷ. 책의 수신자

(1)

(2)

(3)

ㄹ. 기록을 하게 된 이유

2. 당신의 작업표에 문단의 구분을 추가시켜라. 서로 다른 번역 이론에 기초한 번역성경을 비교하라. 특히 문자적 번역을 한 것과 관용적(등가번역) 번역을 한 번역본을 비교하라. 그 다음에는 당신 자신의 대지를 적어보라.

3. 각 문단을 하나의 설명적인 문장으로 요약하라.

4. 주요한 각 구분/또는 문단마다 가능한 적용점을 제시하라.

라. 네 번째 독서

1. 평행을(긍정적 및 부정적) 이루는 중요한 본문들을 적으라. 중요성을 나타내는 동심원을 따라 관찰하라.

   ㄱ. 같은 책 또는 같은 문학적 단위

   ㄴ. 같은 저자

   ㄷ. 같은 시기, 주제, 문학적 장르

   ㄹ. 구약, 또는 신약에 함께 있는 책

   ㅁ. 성경 전체

2. 조직신학 책을 참고하라.

3.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라.

   ㄱ. 주요 인물 및 보조 인물을 모두 파악하라.

   ㄴ. 주요 용어들을 찾으라(신학적 용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용어,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

   ㄷ. 주요 사건을 파악하라.

   ㄹ. 지리적 이동을 파악하라.

4.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에 대하여 기록하라.

   ㄱ. 본문적 문제

      (1) 당신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의 난외주에서

      (2) 다른 영어 역본들과의 대조에서

   ㄴ. 역사적 문제 및 독특성

   ㄷ. 독특한 신학적 문제

ㄹ. 당신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절들

마. 적용할 진리

1. 작업표의 왼쪽 편에는 당신이 만든 상세한 대지를 적으라.

2. 오른 편에는 주요한 문학적 단위나 문단마다 적용하여야 할 내용을 적으라(연필로).

바. 연구도서의 활용

1. 적합한 순서를 따라 연구를 위한 도서를 읽으라. “작업표”에 필기하라. 다음 사항을 관찰하라
   ㄱ. 동의하는 점
   ㄴ. 동의하지 않는 점
   ㄷ. 새로운 생각이나 적용점
   ㄹ. 어려운 본문에 대한 가능한 해석의 기록

2. 연구도서를 통하여 얻은 내용을 분석하고, 상세하게 완성된 대지를 적용할 내용과 더불어 제시하라. 이 최종적 대지는 당신이 원저자가 사용한 구조 및 저작목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ㄱ.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라.
   ㄴ. 문맥을 잊어 버리지 말라.
   ㄷ. 원저자가 의도한 것 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라.
   ㄹ. 적용할 사항은 세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책 전체의 주제—첫 번째 독서
      (2) 주요한 문학적 단위—두 번째 독서
      (3) 문단—세 번째 독서
   ㅁ. 최종적으로 평행본문을 사용하여 당신이 한 해석을 확증하고 분명하게 하라. 이 일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게 한다. 한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전반적인 조직신학적 지식으로써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잠잠케 하거나, 무시해 버리거나, 곡해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지켜줄 것이다.

사. 신학적 통찰

1. 조직신학 책을 사용하여,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당신의 본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라.

2. 당신의 본문에 있는 주요 진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써 묘사하라. 당신의 설교나 교안은 이 진리를 반영해야 한다!

II. 석의의 과정

가. 본문(적어도 한 문단 이상)

1. 원문을 확정하라(사본에 나타난 변이를 파악하라)

2. 번역본
   ㄱ. 축어적(KJV, ASV, NASB, RSV, NRSV)
   ㄴ. 등가번역(NIV, NEB, 예루살렘 바이블, 윌리암스 역, TEV)
   ㄷ. 다른 고대 역본(70 인역, 벌게이트, 페쉬타 등)
   ㄹ. 이 단계에서는 풀이한 번역본은 사용하지 않는다(즉, 주석)

3.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점검하라
   ㄱ. 헬라어 사본의 문제(들)
   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ㄷ. 독특한 구문(들)
   ㄹ. 신학적 진리(들)

나. 석의에서 점검하여야 할 사항

1. 직접적 문맥을 이루는 본문을 주목하라(당신이 본문으로 정한 문단이 어떻게 큰 문학적 단락와 관련을 가지며, 앞뒤에 있는 문단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문장의 구조에서 유의할 요소를 주목하라
   ㄱ. 평행적 구조
   ㄴ. 인용/암시

ㄷ. 은유적 표현

ㄹ. 예시

ㅁ. 시/찬송/노래

3. 문법적 요소(구문)를 주목하라

ㄱ. 동사 또는 동사적 형태(시제, 태, 법, 수, 성)

ㄴ. 특별구문(조건문, 금지 등)

ㄷ. 어순 또는 절의 순서

4. 핵심단어를 주목하라

ㄱ. 의미론적 범위를 철저히 파악하라

ㄴ. 어떤 의미가 문맥에서 가장 적합한가

ㄷ. 신학적 정의의 기계적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5. 성경에서 중요하게 평행을 이루는 단어, 주제, 인용을 주목하라

ㄱ. 같은 문맥

ㄴ. 같은 책

ㄷ. 같은 저자

ㄹ. 같은 장르

ㅁ. 같은 시대

ㅂ. 성경전체

다. 역사적 내용에 대한 요약

1. 책에 나오는 특정한 사건이 진술의 진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문화적 환경이 진술의 진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3. 수신자가 진술의 진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 신학적 내용에 대한 요약

1. 신학적 진리

ㄱ. 저자가 주장하는 신학적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라:

(1) 특별한 용어

(2) 중요한 절 또는 구

(3) 중심진리를 나타내는 문장(들) 또는 구(들)

ㄴ. 이 신학적 내용은 문학적 단락의 주제 및 진리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ㄷ. 이 신학적 내용은 책 전체의 주제 및 진리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ㄹ. 이 신학적 내용은 성경에 계시된 주제 및 진리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2. 특별히 관심을 끄는 내용

3. 개인적인 통찰

4. 주석을 통하여 얻는 통찰

마. 진리의 적용

1. 문학적 단락에서 취한 적용할 진리

2. 문단에서 취한 적용할 진리

3. 본문 안에 있는 신학적 요소에서 취한 적용할 진리

III. 학문적으로 신약의 단어를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절차

가. 기본적 의미 및 의미론적 범위를 파악하라

헬라어-영어 사전(바우어, 알른트, 깅크리치, 댕커)을 사용하라

나. 당시의 용법을 파악하라(코이네 헬라어)

1. *신약의 어휘*(물톤, 밀리건)를 이집트 파피루스와 비교하여 사용하라

2. 팔레스타인 유대교에 대한 것을 70 인역 및 레드패스의 70 인역 성구사전에서 확인하라

다. 의미론적 영역을 파악하라
신약 헬라어-영어 사전(로우, 니다) 또는 *신약 단어의 주해 사전*(바인)을 사용하라

라. 히브리어적 배경을 파악하라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과 숫자적 체계로 연결시킨 스트롱의 성구사전;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5 권, 반게머른 편저); 또는 *구약의 동의어*(거들스톤)를 사용하라

마. 문맥에서 단어의 문법적 형태를 파악하라
헬라어 영어 인터리니어 신약 및 분석적 사전 또는 *분석적 신약 헬라어*(티머티와 바바라 프리벅)를 사용하라

바. 다음 자료를 사용하여 당신이 한 연구를 점검하라
- 성경 백과 -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5 권) 또는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 (5 권)을 사용하라

- 성경 사전 - *앵커 바이블 사전* 또는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을 사용하라

- 신학적 단어 연구 – *신약신학의 새 국제 사전*(3 권, 콜린 브라운)
또는 *신약의 신학적 사전*(TDNT, 요약판, 브로밀리)을 사용하라

- 조직신학적 책 - *조직신학*(벌코프); *신약신학*(래드); *신약신학*(스택); 그 외에 다른 여러 책을 사용하라

사. 해석을 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라

IV. 간략하게 요약한 해석학적 원리

가. 언제나 기도를 먼저 하라. 성령께서 본질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나. 원문의 범위를 정하라

1. 연구성경을 사용하여 헬라어 사본에 나타난 변이를 파악하라
2. 논란이 있는 본문에 기초하여 어떤 교리를 형성하지 말라. 평행을 이루는 명료한 본문을 찾으라.

다. 본문을 이해하기

1. 전체 문맥을 읽으라(문학적 문맥이 중요하다). 문학적 단락을 결정짓기 위하여, 연구성경이나 주석에서 제시한 대지를 살펴보라.
2. 문단보다 더 적은 범주에서 해석하지 않도록 하라. 그 문학적 단락 안에 있는 각 문단의 주요 진리를 대지로 나타내어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원저자의 사상을 파악하며 또 그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알수 있게 된다.
3.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문단을 읽으라. 각 번역본은 서로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한 것을 사용하라.
4. 당신 스스로 본문을 먼저 연구한 뒤에, 좋은 주석 또는 성경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보라(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성경, 성령,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 단어들을 이해하기

1. 신약의 저자들은 코이네(거리) 헬라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히브리 사상가들이었다.
2. 우리는 오늘날 영어에서 뜻하는 정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의미하였던 뜻과 함축적 의미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70 인역과 이집트 파피루스를 보라).
3. 단어는 문장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문장은 문단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문단은 문학적 단락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의미론적 범주를 확인하라(즉, 단어가 가진 다양한 뜻).

마. 평행본문의 사용

1.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자이다. 성령께서는 이 책의 유일한 저자이시다.
2. 당신의 본문이 나타내는 진리를 가장 명료하게 가르치는 본문을 살펴보라(참조성경 또는 성구사전).
3.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라(동양의 문학은 긴장으로 가득찬 쌍으로 가득함).

바. 적용

1. 원저자가 당시에 말하였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역사적 문맥이 중요하다).
2.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향, 신학적 체계, 관심사에 유의하라. 성경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하게 하라!
3. 모든 절에서 원리를 뽑아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든 본문이 보편적인 상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본문의 내용을 현대의 모든 이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4. 새로운 진리나 통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성경 지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유형별로 추천한 연구용 도서의 목록

I. 성경

가. 번역의 과정을 이해하기

1. J. 빅맨과 J. 캘로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2. 유진 니다, *인간의 언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윌리암 케리, N.D.)
3. 사캐 쿠보와 왈터 스페트, *이렇게 많은 역본* (존더반, 1983)
4. F. F. 브루스, *성경과 양피지* (레벨, 1963)

나. 영어 성경의 역사

1. F. F. 브루스, *영어 성경: 가장 초기에 속하는 역본에서부터 새영어성경에 이르기까지의 번역사* (옥스포드, 1970)
2. 아이라 모리스 프라이스, *우리가 가진 영어 성경의 조상* (하퍼, 1956)

II.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왈터 J. 클락, *신약 헬라어 연구도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로이조 브라더스, 1983)

나. F. W. 댕커, *성경연구를 돕는 다목적 도구* (콘코디아, 1970)

다. R. T. 프랜스, *신약의 연구를 위한 참고도서 안내* (JSOT 출판사, 1979)

라. D. W. 스콜러, *신약 석의를 위한 기본적 참고도서 안내* (어드만, 1973)

III. 해석학

가. 제임스 프라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물트노마, 1982)

나.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존더반, 1982)

다. 리차드 메이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디, 1986)

라. J. 로벗슨 맥퀼킨, *성경의 이해와 적용* (무디, 1983)

마. A. 버클리 미켈슨, *성경을 해석하기* (어드만, 1963)

바. 존 맥아터, Jr., *강해설교의 재발견* (워드, 1992)

사. 브루스 콜리, 스티브 렘케, 그란트 러브조이, *성경적 해석학*(브로드만 & 홀만, 1996)

아. 로버트 슈타인, *성경해석에 대한 기초적 안내*

IV. 기본적 성경 개론서

가. 구약

1. R. K 해리슨, *구약개론* (어드만, 1969)
2. 윌리엄 샌포드 라솔, 데이빗 알렌 홉바드, 프레데릭 윌리엄 부쉬, *구약의 탐사* (어드만, 1982)
3. 에드워드 J. 영, *구약개론* (어드만, 1949)
4. T. 아놀드, 브라이언 E. 비어, *구약과의 조우* (베이커, 1998)
5. 피터 C. 크레이기, *구약: 그 배경, 성장과 문맥* (아빙돈, 1990)

나. 신약

1. 도날드 거스리, *신약개론* (IVP, 1970)
2.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 배경, 성장과 내용* (아빙돈, 1965)
3. D. A. 칼슨, 더글라스 J. 무, 레온 모리스, *신약개론* (존더반, 1992)
4. 왈터 A. 엘웰, 로버트 W. 야브로, *신약과의 조우* (베이커, 1998)
5. 로버트 H. 건드리, *신약의 탐사* (존더반, 1994)

V. 성경백과와 성경사전(질)

가. 메릴 C. 텐니 편저,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5 권 (존더반, 1976)

나. 조지 A. 버트릭 편저,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 5 권 (아빙돈, 1962-1977)

다. 게오프레이 W. 브로밀리 편저, *국제 표준 성경백과*, 5 권, 개정판 (어드만, 1979-1987)

라. 요엘 B. 그린, 스콧 맥나이트, J. 하워드 마쉘 편저, *예수와 복음서 사전* (IVP, 1992)

마. 게랄드 F. 호쓰론, 랄프 P. 마틴, 다니엘 G. 리드 편저, *바울과 그의 서신서 사전* (IVP, 1993)

바. 데이빗 노엘 프리드맨 편저, *앵커 바이블 사전*, 6 권 (더블데이, 1992)

VI. 주석(질)

가. 구약

1. D. J. 와이즈맨 편저, *틴델 구약주석* (인터배서티, 1970)
2. *연구 안내 주석 시리즈* (존더반, 1977)
3. R. K 해리슨 편저, *새국제주석* (어드만, 1976)

4. 프랭크 E. 개벌린 편저,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 (존더반, 1958)
5. 밥 어틀리, www.freebiblecommentary.org

나. 신약

1. R. V. G. 타스커 편저, *틴델 신약주석* (어드만, 1959)
2. *연구 안내 주석 시리즈* (존더반, 1977)
3. 프랭크 E. 개벌린 편저,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 (존더반, 1958)
4. *새국제주석* (어드만, 1976)
5. 밥 어틀리, www.freebiblecommentary.org

VII. 단어 연구

가. 구약

1. 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어드만, 1897)
2. 아론 픽, *구약 단어의 사전* (크레겔, 1977)
3. R. 레어드 해리스, 글리슨 L. 알처, Jr., 브루스 K. 왈트키, *구약의 신학 단어책* (무디, 1980)
4. 윌리엄 A. 반 게머렌 편저, *구약신학과 석의 사전*, 5 권 (존더반, 1997).

나. 신약

1. A. T. 로벗슨, *신약의 워드 픽처* (브로드만, 1930)
2. M. R. 빈센트, *신약에서의 단어 연구* (맥도날드, 1888)
3. W. E. 바인, *바인의 신약 단어 강해사전* (레벨, 1968)
4. 윌리엄 바클레이, *신약의 단어책* (SCM, 1955)
5. _____, *더 많은 신약 단어* (하퍼, 1958)
6. C. 브라운 외, *새 신약신학 사전*, 5 권 (존더반, 1975-1979)

다. 신학

1. 알란 리차드슨 편저, *성경의 신학적 단어 책* (맥밀란, 1950)
2. 에베렛 F. 해리슨 편저, *베이커의 신학 사전* (베이커, 1975)

VIII. 문화적 배경

가. 관습

1. 아돌프 다이스만, *고대 동방으로부터의 빛* (베이커, 1978)
2. 로랜드 드보, *고대 이스라엘*, 2 권 (맥그로힐, 1961)
3. 제임스 M. 프리맨, *성경의 방법과 관습* (로고스, 1972)
4. 프렛 H. 라이트, *성경의 땅의 방법과 관습* (무디, 1953)
5. 잭 파인캔, *옛 동방에서의 빛*, 2 권 (프린세톤 대학 출판사, 1974)
6. 빅톨 H. 마튜, *성경의 방법과 관습* (헨드릭슨, 1988)

나. 역사

1.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의 역사* (웨스트민스터, 1981)
2. D. J. 외아즈만 편저, *구약 시대의 사람들* (옥스포드, 1973)
3. P. R. 아크로이드, C. F. 이반스 편저, *캠브리지 성경역사*, 제 1 권 (캠브리지, 1970)

다. 신약

1. 아돌프 다이스만, *고대 동방으로부터의 빛* (베이커, 1978)
2. F. F. 브루스, *신약 역사* (더블데이, 1969)
3. 에드윈 M. 야마우찌, *하퍼의 신약 세계* (하퍼 & 로우, 1981)
4. 알프레드 에델샤임,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과 시대* (어드만, 1971)
5. A. N. 셔윈-회아트, *신약에서의 로마 사회와 로마의 법* (옥스포드, 1963)
6. J. W. 쉐파드, *복음서의 그리스도* (어드만, 1939)

라. 고고학

1. 잭 파인캔, *옛 동방에서의 빛*, 2 권 (프린세톤 대학 출판사, 1974)
2. H. T. 포스. *성경의 땅의 고고학* (무디, 1977)
3. 에드윈 M. 야마우찌, *돌들과 성경* (홀만, 1972)
4. K. A. 키친, *고대 동양과 구약* (인터배서티 프레스, 1966)
5. 존 H. 왈톤, *문화적 문맥 속에서의 고대 이스라엘 문학* (존더반, 1989)

마. 지리

1. C. F. 파이퍼, H. F. 포스, *위클리프 성경의 땅의 역사적 지리* (무디, 1967)

2. 배리 J. 바이첼, *무디 성경의 땅의 지도* (무디, 1985)
3. 토마스 V. 브리스코 편저, *홀만 성경 지도* (브로드맨 & 홀만, 1998)

IX. 신학

가. 구약

1. A. B. 데이빗슨, *구약의 신학* (클락, 1904)
2. 에드몬드 제이콥, *구약의 신학* (하퍼 & 로우, 1958)
3. 왈터 C. 카이저, *구약 신학에 대하여* (존더반, 1978)
4. 폴 R. 하우스, *구약신학* (IVP, 1998)

나. 신약

1. 도날드 거스리, *신약개론* (IVP, 1970)
2. 조지 엘돈 래드, 신약신학 (어드만, 1974)
3. 프랭크 스택, 신약신학 (브로드만, 1962)
4. 도날드 G. 블로쉬, 복음주의적 신학의 핵심, 2 권 (하퍼 & 로우, 1978)

다. 성경 전체

1. 게에르하두스 포스, *성경신학* (어드만, 1948)
2. L. 벌코프, *조직신학* (어드만, 1939)
3. H. 오르톤 윌리, 기독교 신학 (비콘 힐 출판사, 1940)
4. 밀라드 J. 에릭슨, 기독교 신학, 제 2 판 (베이커, 1998)

라. 교리 – 역사적으로 발달된

1. L. 벌코프, *기독교 교리의 역사* (베이커, 1975)
2. 주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제 1 권 (아빙돈, 1970)

X. 변증학

가. 노만 가이슬러, *기독교 변증학* (베이커, 1976)

나. 버나드 램, *기독교 변증학의 다양성* (베이커, 1962)

다. J. B. 필립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맥밀란, 1953)

라. C. S. 루이스. *순진한 기독교* (맥밀란, 1978)

마. 콜린 브라운 편저, *역사, 비평, 믿음* (인터배서티, 1976)

바. 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답* (존더반, 1972)

사. 왈터 C. 카이저 Jr., 피터 H. 데이비스, F. F. 브루스, 맨프레드 T. 브록, *성경의 어려운 말* (IVP, 1996)

XI. 성경의 어려운 표현

가. 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답*

나. 글리슨 L. 알처, *성경의 어려운 표현 백과* (존더반, 1982)

다. 노만 가이슬러, 토마스 호우, *비평가들이 질문할 때* (빅토르, 1992)

라. 왈터 C. 카이저 Jr., 피터 H. 데이비스, F. F. 브루스, 맨프레드 T. 브록, *성경의 어려운 말* (IVP, 1996) 및 *성경에서 더 어려운 말*

XII. 본문비평

가. 브루스 M. 메츠거, *신약의 본문, 그 전달, 부패와 회복* (옥스포드, 1964)

나. J. 해롤드 그린리, *신약의 본문비평 입문* (어드만, 1964)

다. 브루스 M. 메츠거, *헬라어 신약에 대한 본문적 설명* (세계 성서 공회)

XIII. 사전

가. 구약(히브리어)

1.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찰스 A. 브릭스, *히브리어와 영어 사전* (클라렌돈 출판사, 1951)
2. 브루스 아인스파,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의 히브리어와 영어 사전 색인*
3. 벤자민 데이빗슨, *분석적 히브리어와 갈대아어 사전* (맥도날드)
4. 루드빅 쾰러, 발터 바움가트너, *구약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사전*, 2 권.

나. 신약(헬라어)

1. 발터 바우어, 윌리엄 F. 알른트, F. 윌버 깅그리치, 프레드릭 W. 댕커, *헬라어-영어 사전* (시카고 대학 출판사, 1979)
2. 요한네스 P. 로우, 유진 A. 니다 편저, *헬라어-영어 사전*, 2 권 (세계 성서 공회, 1989)
3. 제임스 호웁 물톤, 조지 밀리건, *헬라어 성경의 어휘* (어드만, 1974)
4. 윌리엄 D. 마운스, *헬라어 신약의 분석적 사전* (존더반, 1993)

XIV. 절판된 책, 헌 책,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웹 주소

가. www.Christianbooks.com
나. www.Half.com
다. www.Overstock.com
라. www.Alibris.com
마. www.Amazon.com
바. www.BakerBooksRetain.com
사. www.ChristianUsedBooks.net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담담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찾음,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 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그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랬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I. 전제들

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나.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다.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라.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II. 부적절한 방법들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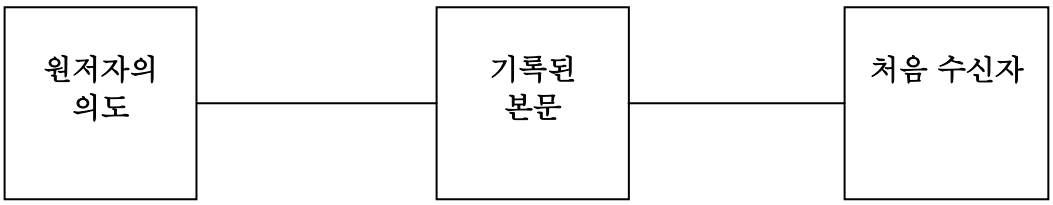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간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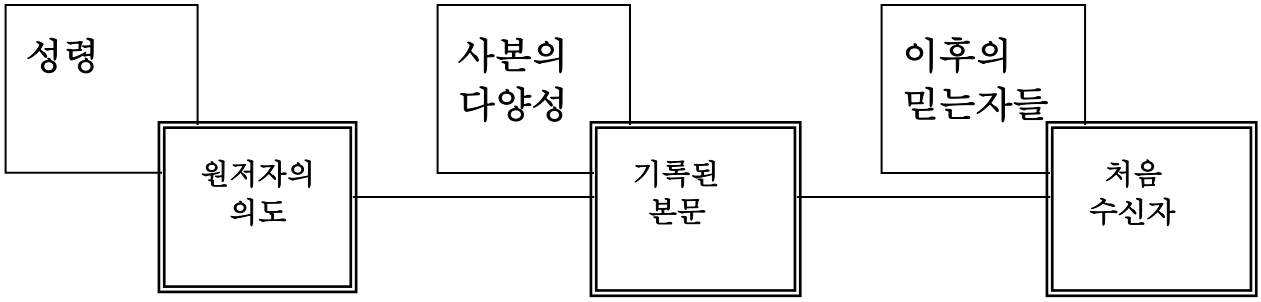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 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해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ㄴ. 당시의 용법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ㄴ. 교리 사이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독서의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ㄱ. 구약

1) 이야기체

2) 시(지혜문학, 시편)

3) 예언서(산문, 시)

4) 법률

ㄴ. 신약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2) 예화(복음서)

3) 편지/서신서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ㄱ. 저자
   ㄴ. 날짜
   ㄷ. 수신자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ㄱ. 중요 용어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1) "조직신학"책

2) 참조성경

3) 성구사전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ㄱ. 해설이 있는 성경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ㄷ. 성경개론서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 (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렘,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세계성서공회 헬라어 본문, 제 4 개정판(UBS[4])
2.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3. 뉴킹제임스역(NKJV)
4. 신개정표준역(NRSV)
5. 현대영어성경(TEV)
6. 새예루살렘역(NJB)

문단의 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의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의 등가 번역본에 기초한 영어역인 예루살렘역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는)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 에서 아랍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어떤 셈어는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나. 가나안어(주전 15 세기에 유가릿어로 쓰여진 *라스 샤므라 서판*)
다. 가나안어(주전 14 세기에 가나안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아마르나 편지*)
라. 페니키아어(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한다)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2 단어]; 렘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 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 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유가릿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3. 사마리아 도편,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6. 사해사본 본문들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의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단어의 뜻은 전승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 이다. 기본적이고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사전과 아람어 사전은 이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다음을 보여 준다

1. 수—단수, 복수, 쌍수
2. 성—남성과 여성(중성은 없음)
3. 태—직설법, 가정법, 명령법(행동과 사실과의 관계)
4. 시제(동사의 상)

ㄱ. 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시작, 계속, 종결의 의미에서 마쳐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 형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점은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함을 뜻할 수 있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함을 나타낸다"(36 쪽).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솜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완료형의 시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ㄴ.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불확실한)임을 뜻하며,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대개 이 동사 형태는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을 말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이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곧,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로버트 B. 치솜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말하기를

"미완료형은 상과 태를 함께 나타내기에 이것의 본질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때는 미완료형이 직설법적 의미로서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다른 경우에는 이 동사형태는 어떤 행동을 보다 더 주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가능한 것 등이 쓰인다"(89 쪽).

ㄷ. 첨가되는 *와우*, 이것은 동사를 그 앞에 나오는 동사(들)의 행동에 연결시킨다.
ㄹ. 명령형, 이것은 화자의 의지와 청자가 할 여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ㅁ.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직 큰 문맥이 저자가 의도한 시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나. 일곱가지 주요 어형변화 형태와 그 기본적 의미. 실제로는 이 동사형태가 문맥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된다.

1. *칼* 동사,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형태이면서 모든 동사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2. *니팔* 동사, 두 번째로 자주 쓰인다. 대개 수동형이지만, 이 동사형태는 또한 상호작용이나 재귀적 기능을 갖는다. 이 동사도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3. *피엘* 동사,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것을 나타낸다. *칼*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발전되거나 어떤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4. *푸알* 동사, 이것은 *피엘*동사와 대응하는 수동형이다. 종종 분사로 사용된다.
5. *히트파엘* 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이다. 이것은반복적 혹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6. *히필* 동사, 이것은 *피엘*동사와 대조되며 원인을 나타낸다. 이 동사형은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원인을 드러낸다. 독일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에른스트 옌니는 *피엘*동사가 일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나타내고 *히필*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인다고 믿었다.
7. *호팔* 동사, 이것은 *히필*의 수동형이다. 마지막 두 동사형태는 7 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위 사항의 대부분은 브루스 K. 왈트키 와 M. 오카너가 공저한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43-452 쪽을 참조했다.

작용자와 원인자 도표. 히브리어의 동사체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쇄는 이것을 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형태는 다른 동사형태와 대조를 이룬다(예, *칼-니팔*; *피엘-히필*)

다음의 도표는 원인과 관련하여 동사형태의 기본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태 또는 주어	**이차 원인자가 없음**	**능동적 이차 원인자**	**수동적 이차 원인자**
능동태	*칼*	*히필*	*피엘*
중간태 수동태	*니팔*	*호팔*	*푸알*
재귀/상호관계적	*니팔*	*히필*	*히트파엘*

이 도표는 최근의 아카디아어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사체계에 대한 좋은 자료에서 왔다(참조, 브루스 K. 왈트키, M. 오카너,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 354-359 쪽).

R. H. 케넷은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짧은 논의*에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르치면서 각 동사형태가 히브리인의 마음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말하면 각 히브리어 시제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형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 시제를 획일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각 히브리어 동사형태가 구약성경의 언어에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는 분명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히브리인들이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함에서 보듯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그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각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제시하고 있는대로 각 행위의 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룸,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다. 법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ㄱ. 특별한 의미를 더 내포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1) 청유법(자음 ㅎ 이 추가됨), 이것은 1 인칭 미완료형으로서 소원, 청원, 혹은 자기 격려(즉, 화자가 소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2) 지시법(내적 변화), 이것은 3 인칭 미완료형으로서(부정문의 경우 2 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 허가, 충고, 혹은 권면을 나타낸다
   ㄴ. 완료 시제를 *루* 또는 *루레*와 함께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코이네 헬라어에 있는 제 2 유형의 조건절과 유사한 구문이다. 거짓 진술(조건절)이 거짓 결론(조건문의 귀결절)으로 결과를 맺는다.

ㄷ. 미완료 시제를 *루*와 함께 사용한다

문맥과 *루*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법적 용법을 가진다. J. 와쉬 왓쓰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 나오는 몇 가지 예는 창 13:16; 신 1:12; 왕상 13:8; 시 24:3; 사 1:18(참조, 76-77 쪽).

라. *와우*-전환/연속/접속. 히브리어(가나안어)가 갖는 이 독특한 구문적 특성은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 용법은 장르마다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초기의 학자들이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비추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가져오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고대의 고풍스럽게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탓으로 핑계를 댔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시간)에 기초한 동사형태를 갖는 언어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셈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즉 *와우*가 추가된 미완료형의 동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제 자체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니라,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특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와우* 완료형은 예언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이며, *와우* 미완료형은 이야기체에서 잘 사용된다(54, 68 쪽).

왓쓰는 계속해서 정의하기를

> "*와우* 접속법과 *와우* 연속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석에서 나타난다:
>
> 1. *와우* 접속법은 항상 병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 2. *와우* 연속법은 항상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와우*가 연속적인 미완료형과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는 미완료형의 관계는 시간적 연속, 논리적 연속, 논리적 원인, 또는 논리적 대조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다"(103 쪽).

마. 부정사 – 두 종류의 부정사가 있다

1.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구문이다. . . 주어로서 사용될 때 종종 쓰여진 동사없이 나타난다. 부정사 절대형이 홀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략된 동사는 "~이다"라는 동사로 이해된다" J. 와쉬 왓쓰,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92 쪽).
2. 부정사 연계형, 이것은 "전치사, 소유 대명사, 연계 관계에 의해 문법적으로 문장에 연결된다"(91 쪽).

   J. 와인그린은 *고전 히브리어의 실제적 문법* 에서 연계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합성할 경우에, 의존적인 단어(혹은 단어들)가 연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44 쪽).

바. 의문법

1. 이것은 항상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2. 해석적인 중요성
   ㄱ. *하* –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ㄴ. *할로'* – 저자가 "네"라는 답을 기대한다

사.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 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 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 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아. 조건절

1. 4 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1) *임*
      (2) *키*(혹은 *아쉐르*)
      (3) *힌* 혹은 *힌네*
   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절은 항상 완료 시상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데 불변화사인 *루* 혹은 *룰레*로 시작한다
   ㄷ.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건절은 항상 미완료형 동사나 분사가 조건절에 사용되는데, 대개는 불변화사인 *임* 혹은 *키* 로 시작한다.
   ㄹ.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절은 미완료형 가정법이 조건절에 나오고 항상 불변화사 *임*으로 시작한다.

석의에 영향을 주는 헬라어의 문법적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종종 헬라적 그리스어로 불리는 코이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주전 336-323)의 정복 시기부터 시작하여 800 년간(주전 300-주후 500) 지중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언어였다. 이것은 간소화된 고전 헬라어이었고 또한 여러 면에서 헬라어의 새로운 모습을 지녀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제 2 언어가 되었다.

신약의 헬라어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데 그 이유는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글은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과 구조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읽었고 인용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대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점은 우리로 신약성경을 융통성없는 문법구조로 밀어넣을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신약의 헬라어는 독특하면서도 (1) 칠십인역 (2) 요세퍼스 등의 유대 저작 (3)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약성경의 문법적인 분석을 할 것인가?

코이네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코이네 헬라어의 문법적 특성에는 유동성이 있다. 여러 면에서 이 헬라어는 단순화한 문법의 시기였다. 문맥이 우리의 주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단어들은 오직 커다란 문맥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법적인 구조를 오직 (1) 저자의 특징적인 스타일 (2) 특별한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헬라어 형태와 구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코이네 헬라어는 우선적으로 동사적인 언어였다. 종종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해석의 열쇄가 된다. 대부분의 주절에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옴으로써 그 중요성을 보인다. 헬라어 동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3 가지 사항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제, 태, 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강조점(어형론 또는 형태론) (2) 어떤 동사의 기본적인 뜻(사전적 의미) (3) 문맥의 흐름(구문론).

I. 시제

가. 시제나 시상은 동사가 완료된 행동 또는 미완료된 행동에 관련됨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완료적" "미완료적"으로 불린다.

1. 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일어남에 초점을 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외에는 다른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그일의 시작, 계속, 또는 결과는 말해지지 않는다.
2. 미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계속적인 과정에 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직선상에 일어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진행적인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나. 시제는 저자가 그 일을 어떻게 되어진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1. 그 일이 발생했다 = 부정과거
2. 그 일이 발생하여 결과가 남아있다 = 완료
3. 그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결과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 과거완료
4.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5. 그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미완료
6.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미래

어떻게 이 시제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구원하다"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이 단어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시제가 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부정과거- “구원받았다”(참조, 롬 8:24)
2. 완료- “구원받아 그 결과가 계속된다”(참조, 엡 2:5, 8)
3. 현재- “구원받고 있다”(참조, 고전 1:18; 15:2)
4.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참조, 롬 5:9, 10; 10:9)

다. 동사의 시제에 초점을 두면서, 해석자는 원저자가 왜 이러한 시제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장식이 없는” 기본적인 시제는 부정과거이다. 이것은 보통의 동사형태로서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표시가 없는” 혹은 “약하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광범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문맥에서 그 정확한 뜻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과거의 시간은 직설법에서만 나타난다. 만일 다른 시제가 사용되었다면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1. 완료시제. 이것은 결과로 남아있는 완료된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과거와 현재시제의 결합이다. 보통은 남아있는 결과 혹은 완료된 행동에 초점이 있다. 예: 엡 2:5 과 8 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2. 과거완료시제. 이것은 결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료와 같다. 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요 18:16).
3. 현재시제. 이것은 끝나지 않았거나 미완료인 행동을 말한다. 보통 사건의 계속성에 강조가 있다. 예: “그의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 (요일 3:6, 9).
4. 미완료시제. 이 시제가 현재시제에 대해 갖는 관계는 완료와 과거완료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미완료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일이 지금은 그쳐졌거나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예: “그 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아오고 있었다” 혹은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아오기 시작했다”(마 3:5).
5. 미래시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조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있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남에 있지 않다. 이 시제는 종종 어떤 사건의 확실성을 말한다. 예: “~자들은 복이 있나니”(마 5:4-9).

II. 태

가. 태는 동사의 행동과 주어와의 관계를 말한다.

나. 능동태는 일반적이고 예측되며 강조점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 수동태는 동사의 행동을 외부의 것에 의해 주어가 받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의 요인은 전치사와 격으로 표시된다:

1. 직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휘포*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행 22:30)
2. 간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디아*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3. 사람이 아닌 경우로 *엔*과 기구격으로 표시됨
4. 어떤 때는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경우로 기구격으로만 표시됨

라. 중간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일으키며 또한 그 동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말한다. 종종 저자의 고조된 관심을 나타내는 태로 불린다. 이 형태는 절이나 문장의 주어에게 어떤 면에서 강조점을 둔다. 영어에는 없는 태이다. 의미와 번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융통성이 있다. 몇 가지 형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귀 – 주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 예: “자신을 목 매달았다”(마 27:5).
2. 강조 – 주어가 지신을 위해 행동을 함. 예: “사탄이 빛의 천사들처럼 자신을 가장한다”(고후 11:14).
3. 상호작용 – 두 주어의 상호작용. 예: “그들이 서로 상의했다”(마 26:4).

III. 법(혹은 “모드”)

가. 코이네 헬라어에는 4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동사와 사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저자 자신의 생각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사실을 나타내는 것(직설법)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나. 직설법은 적어도 저자의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헬라어의 법중 유일하게 한정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시상은 이차적이다.

다. 가정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직설법 미래와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차이점은 가정법은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종 "했었을 지도" "였을 지도" "할 지도" "했을 지도"로 표현된다.

라. 희구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희망을 나타낸다. 가정법보다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여겨진다.희구법은 어떤 조건에서의 가능성을 말한다. 신약에서 드물게 나온다. 바울의 유명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그럴수 없다"(흠정역,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 15 회 사용되었다(참조, 롬 3:4, 6, 31; 6:2, 15; 7:7, 13; 9:14; 11:1, 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다른 예는 눅 1:38; 20:16; 행 8:20; 살전 3:11 에 있다.

마. 명령법은 가능한 명령을 강조하지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의지적인 가능성만을 말하며 다른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도와 3 인칭으로 한 요구에서 명령법은 특별한 용법을 갖는다. 신약에서 이러한 명령은 현재형과 부정과거 시제로만 나온다.

바. 어떤 문법가들은 분사를 또 하나의 법으로 본다. 이것은 신약 헬라어에서 매우 흔하며 대개는 동사적 형용사로 정의된다. 이것은 본 동사와의 관계에서 번역된다. 분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영어성경을 참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 번역본 성경*은 매우 유용하다.

사.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은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원저자가 나타내려는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

IV. 헬라어 참고 도서(헬라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책은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가. 프리벡, 바바라와 디모티.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그랜드래피트: 베이커, 1988.

나. 마샬, 알프렌. *헬라어-영어 행간 신약성경*.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76.

다. 마운스, 윌리엄 D.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93.

라. 섬머즈, 레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핵심*. 내쉬빌: 브로드만, 1950.

마. 코이네 헬라어에 대한 학문적 과목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연구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V. 명사

가. 구문적으로 볼 때, 명사는 격으로 구분된다. 격은 어떤 어형변화를 가진 명사가 한 문장에서 동사와 다른 품사와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많은 경우 격의 의미는 전치사에 의해 표현된다. 격변화는 여러가지 다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의 구분을 위해 전치사의 사용이 발달되었다.

나. 헬라어의 격은 다음의 8 가지로 구별된다:

1. 주격은 이름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개 문장이나 절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서술적인 명사나 형용사가 "~이다" 혹은 "~이 되다"의 동사와 사용된다.
2. 소유격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단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 격은 "어떤 종류?"를 묻는 질문에 답을 준다. 종종 "~의"란 의미를 갖는다.

3. 탈격은 소유격과 같은 어형변화를 갖지만,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시간, 장소, 자료, 기원, 정도 등에 있어 분리를 뜻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종 "~로부터"에 해당한다.
4. 여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 면을 가질 수 있다. 종종 이것은 간접목적을 나타낸다. 종종 "~에게"란 의미를 갖는다.
5. 위치격은 여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위치, 공간적 장소, 시간이나 논리의 한계를 나타낸다. "안에, 위에, ~에, 가운데, 동안, 에 의해, 더불어" 등의 의미를 갖는다.
6. 기구격은 여격 위치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도구나 협력관계를 나타낸다. 종종 "에 의해" 혹은 "와 함께"로 번역된다.
7. 목적격은 행동의 결말을 나타내며, 한계를 표현한다. 이것은 주로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답을 준다.
8. 호격은 직접화법에서 사용되었다.

VI. 접속사와 관계사

가. 헬라어는 매우 많은 관계사를 갖고 있기에 매우 정확한 언어이다. 접속사는 생각(절, 문장, 문단)을 연결한다. 전치사없이 자주 나오기에 종종 석의에 있어 중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접속사와 관계사는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지를 보여준다. 종종 접속사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

나. 여기에서 몇가지 접속사와 관계사의 뜻을 제시하였다(이 자료는 주로 H. E. 다나 줄리어스 K. 만티가 공저한 *신약성경헬라어의 매뉴얼 문법*에서 발췌했다).

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ㄱ. *에피, 에페이데, 호포테, 호스, 호테, 호탄* (주어) – "언제"
   ㄴ. *헤오스* – "하는 동안"
   ㄷ. *호탄, 에판* (주어) – "언제나"
   ㄹ. *헤오스, 아크리, 메크리*(주어) – "까지"
   ㅁ. *프리브* (부정사) – "이전에"
   ㅂ. *호스* – "이래," "언제," "할 때"
2. 논리적 접속사
   ㄱ. 목적
      (1) *히나*(주어), *호포스* (주어), *호스* – "하기 위하여," "그래서"
      (2) *호스테*(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3) *프로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에이스* (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ㄴ. 결과(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가 서로 가깝다)
      (1)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2) *히나*(주어) – "그 결과"
      (3) *아라* – "그래서"
   ㄷ. 원인 또는 이유
      (1) *가르*(원인/효과 또는 원인/결론) – "위하여," "왜냐하면"
      (2) *디오티, 호티* – "왜냐하면"
      (3) *에페이, 에페이데, 호스* – "때문에"
      (4) *디아*(목적격과) 그리고 (관사와 쓰인 부정사와) – "왜냐하면"
   ㄹ. 추론의
      (1) *아라, 포이눈, 호스테* – "그래서"
      (2) *디오*(강한 추론적인 접속사) – "그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3) *운* –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따라서"
      (4) *토이눈* – "따라서"
   ㅁ. 부사적 또는 대조
      (1) *알라*(강한 부사) – "그러나," "외에는"
      (2) *에*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편"
      (3) *카이* – "그러나"
      (4) *멘토이, 운* – "그러나"
      (5) *플렌* – "그럼에도"(주로 누가복음에서)
      (6) *운* – "그렇지만"

ㅂ. 비교
(1) *호스, 카소스*(비교절을 이끔)
(2) *카타*(합성어에서, *카소, 카소티, 타소스페르, 카사페르*)
(3) *호소스*(히브리서에서)
(4)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5) *에* – "보다"

ㅅ. 계속 또는 시리즈
(1) *테* – "그리고," "지금"
(2) *카이* – "그리고"
(3) *테이* – "그리고"
(4) *히나, 운* – "그래서"
(5) *운* – "그 때"(요한복음에서)

3. 강조적 용법
ㄱ. *알라* – "확실히," "정말," "사실상"
ㄴ. *아라* – "정말," "확실히," "정말로"
ㄷ. *가르*– "그러나 정말로," "확실히," "사실"
ㄹ. *데* – "정말"
ㅁ. *에안* – "조차"
ㅂ. *카이* – "조차," "정말," "사실"
ㅅ. *멘토이* – "정말"
ㅇ. *운* – "정말," "결단코"

VII. 조건절

가. 조건절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조건절을 가지는 문장이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해석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 이유, 원인을 제공하여 왜 본동사의 행동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4 가지의 조건절이 있다. 조건절은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단지 그가 바라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나. 조건절의 제 1 유형은 비록 "만일"이라는 말로 나타나지만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여러 문맥에서 이것은 "~이므로"로 해석된다(참조, 마 4:3; 롬 8:31).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제 1 유형이 사실상 진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것은 논쟁에 있어서 논쟁점을 드러내거나 오류를 뚜렷이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참조, 마 12:27).

다. 조건절의 제 2 유형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으로 종종 불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논지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로서는:
1.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눅 7:39).
2.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요 5:46).
3.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전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며 나는 그 분의 종이다"(갈 1:10).

라. 조건절의 제 3 유형은 가능한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그 행동의 개연성을 예측한다. 대개 우연히 일어남을 내포한다. 본동사의 행동은 "it"절에 있는 행동에 부수하여 일어난다. 예로서는 요일 1:6-10; 2:4, 6, 15, 20, 21, 24, 29; 3:21; 4:20; 5:14, 16 이 있다.

마.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한층 더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드물게 사용된다. 사실상 이런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는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없다. 벧전 3:14 의 앞 부분에 제 4 유형의 부분적인 예가 나온다. 행 8:31 에서는 뒤 부분에 제 4 유형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VIII. 금지

가. 현재 명령형과 함께 사용된 *메* 불변화사는 종종(그러나 항상은 아님)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나타낸다. 예로서는: "땅위에 너의 재물 쌓기를 멈추어라"(마 6:19); "너의 인생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어라"(마 6:25); "너의 육체의 부분을 잘못함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것을 멈추어라"(롬 6:13);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를 멈추어라"(엡 4:30); "포도주에 취해 있기를 멈추어라"(5:18).

나. 부정과거 가정법과 함께 사용된 *메* 불변화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 조차 하지 않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로서는: "이라고 가정하기 시작조차 말라"(마 5:17); "근심하기를 결코 시작하지 말라"(마 6:31); "너는 결코 수치로 여기지 말라"(딤후 1:8).

다. 이중부정과 함께 사용된 가정법은 부정을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 "결코, 절대로 아니" 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니." 예로서는: "그는 결코,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요 8:51); "나는 결코, 절대로 아니…"(고전 *:13).

XI. 관사

가. 코이네 헬라어에서 정관사 "그"는 영어의 관사와 유사하다. 이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시하는 것"으로서 단어, 이름, 또는 구에 관심을 끌게한다. 신약에서 저자마다 그 사용법이 많이 다양하다. 정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시대명사처럼 대비를 하는 기능
2. 이 전에 나온 주제나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
3. 문장에서 주어를 해당되는 동사에 연결시키는 기능. 예: "하나님은 영" 요 4:24; "하나님은 빛" 요일 1:5; "하나님은 사랑" 4:8, 16.

나. 코이네 헬라어는 부정관사(a, an)를 갖지않는다.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1. 어떤 것의 특징이나 특성에 초점이 있다
2. 어떤 것의 그룹적 성격에 초점이 있다.

다. 신약의 저자들이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XI.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강조점을 나타내는 방법

가. 신약에서 저자들이 강조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일정하고 격식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이미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과 그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말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에 아무런 문법적인 고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 롬 6:10(2 회).

다. 코이네 헬라어의 어순
1. 코이네 헬라어는 여형변화가 있는 언어로서, 어순이 영어처럼 고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저자는 기대되는 일반적인 어순과 다음의 이유에서 달라질 수 있다
   ㄱ. 저자가 독자에게 강조하기 원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ㄴ. 저자가 생각하기를 독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ㄷ. 저자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2. 헬라어의 일반적 어순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추정되는 일반적 어순은 다음과 같다:
   ㄱ. 연결동사에서
      (1) 동사
      (2) 주어
      (3) 보충어

ㄴ. 타동사에서
(1) 동사
(2) 주어
(3) 목적어
(4) 간접 목적어
(5) 전치사 구
ㄷ. 명사 구에서
(1) 명사
(2) 수식어
(3) 전치사 구

3. 어순은 석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
ㄱ. "오른손을 그들이 주었다 나에게와 바나바 교제의"(갈 2:9). 이 구에서 "교제의 오른손"이 나뉘어져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한다.
ㄴ. "그리스도와"(갈 2:20)이 맨 앞에 나온다. 그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다.
ㄷ. "그것은 조금씩 많은 다른 방법으로"(히 1:1)가 맨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가 대비되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강조의 강도는 다음에 의해 나타난다
1. 동사의 어형변화에 이미 나타나 있는 대명사의 반복. 예 "나, 나 자신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
2. 예상되는 접속사의 부재 혹은 단어 구 절 문장을 잇는 연결용어의 부재. 이것은 접속사의 생략으로 불린다. 연결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없음으로서 주의를 끈다. 예:
ㄱ. 산상수훈, 마 5:3 이하(항목을 강조)
ㄴ. 요 14:1(새 주제)
ㄷ. 롬 (:1(새 단락)
ㄹ. 고후 12:20(항목을 강조)
3. 단어 혹은 구를 같은 문맥에서 반복함.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엡 1:6, 12, 14). 이 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4. 관용어 혹은 언어(소리)유희를 이루는 용어의 사용
ㄱ. 완곡어법 – 타부시 되는 주제를 대신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죽음대신 "잠"(요 11:11-14) 혹은 남성 성기대신 "발"(룻 3:7-8; 삼상 24:3).
ㄴ. 둘러서 표현하기 – 하나님의 이름대신에 "하나님의 왕국"(마 3:21) 혹은 "하늘에서의 소리"(마 3:17)로 표현.
ㄷ. 수사법
(1) 불가능한 과장(마 3:9; 5:299-30; 19:24).
(2) 다소의 과장(마 3:5; 행 2:36).
(3) 의인화(고전 15:55).
(4) 모순(갈 5:12).
(5) 시적 본문(빌 2:6-11).
(6) 단어들의 발음을 사용한 언어적 기교
ㄱ) "교회"
1) "교회"(엡 3:21)
2) "부르심"(엡 4:1, 4)
3) "부르심을 입은"(엡 4:1, 4)
ㄴ) "자유로운"
1) "자유한 여인"(갈 4:31)
2) "자유"(갈 5:1)
3) "자유한"(갈 5:1)
ㄹ. 관용적 언어 – 대개 문화와 언어에 독특한 표현법:
(1) "음식"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4:31-34).
(2) "성전"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2:19; 마 26:61).
(3) "미워함"은 히브리어의 불쌍히 여김에 대한 관용적 표현임(창 29:31; 신 21:15; 눅 14:36; 요 12:25; 롬 9:13).
(4) "모든" 대 "많은." 사 53:6("모든")을 53:11, 12("많은")과 비교하라. 이 용어들은 롬 5:18, 19 에서 처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5. 한 단어 대신에 완전한 언어적 구를 사용하기. 예: “주 예수 그리스도.”
6. *아우토스*의 특별용법
   ㄱ. 관사와 함께(설명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같은”으로 번역된다.
   ㄴ. 관사없이(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강화된 재귀대명사로 번역된다—“그 자신,” “그녀 자신,” 또는 “그 자신.”

마. 헬라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러 사항들에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분석적 사전과 헬라어/한국어 행간 성경.
2. 여러 현대 번역본, 특히 다른 번역이론을 가진 번역본의 비교연구. 예: “축어적 번역본”(KJV, NKJV, ASV, MASB, RSV, NRSV)와 “등가번역본”(윌리암스, NIV, NEB, REB, JB, NJB, TEV).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 개언어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된다.
3. 요셉 브라이언트 로더햄의 *강조 성경*(크레겔, 1994)의 사용.
4. 매우 문자적 번역본의 사용
   ㄱ. 1901 년판 *미국표준역*
   ㄴ. 로버트 영이 쓴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가디안 출판사, 1976).

문법의 연구는 지루하지만 적절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 위의 간략한 정의, 설명, 예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책에서 제공한 문법적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함이다. 이 정의들은 너무 간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정의들은 교조적이고 융통성없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신약의 구문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역할을 할 뿐이다. 바라기는 이 정의들이 신약성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문법은 이런 항목 중 가장 유용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역사적 상황, 문학적 문맥, 그 당시의 단어 사용법, 병행되는 성경구절이 있다.

로마서 1-3 장에 대한 작업표의 예

I. 첫 번째 독서

가. 전체적 목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수 있는가(그 일의 시작과 계속)?

나. 핵심을 이루는 열쇠: 1:16-17

다. 문학적 장르: 서신

II. 두 번째 독서

가. 주요한 문학적 단락
1. 1:1-17
2. 1:18-3:21
3. 4:1-5:21
4. 6:1-8:39
5. 9:1-11:36
6. 12:1-15:37
7. 16:1-27

나. 주요한 문학적 단락의 요약
1. 서론과 주제, 1:1-17
2. 모든 사람이 잃어버려짐, 1:18-3:21
3. 칭의는 선물이다, 4:1-5:21
4. 칭의는 삶의 방법이다, 6:1-8:39
5. 칭의에 대한 유대인의 관계, 9:1-11:36
6.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칭의를 이룰 수 있는가, 12:1-15:37
7. 끝맺는 인사와 경고, 16:1-27

III. 세 번째 독서

가.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적 정보
1. 저자
   ㄱ. 바울, 1:1
   ㄴ. 그리스도 예수의 종, 1:1
   ㄷ. 사도, 1:1,5
   ㄹ. 이방인을 위한, 1:5,14
2. 저작 시기
   ㄱ. 바울이 회심하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1:1
   ㄴ. 로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영향력을 나타낸 후에, 1:8
3. 수신자
   ㄱ. 성도, 1:7
   ㄴ. 로마에 있는, 1:7
4. 이유
   ㄱ. 그들의 믿음이 잘 알려져 있다, 1:8

ㄴ. 바울이 자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1:9-10
ㄷ. 바울이 그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소원한다, 1:11
ㄹ.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주기 원한다, 1:11,15
ㅁ.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두 쪽이 다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1:12
ㅂ.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일이 막혔다, 1:13

5. 역사적 상황
ㄱ. 로마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에 글을 썼다
ㄴ. 바울은 분명히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 1:1-13
ㄷ. 분명히 로마제국(특히 로마)은 매우 부도덕하며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곳이었다, 1:11 이하
(1) 우상들, 1:21-23
(2) 동성애, 1:26-27
(3)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 1:28-31
ㄹ. 로마에는 분명히 많은 유대인이 살았다(2:17-2:31; 9-11 장,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사이에 점점 커지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나. 다양한 문단 구분

ASV (문자적)	예루살렘 성경 (관용적)	윌리암스 (관용적)
첫 번째 대단락, 1:1-17	**첫 번째 대단락, 1:1-17**	**첫 번째 대단락, 1:1-17**
1:1-7	1:1-2	1;1-7
1:8-15	1:3-7	1:8-15
1:16-17	1:8-15	
	두 번째 대단락, 1:16-3:31	**두 번째 대단락**
두 번째 대단락, 1:16-3:31	1:16-17	1:16-23
1:18-23	1:18-25	
1:24-25		**세 번째 대단락**
1:26-27	1:26-27	1:24-32
1:28-32	1:28-32	
2:1-16	2:1-11	**네 번째 대단락**
2:17-29	2:12-16	2:1-16
3:1-8	2:17-24	2:1-11
3:9-18	2:25-29	2:12-16
3:19-20	3:1-8	
3:21-30	3:9-18	**다섯 번째 대단락**
3:31	3:19-20	2:17-29
	3:21-26	2:17-24
	3:27-31	2:25-29
		여섯 번째 대단락
		3:1-18
		3:1-8
		3:9-18
		일곱 번째 대단락
		3:19-31
		3:19-20
		3:21-26
		3:27-31

다. 간략한 설명을 곁들인 문단별 대지

1. 서론과 주제, 1:1-17
   ㄱ. 저자에 대한 서론, 1:1-2
   ㄴ. 수신자에 대한 서론, 1:3-7
   ㄷ. 시작하는 기도, 1:8-15
   ㄹ. 주제, 1:16-17
2.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함, 1:18-32
   ㄱ.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 볼 수 있다, 1:18-32
   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 볼 수 있다, 2:1-11
   ㄷ. 그들의 민족적 소망, 2:12-3:8
      (1) 그들의 율법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 2:12-24
      (2) 그들의 할례는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 2:25-29
      (3) 그들의 유산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 3:1-8
   ㄹ.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함, 3:9-20
   ㅁ. 모든 사람의 소망, 3:21-31

IV. 네 번째 독서(예, 1:1-3:21, 핵심적 본문에만 다루고 있음)

가. 중요한 목록

1. (여기서는 1:1-3:21 로 제한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라는 용어는 중요한 목록의 한 가지 예이다. 이 단어는 2:1; 5:1; 8:1; 12:1 에 나오는데, 생각의 흐름을 요약하여 제시하려고 바울이 사용한 용어이다)
2. "복음"의 용법
   ㄱ. 1:1,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
   ㄴ. 2:9,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ㄷ. 1:15, 복음을 선포하는 일
   ㄹ.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ㅁ. 2:16, 내 복음에 따르면
   [이러한 항목과 문맥을 고려할 때, 복음에 대한 커다란 강조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3.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
   ㄱ. 1:18, 하나님의 진노
   ㄴ. 1:24,26,28,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ㄷ. 2:1,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위에 임한다
   ㄹ. 2:3, 하나님의 심판
   ㅁ. 2:5-6, (두 절 모두)
   ㅂ. 2:12, 멸망할 것이다
   ㅅ. 2:16, 그날에 . . .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ㅇ. 3:6,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나. 핵심적 단어나 구

1. 1:1, 사도
2. 1:1, 하나님의 복음
3. 1:4, 하나님의 아들
4. 1:5, 은혜 . . .믿음
5. 1:6, 부르심을 받은
6. 1:7, 성도
7. 1:11, 영적 은사 . . .어떤 열매(13 절)

8. 1:16, 구원
9. 1:17, 의
10. 1:18, 하나님의 진노 . . .하나님의 심판(2:2)
11. 2:4, 회개
12. 2:7, 죽지 않음, 영생
13. 2:12, 율법
14. 2:15, 양심
15. 3:4, 의롭게 됨
16. 3:24, 구속
17. 3:25, 화해

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1. 본문 또는 번역에 있어서
   - 1:4, "거룩함의 성령" 또는 "거룩함의 영"
2. 합 2:4 의 적합한 해석이 롬 1:1-7 에 나타나는가?
3. 역사적
   - 2:21-23, "~라고 설교하는 네가" (유대인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러한 설교를 하였는가?)
4. 신학적
   ㄱ. 1:4,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 ." (예수께서 신으로 태어나신 것인가?)
   ㄴ. 2:14-15(2:27),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 . ."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일부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ㄷ. 3:1, "유대인은 어떠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가?

라. 중요한 평행구절
1. 같은 책
   - 1:18-3:21 은 한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
2. 같은 저자
   - 갈라디아서는 같은 내용의 교리적 진리를 제시한다
3. 같은 시기 –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없다
4. 신약의 책 –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없다
5. 성경 전체 – 바울은 합 1:4 을 사용한다. (그는 제 4 장에서 구약의 인물에 대하여 다룬다)

마. 신학적 독특성
1. 자연계시
   ㄱ. 창조에 있어서, 1:18-23
   ㄴ. 내적인 도덕적 양심, 2:14-16
2. 모든 인간이 잃어버려졌다

V. 적용(1:1-3:21 에 대한 예)

자세한 설명적 대지	적용할 점
가. 서론과 주제(1:1-17) 1. 저자에 대한 서론, 1:1-2 2. 수신자에 대한 서론, 1:3:7 3. 시작기도, 1:8-15 4. 주제, 1:16-17	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은혜는 바울과 로마에 있는 자들이 믿고 받은 부르심을 의미한다. 이 은혜는 모든 자에게 제시되고 있다.
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함, 1:18-3:21 1.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 1:18-32 2. 유대인들이 잃어버려진 것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 2:1-11 3. 그들의 민족적 소망, 2:12-3:8 ㄱ. 그들의 율법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 2:12-24 ㄴ. 그들의 할례는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 2:25-29 ㄷ. 그들의 유산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 3:1-8 4.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함, 3:9-20 5. 모든 사람의 소망, 3:21-31	나. 누구든지 자신의 외적 종교생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그들의 공로가 아니라)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된다. 1:18-3:31 에서 중요한 결론적 본문은 3:21-30 이다.

디도서에 대한 작업표의 예 (책 전체를 다룸)

I. 첫 번째 독서

가. 이 책의 전체적 목적은:
지역교회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통적인 신앙과 정통적인 행습을 강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 핵심을 이루는 열쇠: 1:16-17
1. 교회와 장로를 세움, 1:5
2.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야 할 필요성:
ㄱ. 정통적인 신앙 – 1:9-11,14; 2:1
ㄴ. 정통적인 행습 – 1:16; 3:8

다. 문학적 장르: 서신
1. 서언 1:1-4
2. 끝맺는 말 3:12-15

II. 두 번째 독서

가. 주요한 문학적 단락 또는 내용에 따른 구분:
1. 1:14
2. 1:5-9
3. 1:10-16
4. 2:1-10a
5. 2:10b-15
6. 3:1-11
7. 3:12-15

나. 주요한 문학적 단락이나 내용적 단락의 요약
1.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편지에서 사용한 인사말, 1:1-4
2. 장로들을 위한 지침, 1:5-9
3.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한 지침, 1:10-16
4. 신자들을 위한 일반적 지침, 2:1-10a
5. 지침에 대한 신학적 근거, 2:10b-15
6.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지침, 3:1-11
7.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편지에서 사용한 맺음말, 3:12-15

III. 독서의 여러 단계

가. 이 책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내적 정보
1. 저자
ㄱ. 바울, 1:1
ㄴ. 하나님의 종, 1:1
ㄷ.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1
2. 저작시기
ㄱ. 디도에게 보낸 내용임, 1:4
(1)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음
(2) 그는 바울의 선교여행 때에 회심하였고 따른 자이었음이 분명하다, 갈 2:1

(3)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갈 2:3
(4) 그는 바울에게 문제를 안기는 사람이 되었다, 고후 2:13; 딤후 4:10; 딛 1:4

ㄴ. 바울은 그를 그레데에 남아 있게 하였다, 1:5
(1) 목회서신의 회람이 사도행전의 연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서신의 내용은 바울의 네 번째 선교여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네로에게 다시 붙잡여 죽임을 당했다. 네로는 주후 68 년에 죽었다

3. 수신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 한편 이 서신을 각 지역에 있는 회중도 읽었다
4. 이유: 그레데 섬에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감당하기
ㄱ. 장로들을 세우기, 1:5
ㄴ. 거짓 교사들을 꾸짖기, 1:9-11,14-16; 3:9-11
ㄷ. 신실한 자들을 격려하기

나. 다양한 문단 구분
1. 문단 구분

문자적 번역		등가 번역		
NASB	NRSV	예루살렘바이블*	NIV*	윌리암스*
단락 1	**단락 1**	**단락 1**	**단락 1**	**단락 1**
1:1-4	1:1-3	1:1-4	1:1-4	1:1-4
	1:4		1:5-9	
			1:10-16	
단락 2	**단락 2**	**단락 2**	**단락 2**	
1:5-9	1:5-9	1:5-9	1:5-9	
1:10-16	1:10-16		1:10-16	
		단락 3		
		1:10-14		
		1:15-16		
단락 3	**단락 3**	**단락 4**	**단락 3**	**단락 2**
2:1-14	2:1-2	2:1-10	2:1-2	2:1-10
2:15	2:3-5		2:3-5	2:11-14
	2:6-8		2:6-8	2:15
	2:9-10	**단락 5**	2:9-10	
	2:11-14	2:11-14	2:11-14	
	2:15	2:15	2:15	
단락 4	**단락 4**	**단락 6**	**단락 4**	**단락 3**
3:1-11	3:1-11	3:1-3	3:1-2	3:1-2
		3:4-8a	3:3-8	3:3-7
		단락 7	3:9-11	3:8-11
		3:8b-11	**단락 5**	3:12
			3:12-14	3:13-14
		단락 8	3:15	3:15
		3:12-14	3:12-14	3:12-14
		3:15	3:15	3:15

2. 여러 번역본의 내용적 요약
   ㄱ. 예루살렘 바이블
      (1) 단락 1, “인사말,” 1:1-4
      (2) 단락 2, “장로들의 임명,” 1:5-9
      (3) 단락 3,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1:10-14,15,16
      (4) 단락 4, “몇 가지 특별한 도덕적 지침,” 2:1-10
      (5) 단락 5,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의 기초,” 2:11-14
      (6) 단락 6, “신자들에게 주는 일반적 지침,” 3:1-3,4-8a
      (7) 단락 7, “디도에게 주는 개인적 충고,” 3:8b-11
      (8) 단락 8, “실제적 충고, 작별인사와 축원의 말,” 3:12-14,15
   ㄴ. NIV
      (1) 단락 1, “인사,” 1:1-4
      (2) 단락 2, “그레데에서 디도가 해야 할 일,” 1:5-9,10-16
      (3) 단락 3,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2:1-2,3-5,6-8, 9-10,11-14,15
      (4) 단락 4, “선한 것을 행하라,” 3:1-2,3-8,9-11
      (5) 단락 5, “마지막 말,” 3:12-14,15
   ㄷ. 윌리암스역
      (1) 단락 1, “하나님의 백성이 행동을 통해 구별된다,” 1:1-4,5-9,10-16
      (2) 단락 2,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2:1-10,11-14,15
      (3) 단락 3, “신자들은 선을 행하여야 한다,” 3:1-2,3-7,8-11,12,13-14,15

다. 구분한 문단의 요약
   1.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편지에서 사용한 인사말, 1:1-4
      ㄱ. 누구로부터, 1:1a
         (1) 바울
         (2) 하나님의 종
         (3)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ㄴ. 왜, 1:1b-3
         (1)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 그들을 온전한 지식으로 이끌기 위하여
            (ㄱ)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 안에서
            (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합한 때에
            (ㄷ)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바울에게 맡겨진 메시지로써
      ㄷ. 누구에게, 1:4a
         (1) 디도에게
         (2) 공통된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에게
      ㄹ. 기도, 1:4b
         (1) 영적 축복
         (2) 평화
         (3) ~로 부터
            (ㄱ) 우리 아버지 하나님
            (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
   2. 장로들을 위한 지침, 1:5-9
      ㄱ. 책망할 것이 없고, 1:6,7
      ㄴ. 한 아내의 남편이며
      ㄷ. 믿는 자녀를 둔 자

ㄹ.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자
ㅁ. 불순종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
ㅂ.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ㅅ.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ㅇ.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ㅈ. 구타하지 아니하며
ㅋ.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ㅌ. 나그네를 대접하며
ㅍ. 선을 좋아하며
ㅎ. 근신하며
ㄱ. 의로우며
ㄴ. 거룩하며
ㄷ. 절제하며
ㄹ.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ㅁ.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ㅂ.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함(2:15)

3.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한 지침, 1:10-16
ㄱ. 복종치 않으며
ㄴ. 헛된 말을 하며
ㄷ.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ㄹ. 유대인적 요소를 가짐
(1) 할례, 1:10
(2) 유대인의 신화, 1:14
(3) 족보, 3:9
(4) 율법에 대한 다툼, 3:9
ㅁ.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지게 함
ㅂ. 더러운 이익을 추구함
ㅅ.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움
ㅇ.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부인함
ㅈ. 가증한 자
ㅊ. 복종치 아니함
ㅋ. 모든 선한 일을 버림

4. 신자들에 대한 일반적 지침, 2:1-10a,12
ㄱ. 늙은 남자들에 대한 지침, 2:2
(1) 절제하며
(2) 경건하며
(3) 근신하며
(4) 믿음에 강건함
(5) 사랑에 강건함
(6) 인내함
ㄴ. 늙은 여자들에 대한 지침, 2:3
(1) 행실이 거룩하며
(2) 참소치 말며
(3)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4)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5)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는 자가 됨
ㄷ. 젊은 여자들에 대한 지침, 2:4-5

(1) 남편을 사랑하며
(2) 자녀를 사랑하며
(3) 근신하며
(4) 순전하며
(5) 집안 일을 하며
(6) 친절하며
(7)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ㄹ. 젊은 남자들에 대한 지침, 2:6-8
(1) 근신하며
(2) 제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3) 진실되며
(4) 진지하게 가르치며
(5) 책망할 것 없는 말을 하며
(6) 거부할 수 없는 자가 되라

ㅁ. 믿는 종들에 대한 지침, 2:9-10
(1)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2) 그들에게 거스려 말하지 말며
(3) 떼어 먹지 않음

5. 이러한 지침의 신학적 근거, 2:10b-15; 3:4-7
ㄱ.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2:10b
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라, 2:10b
ㄷ. 복스러운 소망(재림)을 기다림, 2:13
ㄹ.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백성을 구속하셨다, 2:14
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3:4
ㅂ.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3:5
ㅅ.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3:5
(1)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2)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3)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4)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게 되었다
(5) 우리는 영생의 후사가 되었다

6.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지침, 3:1-11
ㄱ.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3:1-2
(1)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3) 화평하라
(4)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라

ㄴ.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라. 그 이유는 3:3-8
(1) 신자들이 전에는 다음과 같았다:
(ㄱ) 어리석고
(ㄴ) 순종하지 않고
(ㄷ) 미혹을 당하고
(ㄹ) 온갖 정욕에 종노릇 하고
(ㅁ) 악의를 가지고 살며
(ㅂ)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다

ㄷ. 다음과 같은 것을 조심하라, 3:9-11
(1) 어리석은 논쟁

(2) 족보 이야기
(3) 분쟁
(4) 율법에 대한 다툼
(5)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ㄱ) 비뚤어진 자이다
(ㄴ) 죄를 짓는 자이다
(ㄷ) 스스로 정죄한 자이다

7.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편지에서 사용한 맺음말, 3:12-15
ㄱ. 디도를 대신할 사람이 오고 있다, 3:12
(1) 아데마 (또는)
(2) 두기고
ㄴ. 디도는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3:12
ㄷ. 성도들에게 다음 사람들을 도우라고 권하라, 3:13-14
(1) 세나 (및)
(2) 아볼로
ㄹ. 마지막 인사와 맺음말, 3:15

라. 가능한 적용점의 목록을 만들라: 이 상세한 대지를 종이의 왼편에 적은 후, 각 주요 단락과 각 문단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그 옆에 기록하라. 적용할 내용을 하나로 된 설명적 문장으로 표현하라. 이 대지는 당신의 설교에 요점을 제공할 것이다.

IV. 네 번째 독서

가. 평행을 이루는 중요한 본문(다른 목회서신)
1. 디모데 전서(특히 3:1-13)
2. 디모데 후서

나.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1. "구원자"라는 호칭의 사용
ㄱ.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1:3; 2:10; 3:4
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1:4; 2:13,36
2.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복음진리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내용: (참조, III., ㄷ. 5 항)
ㄱ. 2:10b-14
ㄴ. 3:4-7
3. 장로의 자격에 대한 내용, 1:7-9(참조, III., ㄷ. 2 항. 이 용을 딤전 3:1 이하와 비교하라)
4. 거짓 교사의 특징: (참조, IV., ㄷ. 3 항)
ㄱ. 1:10-16
ㄴ. 3:9-11

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1. 본문적 문제 – 1:6b 에 있는 구는 장로에 대한 내용인가 아니면 장로의 자녀에 대한 내용인가?
ㄱ. 장로 – NASB, NRSV
ㄴ. 장로의 자녀 – NIV, 윌리암스
2. 바울의 네 번째 선교여행에 대하여 말하는 어떤 본문이나 역사적 증거가 있는가?

ㄱ. 성경에서
(1)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였다, 롬 15:24,28
(2) 목회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순회여행의 여정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회여행의 경로와 같지 않다.
ㄴ. 역사 자료에서
(1) 유세비아는 자신의 책(교회사, 2:22:2-3)에서 사도행전이 마쳐진 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초대교회의 다른 전통에서도 바울이 지중해의 가장 서쪽까지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한다
(ㄱ) 로마의 클레멘트
(ㄴ) 무라토리안 단편

3. 신학적 문제 – 침례를 받음으로써 중생을 체험한다는 교리를 3:5 이 지지하는가?
4. 혼동 – 장로들은 절대 금주가들이 아니었고, “술에 인박이지 않은 자들이었다”(1:7). 같은 내용을 늙은 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2:3).

에베소서 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죽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을 따라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
2:1-10	2:1-10	2:1-10	2:1-3	2:1-6
			2:4-10	
				2:7-10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의 피로써 가까와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2:11-13	2:11-13	2:11-22	2:11-12	2:11-18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		2:13-18	
2:14-22	2:14-22			
			2:19-22	2:19-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2:1-22 에 대한 문맥적 통찰

가. 영지주의와 유대교는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구원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다음 사항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가르침을 배제시킨다: (1)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1 장 (2)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 2:1-10 (3)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신비'(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2:11-3:13. 바울은 인간이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이 세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참조, 1:3-14; 2:4-7), 각 사람이

자신의 응답에 책임을 져야하고(참조, 2:8-9) 또 새 언약의 빛을 따라서 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2:10).

나. 범죄한 인류에게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원수에 대하여 2-3 절에서 제시한다(참조, 약 4:1,4,7): (1) 타락한 세상의 제도, 2 절 (2) 천사인 대적(사탄), 2 절 (3) 타락한 인간의 본성(아담과 같은 본성), 3 절. 1-3 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으며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음을 제시한다(참조, 롬 1:18-2:16).

다. 1-3 절에서는 인간의 가련한 상황을 나타내지만, 4-6 절에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낸다. 인간의 죄는 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이보다 크고 좋다(참조, 롬 5:20)!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참조, 1:20),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행하셨다(참조, 2:5-6).

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저로 베푸시는 은혜와 인간의 노력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나타난다. 이 긴장을 역설적 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설법(선언)과 명령법(명령); 은혜/믿음의 객관성(복음의 내용)과 주관성(각자 복음을 경험해야 함);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경기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리는 경기. 이 긴장은 2:8-9(은혜를 강조하는 본문)과 2:10(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에서 분명히 제시된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만을 신학적 전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동시에 전제로 삼는 진리이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 다가오는데,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기초가 된다. 8-10 절은 기독교 복음의 역설적인 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하다—거저로 받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믿음과 행함(참조, 약 2:14-26)!

마. 2:11-3:13 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 이것은 처음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에 대한 내용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유대인(참조, 겔 18:23,32)과 이방인(참조, 딤전 2:4; 벧후 3:9)—메시아께서 행하신 대속적 죽음을 믿는 개인의 신앙을 통하여 대속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창 3:15 과 12:3 에 나온다. 이렇게 완전히 거저 누리는 용서(참조, 롬 5:12-21)는 유대인들, 모든 종교적 지도자(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오늘날 "행위에 따른 의"를 부르짖는 모든 추종자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10

[1]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 1-7 절 또는 1-10 절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본동사는 5 절에 나타난다. 이것은 긴 형태의 논의이다.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은 (1) 모든 인류가 소망이 없고, 도울 이가 없으며, 영적으로 잃어버려짐, 1-3 절 (2)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4-7 절 (3) 인간이 믿음과 삶으로써 응답하여야 할 필요성(8-10 절)이다.

▣ **"너희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 복수형 대명사는 항상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참조, 1:13; 2:12).

▣ **"죽었던"**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죽어 있는"을 뜻한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가리킨다(참조, 5 절; 롬 5:12-21; 골 2:13). 성경에서는 죽음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하여 말한다: (1) 영적 죽음(참조, 창 2:17; 3 장; 사 59:2; 롬 7:10-11; 약 1:15) (2) 신체적 죽음(참조, 창 5 장) (3)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 "두 번째 죽음"으로도 불린다(참조, 계 2:11; 20:6,14; 21:8).

▣ **"허물"** 이 헬라 용어(*파라프토마*)는 "어느 한 쪽으로 떨어짐"을 뜻한다(참조, 1:7). "죄"를 뜻하는 모든 헬라 단어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남을 뜻하는 히브리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히브리어에서 "옳은," "바른"이라는 용어 및 그 파생어는 건축과 관련을 가진 은유적 표현인 '측량을 하는 갈대'를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이시다. 모든 인간은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참조, 시 14:1-3; 5:9; 10:7; 36:1; 53:1-4; 140:3; 사 53:6; 59:7-8; 롬 3:9-23; 벧전 2:25).

▣ **"죄"** 이 헬라 단어(*하마르티아*)는 "표적에서 벗어남"을 뜻한다(참조, 4:26). 1 절에서 "죄"를 뜻하는 이 두 단어는 동의어적 표현으로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롬 3:9,19,23; 11:32; 갈 3:22).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행하다"는 삶을 뜻하는 성경의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2:1,10; 4:1,17; 5:2,8,15).

▣

NASB, NKJV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NRSV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TEV	**"세상의 악한 길을 따랐다"**
NJB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며"**

현재의 타락한 세계 조직(즉, 시대)을 의인화하여 원수로 표현한다(참조, 갈 1:4).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을 나타낸다. 요한의 글에서는 "세상"(참조, 요일 2:2,15-17; 3:1,13,17; 4:1-17; 5:4,5,19) 또는 "바벨론"(참조, 계 14:8; 16:19; 17:5; 18:2,10,21)으로 부른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이다. 골 1:6 의 특별주제: 바울이 사용한 *코스모스* 용법을 보라.

▣

NASB, NKJV	**"공중의 권세 잡은 왕에 따라"**
NRSV	**"공중의 권세 잡은 다스림을 따르며"**
TEV	**"우주에 있는 영적 권능의 지배자에게 너희가 순종하였다"**
NJB	**"공중을 지배하는 지배자에게 순종하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두 번째 원수인 사탄 또는 참소자를 가리킨다. 인간은 천사인 유혹자에게 굴복하였다(참조, 창 3 장; 욥 1-2 장; 슥 3 장). 그는 이 세상의 지배자 또는 신으로 불린다(참조, 요 12:31; 14:30; 16:11; 고후 4:4; 요일 5:19).

신약에서, 공중은 귀신들의 영역으로 제시된다. 헬라인들은 낮은 대기층(아엘)을 불순한 곳으로 여겨 악한 영의 지역으로 생각하였다. 어떤 사람은 "공기"에 대한 이러한 용법이 영적 세계의

초물질적 성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교회의 휴거"에 대한 개념은 살전 4:17 에 "붙잡혀 올라가다"라는 구의 라틴어 번역에서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왕국인 "공중"의 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사탄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개인적 악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선에 대항하는 주요한 원수가 아니라, 인간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며 사람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야웨의 종에 대해 말한다.
2. 하나님께 대항하는 옛 원수의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글에서 페르시아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이러한 사상은 이어서 랍비적 유대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들을 놀랍도록 뚜렷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또 관련된 항목별로 발전시켰다.

만일 누가 악의 문제를 성경신학의 관점(각 책 또는 저자별, 장르별로 연구하고 개요를 구별하는)에서 접근한다면, 매우 상이한 견해들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외의 자료를 가지고 악에 대해 연구하거나 세계종교에 대한 성경이외의 자료나 동방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신약의 많은 부분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그리스-로마의 강신술로 설명됨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념의 발전을 반드시 점진적인 계시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민속전승이나 서양문학(즉, 단테, 밀톤)이 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해야 한다. 계시에는 어느 정도 신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해, 악의 기원에 대해, 악의 목적에 대해 모든 면을 다 알도록 하지 않으셨으나, 그는 악의 패배를 계시하셨다!

구약에서 사탄 혹은 고발자는 세 가지 종류로 사용된 것 같다

1. 사람인 고발자(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23,25; 시 109:6)
2. 천사인 고발자(민 22:22-23; 슥 3:1)
3. 악령인 고발자(대상 21:1; 왕상 22:21; 슥 13:2)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 3 장의 뱀이 사탄으로 알려졌다(지혜서 2:23-24; 에녹 2 서 31:3),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러한 해석은 랍비들의 주장이 되었다(참조, *Sot* 9b 와 *Sanh.* 29a). 창 6 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 1 서 54:6 에서 천사로 이해되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되어 온 것임을 드러내려는 이유에서다. 신약은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천사로 의인화된 악(즉, 사탄)으로 묘사한다(고후 11:3; 계 12:9).

의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당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이유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강한 유일신 사상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겔 7:14; 사 45:7; 암 3:6). 모든 것의 원인은 야웨께로 돌려져 그의 유일하심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사 43:11; 44:6,8,24; 45:5-6,14,18,21,22).

가능한 자료인 (1) 욥 1-2 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즉, 천사) 중 하나로 나온다 (2) 사 14; 겔 28 장에서는 사탄의 자긍심에 비유된 근동 왕들(바벨론과 두로)의 교만이 나온다(참조, 딤전 3:6). 나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교차되는 느낌을 갖는다. 에스겔은 두로왕을 사탄으로써 표현하고(참조, 겔 28:12-16) 이집트 왕을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비유함(겔 31 장)으로써 에덴동산의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교만으로 일어난 천사의 반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의 특별한 정체와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간접적인 본문은 그것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신구약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 혹은 각각 다른 저자, 다른 책, 다른 장르에서 취한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적인 퍼즐의 조각으로 재구성하려는 조직신학적 경향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그의 책 *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간* 제 2 권의 부록 XIII (748-763 쪽)과 XVI (770-776 쪽)에서 랍비들의 유대교는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추론적인 귀신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랍비들의 저술은 이 부분에서 유용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회당의 가르침과 달랐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일에 있어서 천사의 중재적인 역할과 반대적 역할에 대한 랍비적인 관념은 야웨와 인간의 적으로 나타나는 천사장의 개념을 갖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페르시아의 이원론에는 두 높은 신들인 *아키만*과 *오마자* 즉 선과 악이 나온다. 이 이원론은 유대교에서 야웨와 사탄과의 이원론으로 발전되었다.

신약에는 악의 발전에 대하여 점진적인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랍비들의 저술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록된 내용마저도 묵시적 장르로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7,12-13). 비록 사탄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는 아직 야웨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전 1:20).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제어해야만 한다. 시험을 하고 악한 힘을 나타내는 존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영적 전쟁이 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 또 그분을 통해서만 승리가 온다. 악은 패배하였고 또 제거될 것이다!

▣

NASB, NKJV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NRSV	**"불순종하는 자들 중에서"**
TEV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NJB	**"반역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것은 반역이 체질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5:6).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 . .지내며"**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바울과 그의 사역팀을 의미한다. 뒤에 나오는 구인 "다른 이들과 같이"를 고려할 때, 이 구는 구약에서 선택받은 모든 자, 곧 유대인을 뜻할 수 있다. 이 동사는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수동태는 타락한 인간이 외부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사탄이나 귀신, 2 절; 3:10; 6:12 에서 이들에 대하여 언급함)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

NASB, NKJV	**"우리 육체의 욕심 안에서"**
NRSV	**"우리 육체의 정열 안에서"**
TEV	**"우리의 자연스런 욕망에 따라"**
NJB	**"음란한 삶"**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세 번째 원수이다. 비록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2 절에 나오는 두 원수와 평행을 이루는 구조가 아니지만("~을 따라서"), 이것은 두 원수와 신학적 평행을 이룬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적 자아(참조, 창 3 장)는 가장 심각한 원수이다(참조, 갈 5:19-21).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모든 사람을 조종한다(참조, 롬 7:14-25).

바울은 "육체"를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한다. 문맥을 통하여서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2:11,14; 5:29,31; 6:5,12 에서는 이 단어가 "인간의 인성"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타락하여 죄악된 본성"을 가리킨다.

▣

NASB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에 빠져"**
NKJV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NRSV **"육체와 정욕의 원하는 것을 따라"**
TEV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바라는 것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였다"**
NJB **"우리 자신의 신체적 욕망과 우리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 철저히 지배를 받아"**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며, 습관적인 행동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인간의 몸과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유혹과 죄의 전쟁터를 이룬다(참조, 4:17-19; 롬 6 장과 7 장).

▣ "본질상"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아담의 경향을 가리킨다(참조, 창 3 장; 시 51:5; 욥 14:4; 롬 5:12-21; 7:14-25). '창 3 장의 사건이 인간의 타락을 나타낸다'라고 랍비들이 말하지 않는 점은 놀랍다. 오히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도(*옛제르*, 선한 의도와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랍비들이 말한 유명한 잠언이 있다: "각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검은 개와 흰 개를 가지고 있다. 그가 가장 잘 먹이는 개가 가장 큰 녀석이 된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신학적 원인을 제시한다: (1) 아담의 범죄 (2) 의지적인 무지함 (3) 죄악된 선택.

▣ "진노의 자녀" "~의 자녀"나 "~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관용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이 죄를 짓고 반역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시적(시간적)이며 종말적(마지막 때에)으로 임한다.

▣

NASB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NKJV **"우리를 함께 앉게 하였다"**
NRSV, TEV **"모든 이들과 똑같이"**
NJB **"세상의 다른 이들과 같이"**

이것은 모든 인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잃어버려졌음을 가리킨다(참조, 롬 1:18-3:21). 바울은 잃어버려진 자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참조, 살전 4:13; 5:6).

2: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절망적이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1-3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힘입는 상태로(4-7 절)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열쇠이다(참조, 7 절). 의의 길을 제공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따른 것이지(참조, 1:7,18; 2:7; 3:8,16) 인간의 행실에 따른 것이 아니다. 1:7 에서 "부요함"에 대한 설명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는 이 절에서, 현재 분사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사용되었음은 유의할 만하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한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참조, 요일 4:10)!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구는 1a 절과 평행을 이룬다. 바울은 삽입적인 생각을 제시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 대한 원래의 논리(참조, 1-3 절)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셨다(참조, 롬 5:6,8).

▣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표현은 한 헬라어 단어(*쉬조포이에오*)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1 절에서부터 시작된 문장의 본동사이다(부정과거 능동 직설법). 이 단어는 "함께 참여함"이라는 뜻을 가진 *쉰*이라는 헬라어 전치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세 동사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동사이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1:20). 신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영적 생명으로 빨리 옮겨졌다(참조, 골 2:13). 진실로,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2:5,8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우회적으로 사용한 완료 수동 분사로서, 8 절에서 반복되어 강조를 나타낸다. 이 표현은 다음 사실을 나타낸다: 신자들이 과거에 외부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지속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또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 이같은 구문이 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8 절에서 반복된다. 엡 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본문은 성도의 안전함을 가르치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다(참조, 요 6:37,39; 10:28; 17:2,24; 18:9; 롬 8:31-39). 성경의 다른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진리의 다른 면을 나타내는 본문과 함께 취하여 균형(긴장상태의 유지)을 이루어야 한다.

2:6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쉰*과 합성어를 이룬 두 번째 부정과거이다.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신자들은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와 함께 묻혔고(참조, 골 2:12; 롬 6:3-11), 예수를 살리신(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것임, 롬 8:11) 성부에 의하여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참조, 골 2:13; 롬 6:4-5). 이 내용은 모두 구속에 대한 놀라운 유추이다. 신자는 예수께서 경험하신 중요한 사건에 영적으로 참여한다: 십자가, 죽으심, 장사지냄, 부활, 보좌에 앉으심! 신자들은 예수의 삶과 고통에 함께 한다: 그들은 또한 예수의 영광에도 함께 한다(참조, 롬 8:17)!

▣

NASB, NRSV	**"그분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NKJV	**"우리를 함께 앉게 하셨다"**
TEV	**"그와 함께 다스리는 것"**
NJB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장소를 주셨다"**

이것은 *쉰*과 합성어를 이룬 세 번째 부정과거이다. 우리가 그 분 안에서 누리는 지위는 현재 및 미래의 승리의 자리이다(참조, 롬 8:37)! 예수와 함께 앉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스림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신자들은 그 분과 함께 지금부터 함께 다스리는 것이다(참조, 마 19:28; 롬 5:17; 골 3:1; 딤후 2:12; 계 22:5). 다음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

그리스도와 다스린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리는 더 커다란 신학적 주제의 일부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구약의 개념의 연장이다(참조, 삼상 8:7).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참조, 창 49:10)인 이새의 후손(참조, 삼하 7 장)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핵심을 이룬다. 왕국이 그 분 안에서 전적으로 도래했다(참조, 마 10:7; 11:12; 12:28; 막 1:15; 눅 10:9, 11; 11:20; 16:16; 17:20-21).

그러나 왕국은 또한 미래적이기도 하다(종말론적). 왕국이 나타났지만 최종적인 단계의 것은 아니었다(참조, 마 6:10; 8:11; 16:28; 22:1-14; 26:29; 눅 9:27; 11:2; 13:29; 14:10-24; 22:16,18). 예수님은 처음엔 고난받는 종(참조, 사 52:13-53:12)으로서 겸손하게(참조, 슥 9:9) 오셨지만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마 2:2; 21:5; 27:11-14). "다스림"의 개념은 참으로 이러한 "왕국"신학의 일부분을 이룬다. 하나님은 왕국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눅 12:32 을 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은 고려할 여러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른 질문을 제기한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왕국"을 주신 것을 말하는 구절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인가(참조, 마 5:3,10; 눅 12:32)?
2. 예수님께서 1 세기의 유대적 배경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한 내용인가(참조, 마 19:28; 눅 22:28-30)?
3. 바울은 위의 경우와 대조되거나 혹은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는가(참조, 롬 5:17; 고전 4:8)?
4. 어떻게 고난은 다스림과 관계가 있는가(참조, 롬 8:17; 딤전 2:11-12; 벧전 4:13; 계 1:9)?
5.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다
   ㄱ. 지상의, 5:10
   ㄴ. 천년왕국의, 20:5,6
   ㄷ. 영원한, 2:26; 3:21; 22:5; 단 7:14,18,27

▣

NASB, NKJV, NRSV **"하늘의 *장소*에"**
TEV **"하늘의 세계에"**
NJB **"하늘에"**

"하늘의 장소에"라는 장소(영역)를 나타내는 이 중성 복수 여성형은 에베소서에서만 사용되었다(참조, 1:20; 2:6; 3:10; 6:12). 이 용법의 모든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장소인 영적 영역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2:7 "오는 여러 세대에" 유대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갈 1:4)와 오는 의의 세대(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로 이루어진 두 세대가 있음을 믿었다. 의의 새 세대는 메시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심으로써 시작된다. 1:20 에서는 "세대"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참조, 고전 2:7; 히 1:2; 11:3). 이 복수형은 (1) 적어도 두 세대가 있음을 뜻하거나 (2) 오는 세대를 드높이며 강조하기 위한 복수형을 나타낸다. 랍비들은 후자를 "위엄의 복수형"으로 불렀다. 복수형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이 과거의 "세대들"을 가리키는 본문에서도 나온다(참조, 롬 10:25; 고전 10:11; 딤후 1:9; 딛 1:2).

어떤 학자들은 이 구가 단순히 영원성을 나타내는 은유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구가 통속적인 코이네 헬라어에서 사용되었으며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참조, 눅 1:33,55; 요 12:34; 롬 9:5; 갈 1:5; 딤전 1:17).

▣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분명히 나타내셨다(참조, 1:5-7). 이 용어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다"를 뜻한다(참조, 롬 9:17,22).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목적은' 범죄한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천사들에게 선포하심으로써 분명히 드러났다(참조, 3:10; 고전 4:9; 벧전 1:12).

▣ **"지극히"** *휘페르발로*. 1:19 의 특별주제: 바울이 사용한 *휘페르* 합성어의 용법을 보라.

2:8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참조, 엡 1:3-14).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계시되었다(참조, 4-6 절).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은혜는 '공로가 없고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의 가치나 공로를 돌아보지 않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회적으로 사용한 완료 수동 분사로서, 5 절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신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 본문의 핵심을 이룬다.

"구약에서 "구원하다"라는 용어는 "신체적 구원"을 뜻한다(참조, 약 5:15). 신약에서는 이 의미를 영적인 영역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부터 신자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누리게 된다(참조, 롬 3:22,25; 4:5; 9:30; 갈 2:16; 벧전 1:5).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용서'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한다(참조, 요 1:12; 3:16-17,36; 6:40; 11:25-26; 롬 10:9-13).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써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일을 시작하시며(참조, 요 6:44,65) 내용과 범위도 정하신다(참조, 막 1:51; 행 3:16,19; 20:21).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언약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회개, 순종, 섬김, 예배, 인내로 처음에 응답할 때 나타나며 또 그러한 응답이 계속되기를 요구하신다.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안정성 있는 상태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 용어는 분명한 것, 믿을만한 것, 의뢰할 만한 것, 신실한 것을 뜻하는 표현이 되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의 충성됨, 인간을 의뢰할 만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다! 언약에 대한 순종은 감사에서 흘러 나온다! 그 초점은 언제나 신자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믿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써 이 은혜를 누린다. 초점이 결코 믿음의 양에 있지 않고(참조, 마 17:20), 그 대상(예수)에 있다.

▣ **"이것은"** 이것은 헬라어의 지시대명사(*투토*)이며, 중성인 성을 나타낸다. 이 지시대명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명사인 "은혜"와 "믿음"은 모두 여성형이다. 따라서 이 지시대명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전 과정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문법적으로 비슷한 구문인 빌 1:28 에 근거할 때,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것이 그러한 경우라면, 이 부사구는 믿음(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신비가 나온다.

▣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세 구 가운데 처음 것이다: (1)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8 절 (2) "하나님의 선물이라,""8 절 (3)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 절.

▣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은혜의 진수이다—아무런 조건없이 주신 사랑(참조, 롬 3:24; 6:23). 구원의 역설적인 두 가지 면(거져 베푸시는 은혜 및 언약적 응답을 요구하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둘 다 맞다! 구원은 진실로 거저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요구한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진리를 긴장이 가득한 진리의 쌍으로 제시한다(안전함 대 인내하여야 함, 믿음 대 행위,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자유의지, 예정 대 인간의 응답, 초월성 대 내재하심).

특별주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약적 증거

1. 우리의 구원은 성부의 성품(참조, 요 3:16), 성자께서 이루신 일(참조, 고후 5:21), 성령의 사역(참조, 롬 8:14-16)에 근거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순종에 대한 대가나, 또는 신조적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2. 구원은 선물이다(참조, 롬 3:24; 6:23; 엡 2:5,8-9).
3. 구원은 새 생명이며, 새로운 세계관이다(참조,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4. 구원은 지식이며(복음), 교제이며(예수를 믿고 예수와 누리는 교제),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공로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참조, 롬 3:20,27-28; 9:11,16; 갈 2:16; 빌 3:9; 딤후 1:9; 딛 3:5).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룬다.

▣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을 자랑할 아무런 여지가 없다(참조, 롬 3:27; 4:2). 신자가 자랑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라(참조, 고전 1:31, 이 본문은 렘 9:23-24 에서 취한 인용문이다).

특별주제: 자랑함

*카우카오마이, 카우케마, 카우케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울서신에서 약 35 회 사용되었고,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단 두 번 사용되었다(두 번 다 야고보서에서). 이 용어는 주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온다.

자랑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있다.

1. 어떤 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영광을 뽐냄)할 수 없다(참조, 고전 1:29; 엡 2:9).
2. 신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자랑하여야 한다(참조, 고전 1:31; 고후 10:17; 렘 9:23-24 에 대한 암시임).

따라서 적절한 자랑과 적절치 않은 자랑(즉, 교만)이 있다.

1. 적절한 자랑
   - ㄱ. 영광의 소망 안에서(참조, 롬 4:2)
   - ㄴ.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참조, 롬 5:11)
   - 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즉, 바울의 주요 주제, 참조, 고전 1:17-18; 갈 6:14)
   - ㄹ. 바울이 다음 사항을 자랑함
     (1) 보수 없이 사역함(참조, 고전 9:15,16; 고후 10:12)
     (2) 그리스도께 받은 그의 권위(참조, 고후 10:8,12)
     (3)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음(고린도에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함, 참조, 고후 10:15)
     (4) 그의 인종적 유산(고린도에서 어떤 이들이 그러했듯이, 참조, 고후 11:17; 12:1,5,6)

(5) 그의 교회들
(ㄱ) 고린도(고후 7:4,14; 8:24; 9:2; 11:10)
(ㄴ) 데살로니가(참조, 살후 1:4)
(6)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출하심에 대한 그의 확신(참조, 고후 1:12)
2. 부적절한 자랑
ㄱ. 유대인임을 자랑함(참조, 롬 2:17,23; 3:27; 갈 6:13)
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가 자랑함
(1) 사람을(참조, 고전 3:21)
(2) 지혜를(참조, 고전 4:7)
(3) 자유를(참조, 고전 5:6)
ㄷ.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함(참조, 고후 11:12)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의 "시"(poem)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포이에마*).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단 두 곳에서만 사용되었다(이곳과 롬 1:20). 이것은 신자들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지위를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 .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신자들을 지으신다(참조, 1:3-14). 이 새로운 영적 창조의 행위는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창조'에 대한 묘사와 같은 용어로써 제시되고 있다(참조, 3:9; 골 1:16).

▣ "선한 일을 위하여" 신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는 삶의 방법은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참조, 야고보서 및 요한 1 서). 믿음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한다! 그들은 섬김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믿음이 없는 행함도 마찬가지이다(참조, 마 7:21-23 및 약 2:14-26). 성부께서 택하신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참조, 1:4).

바울은 근본적으로 거저 누리는 복음을 전한 일로 종종 비난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조장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행함과 관련이 없는 복음은 잘못된 곳으로 이끌 수 밖에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거저로 누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최초의 회개 뿐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라는 적합한 응답을 요구하는 복음이었다. 경건한 삶은 믿음의 결과이다. 이것은 무법한 삶이 아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다. 완전히 거저로 누리는 구원과 모든 것을 다 들여 응답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역설적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긴장으로 가득한 이 두 가지 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인의 개인주의는 복음을 왜곡시켰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랑의 궁극적인 초점이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있다(참조, 요 3:16). 이 사랑을 각 사람이 받는 것이다(참조, 요 1:12; 롬 10:9-13; 고전 15:1).

▣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강력한 용어(*프로* + *헤토이마조*, "미리 준비하다")는 예정(참조, 1:4-5,11)이라는 신학적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이곳과 롬 9:23 에서만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드러낼 백성을 선택하셨다. 성부께서는 '범죄한 인간' 안에 자신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셨다(참조, 창 1:26-27).

개역개정 2:11-22

[11]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1 **"그러므로"** 이것은 (1) 1-10 절 또는 (2) 1:3-2:10 을 가리킬 수 있다. 바울은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문학적 단원을 시작한다. 이것은 새 단원을 앞 단원의 진리와 결합하는 작용을 한다(참조, 롬 5:1; 8:1; 12:1).

이것은 이 책의 교리적 부분(1-3 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주요 진리를 이룬다. 첫 번째 주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기초하여 영원한 선택을 하셨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주요 진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세 번째 주요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모든 인간의 구원하심에 있다(참조, 창 3:15).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다(참조, 2:11-3:13).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즉, 영지주의자) 이 계시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 **"생각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명령한다(11-12 절).

▣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나라들"(*에스노스*)이다. 이 단어는 야곱의 후손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구약에서, "나라들"(*고임*)이라는 용어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였다.

▣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구약에서조차, 이 의식은 내적 믿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였다(참조, 레 26:41-42; 신 10:16; 렘 4:4).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은 할례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며, 또 이것은 구원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참조, 행 15:1 이하; 갈 2:11-12). 어떤 영적 상징을 영적 실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참조, 행 2:38 은 또 하나의 예가 된다).

2:12

NASB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NKJV, NRSV	**"그리스도 없이"**
TEV	**"그리스도를 떠나"**
NJB	**"너희는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았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구별된 기초 위에"를 뜻한다. 새로운 몇 개의 구(즉, 12 절)는 1-3 절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인의 가련함과 소망없음을 나타낸다.

▣

NASB, NJB **"배제된"**
NKJV, NRSV **"외인이 된"**
TEV **"외국인들"**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배제되었고 또 계속적으로 배제된"을 뜻한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제한된 권리를 가졌다(외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계속해서 분리되었으며, 또 소원해진 관계에 있다.

▣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시민"(*폴리테이아*)이다. 이 단어는 영어의 "정치학"(politics)이라는 단어가 되었다. 이것은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킨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을 롬 9:4-5 에서 열거한다.

▣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신약은 구약을 한 언약 또는 여러 언약들로 지칭할 수 있다. 동일한 믿음의 언약이 서로 다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인하여 이러한 신학적 긴장이 발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구약의 사람들을 만나주셨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의 일에 대하여, 노아에게는 방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는 한 아들 및 살아야 할 장소에 대하여, 모세에게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은 순종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어떤 그룹의 사람들(세대주의자들)은 차이점을 강조한다. 또 어떤 그룹의 사람들(칼빈주의자들)은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강조하여(참조, 롬 4 장) 이를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관계로서 제시한다.

옛 언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순종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각자의 믿음을 요구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다(참조, 렘 31:31-34). 모세의 언약에서는 인간의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였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행함을 강조한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참조, 2:11-3:13).

옛 언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무조건적(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이며 동시에 조건적(인간의 응답함에 있어서)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예정하심) 및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믿음, 회개, 순종, 인내함)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언약

언약을 뜻하는 구약 용어인 *베릿*(BDB 136)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의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응답을 요구한다

1.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장차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 했다
3. 노아는 믿음으로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야 했고 또 동물들을 모아 들여야 했다
4.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 및 저주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종교 및 사회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긴장 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 을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질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관련하여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 (1) 창 3 장에서 상실한 교제를 회복하는 일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일을 갖는다.

렘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망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를 이루는 방법은 바뀌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언약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에 문제가 있었다(참조, 로마서 7 장;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의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에 있는 긴장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거저 주시지만,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최초의 또한 계속적인)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받아 주심에 대한 직설적 진술이며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받은 바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긴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만일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끊어져 버려린 자들이며, 우상숭배와 이교도적 신앙을 인하여 잃어버려진 자들이다(참조, 살전 4:13; 롬 1:18-2:16).

2:13 "이제는" 이방인들이 과거에 소망이 없었던 것(11-12 절)과 그들이 복음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음(13-22 절)이 분명하게 대조된다.

▣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 . .가까워졌느니라" 이같은 개념이 사 57:14-19 을 인용한 본문인 17 절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본문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에게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바울이 구약의 본문을 모형론적으로 사용함였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예이다.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소망을 전세계에 대한 것으로 바꾸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었다.

▣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신 대속적인 속죄를 가리킨다(참조, 1:7; 롬 3:25; 5:6-10; 고후 5:21; 골 1:20; 히 9:14,28; 벧전 1:19; 계 1:5). 하나님의 가족은 더 이상 민족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다(참조, 롬 2:28-29; 4:16-25).

그리스도의 피는 메시아의 죽으심(참조, TEV)을 가리키는 제사적 은유였다(참조, 레 1-2 장). 침례요한은 예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참조, 요 1:29). 예수께서는 죽기 위하여 오셨다(참조, 창 3:15; 사 53; 막 15:53; 10:45).

2:14 이 절에서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 첫 번째 동사는 현재 직설법이다.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평화가 되시며 또 계속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공급하신다. 두 번째 동사는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로운 한 독립체(교회)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는 것은 2:11-3:13 이 이루는 문학적 단원에서 초점을 이룬다. 이것은 이전 세대에게 숨겨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다. "화평"이라는 용어는 (1)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참조, 요 14:27; 16:33; 롬 5:1-11; 빌 43:7,9)와 (2)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가리킨다 (14,15,17 절, 참조, 갈 3:28; 골 3:11).

▣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자신"(*아우토스*)가 강조되고 있다. "화평"이라는 용어는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화목)을 뜻한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불리신다(참조, 사 9:6; 슥 6:12-1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는 여러 가지 면을 나타낸다. 골 1:20 의 특별주제: 평화, 그리스도인과 평화를 보라.

▣

NASB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드신 분"**
NKJV	**"둘을 하나를 만드신 분"**
NRSV	**"그는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드셨다"**
TEV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백성으로 만드심으로써"**
NJB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신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참조, 1:15; 2:15; 4:4; 갈 3:28; 골 3:11). 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창 3:15).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택하시려고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한 백성을 선택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창 12:3; 출 19:5-6).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하나로 묶는 주제이다(신구약).

▣

NASB	**"나누는 담의 장벽을"**
NKJV	**"중간에 있는 분리의 담을"**
NRSV	**"분리시키는 담을"**
TEV	**"격리시킨 담을"**
NJB	**"그들을 서로 떼어 놓았던 장벽을"**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분리의 담"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용어이다. 문맥에서는 명확하게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참조, 15 절).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헤롯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어 예배하러 온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켰던 벽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종류의 상징적 표현이 장벽을 제거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즉,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참조, 마 27:51). 연합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연합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엡 4:1-10).

영지주의에서는 이 용어가 하늘과 땅 사이의 장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엡 4:8-10 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5

NASB **"허시고"**
NKJV **"헐어 놓으시고"**
NRSV **"헐어 놓으셨다"**
TEV **"허셨다"**
NJB **"파괴하시고"**

"헐다"라는 용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이다(참조, 롬 3:31; 6:6; 골 2:14).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무효로 만들다" 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를 뜻한다.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사형선고를 철저히 없애셨다(참조, 16 절; 골 2:14; 히 8:13).

이 말은 '구약이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며, 신약의 신자들에게 중요한 계시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다(참조, 마 5:17-19). 이 말은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참조, 행 15 장; 롬 4 장; 갈 3 장; 히브리서). 새 언약(렘 31:31-34; 겔 36:22-36)은 새 마음과 새 영에 기초하는 것이지, 인간이 율법적 조항을 이행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귀속된 그리스도의 의.

특별주제: 무효의 및 무효로하다(*카탈게오*)

이것(*카탈게오*)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이 단어를 적어도 25 회 사용하는데 이것의 어휘적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가. 이 어원의 기본적 어근은 *알고스*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1. 비활동적인
  2. 놀고 있는
  3. 사용하지 않은
  4. 쓸모없는
  5. 작동하지 않는

나. *카타*와 함께 쓰인 합성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1. 비활동적임
  2. 쓸모없음
  3. 취소된 것
  4. 폐지된 것
  5.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

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한 번 사용되었는데 '열매없는'을 뜻한다, 따라서 쓸모없는 나무(참조, 눅 13:7).

라. 바울이 이것을 비유적 의미로 사용할 때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
  1.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을 작동하지 않게 하심
    ㄱ. 인간의 죄된 본성 – 롬 6:6
    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모세의 율법 – 롬 4:14; 갈 3:17; 5:4, 11; 엡 2:15
    ㄷ. 영적 세력 – 고전 15:24
    ㄹ. "무법한 자" – 살후 2:8
    ㅁ. 육체의 죽음 – 고전 15:26; 딤후 1:16(히 2:14)
  2. 하나님께서 새 것을 위해 헌 것(언약, 시대)을 바꾸심
    ㄱ.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것들 – 롬 3:3,31; 4:14; 고후 3:7,11,13,14
    ㄴ. 율법에 사용된 결혼의 유추 – 롬 7:2,6

ㄷ. 이 세대의 것들 – 고전 13:8,10,11
ㄹ. 이 몸 – 고전 6:13
ㅁ. 이 세대의 지도자들 – 고전 1:28; 2:6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지만 그 주된 의미는 어떤 것을 '쓸모없게 하는, 무효의, 무효로하다, 작동하지 않는, 힘없게 함'을 뜻한다.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파괴된, 또는 폐지된'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가지는 것은 아니다.

▣

NASB, NKJV **"그의 육체 안에서"**
NRSV(2:14) **"육체"**
TEV(2:14) **"그 자신의 몸 안에서"**
NJB(2:14) **"그 자신 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사 이루신 사역(참조, 엡 4:8-10) 뿐 아니라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본문이다(참조, 골 1:22).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가진 존재론적 이원론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부인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영을 선한 것으로,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았다(참조, 갈 4:4; 골 1:22).

▣ **"원수 된 것"** 균형잡힌 이 구문에서는 "원수됨"(참조, 16 절)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과 동일한 것으로 제시한다. 구약은 "~을 행하여 살라"라고 말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모세의 율법을 행할 수 없었다. 한 번 지키지 못한 구약의 율법은 저주가 되었다(참조, 갈 3:10);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참조, 겔 18:4,20). 새 언약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인간에게 줌으로써 '원수된 것'을 제거하였다(참조, 렘 31:31-34; 겔 36:26-27). 행함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

NASB **"조문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
NKJV **"조문으로 계속된 계명의 법"**
NRSV **"계명과 조문의 법"**
TEV **"유대인의 율법, 그 계명과 규정"**
NJB **"율법의 규정과 명령"**

이것은 구원의 길을 가리킨다.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참조, 롬 9:30-32; 갈 2:15-21).

특별주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인

가. 율법은 영감받은 성경이며 영원하다(참조, 마 5:17-19).
나. 율법은 유효한 구원의 길이며, 또 항상 유효한 길이 되어왔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 헛됨을 보아야만 했다(참조, 마 5:20,48; 롬 7:7-12; 갈 3:1 이하; 약 2:10).
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참조, 요 14:6; 롬 3:21; 갈 2:15-21; 히 8:12).
라. 구약은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인간의 사회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여전히 도움을 준다. 이스라엘의 종교(제사제도, 명절, 정치적 및 종교적 법)는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행 15:20 에서 언급한 규정은 구원의 지침이 아니라 교제만을 위한 지침이다.

▣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자기(자신)"이라는 대명사는 강조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구원(참조, 창 3:15)과 교제 안에서 모든 인간을 하나되게 하시는 일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 자신의 직접적인 행함'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다.

▣ **"한 새 사람"** 헬라어에서 "새"라는 용어는 시간적으로 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 새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실재이다(참조, 롬 11:36; 골 1:16; 히 2:10).

▣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용어이다. 이 구는 로마서에서는 11 번, 에베소서에서는 7 번 사용되었다(참조, 1:2; 2:14,15,17; 4:3; 6:15,23). 그는 이 표현을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1.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골 1:20
2.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평화, 요 14:27; 16:33; 빌 4:7
3. 사람들 사이의 평화, 엡 2:11-3:13.

이것은 현재 수동 분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담의 범죄한 자손'에게 계속적으로 화평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부정과거 가정법, 16 절),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화평이다(참조, 롬 5:12-21).

2:16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헬라어 용어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른 상태로 옮겨놓음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서로 뒤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롬 5:10-11; 골 1:20,22; 고후 5:18,21). 어떤 의미에서 화목됨은 창 3 장에 나오는 저주의 제거를 뜻한다. '타락한 구조를 가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드러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연과의 화목으로 드러난다(사 11:6-9; 65:25; 롬 8:18-23; 계 22:3).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재연합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연합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이다.

▣ **"한 몸으로"** 연합을 나타내는 이 은유는 바울의 글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그리스도의 신체(참조, 골 1:22)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참조, 골 1:23; 4:12; 5:23,20) (2)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 인류(참조, 2:16) (3) 영적 은사의 연합성과 다양성을 가리키는 방법(참조, 고전 12:12-13,27).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은 1 항과 모두 관련을 가진다.

▣ **"십자가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였다(참조, 신 21:23).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속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참조, 사 53 장).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자"가 되셨다(참조, 갈 3:13)!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병거가 되었으며(참조, 골 2:14-15), 신자들로 하여금 (1) 구약의 저주 (2) 악한 권세 (3)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이길 수 있게 하였다.

▣

NASB	**"원수 된 것을 이것으로 소멸해 놓으시고"**
NKJV	**"원수 된 것을 이것으로써 소멸하시고"**
NRSV	**"그래서 그것으로 그 원수 된 것을 소멸하시고"**
TEV	**"그리스도께서 원수 된 것을 멸하셨다"**
NJB	**"그가 자신 안에서 적의를 죽이셨다"**

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구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은 단수형 대명사가 대격 남성(TEV, NJB) 또는 대격 중성(NASB, NRSV)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맥상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더 큰 문맥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에 있다.

2:17 이것은 사 57:19 또는 52:7 에 대한 암시이다. 랍비들은 사 56:6 로 돌아가 이 구가 이방인 개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2:18 삼위일체의 사역이 이 책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참조, 1:3-14,17; 2:18; 4:4-6). 비록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은 성경적 개념이다(참조, 마 3:16-17; 28:19; 요 14:26; 행 2:33-34,38-39; 롬 1:4-5; 5:1,5; 8:9-10; 고전 12:4-6; 고후 1:21-22; 13:14; 갈 4:4-6; 엡 1:3-14; 2:18; 3:14-17; 4:4-6; 살전 1:2-5; 살후 2:13; 딛 3:4-6; 벧전 1:2; 유 20-21 절).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우리 둘이 . .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신자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끄시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심을 나타내는 개념이다(참조, 롬 5:2; 이것은 히 4:16; 10:19,35 에서는 확신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 **"한 성령 안에서"** 이것은 엡 4:4 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이다. 거짓 교사들은 불일치를 조장하였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일치(획일화 되는 것이 아님)를 가져다 주신다!

2:19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11-12 절) 이제는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한 4 가지 은유적 표현으로써 분명히 제시된다: (1) 동일한 시민들 (2) 성도들(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 (3) 하나님의 권속 (4) 영적 건물(성전, 20-22a 절).

▣ **"성도들"** 골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0 **"~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를 놓으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파하였다(참조, 3:5).

▣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수께서 복음의 기초를 놓으셨다(참조, 고전 3:11).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예언하였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일을 성취하였다. 또 사도들은 이 일의 실현을 선포하였다. "선지자들"은 누구를 가르키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가(참조, 3:5; 4:1)? 그 어순으로 볼 때, 이 용어는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3:5; 4:11). 그러나 "모퉁이 돌"이라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볼 때,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가리킨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이유는 계시라는 주제와 관련을 가진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도구였다. 그러나 예언은 신약에서도 지속된 은사이다(고전 12:28; 엡 4:11). 성경의 기록은 계속되고 있는가? 영감(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조명과 영적 은사를 받는 것(신약 시대에 은사를 받은 신자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모퉁잇돌"**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께 사용한 은유이다(참조, 사 28:16; 시 118:22; 벧전 2:4-8). 구약에서는 종종 "바위"라는 호칭을 시청각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견고하심, 힘, 인내하심을 제시하였다(참조, 신 32:4,15,18,30; 시 18:2,31,46; 28:1; 33:3; 42:9; 71:3; 78:15).

예수께 대하여도 돌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였다

1. 거부받은 돌 – 시 118:22
2. 건축용 돌 – 시 118:22; 사 28:16
3. 걸려 넘어지는 돌 – 사 8:14-15
4. 승리하고 정복하는 돌(왕국) – 단 2:45
5. 예수께서는 이러한 본문을 자신에게 대하여 사용하심(참조, 마 21:40; 막 12:10; 눅 20:17)

구약의 예식과 율법주의가 예수를 무시하였으나, 그는 핵심적인 건축재료이셨다(참조, 사 8:14).

특별주제: 모퉁잇돌

I. 구약의 용법
- 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 좋은 기초를 이루는 물질인 돌이라는 개념은 야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시 18:1).
- 나.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발전되었다(참조, 창 49:24; 시 118:22; 사 28:16).
- 다. 이것은 메시아에 의한 야웨의 심판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8:14; 단 2:34-35; 44-45).
- 라.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은유로 발전했다.
  1. 처음 놓이는 기초석으로서 안전하며 또한 그 위에 놓이는 건물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모퉁이 돌"로 불렸다
  2. 이것은 또한 벽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얹은 돌을 가리킬 수도 있다(참조, 슥 4:7; 엡 2:20,21). 이것은 히브리어 *로쉬*(즉, 머리)에서 온 "머릿돌"로 불린다.
  3. 이것은 "열쇠 돌"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것은 아치형 문의 중앙에 위치하며 벽 전체의 무게를 견딘다.

II. 신약의 용법
- 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시 118 편에서 여러 번 인용했다(참조, 마 21:41-46; 막 12:10-11; 눅 20:17)
- 나. 바울은 시 118 편을 야웨께서 믿음이 없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것과 연결한다(참조, 롬 9:33)
- 다. 바울은 "머릿돌"의 개념을 엡 2:20-22 에서 그리스도께 대해 사용한다
- 라. 베드로는 이 개념을 벧전 2:1-10 에서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고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즉, 신자들은 성전[참조, 고전 6:19])으로서 그 위에 지어졌다(예수는 새 성전이시다, [참조, 막 14:58; 마 12:6; 요 2:19-20]).

III. 신학적 진술
- 가. 야웨는 다윗/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다.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참조, 왕상 9:1-9)!
- 나. 랍비들의 유대교는 형식과 의식을 강조했지만 믿음의 개인적 측면은 소홀히 했다(이 말은 전체가 다 그랬다는 말은 아니다; 경건한 랍비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과 매일 인격적이고 경건한 교제를 하기 바라신다 (참조, 창 1:26-27). 눅 20:17-18 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다.
- 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기 위해 성전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개인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은 야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쇠이다.
- 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존재에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됨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목적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새 성전)를 따라 지어진/형성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

마. 예수는 우리 믿음의 기초시며 우리 믿음의 머릿돌(즉,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럼에도 그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 그를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2:21-22 하나님의 백성을 집합적, 또는 공동체적으로 보는 내용이 19 절(2 회), 21 절, 22 절에서 복수형인 "성도들"로써 제시된다. 구원을 받는 것은 가족, 건물, 몸, 성전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교회를 성전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고전 3:16-17 에서 나온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내용은 고전 6:16 에 나온다. 두 가지 다 사실이다!

21-22 절에 있는 두 동사도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 동사들은 "함께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쉰*과 합성어를 이루고 있다. 이 두 동사는 모두 현재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추가하고 계시다.

헬라어 사본에 "전 건물"이라는 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문자체 사본인 ℵ*, B, D, F, G 에서는 관사가 없이 나오지만, ℵc, A, C, P 사본에서는 관사가 나온다.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바울이 하나의 큰 빌딩을 기리키는 것인가(NASB, NKJV, NRSV, NIV, TEV, REB)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연합된 여러 개의 작은 건물을 말하는가(ASV, NJB, 필립스역)에 대한 것이다. UBS 의 헬라어 본문 제 4 판에서는 관사가 없는 것에 "B"등급(많이 확실함)을 주어, 이것이 한 건물을 가리키는 것임을 지지한다. 이 한 건물의 건축이 마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장하는 중에 있다. 건물이라는 은유는 영적 성전(하나님의 백성)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특별주제: 세우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 및 이 용어와 관련이 있는 형태는 바울이 자주 사용한 용어이다.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집을 짓다"를 뜻하지만(참조, 마 7:24), 은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고전 3:9; 엡 2:21; 4:16
2. 세움
   ㄱ. 약한 형제들, 롬 15:1
   ㄴ. 이웃, 롬 15:2
   ㄷ. 서로, 엡 4:29; 살전 5:11
   ㄹ. 사역을 위하여 성도들을, 엡 4:11
3. 다음 사항에 의하여 우리는 세워지며 도움을 입는다
   ㄱ. 사랑, 고전 8:1; 엡 4:16
   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고전 10:23-24
   ㄷ. 변론을 피함으로, 딤전 1:4
   ㄹ. 예배에서 말하는 자들을 제한함으로써(찬송하는 자, 교사, 예언하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을 통역하는 자), 고전 14:3-4,12
4. 모든 것은 다음 사항을 세워야 함
   ㄱ. 바울의 권위, 고후 10:8; 12:19; 13:10
   ㄴ. 롬 14:19 및 고전 14:26 에 나오는 결론적 진술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2.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3.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가?
4. 왜 예수께서는 율법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셨는가?
5.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및 구약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6. 왜 바울은 19-23 절에서 건물의 은유를 강조하여 사용하였는가?

로마서 5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칭의의 결과	고난 중에 믿음의 승리	칭의의 결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이 구원을 보장한다
5:1-11	5:1-5	5:1-5	5:1-5	5:1-11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5:6-11	5:6-11	5:6-11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안의 죽음, 그리스도 안의 생명	아담과 그리스도, 유사성과 비교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5:12-14	5:12-21	5:12-14	5:12-14b	5:12-14
			5:14c-17	
5:15-21		5:15-17		5:15-21
		5:18-21	5:18-19	
			5:20-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헬라어 성경에서 1-11 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은 바울의 핵심개념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발전시키고 있다(참조, 3:21-4:25).

나. 1-11 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5 절	6-8 절	9-11 절
구원의 유익	구원의 기초	미래적 구원의 확실성
칭의의 주관적 경경	칭의의 객관적 사실	미래적 칭의의 확실성
칭의	점진적인 성화	영화
인류학	신학	종말론

다. 12-21 절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에 대한 논의이다(참조, 고전 15:21-22, 45-49; 빌 2:6-8). 이것은 두 신학적 개념인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적인 죄의식의 개념 모두를 강조한다.아담 안에서 인류(또한 피조물)가 범죄하였음을 바울이 말하는데 이것은 매우 독특하며 또한 랍비들의 견해와 다르다. 한편 육체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랍비들의 가르침과 상당히 가깝다. 이 점은 바울이 감동으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운 진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대치하고 있음을 보인다(참조, 행 22:3).

창 3 장에 기초한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의 원죄에 대한 교리는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교리는 인간이 죄있는 상태로 출생함을 주장한다(전적 타락). 이 견해를 입증하기 위한 구절로 종종 구약의 시 51:5; 58:3; 욥 15:14; 25:4 이 사용된다. 한편 인간이 점진적으로 도덕적 영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운명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신학적 주장은 펠라기우스와 아르메니우스에 의해 정립되었다. 신 1:39; 사 7:15; 욘 4:11; 요 9:41; 15:22, 24; 행 17:30; 롬 4:15 가 이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의 요지는 어린이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무죄하다는 것이다(랍비들은 남자는 13 세가 여자는 12 세를 이러한 나이라고 보았다).

두 가지 주장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있다. 즉 본래적인 악한 경향과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나이에 대한 견해 양자가 모두 옳다! 악은 공동체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죄에 대한 향해 가는 악이기도 하다(삶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 인간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라(참조, 창 6:5, 11-12, 13; 롬 3:9-18, 23) 언제 그것이 시작되는가가 중요하다. 즉 출생시 부터인가 아니면 후에 살아가면서 인가?

라. 12 절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제시되었다

1.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 이유는 모든 이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펠라기우스)
2. 아담의 죄는 모든 창조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 모두가 죽는다(18-19 절, 어거스틴)
3. 사실상 원죄와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를 함께 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마. 바울은 12 절에서 “이와 같이”를 사용하여 비교를 나타내는데 그 내용이 18 절까지 이어진다. 13-17 절은 삽입구로서 바울의 글에 나타나는 커다란 특징이다.

바. 바울이 1:18-8:39 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논증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각 부분을 적합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단락에 비추어 보아야만 한다.

사. 마틴 루터는 5 장에 대해“성경 전체에서 이 장의 뛰어난 본문에 비견할 만한 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1
[1]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1 **"그러므로"** 이 단어는 종종 (1) 지금까지의 신학적 논증을 요약한 것 (2) 이러한 신학적 제시에 기초한 결론 (3) 새로운 진리의 제시(참조, 5:1; 8:1; 12:1)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 내용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헬라어 문장에서 앞 부분에 놓여 있다(1-2 절). 1-11 절에 시간적 순서가 나타난다: (1) 1-5 절에서는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은혜의 경험 (2) 6-8 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3) 9-11 절에서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 문맥적 통찰에 있는 개요의 나 항을 보라.

"의롭게 하다"(*디카이오오*)는 구약에서 "똑 바른 선" 혹은 "측량하는 갈대"였다. 이 용어는 은유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사용되었다. 1:17 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은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다(참조, 레 24:22 의 70 인역; 마 5:48 의 신학적 내용).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제사인 대속적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법정의) 지위를 가졌다(5:2 절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신자가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사면과 같은 것을 받았음을 뜻한다. 다른 이가 죄의 값을 치르셨다(참조, 고후 5:21). 믿는 자들은 용서 받았다고 선언되었다(참조, 9, 10 절).

▣ **"믿음으로 "**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다(참조, 2 절; 롬 4:1 이하). 믿음은 믿는 자의 헌신이나 결심의 정도나 그 강도에 초점이 있지 않고(참조, 마 17:20),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초점이 있다(참조, 엡 2:8-9). 구약에서 "믿음"을 가리키는 용어는 원래 안정적으로 서있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충성되고 의지할 만 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의 충성됨이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의 초점이 있다. 4:5 의 특별주제: 믿음을 보라.

▣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헬라어 사본에 많은 변이가 나타난다. 이 동사는 현재 능동 가정법(*에코-멘*)이거나 혹은 현재 능동 직설법(*에코멘*)이다. 1, 2, 3 절에 이러한 문법적 애매함이 나타난다. 고대 헬라어 사본들은 가정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ℵ*, A, B*, C, D 사본). 만일 이 동사가 가정법이라면 "우가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자" 혹은 "평화를 누리기를 계속하라"의 뜻으로 번역된다. 만일 이것이 직설법이라면 "우리가 화평을 가졌다"로 번역될 것이다. 1-2 절의 문맥은 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이미 가졌고 누리고 있는 것의 선언이다. 따라서 이 동사는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우리가 화평을 가졌다"의 의미일 것이다. 세계성서공회의 헬라어 성경(USB[4])은 이것에 "A" 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많은 고대 헬라어 사본은 한 사람이 본문을 읽고 여러 사람이 이를 듣고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은 종종 혼동을 일으켰다. 여기의 경우는 문맥과 작문의 특성과 저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에 기초하여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해야하는 경우에 속한다.

▣ **"화평"**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평화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부서진 것을 하나로 묶다"를 의미한다(참조, 요 14:27; 16:33; 빌 4:7). 신약에서 평화에 대해 말할 때 3 가지 의미가 있다:

1.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목적격으로서(참조, 골 1:20)
2.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자라는 주격으로서(참조, 요 14:27; 16:33; 빌 4:7)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의 새 몸으로 연합시켰다는 점에서(참조, 엡 2:14-17; 골 3:15). 우리가 한 번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나타나야만 한다.

뉴만과 니다의 책, *번역가들을 위한 바울의 로마서 핸드북*, 92 쪽에서 "평화"에 대한 좋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구약과 신약에서 평화라는 용어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행복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 내용이 될 정도로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단어가 갖는 심원한 의미로 인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여기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신 사실에 기초하여 형성된 하나님과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를 일컫기 위해 사용된다"(92 쪽).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참조, 요 10:7-8; 14:6; 딤전 2:5).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와 관련하여서는 1:4 의 설명을 보라.

5:2 "우리가 . . .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행위가 완료되어 이제는 어떤 상태에 이른 것을 나타낸다. "들어감"이란 용어는 글자대로는 "접근" 또는 "입장"(*프로사고게*, 참조 엡 2:18; 3:12)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1) 왕을 개인적으로 알현하는 것 혹은 (2)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 표현은 헬라어 사본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추가되어있다(참조, ℵ*,2, C 와 일부 고대 라틴 역본, 벌게이트, 시리아역, 콥틱 역). 다른 그룹의 사본은 "믿음으로"에 전치사를 추가하고 있다(참조, ℵ1, A 와 일부 벌게이트 역). 그러나 대문자 사본인 B, D, F, G 는 모두 이것을 생략하고 있다. 서기관들이 5:1 과 4:16 (2 회), 19, 20 절이 병행구절을 이루도록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믿음으로"는 바울서신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이다!

▣ **"이 은혜에"** 이 용어(*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엡 2:4-9). 이것은 죄인인 인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참조, 8 절).

▣ **"우리가 . . . 서 있는"**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 사용된 또 다른 경우이다; 글자적으로는 "우리가 서 있고 또 계속해서 서 있는"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신학적 자리와 믿음 안에 거할 것에 대한 신자의 헌신을 반영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참조, 고전 15:1)과 인간의 자유의지(참조, 엡 6:11, 13, 14)의 신학적 역설을 하나로 엮는다.

특별주제: 서다(*히스테미*)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용어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나타낸다

1. 세우다
   ㄱ. 구약의 율법, 롬 3:31
   ㄴ. 사람의 의로움, 롬 10:3
   ㄷ. 새 언약, 히 10:9
   ㄹ. 비난, 고후 13:1
   ㅁ. 하나님의 진리, 딤후 2:19
2. 영적으로 견디다
   ㄱ. 마귀, 엡 6:11
   ㄴ. 심판 날, 계 6:17
3. 자신의 자리에 서서 견디다
   ㄱ. 군사적 은유, 엡 6:14
   ㄴ. 사회적 은유, 롬 14:4
4. 진리의 입장, 요 8:44
5. 은혜의 자리
   ㄱ. 롬 5:2
   ㄴ. 고전 15:1
   ㄷ. 벧전 5:12
6. 믿음의 자리
   ㄱ. 롬 11:20
   ㄴ. 고전 7:37
   ㄷ. 고전 15:1
   ㄹ. 고후 1:24
7. 거만함의 자리, 고전 10:12

이 용어는 언약의 은혜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며 또한 신자가 믿음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두 가지 모두 성경적 진리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만 한다!

▣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의 문법적인 형태는 (1) 현재 중간태 직설법, "우리가 즐거워한다" 혹은 (2) 현재 중간태 (디포) 가정법, "우리가 즐거워하자"로 이해할 수 있다. 학자들의 의견은 이런 가능성을 놓고 나뉘어져 있다. 만일 1 절에 있는 "우리가 누린다"를 직설법으로 취한다면 3 절까지 해석을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자랑하는"(NRSV, JB)이다. 2: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자는 자기 자신을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참조, 3:27)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인해 즐거워 하는 것이다(참조, 렘 9:23-24). 같은 헬라어 어근이 3, 11 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 "바라고" 바울은 종종 여러 가지 다른 경우지만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 4:18 의 설명을 보라. 종종 이 용어는 신자의 믿음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이 용어는 영광, 영생, 궁극적인 구원, 재림 등을 가리킨다. 이것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지만 그 때는 미래적이고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용어는 종종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타난다(참조, 고전 13:13; 갈 5:5-6; 엡 4:2-5; 살전 1:3; 5:8).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목록은 다음에 제시되고 있다.

1. 재림, 갈 5:5; 엡 1:18; 딛 2:13
2.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딤전 1:1
3. 믿는 자는 하나님께 서게 되어있다, 골 1:22-23; 살전 2:19
4. 하늘에 쌓아 둔 소망, 골 1:5
5. 궁긍적인 구원, 살전 4:13
6. 하나님의 영광, 롬 5:2; 고후 3:12; 골 1:27
7. 구원의 확신, 살전 5:8-9
8. 영생, 딛 1:2; 3:7
9.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결과, 롬 5:2-5
10. 모든 피조물의 구속, 롬 8:20-22
11. 하나님의 호칭, 롬 15:13
12. 양자됨의 성취, 롬 8:23-25
13.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구약의 안내, 롬 15:4

▣ **"하나님의 영광"**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개인적 인재하심에 대한 구약의 관용어이다. 이 용어는 부활의 날에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신자가 서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고후 5:21). 이것은 종종 "영화"라는 신학적 용어로 불린다(참조, 9-10 절; 8:30). 신자들은 예수를 닮은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벧후 1:4). 3:23 의 특별주제: 영광을 보라.

5:3

NASB	**"다만 이뿐 아니라"**
NKJV	**"다만 그것뿐 아니라"**
NRSV	**"다만 그것뿐 아니라"**
TEV	**-생략함-**
NJB	**"그것뿐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일련의 용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참조, 5:3, 11; 8:23; 9:10; 고후 8:19).

▣

NASB	**"우리가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NKJV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NRSV	**"우리가 고통을 자랑하나니"**
TEV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NJB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중에도 즐거워하자"**

만일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미워할 것이다(참조, 마 10:22; 24:9; 요 15:18-21).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가 고난받으심을 인해 성숙하게 되셨다(참조, 히 5:8). 고난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의를 이룬다(참조, 8:17-19; 행 14:22; 약 1:2-4; 벧전 4:12-19).

▣ **"앎이로다"** 이것은 "*오이다*"의 완료 분사이다. 이 단어는 형태로는 완료이지만 현재시제의 기능을 갖는다. 믿는 자들이 고난과 관련하여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닌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심지어 박해에 직면하여서도 그렇다(참조, 빌 4:4; 살전 5:16, 18).

5:1 **"환란"**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환란

이 용어(*슬립시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바울과 요한의 신학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I. 바울의 용법(이것은 예수님의 용법을 반영하고 있다)
  가. 타락한 세상과 관련된 문제, 고통, 악
    1. 마 13:21
    2. 롬 5:3
    3. 고전 7:28
    4. 고후 7:4
    5. 엡 3:13
  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문제, 고통, 악
    1. 롬 5:3; 8:35; 12:12
    2. 고후 1:4, 8; 6:4; 7:4; 8:2, 13
    3. 엡 3:13
    4. 빌 4:14
    5. 살전 1:6
    6. 살후 1:4
  다. 마지막 때의 문제, 고통, 악
    1. 마 24:21, 29
    2. 막 13:19, 24
    3. 살후 1:6-9

II. 요한의 용법
  가. 요한은 계시록에서 *슬립시스* 와 *오르게* 혹은 *쉬모스* (진노)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슬립시스* 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행하는 일을 *오르게* 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1. *슬립시스* – 계 1:9; 2:9-10, 22; 7:14
    2. *오르게* – 계 6:16-17; 11:18; 16:19; 19:15
    3. *쉬모스* – 계 12:12; 14:18, 10, 19; 15:2, 7; 16:1; 18:3
  나. 요한은 또한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 요 16:33.

5:3, 4 "인내" 이 용어는 "자원함," "능동적임," "견고함," "인내"를 뜻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하여 갖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인내를 가리킨다. 8:25 의 특별주제를 보라.

5:4

NASB	**"입증된 성품"**
NKJV, NRSV	**"성품"**
TEV	**"하나님의 인정하심"**
NJB	**"점검된 성품"**

창 23:16; 왕상 10:18; 대상 28:18 의 70 인역 본문에서 이 용어는 금속의 순도와 순전함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참조, 고후 2:9; 8:2; 9:13; 13:3; 빌 2:22; 딤후 2:15; 약 1:12).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항상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참조, 히 12:10-11)! 2:18 의 특별주제: 시험함을 보라.

5:5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으니"이다. 이 동사는 종종 욜 2:28-29 을 나타내는 성령의 일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참조, 행 2:17, 18, 33; 10:45; 딛 3:6).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격 의 구문은 문법적으로는 (1)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혹은 (2)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참조, 고후 5:14)을 말할 수 있다. 문맥상 2 항만이 적합한 해석이다.

▣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수동태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더 많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의 한 쪽이다(참조, 8:9). 성령을 주신 것은 새 시대(참조, 욜 2:28-29)와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겔 36:22-32)의 표징이 되었다.

▣ 이 문단에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나옴을 주목하라.

1. 하나님, 1, 2, 5, 8, 10 절
2. 예수님, 1, 6, 8, 9, 10 절
3. 성령님, 5 절

8:11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개역개정 5:6-11
[6]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6

NASB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NKJV	**"우리가 아직 힘 없을 때에"**
NRSV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TEV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NJB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동사는 현재 분사 이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범죄한 아담의 상태를 가리킨다. 인간은 죄에 대해 무능하다. 대명사 "우리"는 6 절 하반절에 있는 "경건치 않은 자," 8 절의 "죄인," 10 절의 "원수"를 설명하고 이 설명적인 명사들과 평행을 이룬다. 6 절과 8 절은 신학적으로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

NASB, NRSV	**"적합한 때에"**
NKJV	**"알맞은 때에"**
TEV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NJB	**"그가 정해 놓으신 순간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1)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했던 로마제국의 평화시대 (2) 헬라어로 인해 타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3) 헬라와 로마의 신들이 쇠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갈급하고 기대를 갖도록 한 점(참조, 막 1:15; 갈 4:4; 엡 1:10; 딛 1:3)을 나타낸다.

신학적으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행하신 일이었다(참조, 눅 22:22; 행 2:23; 3:18; 4:28; 엡 1:11).

5:6, 8, 10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 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하나의 통일된 사건으로 본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지 않은 빚을 위해 지불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참조, 갈 3:13; 요일 4:10).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울의 글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하기 위해 여러 용어와 구를 사용한다:

1. "피"(참조, 3:25; 5:9; 고전 11:25, 27; 엡 1:7; 2:13; 골 1:20)
2. "자신을 버리셨다"(참조, 엡 5:2, 25)
3. "구출하셨다"(참조, 롬 4:25; 8:32)
4. "희생"(참조, 고전 5:7)
5. "죽으셨다"(참조, 롬 5:6; 8:34; 14:9, 15; 고전 8:11; 15:3; 고후 5:15; 갈 5:21; 살전 4:14; 5:10)
6. "십자가"(참조, 고전 1:17-18; 갈 5:11; 6:12-14; 엡 2:16; 빌 2:8; 골 1:20; 2:14)
7. "십자가에 죽으심"(참조, 고전 1:23; 2:2; 고후 13:4; 갈 3:1)

이 문맥에서 전치사 *휘페르* 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대표, "우리를 대신하여"
2. 대치, "우리 대신에"

일반적으로 소유격 과 함께 사용된 *휘페르* 의 기본 의미는 "~를 대신해서"이다(라우와 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연히 생긴 어떤 유리한 내용을 표현한다(*신약 신학의 새 국제사전*, 제 1 권, 1196 쪽). 한편, *휘페르* 는 *안티* 의 의미를 갖는데 후자는 "~대신에"를 뜻하는 말로서 신학적으로는 대속적인 속죄를 가리킨다(참조, 막 10:45; 요 11:50; 18:14; 고후 5:14; 딤전 2:6). M. J. 모리(NIDOTTE, 제 3 권, 1197 쪽)는 질문하기를 "그런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안티 헤몬* 을 위해 죽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가(딤전 2:6 은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근접한 내용이다-*안티뤼트론 휘페르 판톤*)? 그 이유는 아마도 전치사 *휘페르* 는 *안티* 와 달리 대표성과 대신함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M. R. 빈센트, *단어 연구* 제 2 권,는 말하기를

> "대신하여의 뜻을 지닌 *휘페르* 가 대신에라는 뜻을 가진 *안티* 와 항상 같은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전통적인 저자들은 그 뜻이 서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을 제시했다 . . . 그러나 여기의 경우는 불분명하여 그러한 증거로 여겨질 수 없다. 전치사는 장소를 나타내어 죽은 자 위에로 되어 있다. 이들 본문의 어떤 것도 결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휘페르* 는 *안티* 의 개념에 근접한 것임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대신에* 는 주로 교리적 근거에서 주장된다.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의 유익을 위하여, ~을 위하여* 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본문인 갈 3:13; 롬 14:15; 벧전 3:18 에서 이 단어의 참된 해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휘페르* 가 대신하여라는 특별한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전치사—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를 강조한다는 점과 또한 이것은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에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신하여라는 뜻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오직 추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692 쪽).

5:7 이 절은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반면에 8 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

NASB, NKJV,
TEV **"의인을 위하여"**
NRSV **"의인을 위하여"**

JB **"좋은 사람을 위하여"**

이 용어는 노아와 욥이 의인이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있던 종교적인 규범을 준수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5:8 **"하나님께서 . . .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참조, 3:5 이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셨다(참조, 8:3, 32; 고후 5:19).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이지 않고 행동지향적(참조, 요 3:16; 요일 4:10)이며 항상 일정하다.

5:9 **"더욱"**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의 하나이다(참조, 10, 15, 17 절). 만일 믿는 자들이 아직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신 것이다(참조, 5:10; 8:22).

▣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로서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된 일임을 나타낸다. 바울은 1 절의 진리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의롭게 된"(9 절)과 "화목하게 된"(10-11 절은 평행을 이룬다.

▣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죽음을 가리킨다(참조, 3:5; 막 10:45; 고후 5:21). 이렇듯 무흠한 생명이 죄있는 자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개념은 레 1-7 장에 연결되며 아마도 출 12 장(유월절 양)과도 연결된다. 이것은 사 53:4-6 에서 예수님께 신학적으로 적용되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개념이 기독론적 의미로 발전되었다. 히브리서는 여러 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사실상 연결시키고 있다.

▣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미래 수동 직설법(참조, 10 절)이다. 이것은 "영화"(참조, 2 절; 8:30; 요일 3:2)로 불리는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일컫는다.

신약은 동사의 모든 시제를 사용하여 구원을 설명한다:

1. 완료된 행위(부정과거), 행 15:11; 롬 8:24; 딤후 1:9; 딛 3:5
2. 현재의 상태에 결과가 남아 있는 과거의 행위(완료), 엡 2:5, 8
3. 점진적인 과정(현재), 고전 1:18; 15:2; 고후 2:15; 살전 4:14; 벧전 3:21
4. 미래에 일어날 완성(미래), 롬 5:9, 10; 10:9

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구원은 최초의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어느 날 완성될 관계로서 진행된다. 이 개념은 종종 세 가지 신학 용어로써 설명된다: 칭의로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성화로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 영화로서 "죄의 실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신약은 성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신학자들은 "위치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말하고 있다. 거저 주시는 구원이 경건한 삶과 연결되는 것은 신비롭다!

▣ **"진노하심에서"** 이것은 종말론적 문맥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크고 값없이 주시고 공로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또한 죄와 반역에 대하여는 정반대로 대하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죄 용서의 길을 제공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진노에 놓여 있는 것이다(참조, 1:18-3:20). 이것은 의인법적 표현으로서 실제를 나타낸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히 10:31).

5:10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피조물인 인류는 원수가 되었다! 사람(참조, 창 3:5)과 사탄(참조,

사 14:14: 겔 28:2, 12-17)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즉 독립하려는 욕망, 지배하려는 욕망,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문제이다.

▣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과 부정과거 수동 분사로 되어 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동사는 원래 "교환하다"를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의와 바꾸셨다(참조, 사 53:4-6). 평화가 회복되었다(참조, 1 절)!

▣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복음은 (1) 하나님의 사랑 (2) 그리스도의 사역 (3) 성령의 탄식하심 (4) 개인적인 믿음/회개의 응답에 기초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다른 방법이 없다(참조, 요 14:6).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성품에 기초한다!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함이 거저 누리는 구원의 증거가 됨은 역설적이다(참조,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신약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의 일로 말한다. 여기서 미래라 함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우리의 궁극적이고 완성된 구원을 일컫는다. 9 절의 설명과 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용어는 *조에*이다. 이 용어는 요한의 글에서 항상 부활의 생명, 영생, 또는 왕국에서 누릴 생명을 가리킨다. 바울 또한 이것을 이러한 신학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문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신자가 용서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같이 커다란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행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생명"은 (1) 예수의 부활(참조, 8:34; 고전 15 장) (2) 예수님의 중보사역(참조, 8:34; 히 7:25; 요일 2:1) 혹은 (3)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심(참조, 롬 8:29; 갈 4:19)을 가리킬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죽으심은 주께서 영광 받으신 것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됨을 누리는 근거를 이룬다고 바울은 확신한다.

5:11 "그뿐 아니라" 3 절의 설명을 보라.

▣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2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이 문맥에서 "즐거워 하다"(자랑하다)가 세 번째 사용된 곳이다.

1.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 한다, 2 절
2.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한다, 3 절
3. 화목됨 안에서 즐거워 한다, 11 절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은 2:17 과 23 절에 나온다!

▣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완료된 행동을 나타낸다. 신자가 화목함을 누리는 것은 10 절과 고후 5:18-21; 엡 2:16-22; 골 1:19-23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문맥에서 "화목"은 신학적으로 "칭의"와 동의어를 이룬다.

개역개정 5:12-14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5:12 "그러므로 "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러 곳에 사용된다(참조, 5:1; 8:1; 12:1). 해석을 위한 질문은 이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이다. 이 단어는 바울이 논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방법일 수 있다. 분명히 이 단어는 창세기와 연결되며, 아마도 롬 1:18-32 의 내용을 말할 것이다.

▣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2 절에 나오는 세 동사가 모두 부정과거 시제이다.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왔다(참조, 고전 15:22). 성경은 원죄만 강조하지 않는다. 죄는 천사들의 영역에서도 일어났다(참조, 창 3 장과 계 12:7-9).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하여는 확실치않다(참조, 사 14:12-27; 겔 28:12-19; 욥 4:18; 마 25:41; 눅 10:18; 요 12:31; 계 12:7-9).

아담의 죄는 두 가지 면에 대한 것이다: (1) 특별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참조, 창 2:16-17) (2) 자기 중심적 교만(참조, 창 3:5-6). 롬 1:18-32 에서 시작한 창 3 장에 대한 암시는 여기서 계속되고 있다.

바울과 랍비들의 견해를 분명히 구분짓는 것은 바로 죄와 관련된 신학이다. 랍비들은 창 3 장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반면에 모든 사람 안에 두 가지 "경향"(*옛제르*)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랍비들의 가르침으로서 유명한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검은 개와 하얀 개가 있다. 가장 잘 먹이는 쪽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다. 바울은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커다란 장벽으로 보았다. 바울은 조직신학자는 아니었다(참조, 제임스 스튜어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여러 가지 원죄를 말한다: (1) 아담의 범죄 (2) 사탄의 유혹 (3) 인간의 계속적인 반역.

아담과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대비와 평행으로 나타냄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한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다.

1. 아담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다.
2.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람이셨다.

이 두 가지 진리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성경을 확증한다. "한 사람" 혹은 "그 한 사람"이 반복됨을 유념하라. 이러한 언급으로 아담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이 문맥에서 11 번 사용되었다.

▣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성경은 사망의 세 단계를 말한다: (1) 영적 죽음(참조, 창 2:17; 3:1-7; 엡 2:1); 육체의 죽음(참조, 창 5 장); (3) 영원한 죽음(참조, 계 2:11; 20:6, 14; 21:8).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은 아담의 영적 죽음으로서(참조, 창 3:14-19) 이것은 모든 인류의 육체적 죽음을 가져왔다(참조, 창세기 5 장).

▣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문단의 주요 골자는 죄(참조, 16-19 절; 고전 15:22; 갈 1:10)와 죽음의 보편성이다.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공동으로 죄를 지었다(즉, 죄된 상태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경향을 가졌다).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한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왕상 8:46; 대하 6:36; 시 14:1-2; 130:3; 143:2; 잠 20:9; 전 7:20; 사 9:17; 53:6; 롬 3:9-19, 23; 5:18; 11:32; 갈 3:22; 요일 1:8-10).

한편 한 가지 행동이 사망을 가져왔고(아담) 또 한 행동이 생명을 가져왔음을(예수)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으므로 사람이 중요한 관점인 "상실됨"과 "칭의"의 면에서 응답해야 한다. 자신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음에 있어서 인간은 의지적으로 관련을 가진다! 그들은 죄를 선택하기를 계속하든지 혹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 지를 의지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므로"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의미는 종종 논란이 된다. 바울은 고후 5:4; 빌 3:12; 4:10 에서 "~이므로"의 의미로 *엡 호* 를 사용한다. 따라서 각 사람은 모두 죄에 가담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기를 선택한다. 모든 이가 자연계시를 거부함으로써 이것을 선택하지만 (참조, 1:18-3:20), 어떤 이는 특별계시를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선택을 한다.

5:13-14 이와 같은 진리를 롬 4:15 과 행 17:30 에서 말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인간은 자신들에게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 절은 전적으로 특별계시(구약, 예수님, 신약)에 대한 내용이지 자연계시(시편 19 편; 롬 1:18-23; 2:11-16)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NKJV 역은 12 절이 긴 삽입구(참조, 13-17 절)에 의해 18-21 절의 결론으로부터 구분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5:14
NASB, NKJV,
JB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NRSV **"사망이 지배력을 행사하였나니"**
TEV **"사망이 다스렸나니"**

사망이 왕으로서 다스렸다(참조, 17, 21 절). 이렇듯 사망과 죄를 전제군주로 의인화한 것은 이 장과 6 장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은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드러낸다. 17 절과 21 절에서는 은혜가 의인화되었다. 은혜가 다스린다! 사람은 죽음이든지 생명을 선택해야한다(구약에 나타난 두 길). 누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계명을 범했는데 하와까지 똑 같은 방법으로 범죄한 것은 아니었다.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무에 대해 주신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전해들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모세 때까지 아담의 반역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명령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신학적 문맥을 같이하는 롬 1:18-32 은 말하기를 그들이 창조 때부터 그들이 가진 빛에 비추어 볼 때 범죄한 것이고 따라서 반역/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선언한다. 아담의 죄된 경향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전파되었다.

▣
NASB, NKJV,
NRSV **"오실 자의 모형이다"**
TEV **"아담은 오실 자의 모습이었다"**
JB **"아담은 오실 자를 미리 나타냈다"**

이 표현은 아담-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낸다(참조, 고전 15:21-22, 45-49; 빌 2:6-8). 두 쪽 다 계보와 족보에서 처음 사람으로 나타난다(참조, 고전 15:45-49). 아담은 신약에서 "모형"으로 특별히 지칭된 구약의 유일한 인물이다. 6:17 의 특별제목:모형(*튀포스*)를 보라.

개역개정 5:15-17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5:15-19 이것은 평행구절을 사용하며 계속되는 논점을 다루고 있다. NASB, NRSV, TEV 는 문단을 18 절에서 나누고 있다. 그러나 UBS[4], NKJV, JB 는 이부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번역한다.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해석에 있어서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길이 됨을 기억하라. 15 절 19 절에 있는 "많은"이라는 용어가 12 절과 18 절에 있는 "모든"과 동의어를 이룸을 주목하라. 이러한 점이 사 53:11-12 과 6 절에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용어에 기초하여 어떤 신학적 견해(칼빈의 예정됨 대 예정되지 않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5:15 "은사" 이 문맥에는 "선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나온다—*카리스마* , 15, 16 절(6:23)와 *도레아/도라마* , 15, 16, 17 절(3:24 의 설명을 보라)—그런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동의어를 이룬다. 이것은 진실로 구원에 관련된 복음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참조, 3:24; 6:23; 엡 2:8, 9).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이것은 17 절과 평행을 이룬다.

▣ "넘쳤느니라" 15: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5:16 "정죄 . . . 의롭다 하심 " 이 둘은 다 법정용어이다. 종종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법정을 배경으로 전해진다. 바울은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롬 8:1, 31-34).

5:17 "만일" 이것도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아담의 범죄는 참으로 모든 사람의 사망을 가져왔다.

▣ "더욱 . . . 넘치게 받는 자들은" 18-19 절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 구절은 롬 1-8 장의 문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내용으로서 보편 구원론(모든 이가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구절로 사용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시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17 절 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요 1:12; 3:16; 롬 10:9-13).

아담이 행한 한 번의 반역은 모든 사람의 전체적인 반역을 가져왔다. 한 번의 죄된 행동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의로운 희생은 많은 사람이 공동적으로 받은 죄의 영향뿐 아니라 각자가 지은 죄를 덮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가져 온 "더욱 넘치게"가 강조되고 있다(참조, 9, 10, 15, 17). 은혜가 넘친다!

5:17, 18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 . .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시며 범죄한 모든 사람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참조, 고전 1:30). 이 평행구절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죄있는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난다 또는 (2) 이 표현은 "영원한 생명"과 동의어를 이룬다. 문맥은 (1) 항을 지지한다. 의에 대한 단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함

그리스도와 다스린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리는 더 커다란 신학적 주제의 일부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구약의 개념의 연장이다(참조, 삼상 8:7).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참조, 창 49:10)인 이새의 후손(참조, 삼하 7 장)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중심적인 기둥을 이룬다. 왕국이 그 분 안에서 전적으로 도래했다(참조, 마 10:7; 11:12; 12:28; 막 1:15; 눅 10:9, 11; 11:20; 16:16; 17:20-21).

그러나 왕국은 또한 미래적이기도 하다(종말론적). 왕국이 나타났지만 최종적인 단계의 것은 아니었다(참조, 마 6:10; 8:11; 16:28; 22:1-14; 26:29; 눅 9:27; 11:2; 13:29; 14:10-24; 22:16, 18). 예수님은 처음엔 고난받는 종(참조, 사 52:13-53:12)으로서 겸손하게(참조, 슥 9:9) 오셨지만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마 2:2; 21:5; 27:11-14). "다스림"의 개념은 참으로 이러한 "왕국"신학의 일부분을 이룬다. 하나님은 왕국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눅 12:32 을 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은 고려할 여러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른 질문을 제기한다:

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왕국"을 주신 것을 말하는 구절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인가(참조, 마 5:3, 10; 눅 12:32)?
7. 예수님께서 1 세기의 유대적 배경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한 내용인가(참조, 마 19:28; 눅 22:28-30)?
8. 위의 경우와 대조되거나 혹은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는가(참조, 롬 5:17; 고전 4:8)?
9. 어떻게 고난은 다스림과 관계가 있는가(참조, 롬 8:17; 딤전 2:11-12; 벧전 4:13; 계 1:9)?
10.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다
    ㄹ. 지상의, 5:10
    ㅁ. 천년왕국의, 20:5, 6
    ㅂ. 영원한, 2:26; 3:21; 22:5; 단 7:14, 18, 27

개역개정 5:18-21

[18]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5:18

NASB **"그럴지라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NKJV **"그럴지라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이에게 왔느니라"**
NRSV **"그런즉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TEV **"이같이 한 의로운 행위가 모든 이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JB **"그런즉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그들을 의롭다 하느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보편 구원론)을 말하지 않는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과 전후의 문맥을 떠나서 이 절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예수의 삶/죽으심/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인류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의 제안에 응답해야한다(참조, 막 1:15; 행 3:16, 19; 20:21)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취하신다(참조, 요 6:44, 65).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응답해야할 것을 정해놓으셨다(참조, 막 1:15; 요 1:12;

롬 10:9-13). 하나님의 제안은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참조, 딤전 2:4, 6; 벧후 3:9; 요일 2:2), 죄악이 불가해한 점은 이 제안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아니요"라고 답한다는 점에 있다.

"의의 행위"는 (1)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의 삶과 성부의 계시나 혹은 (2) 죄악된 인류를 대신하여 그가 죽음을 당하신 것을 특별히 가리킨다. 한 사람의 삶이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쳤듯이(유대인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참조, 수 7 장) 한 사람의 죄없는 삶 또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서로 평행을 이루지만 똑 같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예수의 삶에 의해 오직 가능성에 있어서만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즉 칭의의 선물을 받는 믿는 자들만 그렇다. 예수의 행동은 과거나 현재에 혹은 미래에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인간의 죄에 영향을 미친다!

5:18-19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 . .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 . .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 . .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두 절은 "많은" 사람이 제외되는 것에서가 아니라 포함되는 것으로 평행을 이룬다. 이러한 평행은 사 53:6 "모든"과 53:11, 12 "많은"에서 나타난다. "많은"이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제안을 제한하기 위한 의미로 취해서는 안된다(칼빈의 선택 받은 자 대 선택받지 못한 자).

두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이 동사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낸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하여 범죄하였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 . .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바울은 구약의 신학적 개념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참조, 수 7 장의 아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참조, 창 3 장).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반역에 따른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참조, 8:18-25). 같은 세계가 아니다. 인간은 같지 않다. 죽음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의 마지막이 되었다(참조, 창 5 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적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행한 순종의 한 행동은 (1) 새 시대 (2) 새 백성 (3) 새 언약을 가져왔다. 이렇게 대표하는 신학은 "아담-그리스도 모형론"으로 불린다(참조, 빌 2:6).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시다.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새 시작이시다.

▣ "의인이 되리라 "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5:20

NASB	**"그리고 범죄가 더 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
NKJV	**"더욱이 범죄가 더 많게 하려 율법이 들어왔다"**
NRSV	**"그러나 율법이 들어왔고, 그 결과 범죄가 늘었다"**
TEV	**"잘못함을 더 많게 하려 율법이 소개되었다"**
JB	**"율법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범죄의 기회를 더하게 하려 함이었다"**

율법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범죄한 인류에게 자신들의 필요와 도움이 없음을 보여(참조, 엡 2:1-3)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함이었다(참조, 3:20; 4:15; 7:5; 갈 3:19, 23-26).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은 죄악되다!

▣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이 단락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주제이다. 죄가 무섭고 팽배해있지만, 은혜가 넘치고 죄가 가져오는 죽음의 영향을 뛰어 넘는다. 이 내용은 제 1 세기의 연약한 교회를 격려하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였다(참조, 5:9-11; 8:31-39; 요일 5:4). 이것은 죄를 마음껏 짓도록 하는 증서가 아니다! 1:30 에 있는 특별주제: 바울의 *휘페르* 합성어의 용법을 보라.

5:21 "죄"와 "은혜" 둘 다 왕으로서 의인화되었다. 죄는 모든 이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힘으로 다스렸다(14, 17 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이에 대한 신자의 개인적인 믿음과 회개함으로 복음에 응답함을 통해 전가된 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참조, 5:17; 딤후 2:12; 계 22:5). 이것은 지상에서 혹은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림으로 나타날 것이다(참조, 계 5:9-10; 20 장). 성경은 또한 왕국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함으로써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참조, 마 5:3, 10; 눅 12:32; 엡 2:5-6). 5:17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의 "의"를 정의하라.
2. "위치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소유"의 신학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3. 우리는 은혜를 따라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참조, 엡 2:8-9)?
4.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받는가?
5.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또는 구원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6. 우리는 죄를 짓기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가?
7. 이 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화목하게 된"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가?
8. 왜 하나님은 수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죄에 대해 내가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가(참조, 12-21 절)?
9. 죄가 아담에서 모세 사이의 기간에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왜 죽었는가(13-14 절)?
10. "모든"과 "많은"은 서로 동의어를 이루는가(18-19 절. 사 53:6, 11-12)?

로마서 6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예루살렘성경 (JB)**
죄에 대하여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삶	죄에 대하여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	침례(세례)
6:1-11	6:1-14	6:1-4	6:1-4	6:1-7
		6:5-11	6:5-11	
				6:8-11
				거룩함,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함
6:12-14		6:12-14	6:12-14	6:12-14
의의 종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됨	두 종류의 종	의의 종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다
6:15-23	6:15-23	6:15-19	6:15-19	6:15-19
				죄의 보상과 거룩함의 보상
		6:20-23	6:20-23	6:20-23

독서의 세 번째 단계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롬 6:1-8:39 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다루는 하나의 사상적 단위(문학 단위)를 이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격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져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3:31-5:21).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6 장은 1 절과 15 절에서 제시된 질문에 기초한다. 1 절은 5:20 과 관계가 있는 반면 15 절은 6:14 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것은 생활습관으로서의 죄(현재 시제)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것은 개별적인 죄의 행위(부정과거 시제)와 관련이 있다. 1-14 절이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가 갖는 자유를 다루는 반면에, 15-23 절은 이전에 죄를—전적으로, 완전하게, 전심으로 섬겼듯이—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신자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나. 칭의의 두 면
1. 위치(의롭게 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을 때 전가됨, 3:21-5:21)
2.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감
ㄱ. 6:1-8:39 은 이 진리를 신학적으로 표현함
ㄴ. 12:1-15:13 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함(6:4 의 특별주제를 보라)

다. 주석가들은 종종 칭의와 지위적 성화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따로 떼어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붙들려 한다. 사실상 이 둘은 동시적으로 은혜에 따른 행동이다(지위적, 고전 1:30; 6:11). 둘의 원리는 동일하다—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예수의 삶과 죽으심 안에서 드러났다(참조, 엡 2:8-9).

라. 이 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잠재적인 완전한 성숙함에 대해 가르친다(죄없음, 참조, 요일 3:6, 9; 5:18). 7 장과 요일 1:8-2:1 은 신자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죄의 실재를 나타낸다.

바울이 말하는 용서함의 관점에 대해 일어나는 많은 종류의 갈등은 도덕적 주제와 관련이 있다. 유대인들은 새로 회심한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의 견해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삼았고 또 그렇게 삼으려 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1, 15 절; 벧후 3:15-16). 바울은 외적 법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추종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믿었다. 사실상 이것은 옛 언약(참조, 신 27-28 장)과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겔 36:26-27)의 차이점이다.

마. 침례(세례)는 칭의/성화의 영적 실제를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로마서에서 쌍둥이 교리인 지위적 성화(칭의)와 경험적 성화(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가르침은 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장사지낸바 된 것(4 절)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6 절)과 평행을 이룬다.

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한 열쇠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라. 그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라. 당신은 죄로부터 놓임을 받았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2.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지위를 생각하라/고려하라.
3.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을 섬기고/순종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고/순종한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 삶이다. 구원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작하셨고 이것의 능력을 공급하신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처음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5. 죄 주위에서 얼씬거리지 않는다. 죄를 죄로 여기라.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도망치라. 당신 자신을 유혹의 자리에 있게 하지 말라.
6. 죄는 고쳐질 수 있는 중독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과 노력, 의지적 힘을 요구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6:1-7
[1]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6:1

NASB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짓기를 계속 해야겠느냐"**
NKJV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여야 하겠는가"**
NRSV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여야만 하겠느냐"**
TEV **"하나님의 은혜가 많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
JB **"은혜가 더 넓은 범위를 갖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죄에 남아 있어야만 함을 이것이 뜻하는가"**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거하여야 하는가" 혹은 죄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5:20 을 살펴보게 한다. 바울은 가정적으로 반대자(통렬한 비난)를 설정하여 은혜를 오용할 가능성의 문제(참조, 요일 3:6, 9; 5:18)를 다룬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반역적인 삶을 마음껏 살도록 면허증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다.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하는 바울의 복음(참조, 3:24; 5:15, 17; 6:23)은 의의 삶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게한다. 어떻게 거져 주시는 선물이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게 하는가?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참조, 마 7:24-27; 눅 8:21; 11:28; 요 13:17; 롬 2:13; 약 1:22-25; 2:14-26).

이 점에 있어서 F. F. 브루스의 책 *바울:양심을 자유롭게 하는 사도* 에서 "그리스도인의 침례(세례)는 중생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옛 질서에 대해 그들이 죽었음을 나타내고 따라서 침례(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행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일로서 마치 해방된 노예가 이전 주인에게 계속 종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으며 (참조, 롬 6:1-4, 15-23) 혹은 과부가 '그녀의 남편의 법'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281-82 쪽(참조, 롬 7:1-6).

제임스 S. 스테워트의 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에서 그는 기록하기를: "모든 면에 대한 사도의 생각을 표준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로마서 6 장에 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였다는 것은 신자가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는 교훈을 가슴과 양심에 새겨지도록 커다란 열정과 노력으로 말한다," 187-88 쪽.

6:2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희구법 형태로서 소원이나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문법적 법이나 양태이다. 이것은 바울이 가정적으로 설정한 반대자에게 대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오해와 은혜의 남용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놀람이나 경악을 나타낸다(참조, 3:4, 6).

▣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뜻이다. 단수형인 "죄"는 이 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 온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롬 5:12-21; 고전 15:21-22). 바울은 종종 죽음의 개념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예수께 대한 신자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낸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다.

▣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글자대로는 "걷다"이다. 이 은유는 믿음의 삶(참조, 엡 4:1; 5:2, 15)이나 죄의 삶(참조, 4 절)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신자들은 죄 안에서 행복할 수 없다!

6:3-4 "세례를 받은 줄을 . . . 장사되었나니" 두 동사가 다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이 문법적 형태는 외부의 사람, 여기서는 성령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된 행위를 강조한다. 이 문맥에서 이 둘은 평행을 이룬다.

특별주제: 침례(세례)

쿠티스 보간의 *사도행전* 28 쪽에 흥미로운 각주가 있다.

"헬라어에서 '침례(세례)받다'는 3 인칭 명령으로 되어있고, '회개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2 인칭 명령으로 되어있다. 보다 직접적인 2 인칭 명령이 아닌 보다 덜 직접적인 3 인칭으로 '침례(세례)받다'를 표현한 점은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점은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3:2)과 예수님(참조, 4:17)의 설교에서 강조점을 드러낸다. 회개는 영적 열쇠로 침례(세례)는 이러한 영적 변화의 외적표현으로 보인다. 신약에는 침례(세례)받지 않은 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초대교회에서 침례(세례)는 바로 믿음의 공적 고백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적 표현의 방법이었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회개는 언급되고 있지만 침례(세례)는 언급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3:19; 눅 24:17). 침례(세례)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본이었다(참조, 마 3:13-18). 예수님은침례(세례)를 명하셨다(참조, 마 28:19). 구원을 받기 위해 침례(세례)가 필요한가 하는 현대인의 질문은 신약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모든 신자는 침례(세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성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구원은 믿음의 영역이지, 특정한 장소, 특정한 표현, 특정한 예식의 영역이 아니다!

▣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에이스* (안으로)의 용법은 마 28:19 에 있는 대위임과 평행을 이룬다. 거기서는 새 신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에이스 (안으로) 침례(세례)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전치사**는 고전 12:13 에서 신자가 성령으로 침례(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 *에이스* 는 11 절에 있는 *엔* (그리스도 안에서)과 동의어를 이룬다. 후자는 신자를 뜻하는 말로서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다. 이러한 전치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나타나는 이러한 친밀한 연합, 이러한 교제의 영역을 나타낸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참조, 6 절; 8:17), 부활하심(참조, 5 절), 순종하심, 그의 왕국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다!

▣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 . .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에 잠기는 침례(세례)는 죽음과 장사를 나타낸다(참조, 5 장과 골 2:12).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은유로서 침례(세례)를 사용하셨다(참조, 막 10:38-39; 눅 12:50). 여기서 강조점은 침례(세례)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새롭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받으신 침례(세례), 그의 성품, 그의 희생, 그의 사명에 함께 한다. 죄는 신자들에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6:4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에서 바울은 여러 개의 *쉰* (함께)이 있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이다(예, 엡 2:5-6).

1. *쉰* + *타프토* = 함께 장사되다, 4 절; 골 2:12; 또한 8 절의 설명을 보라
2. *쉰* + *스타우로* = 함께 심기다, 5 절
3. *쉰* + *아조* = 함께 존재하다, 8 절; 딤후 2:11(또한 함께 죽다와 함께 다스리다가 있다)

▣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 예상되는 구원의 결과는 성화이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 새 생명은 구원의 결과이다(참조,

16, 19 절; 엡 2:8-9, 10; 약 2:14-26). 이것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이거냐 혹은 저거냐의 질문이 아니라 순차적인 내용이다.

특별주제: 성화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즉시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된다고 신약은 단언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위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다(롬 4 장).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다(하나님의 법적 행위).

신약은 또한 신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초한 신학적 지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 구원이 은사이자 값진 삶의 양식이듯이 성화도 그러하다.

최초의 응답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행 20:23; 26:18	롬 6:19
롬 15:16	고후 7:1
고전 1:2-3; 6:11	살전 3:13; 4:3-4, 7; 5:23
살후 2:13	딤전 2:15
히 2:11; 10:10, 14; 13:12	딤후 2:21
벧전 1:1	히 12:14
	벧전 1:15-16

▣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 문맥에서 성부께서 성자의 말과 사역을 받으시고 또한 확증하신 것이 두 가지 큰 사건에서 나타난다.

1.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2.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성부의 우편에 계신 것

▣ "아버지의 영광" "영광"에 대하여는 3: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아버지"에 대하여는 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6:5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독자가 믿는 자들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함께 연합되었고 계속해서 함께 연합된" 또는 "함께 심겨졌고 계속해서 함께 심겨진"의 뜻을 가진다. 이 진리는 신학적으로 요 15 장의 "거함"과 일치한다. 만일 신자가 예수의 죽으심에 함께 했다면(참조, 갈 2:19-20; 골 2:20; 3:3-5), 신학적으로 그들은 그의 부활하신 삶에 함께 해야만 한다(참조, 10 절).

죽음을 가리키는 침례(세례)의 은유는 다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1) 우리는 옛 생활, 옛 언약에 대해 죽었다 (2) 우리는 성령과 새 언약에 대해 살았다. 그리스도인의 침례(세례)는 따라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세례)요한의 것과 다르다. 침례(세례)는 초대교회에서 새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기회였다. 초기의 침례(세례)식에서 침례(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나는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내용을 반복하였다(참조, 롬 10:9-13). 이러한 공적 선언은 이미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식적이고 예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침례(세례)는 죄의 용서, 구원, 혹은 성령의 내재하심을 받는 작동원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이 공적 시인과 고백을 하는 길이었다(참조, 행 2:38). 그렇지만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명하셨고(참조, 마 28:19-20) 이것의 예를 보이셨으며(참조, 마 3 장; 막 1 장; 눅 3 장), 이것은 또한 사도들의 설교에서 한 부분을 이루었고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6:6

NASB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을 알거니와"**
NKJV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을 알거니와"**
NRSV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안다"**
TEV **"우리가 이것을 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JB **"우리의 이전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으로서 "우리의 옛 사람이 성령에 의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를 뜻한다. 이 진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신자는 죄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관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참조, 갈 2:20; 6:14). 인간의 타락한 옛 사람(아담의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참조, 7 절; 엡 4:22, 골 3:9). 신자로서 우리는 지금 아담이 처음에 그랬듯이 죄에 대해 선택을 해야한다.

▣

NASB, NKJV **"우리 죄의 몸이 죽게 하려 함이니"**
NRSV **"죄의 몸이 망하게 하려"**
TEV **"죄된 자아의 능력이 망하게 하려"**
JB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

바울은 "몸"(*소마*)이라는 단어와 함께 소유격이 쓰이는 구의 형태를 여럿 사용한다.

1. 죄의 몸, 롬 6:6
2. 이 죽음의 몸, 롬 7:24
3. 육체의 몸, 골 2:11

바울은 죄와 반역으로 특징되는 현 세대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삶에 대해 말한다. 예수의 부활의 몸은 의의 새 시대에 가질 몸이다(참조, 고후 5:17). 육체를 가진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헬라의 철학)이 아니라 죄와 반역이 문제를 일으킨다. 몸은 악학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삶을 가르친다(참조, 고전 15 장). 그러나 육체의 몸은 유혹과 죄와 자아의 전쟁터이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이다. "죽게 한다"는 표현은 "망하게 하다"가 아니라 "활동적이지 않게 한다" "힘이 없게 한다" 혹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로서 25 회 이상 사용되었다. 3: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우리의 육체적 몸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만 이것은 계속적인 영적 갈등의 싸움터이기도 하다(참조, 12-13 절; 5:12-21; 12:1-2).

6:7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죽고 또한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난 자는"을 뜻한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들은 죄의 종됨과 아담의 범죄로부터 물려받은 자아로에서 벗어났고 계속해서 벗어난다(참조 7:1-6).

이곳에서 "벗어나"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곳에서는 앞쪽의 장에서 나타나는데 "의롭다 하심을 입은"으로 번역된다(ASV). 이 문맥에서 "벗어나"는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행 13:39 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됨). 사전의 뜻이나 혹은 미리 정의된 의미가 아니라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함을 기억하라. 단어는 오직 문장에서 의미를 가지고 문장은 오직 문단에서 의미를 가진다.

개역개정 6:8-11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8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신자의 침례(세례)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낸다.

▣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문맥은 "지금 여기서"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지(참조, 요일 1:7) 전적으로 미래의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5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을 말하며 8 절은 우리가 그의 생명에 참여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나타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면서도 현재 여기서의 관점을 갖는다. 거저받은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6:9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6:4 을 보라,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활동했음을 확언한다: (1) 성령(참조, 롬 8:11); (2) 성자(참조, 요 2:19-22; 10:17-18); 또한 아주 빈번하게 (3) 성부(참조, 행 2:34, 32; 3:15, 26; 4:10; 5:30; 10:40; 13:30, 33, 34, 37; 17:31; 롬 6:4, 9). 성부의 행동은 성부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가르침을 인정하여 받으셨음을 뜻한다. 이것은 사도들이 초기에 행한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다. 1:2 의 특별주제: *케리그마*를 보라.

▣

NASB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NKJV, NRSV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할 줄을"**
TEV	**"사망이 다시 그를 다스리지 못할 줄을"**
NJB	**"사망이 그에게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할 줄을"**

동사 *퀴리유오* 는 "주인," 지배자," 남편," 또는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 에서 온 단어이다. 예수님은 이제 사망에 대해 주님이시다(참조, 계 1:18). 예수님은 처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부수신 분이시다(참조, 고전 15 장)!

6:10 **""** 이 절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사셨고 죄를 결코 짓지 않으셨지만 죄악된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참조, 히 10:10). 예수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대속적인 죽음은 율법의 요구와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모두 무효화시켰다(참조, 갈 3:13; 골 2:13-14).

▣ **"단번에"** 이 문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한번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죄로 인해 죽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히브리서 역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한 번의 희생 죽음의 궁극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단번에 행해진 구원과 용서는 영원토록 유효하다(참조, "한 번"[*에화팍스*], 7:27; 9:12; 10:10 과 "단번에"[*하팍스*], 6:4; 9:7, 26, 27, 28; 10:2; 12:26, 27). 이것은 성취된 희생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이다.

▣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0 절 상반절에 있는 두 부정과거는 10 절 하반절에 있는 두 현재 능동 직설법과 대조를 이룬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복음은 죄의 용서(칭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성화)을 가진다. 신자들은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신 지속적인 명령이고 항상 행할 것에 대한 명령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미우 중요한 지식이다. "여기라"(참조, 4:4, 9)는 회계상의 용어로서 "주의하여 이것을 더하라"는 뜻이며 따라서 이 지식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이다. 1-11 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를 말하는 반면에 12-13 절은 주 안에서 걸을 것(점진적인 성화)을 강조한다. 4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6:12-14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된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지배하다"라는 용어는 5:17-21 과 6:23 과 관련이 된다. 바울은 여러 신학적 용어를 의인화하고 있다: (1) 사망이 왕으로서 다스린다(참조, 5:14, 17; 6:23) (2)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린다(참조, 5:21) (3) 죄가 왕으로서 다스린다(참조, 6:12, 14).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능력을 가졌다! 개인과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비극은 신자가 은혜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자신과 죄를 택할 때이다.

6:13 "너희 지체를 . . .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된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죄의 가능성을 나타낸다(참조, 7:1 이하; 요일 1:8-2:1). 그러나 죄의 요구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성에 의해 줄어든다, 1-11 절.

▣ "불의의 무기로" 이 용어는 "군인의 무기"를 지칭한다. 우리의 육체적 몸은 유혹의 전쟁터이다 (참조, 12-13 절; 12:1-2; 고전 6:20; 빌 1:20). 우리의 삶은 공적으로 복음을 나타낸다.

▣ "너희 지체를 . . .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행동의 결단을 촉구한다(참조, 12:1). 신자들은 이러한 결단을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하지만 삶을 살아 가면서 이러한 결단을 줄곧 해야만 한다.

이 절에 나타나는 평행을 주목하라.

1. 같은 동사와 명령의 사용
2. 전쟁의 은유
   ㄱ. 불의의 병기
   ㄴ. 의의 병기
3. 신자들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든지 어느 한 쪽에 드리게 된다

이 절은 신자들에게 계속적인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6: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미래 능동 직설법이며(참조, 시 19:13) 명령의 역할을 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죄가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신자들을 주장할 수 없다(참조, 9 절; 요 16:33).

개역개정 6:15-19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6:15 이 두 번째 질문(통렬한 비난)은 6:1 과 매우 비슷하다. 둘 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다른 질문에 답을 한다. 1 절은 은혜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하는 증서가 아님을 말하고 15 절은 모든 죄의 행동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싸우고 저항해야 함을 말한다. 동시에 신자는이전에 죄를 섬기던 열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참조, 6:14).

▣
NASB, NKJV,
TEV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NRSV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되리요"
JB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

윌리엄스 역과 필립스 역은 둘 다 이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을 1 절에서처럼 현재능동 가정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관점이 아니다. 다른 번역본을 주목하라 (1) KJV, ASV, NIV -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2) 세기 번역 - "우리가 죄의 행위를 해야 하리요?" (3) RSV - "우리는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느뇨? 이 질문은 헬라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며 "그렇다"라는 답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신랄한 비난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절은 거짓된 신학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의 특징적인 표현인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로 답한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복음은 많은 거짓 교사에 의해 오해받고 오용되었다.

6:16 질문은 "네"라는 반응을 기대한다. 인간은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사람을 섬긴다. 누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가?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는 그가 누구를 섬기는지 보여준다(참조, 갈 6:7-8).

6: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종종 돌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의 글은 그의 기도에서 흘러 나오고 그의 기도는 복음에 대한 그의 지식에서 흘러 나온다. 7:25 의 특별주제: 하나님께 드린 바울의 기도, 찬송, 감사를 보라.

▣ **"너희가 . . . 이더니 . . .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다"라는 동사의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의 상태(죄의 종)를 설명하는데 그들의 반역의 상태가 멈추었다는 것을 뜻하는 부정과거 시제가 뒤따르는 구조이다.

▣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문맥에서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칭의를 가리킨다. 칭의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반드시 이끈다. "교훈"이라는 용어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복음을 가리킨다.

▣ **"마음"** 1:24 의 특별주제: 마음을 보라.

▣

NASB	**"너희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형태"**
NKJV	**"너희에게 전해진 교리의 형태"**
NRSV, NIV	**"너희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형태"**
TEV	**"너희가 받은 가르침에서 발견되는 진리"**
NJB	**"너희에게 소개한 가르침의 형식"**

특별주제: 형식(튀포스)

튀포스가 여러 용법을 가지기에 어려움이 있다.

1. 물톤과 밀리간, *신약 헬라어의 어휘*, 645 쪽
   - ㄱ. 모형
   - ㄴ. 계획
   - ㄷ. 글을 쓰는 양식 또는 방법
   - ㄹ. 선언 또는 칙령
   - ㅁ. 선고 또는 결정
   - ㅂ. 병고침을 위해 신에게 드리는 공물로서의 인간 육체의 형태
   - ㅅ.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문장에서 사용한 동사
2. 로우와 니다, *헬라어-영어 사전*, 제 2 권, 249 쪽
   - ㄱ. 흉터(참조, 요 20:25)
   - ㄴ. 형상(참조, 행 7:43)
   - ㄷ. 모델(참조, 히 8:5)
   - ㄹ. 모범(참조, 고전 10:6; 빌 3:17)
   - ㅁ. 원형(참조, 롬 5:14)
   - ㅂ. 종류(참조, 행 23:25)
   - ㅅ. 내용(참조, 행 23:25)
3. 해롤드 K. 물톤, *개정된 분석적 헬라어 사전*, 411 쪽
   - ㄱ. 일격, 인상, 표시(참조, 요 20:25)
   - ㄴ. 묘사
   - ㄷ. 형상(참조, 행 7:43)
   - ㄹ. 구조식, 계획(참조, 롬 6:17)
   - ㅁ. 형식, 목적(참조, 행 23:25)
   - ㅂ. 모양, 복사물(참조, 고전 10:6)
   - ㅅ. 고대된 모양, 종류(참조, 롬 5:14; 고전 10:11)
   - ㅇ. 모델의 형식(참조, 행 7:44; 히 8:5)
   - ㅈ. 도덕 양식(참조, 빌 3:17; 살전 1:7; 살후 3:9; 딤전 4:12; 벧전 5:3)

이 문맥에서 1 항이 가장 적합하다. 복음은 교리적이며 동시에 삶의 양식에 연관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져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요구한다!

6: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이다. 복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믿는 자들은 죄의 형벌(칭의)과 죄의 폭군적 지배(성화, 참조, 7 절과 22 절)로부터 해방되었다.

▣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으로서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를 뜻한다. 1: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참조, 14, 19, 22 절; 7:4; 8:2)! 거저 주시는 은혜의 목적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칭의는 법적 선언인

동시에 개인의 의를 촉진시키는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다른 이들을 돕도록 하시기 원하신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들은 바 지역교회의 문제(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질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바울은 갈 3:15 에서 이 표현을 롬 3:5 에서 일찌기 사용하고 있다.

19 절은 16 절과 평행을 이룬다. 바울은 강조를 위해 그의 신학적 요점을 반복하고 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종에 대한 은유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라고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1 세기에 특히 로마에서 노예제도는 악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의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

▣ "육신"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칭의의 목적이다(참조, 22 절). 신약은 이 용어를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신학적 의미로 사용한다: (1) 지위적인 성화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칭의와 더불어 받는 하나님의 선물(객관적 면에서)이다(참조, 행 26:18; 고전 1:2; 6:11; 엡 5:26-27; 살전 5:23; 살후 2:13; 히 10:10; 13:12; 벧전 1:2) 또한 (2) 점진적인 성화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숙함을 닮도록 변화시키신다(주관적인 면에서), 참조, 고후 7:1; 살전 4:3, 7; 딤전 2:15; 딤후 2:21; 히 12:10, 14). 6:4 의 특별주제: 칭의를 보라.

이것은 선물이요 또한 명령이다! 이것은 지위(객관적)이고 행동(주관적)이다! 이것은 직설법(설명)이며 명령법(명령)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오지만 끝에 이르러서야 성숙하게 된다(참조, 빌 1:6; 2:12-13).

개역개정 6:20-23
[20]온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20-21 이것은 18 절과 19 절의 반대되는 내용이다. 신자는 오진 한 명의 주인만 섬길 수 있다(참조, 눅 16:13).

6:22-23 이 절들은 사람이 섬기는 자로부터 받는 삯에 대해 논리적 접근을 한다. 죄에 대한 이 논의와 결국 은혜에 초점을 맞춘 신자의 삶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협력함으로 첫 번째 선물이며, 그 다음에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의 협력을 통해 누리게 된다. 두 가지 선물을 믿음과 회개함으로 받는다.

6:22 "너희가 . . .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과일"인데, 이것은 21 절에서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22 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를 말한다. 즉각적인 열매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궁극적인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참조, 요일 3:2). 만일 즉각적인 열매가 없다면(변화된 삶, 참조, 약 2 장) 궁극적인 열매는 법적으로 의문시 된다(영원한 삶, 참조 마 7 장). "뿌리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

6:23 이것은 전체 장의 요약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택할 내용을 제시한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한다—죄와 사망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받는 은혜와 영생. 이것은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길"과 매우 비슷하다(시 1 편; 잠 4 장; 10-19 장; 마 7:13-14).

▣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죄는 (1) 노예의 주인 (2) 군대의 장성 또는 (3) 임금을 지불하는 왕으로 의인화되었다(참조, 3:9; 5:21; 6:9, 14, 17).

▣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카리스마*)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카리스*, 참조, 3:24; 5:15, 16, 17; 엡 2:8-9)에서 나왔다. 3:24 의 설명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어떻게 선행이 구원과 관계되는가(참조, 엡 2:8-9, 10)?
2. 신자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죄는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참조, 요일 3:6, 9)?
3. 이 장은 "죄 없는 완전함"을 가르치는가?
4. 6 장은 5 장, 7 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5. 왜 여기서 침례(세례)를 다루는가?
6.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왜?
7. 동사의 현재 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14 절과 부정과거 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5-23 절은 무엇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가?

부록 1
역사로서의 구약

I. 기독교와 유대교는 역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역사적 사건들(그것에 대한 해석과 병행하여)에 기초하고 있다. 무엇이 "역사"이며 "역사적 연구"인가를 정의하거나 설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오늘날의 신학적 해석에 나타나는 대다수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학적 이해나 역사적 가정을 고대 근동의 배경을 가진 성경의 글에 투사시키는 데서 나타난다. 시대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문학적 차이가 있어 적절한 이해를 막는다. 현대의 서구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고대 근동의 글에서 사용하는 장르와 문학적 기교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것을 서구인의 문학적 장르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19 세기에 성경 연구를 함에 있어서 사용한 방법은 구약의 책들을 쪼개어 그것이 지닌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및 통일된 자료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역사적 회의론은 구약의 해석학 및 역사적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정경적 해석학"(브레바드 차일드스)의 경향은 구약 본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강조점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19 세기의 독일의 고등 비평으로 생긴 심연을 건너도록 돕는 유용한 다리이다. 우리는 반드시 정경적 본문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만 영감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역사성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 말은 구약이 후기에 속하는 유대인 서기관들에 의해 편집되었고 개정된 것을 부정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유효한 역사이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또한 그 사건들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다.

엑스포시터스 성경 주석 제 1 권에 있는 R. K. 해리슨의 글 "구약의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에서 인용한 내용이 유용하다:

> "역사적 연구의 비교 연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록이 힛타이트 사람들의 기록과 더불어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근동의 역사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기록이었음을 나타낸다. 창세기나 신명기와 같은 책에 대한 양식비평적 연구는 마리, 누지, 보가즈코이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나온 특별한 종류의 서판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자료가 근동의 어떤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비문학적인 어떤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래 역사적인 의도를 가진 히브리인들의 초기 전통에 대해 새로운 정도의 확신과 존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32 쪽).

나는 R. K. 해리슨의 글을 인해 특별히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구약 성경을 당시의 사건과 문화와 장르에 비추어 이해하는 일이 우선순위를 갖게 하였기 때문이다.

II. 내가 가르치는 초기의 유대 문학(창세기-신명기 및 여호수아)에서 나는 고대 근동의 문학 및 자료와의 믿을 수 있는 고리를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가. 창세기의 문학은 고대 근동의 것과 평행을 이룬다

1. 창세기 1-11 장의 문화적 배경과 평행을 이루는 가장 초기에 속하는 알려진 자료는 에블라 쐐기문자 서판으로서 주전 2500 년 경의 시리아 북부에 속하며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다.

2. 창조
   ㄱ. 창조의 내용을 가장 비슷하게 다룬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인 *에누마 엘리쉬*는 주전 1900-1700 년경에 속하는데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과 다른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다. 쐐기문자 서판이 일곱 개가 있는데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으며 마르둑에 의한 창조에 대해 설명한다.
      1) 신들 곧 *압수*(민물의 남신)과 *티아맛*(짠물의 여신)에게 다루기 힘들고 시끄러운 자녀들이 있었다. 이 두 신은 어린 신들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2) 그 신의 한 자녀인 *마르둑*이 *티아맛*이 패하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의 몸을 가지고 땅을 만들었다.
      3) *마르둑*은 패한 또 다른 신인 *킹우*로써 인간을 만들었다. *킹우*는 *압수*가 죽은 후에 *티아맛*의 남자 배우자가 된 신이었다. 인간은 *킹우*의 피에서 나왔다.
      4) *마르둑*은 바벨론 만신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ㄴ. "창조의 문장(seal)"은 쐐기 서판에 있는 그림으로서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열매있는 나무 옆에 있는데, 그 나무 기둥을 한 뱀이 휘감고 있으면서 여자에게 말하는 모습으로 여인의 어깨 위에 있는 그림이다.
3. 창조와 홍수—*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낮은 계급의 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낮은 신들은 그들이 해야 할 과다한 일 및 일곱 쌍의 인간을 창조함으로 인해 이들 낮은 신들이 감당할 의무를 인해 반란을 일으켰다. (1) 인구의 증가와 (2) 소음을 인해 *엔릴*이 계획한 두 번의 기근과 최종적인 홍수의 재앙으로써 사람들의 수가 줄었다. 이러한 주요 사건들은 창 1-8 장에 있는 것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쐐기 작품은 *에누마 엘리쉬* 및 *길가메쉬 서사시*와 같은 시기인 주전 1900-1700 년 경의 것이다. 모두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다.
4. 노아의 홍수
   ㄱ. 닢푸르에서 발굴된 수메르의 한 서판은 에리두의 창세기로 불리는데 주전 1600 년 경에 속한다. 이것은 *지브수드라* 및 임할 홍수에 대해 말한다.
      1) 물의 신인 *엔카*가 올 홍수에 대해 경고했다
      2) *지브수드라*라는 왕-제사장은 커다란 배 안에서 구조되었다
      3) 홍수가 7 일 동안 계속되었다
      4) *지브수드라*가 배의 창을 열었고 여러 종류의 새를 놓아 보내 마른 땅이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했다
      5) 그는 또한 배에서 나온 후에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ㄴ. 바벨론의 홍수 기록은 길가메쉬 서사시로 알려진 4 개의 수메르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주전 2500-2400 년 경에 속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아카디아 쐐기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훨씬 후에 속한다. 이것은 홍수에서 살아 남은 *웃나피스팀*이 *우룩*의 왕인 *길가메쉬*에게 자신이 대홍수에서 어떻게 살아 남았고 또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한다.
      1) 물의 신인 에아가 올 홍수에 대해 경고하며 웃나피스팀(바벨론의 *지브수드라*)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한다
      2) *웃나피스팀*과 그의 가족이 몇 가지 약초와 더불어 홍수에서 살아 남았다
      3) 홍수가 7 일 동안 계속되었다
      4) 배가 페르시아의 북동쪽에 있는 니실 산에 와 멈추었다
      5) 그가 세 종류의 새를 내 보내어 마른 땅이 드러났는지를 알려고 했다
5. 고대의 홍수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작품은 같은 자료에서 왔다. 이 이름은 종종 다르지만 그 구성은 같다. 한 가지 예는 *지브수드라*, *아트라하시스*, *웃나피스팀*이 모두 인간 왕이라는 점이다.

6. 창세기의 나오는 초기의 사건들과 평행을 이루는 역사적 내용은 인간이 흩어지기 이전(창 10-11 장)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비추어 설명된다. 참된 역사적 핵심을 이루는 이러한 기억은 전세계에 걸쳐 현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홍수 이야기로 꾸며지고 신화화되었다. 다음의 것에 대해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창조(창세기 1-2 장) 및 인간과 천사의 결합(창세기 6 장).
7. 족장들의 시대(청동기 중엽)
   ㄱ. 마리 서판 – 주전 1700 년 경에 아카디아어로 기록된 쐐기문자 본문으로서 법(암몬 사람들의 문화)과 개인에 관련된 내용임
   ㄴ. 누지 서판 – 주전 1500-1300 년 경에 속하는 쐐기문자 고문서로서 니느웨에서 남동쪽으로 16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굴된 자료로서 아카디아어로 기록된 어떤 가족의 문서(호리족 혹은 후르족의 문화). 이것은 가족과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한 예들에 대하여는 왈톤의 책 52-58 쪽을 보라.
   ㄷ. 알랄락 서판 – 주전 2000 년 경에 속하는 쐐기문자 문서로서 시리아 북쪽에서 발굴됨
   ㄹ.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름과 지명이 마리 서판에 나온다: 스룩, 벨렉, 테라, 나홀. 성경의 다른 이름도 흔하게 나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반, 요셉.
8. "역사적 연구의 비교 연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록이 힛타이트 사람들의 기록과 더불어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근동의 역사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기록이었음을 나타낸다," R. K. 해리슨이 쓴 *성경적 비평*, 5 쪽.
9. 고고학은 성경의 역사성을 확립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함을 입증했다. 한편 한 마디의 주의 사항이 요구된다. 고고학은 다음의 이유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안내가 되지 못한다:
   ㄱ. 초기에 행해진 좋지 않은 기술
   ㄴ. 발굴된 자료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매우 주관적인 해석들
   ㄷ. 고대 근동의 연대기에 대해 일치한 연대가 없는 점(비록 하나가 나무의 나이테에서 개발되었지만)

나. 이집트의 창조 기록은 요한 W. 왈톤의 책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과 그 문화적 문맥*,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출판사, 1990(23-34, 32-34 쪽).
1. 이집트의 창조 문학은 구조를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태고의 물과 더불어 시작한다. 창조는 혼란스러운 물에서 발전된 구조로 나타난다.
2. 멤피스에서 발굴된 이집트의 문학에서 창조는 프타가 한 말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 여호수아서의 문학은 고대 근동의 것과 평행을 이룬다
1. 고고학은 가나안의 성벽이 있는 커다란 성이 대부분 파괴되어 주전 1250 년 경에 급히 재건되었음을 보여준다
   ㄱ. 하솔
   ㄴ. 라기스
   ㄷ. 벧엘
   ㄹ. 드빌(이전에는 그리옷 세벨로 불림, 15:15)
2. 고고학은 여러고의 멸망에 대한 성경의 기록(참조, 수 6 장)을 확증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의 내용으로 인해 그 장소가 좋은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ㄱ. 기후/위치
   ㄴ. 나중에 옛 물건을 사용하여 이전의 자리에 재건축을 함
   ㄷ. 각 층의 연대에 대한 불확실성
3. 고고학은 에발 산에서 제단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수 8:30-31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신명기 27:2-9). 이것은 미쉬나(탈무드)에 있는 기록과 매우 비슷하다.

4. 라스 샴라 본문이 우가릿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주전 1400 년 대에 속한 가나안인의 생활 모습과 종교를 나타낸다:
   ㄱ. 다신교적 성격을 가진 예배(다산의 의식)
   ㄴ. 엘이 주요한 신임
   ㄷ. 엘의 배우자는 아세라였다(후에 그녀는 바알의 배우자가 됨). 후자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조각한 나무나 살아 있는 나무의 형태로서 숭배됨
   ㄹ. 그들의 아들은 폭풍의 신인 바알(핫닫)임
   ㅁ.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의 만신전에서 "높은 신"이 되었다. 아낫이 그의 태우자였다
   ㅂ.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와 같은 예식이 행해짐
   ㅅ. 바알 숭배는 각 지역에 있는 "산당" 혹은 "돌로 된 판(의식상의 성매매)에 초점이 있었다
   ㅇ. 세운 돌기둥이 바알을 상징했다(남근의 상징)
5. 고대 도시의 정확한 목록은 후기의 편집자(들)가 아닌 당시의 저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ㄱ. 에루살렘이 여부스로 불림, 수 15:8; 18:16,28
   ㄴ. 헤브론이 기리앗 아르바로 불림, 수 14:15; 15:13,54; 20:7; 21:11
   ㄷ. 기리앗 여아림이 바알랏으로 불림, 수 15:9,10
   ㄹ. 두로가 아니라 시돈이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언급됨, 수 11:8; 13:6; 19:28. 후에는 두로가 수도가 됨

부록 2
당시의 근동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적 기록

I. 메소포타미아의 자료
- 가. 대부분의 고대 문학과 같이 주제가 대개 왕 혹은 어떤 국가적 영웅을 되어 있다.
- 나. 사건들이 종종 선전용으로 각색되었다.
- 다.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다.
- 라. 그 목적이 현재의 정부를 지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 마. 역사적 왜곡이 수반되었다
    1. 커다란 승리를 주장하기 위한 각색
    2. 이전에 일어난 일(성취)을 현재의 것으로 돌림
    3. 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기록함
- 바. 선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써 문학이 사용되었다.

II. 이집트의 자료
- 가. 이 자료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정적인 면을 매우 강조한다
- 나. 왕과 그의 가족이 이 문학에서 주된 대상이 된다.
- 다. 이들의 자료는 메소포타미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선전을 위한 것이다.
    1. 부정적이 부분이 빠져 있고
    2. 각색된 모습을 제시함

III. 랍비들의 자료(후기)
- 가. 성경이 미드라쉬와 관련이 있도록 시도한다. 미드라쉬는 해석자의 믿음에서 본문으로 강조점을 옮기며, 저자의 의도나 본문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는다
    1. *할락카*는 삶과 관련이 있는 진리나 규칙을 다룬다
    2. *학가다*는 삶에 대한 적용점과 삶에 격려를 주는 내용을 다룬다
- 나. 페쉐르 – 사해 사본에 있는 후기에 발전된 내용.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를 현재의 상황을 보게 하는 모형론적 접근을 사용했다. 현재의 상황은 예언된 종말(오는 새 시대).

IV. 고대 근동의 장르 및 후기에 속하는 유대 문학이 구약 성경과 분명히 다르다.구약의 장르가 당시의 문학이 갖는 일부 특징을 종종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여러 면에서 독특한데 특히 역사적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러하다. 히브리인의 역사기록과 가장 비슷한 것은 힛타이트 문학이다.

고대의 역사 기록이 오늘날의 서구적 역사기록과 어떻게 다른 지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여기에 해석의 문제가 놓여 있다. 오늘날의 역사기록은 객관적(그것이 가능하다면, 선전을 하지 않는)인 접근을 시도하며 연대적으로 "정말로 일어난" 일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으로 특징되어 진다!

근동의 역사가 오늘날의 역사와 같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열등하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서구의 현대 역사는 그것을 쓴 사람의 편향(전제들)을 반영한다. 성경의 역사는 그 본질(영감)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성경의 역사가 영감을 받은 저자의 믿음의 눈을 통해 신학적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이지만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 기록이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성이 나에게 중요한데 이는 나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제창할 수 있게 한다. 만일 성경이 역사적인 것이라면 성경이 하는 믿음의 주장은 더욱 강력하게 불신자들의

관심을 끈다. 나의 믿음은 고고학이나 인류학의 역사적 확인에 기초하지 않지만,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것의 신빙성을 더하게 돕는다.

요약하자면 성경의 역사성은 영감의 영역에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과 복음전도에 있어서 기여한다.

부록 3
구약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체

I. 들어가는 말
  가. 구약과 사건의 연대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의 비교
    1. 다른 고대 근동의 문학은 신화적이다
      ㄱ. 다신론적임(대개 인간성을 가진 신들이 자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도 비인간적 갈등의 국면을 갖고 있다)
      ㄴ. 자연의 순환에 기초함(신들이 죽고 다시 살아남)
    2. 헬라-로마의 문학은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기 보다 흥미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다(호머는 여러 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제를 반영한다)
  나. 역사의 종류나 정의의 차이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세 독일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 "Historie," 사건의 기록(단순한 요소들)
    2. "Geschichte," 사건의 해석으로서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나타냄
    3. "Heilsgeschichte" 는 역사의 진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활동을 특별히 가리킴
  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Geschichte"로서 구속사적 이해를 돕는다. 그 내용은 신학적 관점에 기초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다
    1. 선택된 사건만 다룬다
    2. 연대적 순서보다도 신학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3. 사건들은 진리를 함께 계시한다
  라. 이야기체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장르이다. 이것은 구약의 40%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따라서 이 장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내심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명제적 제시(신약의 서신서에서와 같이)가 아닌 함축, 요약, 혹은 선택된 대화/독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 기록의 신학적 목적인가?

II. 성경의 이야기체
  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계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신다.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어떤 사건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구약의 주인공이다.
  나.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다:
    1.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를 다루심을 통하여 인간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3. 한 예로서 여호수아가 거둔 군사적 승리는 언약의 실행과 관련이 있음을 특별히 주목하라(참조, 1:7-8; 8:30-35).
  다. 이야기체는 종종 함께 묶여 하나의 커다란 문학적 단락을 이루어 한 가지의 신학적 질리를 드러낸다.

III. 구약의 이야기체를 해석함의 원리들
  가.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잘 된 논의는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이다(83-84 쪽).
    1. 일반적으로 구약의 한 이야기체 본문은 직접적으로 어떤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2. 구약의 한 이야기체 본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명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리나 교리들을 예시한다
3. 이야기체는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일어났어야 하는 일 혹은 언제라도 일어날 것을 말함이 아니다.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개인의 도덕성을 모든 이야기체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4. 사람들이 이야기체 본문에서 행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5.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들이 하는 행동도 그러하다.
6. 한 이야기체 본문에서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그 종말을 항상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 및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확히 제시되는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7. 모든 이야기체 본문은 선정된 내용이며 불완전한 것이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모든 내용이 항상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참조, 요 21:25). 이야기체 본문은 영감을 받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8. 이야기체 본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신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다. 각 본문이 특별하면서 특정하게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주제를 다루며, 그 외의 문제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루게 내버려 둔다.
9. 이야기체 본문은 직접적으로(어떤 것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혹은 암시적으로 (실제로 어떤 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암시적으로 말함으로써) 가르친다.
10.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체 본문에서 주인공이시다.

나. 이야기체 본문을 해석함에 관한 또 다른 좋은 논의는 왈터 카이저의 *석의적 신학에 대하여*이다:

> "성경의 이야기체 본문이 갖는 독특한 모습은 저자가 제시하려고 하는 핵심을 자신의 이야기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진술로써 교리나 가르침을 나타내는 성경 본문과는 달리, 이야기체 본문의 저자는 눈에 띄지 않는 뒤쪽에 위치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평가적인 진술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가 속한 더 큰 문맥을 파악하는 일과 왜 저자가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왜 이 순서를 따르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무척 많은 양의 대화, 인물, 사건들 가운데서 *선택한* 내용 및 일어난 일을 제시하는 *순서*는 이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쌍둥이적 힌트가 될 것이다. 또한 저자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된 사건의 절정에서 나타내게 하는 반응으로부터 종종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및 이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파악하게 된다—곧,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저자가 자기 자신(이 경우는 하나님의)의 생각을 제시하려고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면 그러하다" (205 쪽).

다. 이야기체에 있어서 어떤 세세한 내용을 통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학적 단락을 통해 제시한다.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거나 혹은 당신의 삶을 위한 선례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라.

IV. 두 단계의 해석

가. 아브라함의 씨를 위한 야웨의 구속적이며 계시적 행위

나. 모든 신자들의 삶을 향한 야웨의 뜻(모든 세대에서)

다. 처음 것은 “하나님을 앎”(구원)에 초점을 두며, 두번째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둔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참조, 롬 15:4; 고전 10:6,11)

부록 4
구약의 예언

I. 서론

가. 초기적 진술

1.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입장이 정립되었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구약의 예언을 구분하는 잘 정의된 여러 시기가 있다
   ㄱ. 왕정 이전(사울왕 이전)
      1) 선지자로 불려진 개인들
         (ㄱ) 아브라함 – 창 20:7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변인)
         (ㄹ) 미리암 –출 15:20
         (ㅁ)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ㅂ) 드보라 – 삿 4:4
         (ㅅ)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삿 6:7-10
         (ㅇ) 사무엘 – 삼상 3:20
      2) 선지자 그룹에 대한 언급 – 신 13:1-5; 18:20-22
      3) 선지자 그룹 혹은 길드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 41; 22:6, 10-13; 왕하 2:3,7; 4:1,38; 5:22; 6:1 등
      4) 선지자로 불린 메시아 – 신 18:15-18
   ㄴ. 글을 남기지 않은 왕정시기의 선지자(그들은 왕에게 말했다)
      1) 갓 – 삼상 7:2; 12:25; 삼하 24:11; 대상 29:29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3) 아히야 – 왕상 11:29
      4) 예후 – 왕상 16:1,7,12
      5)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왕상 18:4, 13; 20:13,22
      6) 엘리야 – 왕상 18 장; 왕하 2 장
      7) 미가야 – 왕상 22 장
      8) 엘리사 – 왕하 2:8,13
   ㄷ. 글을 남긴 고전적 선지자들(그들은 왕에게는 물론 국가에 대하여 말했다): 이사야—말라기(다니엘은 예외)

나. 성경의 용어

1. *로에* = 보는 자, 삼상 9:9. 이것은 *나비*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된다. 후자는 "선지자"를 뜻하며 "부르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다. *로에*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이해했고,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2. *호제* = 보는 자, 삼하 24:11. 이것은 근본적으로 *로에*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인 "환상을 보다"에서 나왔다. 주로 분사형이 선지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3. 나비 = 선지자, 아카디아 동사 *나부* = "부르다"와 아랍어의 *나바아* = "선언하다"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이것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에서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된다. 정확한 어원적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말하도록 야웨께서 모세의 역할을 설명한 것에서 취할 수 있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자이다(참조, 암 3:8; 렘 1:7,17; 겔 3:4).
4. 대상 29:29 에서는 선지자직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된다: 사무엘 – *로에*;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이쉬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을 뜻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대략 76 회 사용된다.
6. 영어의 "선지자"는 헬라어에서 왔다. 이것은 (1) *프로* = "앞" 또는 "위해서" (2) *헤미* = "말하다"에서 왔다.

II. 예언의 정의

가. "예언"이라는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광범위한 어원적 영역을 갖는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룻기는 제외)까지의 역사적 책들을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 모두 선지자로 불린다(또한 미리암도, 출 15:20). 따라서 영어의 뜻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은 조심을 요한다!

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만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예언주의의 합법적 정의이다"(*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제 3 권 896 쪽).

다. "선지자는 철학자도 조직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언약의 중재자로서 백성들의 현재 삶을 개혁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하기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선지자와 예언," *유대 백과사전* 제 13 권 1152 쪽).

III. 예언의 목적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었다. 이것으로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지침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심을 인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종종 예언은 하나님께서 대변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신 13:1-3; 18:20-22).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나. 종종 선지자들은 당시의 역사적 혹은 신학적 위기를 취하여 그것을 종말론적 상황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목적론적) 관점은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언약적 약속을 주셨다는 독특한 생각을 가져왔다.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서 선지자 직은 대제사장 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대언자에 의해 우림과 둠밈은 말로 표현된 메시지가 되었다. 선지자 직은 말라기(혹은 역대기 저작)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400 년 후에 침례(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직은 없었다.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구약과 연결시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 32, 37; 15:32; 고전 12:10, 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의 계시자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그것을 미리 말하는 자들이었다.

라. 예언은 전적으로 혹은 주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견은 그들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 가운데 . . . "2% 미만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5% 미만의 내용이 새언약의 시대를 특별하게 설명한다. 1% 미만의 내용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다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피 &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마. 선지자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백성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하박국서 처럼 예외가 있다.

바. 선지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 책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적인 순서로 되어있지 않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을 따르지는 않는다. 종종 분명한 역사적 상황이나 시간의 지침 혹은 신적 예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말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1) 어떤 책을 한 가지 배경에서 이해하여 읽는 것이 어렵고 (2)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우며 (3) 각 예언의 중심진리나 혹은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IV. 예언의 특성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았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그룹의사람들을 가리킨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때로 황홀경적 형태에 의해 구별되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나.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급하게 개인 선지자들의 시기로 이어졌다. 그들은(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모두) 왕과 관계하여 일했고, 왕궁에서 살았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으로 일했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와 철저히 관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아모스, 미가). 남자와 여자 둘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왕하 22:14).

다. 선지자는 종종 미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미래는 개인이나 국민의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다르게 되었다. 종종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우주적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 하등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우주적인 종말론적 계획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갖는 독특한 내용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예언과 언약적 충성은 두 가지 초점을 이룬다(참조, 피와 스트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공동체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했다.

라. 대부분의 예언적 자료는 구두로 전해졌다. 이것은 후에 주제나 연대 혹은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근동 문학의 다른 양식을 따라서 합쳐졌다. 구두로 전해진 것이기에 글로 쓰여진 산문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 이 점은 예언서를 쭉 읽는 것과, 특별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없이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마.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말씀을 전했다
1. 재판 장면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법정에 서게 하신다; 종종 이것은 야웨께서 자기의 아내(이스라엘)를 그녀의 충성되지 않음을 인해(호세아 4 장; 미가 6 장) 거절하시는 이혼소송으로 나타난다.
2. 장례식의 만가 – 이런 양식의 메시지에 사용되는 특별한 운율과 특징적인 단어인 "화 있을진저"라는 용어는 이것을 따로 구별짓는다(이사야 5 장; 하박국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인 면이 강조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래에 나타날 결과가 선언된다(신명기 27-29 장).

V.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의 자격요건

가. 신명기 13:1-5(예언/기적이 순전한 유일신 신앙과 일치함)

나. 신명기 18:9-22(거짓 선지자/참 선지자)

다. 남녀 모두 선지자 혹은 여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임명받았다
1. 미리암 – 출애굽기 15 장
2. 드보라 – 사사기 4:4-6
3. 훌다 – 열왕기하 22:14-20; 역대하 34:22-28

라. 주위의 문화에서는 점을 통해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1. 신학적 시험 – 야웨의 이름을 사용
2. 역사적 시험 –예언의 정확한 성취

VI.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가. 각 예언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문맥을 살펴서 원래의 선지자(편집자)가 의도했던 바를 확인하라.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어떤 모습으로든 깨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 예언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라 대지를 잡으라. 이것이 주위의 예언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예언서 전체(문학적 단위와 문단에 따른 구분에 의해)의 대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라.

다. 해당 본문이 상징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취하라; 상징적 용법인 경우에는 그것을 산문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라.

라. 상징적 행동은 역사적 상황과 병행귀절에 비추어 분석하라.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지 서구나 현대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마. 예언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라
1. 그것이 전적으로 저자의 시대에만 해당하는가?
2. 그 내용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는가?
3. 그 내용이 아직도 미래적인가?
4. 당시에 성취되었으면서도 아직 미래적 성취에 속하는가?
5. 현대 저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당신에게 답하게 하라.

바. 특별한 주의점

1. 예언의 내용이 어떤 반응의 조건에 의존적인가?
2. 누구에게 이 예언이 말해지는지(또한 왜) 분명한가?
3. 성경적으로 혹은/또한 역사적으로 다중적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귀절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형론 혹은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그들의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VII. 유용한 도서

가. 칼 E. 아멘딩과 W. 와드 바스큐의 *성경 예언 안내*

나. 고돈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 에드워드 J.영의 *나의 종 선지자들*

라.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 낫: 성경의 예언과 묵시의 언어를 다시 생각함*

마.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스 Jr.의 *구약의 암호를 해석하기*

부록 5
신약의 예언

I. 이것은 구약의 예언(BDB 611)을 야웨로부터 받은 영감된 계시로 보는 랍비들의 견해와 같은 것이 아니다(참조, 행 3:18,21; 롬 16:26). 선지자들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

가. 모세는 선지자로 불렸다(참조, 신 18:15-21).

나. 역사서(여호수아 – 열왕기서[룻기는 제외])는 "전기 예언서"로 불렸다(참조, 행 3:24).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선지자들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했다(참조, 이사야 – 말라기).

라. 히브리 정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이다(참조, 마 5:17; 22:40; 눅 16:16; 24:25,27; 롬 3:21).

II. 신약에서 이 개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 구약의 선지자와 그들이 전한 영감받은 메시지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 5:12; 11:13; 13:14; 롬 1:2)

나. 공동체에 대한 것보다 개인에게 준 메시지를 가리킨다(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11:9; 14:5; 21:26; 눅 1:76)과 예수를 가리킨다(참조, 마 13:57; 21:11,46; 눅 4:24; 7:16; 13:33; 24:19). 예수님을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으로 나타내었다 (참조, 마 11:9; 12:41; 눅 7:26)

라. 신약에서 언급한 다른 선지자들

1.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초기 삶(즉, 마리아의 기억)
   ㄱ. 엘리사벳(참조, 눅 1:41-42)
   ㄴ. 사가랴(참조, 눅 1:67-79)
   ㄷ. 시므온(참조, 눅 2:25-35)
   ㄹ. 안나(참조, 눅 2:36)
2. 아이러니한 예고(참조, 가야바, 요 11:51)

마. 복음을 전한 사람을 가리킨다(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대한 목록은 고전 12:28-29; 엡 4:11 에 나온다)

바.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은사로서 언급된다(참조, 마 23:34; 행 13:1; 15:32; 롬 12:6; 고전 12:10,28-29; 13:2; 엡 4:11). 어떤 때는 이것이 여자에게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눅 2:36; 행 2:17; 21:9; 고전 11:4-5)

사. 묵시적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리킨다(참조, 계 1:3; 22:7,10,18,19)

III. 신약의 선지자

가.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것(즉, 성경)과 같은 의미에서 영감받은 계시를 준 것이 아니었다. 행 6:7; 13:8; 14:22; 갈 1:23; 3:23; 6:10; 빌 1:27; 유다서 3 절과 20 절에서 사용된 "믿음"(즉, 완성된 복음이라는 의미)이라는 표현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가능하다.

이 개념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완전한 표현이 사용된 유다서 3 절에서 분명하게 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 교리, 개념, 세계관과 관련된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렇듯 "단번에"를 통해 나타난 강조는 신학적으로 영감을 신약 이후에 쓰여진 책이나 성경 이외의 책들에 대하여가 아니라, 신약의 기록으로 이를 제한시키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 애매하고, 확실치 않고, 불분명한 내용이 신약에 많이 있음에도, 믿음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신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 이 개념은 "계시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1.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계시**)
2.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택하사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3.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 기록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이는 완벽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과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정도이다(**조명**)

요점은 영감이 성경의 저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사실에 있다. 성경 이외에 권위를 갖는 기록, 비전, 계시가 없다. 정경은 마쳐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합하게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는 성경 저자들이 일치하고 있음에 반해 진실되고 경건한 신자들은 불일치하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어떤 저자나 강사도 성경의 저자들이 누렸던 정도의 신적 인도함을 갖지 못한다.

나.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하다.

1. 미래 사건의 예언(참조, 바울, 행 27:22; 아가보, 행 11:27-28; 21:10-11;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 행 20:23)
2. 심판을 선언함(참조, 바울, 행 13:11; 28:25-28)
3. 상징적 행동으로 생동감있게 묘사된 사건(참조, 아가보, 행 21:11)

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어떤 때는 예언적 방법으로 전했다(참조, 행 11:27-28; 20:23; 21:10-11). 하지만 이 방법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기본적으로 복음전함을 뜻한다(참조, 14:24, 39).

라.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각각의 새 상황, 문화, 시대에 적합한 실제적 적용을 하도록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다(참조, 고전 14:3).

마. 예언은 바울이 세운 초기의 교회에서 활발하게 행해졌고(참조, 고전 11:4-5; 12:28,29; 13:29; 14:1,3, 4,5,6,22,24,29,31,32,37,39; 엡 2:20; 3:5; 4:11; 살전 5:20), *디다케*(1 세기 말이나 2 세기 경에 쓰여진 책, 정확한 연대는 불확실함)와 제 2-3 세기에 북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몬타니즘에서 언급된다.

IV. 신약의 은사는 그쳐졌는가?

가. 이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은사의 목적을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확히 하게 된다. 은사는 초기에 행해진 복음 설교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교회가 잃어버려진 세상과 자신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함이었는가?

나. 이 대답을 위해서 교회사를 고찰할 것인가 아니면 신약성경 자체를 살펴볼 것인가? 신약에는 영적은사가 일시적이었다는 언급이 없다.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고전 13:8-13 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오용하는 것이다.

다. 나는 교회사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이 권위를 갖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은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말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편 나는 문화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어떤 구절은 명백히 다른 문화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예, 거룩한 입맞춤,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 등). 만일 문화가 본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왜 교회사는 안되는가?

라. 이것은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어떤 신자들은 은사가 "그쳤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해석적 문제와 같이 이 영역에서도 신자의 생각이 열쇠가 된다. 신약의 내용이 애매하고 문화적 영향을 나타낸다. 어떤 본문이 문화/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어떤 본문이 영원한 내용인지는 결정해야 할 어려운 사항이다(참조, 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4-19, 68-77 쪽). 이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롬 14:1-15:13 과 고전 8-10 장에나오는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1. 각 신자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
2. 다른 신자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의 이해에 따라 걷도록 각 신자가 반드시 서로 허용해야만 한다. 성경의 영역에 반드시 관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

마.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자면,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하는 삶이지 완전한 신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확한 이해나 완전한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부록 6

히브리 시

I. 서론

가. 이 문학 장르는 구약에서 3 분의 1 을 차지한다. 이 장르는 히브리 정경 가운데 특히 "예언서"(학개서와 말라기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에 시가 들어 있다)와 "성문서"에서 자주 나온다.

나. 히브리 시는 영어의 시와 매우 다르다. 영어의 시는 주로 소리에 기초한 시인 헬라어와 라틴어의 시에서 발전되었다. 히브리 시는 가나안어로 된 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근동의 시에는 강세가 있는 행이나 리듬이 없다(하지만 운율에 강음이 있다).

다. 이스라엘 북쪽의 우가릿(라스 샴라)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학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들은 주전 15 세기에 속하며 성경에 나오는 시와 매우 깊은 문학적 관계를 가진다.

II. 시의 일반적 특징

가. 히브리 시는 매우 축약적이다.

나. 히브리 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진리, 느낌, 경험을 나타낸다.

다. 히브리 시는 구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기록을 통해 전해졌다. 히브리 시는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균형을 이룬 행(평행법)
2. 단어유희
3. 소리유희

III. 구조 (R. K. 해리슨, *구약개론*, 965-975 쪽)

가. 로버트 로우쓰 주교는 *히브리인의 거룩한 시에 대한 강의*(1753)를 통해 성경에 있는 시가 사상적 균형을 이루는 행으로 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대부분의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 히브리 시의 행을 반영하는 구조로 인쇄되고 있다.
1. 동의어적 –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행이지만 같은 사상을 나타낸다:
   ㄱ. 시 3:1; 49:1; 83:14; 103:13
   ㄴ. 잠 19:5; 20;1
   ㄷ. 사 1:3,10
   ㄹ. 암 5:24; 8:10
2. 반의적 – 대조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을 말함으로서 반대되는 사상을 나타내는 행으로 되어 있다:
   ㄱ. 시 1:6; 90:6
   ㄴ. 잠 1:29; 10:1,12; 15:1; 19:4

3. 종합적 – 이어 나오는 두 행 혹은 세 행이 첫 행에서 제시한 사상을 발전시킨다 – 시 1:1-2; 19:7-9; 29:1-2
4. 교차대조적 – 메시지를 나타냄에 있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과 거슬러 올라 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강조점이 가운데에 있다.

나. A. 브릭스는 *성경 연구를 위한 일반적 서론*(1899)에서 히브리 시의 분석을 발전시켰다:
1. 표상적 – 한 절은 문자적의미를 갖고 다음 절은 은유적 의미를 가짐, 시 42:1; 103:3
2. 점증법 혹은 계단법 – 절들이 상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진리를 드러낸다, 시 19:7-14; 29:1-2; 103:20-22
3. 내향적 – 대개의 경우 4 절 이상의 일련의 절에서 1 행과 4 행, 2 행과 3 행이 서로 내적 관련이 있는 형태임 – 시 30:8-10a 절

다. C. B. 그레이는 *히브리 시의 형태*(1915)에서 균형을 이루는 절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1. 완전한 균형 – 첫 행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음 행에서 반복되거나 균형을 이루는 경우 – 시 83:14 와 사 1:3
2. 불완전한 균형 – 서로 길이가 다른 행 – 시 59:16; 75:6

라. 오늘날 교차대조법으로 불리는 히브리 시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것은 모래시계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독특한 평행법으로서 가운데 행이 강조점을 갖는다.

마. 동양의 시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소리 유형
1. 알파벳에 관련된 유희(알파벳 시, 참조, 시 9, 34,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2. 자음과 관련된 유희(두음법, 참조, 시 6:8; 27:7; 122:6; 사 1:18-26)
3. 모음과 관련된 유희(모음운, 참조, 창 49:17; 출 14:14; 겔 27:27)
4.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지만 다른 의를 갖는 단어의 사용과 관련된 유희(동음이의어)
5. 발음을 하였을 때 나는 소리가 그 이름이 되는 단어와 관련된 유희(의성어)
6. 특별한 시작과 끝(포괄법)

바. 구약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다. 어떤 종류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어떤 종류는 형태와 관련이 있다.
1. 헌신의 노래 – 민 21:17-18
2. 일하며 부르는 노래 – (삿 9:27 에서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사 16:10; 렘 25:30; 48:33
3. 민요 – 민 21:27-30; 사 23:16
4. 술을 마심에 대한 노래 – 부정적 의미, 시 5:11-13; 암 6:4-7; 부정적 의미, 사 22:13
5. 사랑의 노래 – 애가서, 결혼식 수수께끼 – 삿 14:10-18, 결혼 노래 – 시 45 편
6. 애가/만가 – (삼하 1:17 과 대하 35:25 에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삼하 3:33; 시 27,28 편; 렘 9:17-22; 예레미야 애가; 겔 19:1-14; 26:17-18; 나 3:15-19
7. 전쟁의 노래 – 창 4:23-24; 출 15:1-18,20; 민 10:35-36; 21:14-15; 수 10:13; 삿 5:1-31; 11:34; 삼상 18:6; 삼하 1:18; 사 47:1-15; 37:21
8. 지도자의 특별한 축도 혹은 축복 – 창 49 장; 민 6:24-26; 신 32 장; 삼하 23:1-7
9. 마법의 본문 – 발람, 민 24:3-9
10. 거룩한 시 – 시편
11. 알파벳 시 – 시 9, 34, 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12. 저주 – 민 21:22-30

13. 조롱의 시 – 사 14:1-22; 47:1-15; 겔 28:1-23
14. 전쟁 시의 책(야샬) – 민 21:14-15; 수 10:12-13; 삼하 1:18

IV. 히브리 시의 해석을 위한 안내

가. 연 혹은 절(이것은 산문에서 문단과 같다)의 중심진리를 파악하라. RSV 는 시를 연의 구조로 나타낸 최초의 현대 번역본이다. 현대의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일은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나. 회화적인 표현을 찾아 내고 이를 산문으로 바꾸어 보라. 히브리 시는 매우 축약적이어서 독자가 이를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라.

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큰 문맥(종종 책 전체)과 역사적 상황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라. 시로 어떻게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 사사기 4 장과 5 장은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 사사기 4 장은 산문이고 사사기 5 장은 같은 사건을 시로 나타낸 것이다(또한 출애굽기 14 장과 15 장을 비교하라).

마. 관련된 평행법이 어떤 종류의 평행법(동의어적, 반의적, 종합적)인지를 규명하라.

부록 7

히브리 지혜문학

I. 장르

가. 이 문학 장르는 고대 근동에서 자주 사용한 장르이다(R. J. 윌리암스, 고대 근동에서의 지혜, *해석가의 성경사전*(*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증보판).

1. 메소포타미아 (왕상 4:30-31; 사 47:10; 단 1:20; 2:2)
   ㄱ. 수메리아에서는 잠언과 서사시로 발전된 지혜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니푸르에서 출토된 본문)
   ㄴ. 바벨론의 잠언적인 지혜는 제사장/마술사와 관련을 가진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W. G. 램버트, *바벨론의 지혜문학*). 이들의 잠언은 이스라엘에서 발전된 형태의 장르와 달랐다
   ㄷ. 앗시리아에도 지혜문학적 전통이 있었다: 그 한 가지 예는 아히칼의 가르침일 것이다. 그는 산헤립의 자문관이었다(주전 704-681 년)
2. 이집트 (왕상 4:30; 출 41:8; 사 19:11-12)
   ㄱ. "고관인 타호텝을 위한 가르침"은 주전 2450 년 경에 기록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잠언적인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문단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가르침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한 구조는 주전 2200 년 경에 속하는 "메리카레 왕을 위한 가르침"에서도 나타난다(라솔, 홉바드, 부쉬, *구약 개설*, 533 쪽)
   ㄴ. 주전 1200 년 경에 기록된 아멘엠오펫의 지혜는 잠 22:17-24:12 의 본문과 매우 비슷하다
3. 페니키아 (겔 27:8-9; 28:3-5)
   ㄱ. 우가릿에서 발굴된 자료들은 페니키아와 히브리인의 지혜문학이 상당한 유사함을 나타낸다(특히 운율에 있어서). 라스 샴라(우가릿)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성경의 지혜문학에 나오는 생소한 형태 또는 드물게 사용된 단어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ㄴ. 아가서는 페니키아의 결혼 노래로 불리는 *와슾스*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 노래들은 주전 600 년 경에 기록되었다
4. 가나안 (즉, 에돔, 참조, 렘 49:7; 옵 8 절) - 올브라이트는 히브리인의 지혜문학과 가나안의 지혜문학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가릿에서 나온 라스 샴라 본문에서 더욱 분명하다(이 본문은 주전 15 세기에 속함).
   ㄱ. 같은 단어들이 쌍을 이룬다
   ㄴ. 대차대구법
   ㄷ. 표제어의 존재
   ㄹ. 음악적 지시의 존재
5. 성경에 나오는 지혜문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저술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ㄱ. 에돔 출신의 욥
   ㄴ. 맛사 출신의 아굴(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 참조, 창 25:14; 대상 1:30)
   ㄷ. 맛사 출신의 르무엘

6. 유대인이 저술하였지만 정경이 아닌 두 가지 책이 이러한 장르적 형태를 공유하고 있다.
   ㄱ. 집회서(벤 시라의 지혜서)
   ㄴ. 솔로몬의 지혜서(지혜서)

나. 문학적 특징
1. 주요한 두 가지 종류
   ㄱ.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금언적 안내(원래는 구전으로 된 내용임, 참조, 잠 1:8; 4:1)
      (1) 짧다
      (2) 문화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임(일반적인 경험에 기초함)
      (3) 사고를 자극함 – 관심을 끄는 진리의 진술
      (4) 일반적으로 대조시켜 제시함
      (5)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지만, 항상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님
   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문학적으로 다룬 형태(일반적으로 글로 기록됨)로서 욥기, 전도서, 요나서가 이에 해당함
      (1) 독백
      (2) 대화
      (3) 짧은 글
      (4) 이러한 본문은 인생의 주요 질문과 신비한 면을 다룸
      (5) 현인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도전을 주려고 하였다!
   ㄷ. 지혜의 의인화(항상 여성임). 지혜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
      (1) 잠언에서는 지혜를 종종 여인으로 묘사한다(참조, 1:8-9:18)
         (ㄱ) 긍정적으로:
            i 1:20-33
            ii 4:6-9
            iii 8:1-36
            iv 9:1-6
         (ㄴ) 부정적으로:
            i 7:1-27
            ii 9:13-18
      (2) 잠 8:22-31 에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장자로 제시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한다(3:19-20; 시 104:24; 렘 10:12). 이것은 요 1:1 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로고스라는 표현으로써 요한이 나타내는 용법의 배경이 될 것이다
      (3) 이러한 내용이 집회서 24 장에서도 나온다
2. 이 문학은 율법 및 예언서와 구별된다(참조, 렘 18:18). 이 문학양식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것이다. 역사적 또는 문화적 암시가 지혜문학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혜문학의 우선적인 초점은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성공적이고, 기쁘며, 도덕적인 삶에 있다.
3. 성경의 지혜문학은 주위에 있는 나라의 지혜문학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홀로 참되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혜의 기초를 이룬다(즉, 창 41:38-39; 욥 12:13; 28:28; 잠 1:7; 9:10; 시 111:10). 바벨론의 지혜문학에서는 압수, 에아 또는 마르둑이 그 기초를 이루며, 이집트의 지혜문학에서는 톹이 그 기초를 이룬다.

4. 히브리인의 지혜문학은 매우 실제적이다. 이것은 특별한 계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초한 내용이다. 이것은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둔다(삶의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이루어짐). 이것은 신적인 "상식"이다.
5. 지혜문학이 인간의 사고와 경험과 관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이며 초문화적이다. 종종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혜문학은 유일신 신앙에 따른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 점은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을 계시적인 내용으로 만들었다.

II. 가능한 여러 기원

가.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다른 형태의 계시와 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구별이 된다(렘 18:18; 겔 7:26).
1. 제사장 – 법 – 형식(공동체)
2. 선지자 – 예언 – 동기(공동체)
3. 현인 – 지혜 – 매일의 삶에서 성공하는 실제적인 내용(개인)
4. 이스라엘에 여선지자가 있었으며(미리암, 훌다), 여자 현인들도 있었다(참조, 삼하 14:1-21; 20:14-22).

나. 이러한 종류의 문학은 다음과 같이 발전되었을 것이다.
1. 캠프 파이어에 둘러 앉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
2. 아들에게 전해진 가족의 전통
3. 왕궁의 지원을 받으며 기록한 글
ㄱ. 다윗은 시편과 관련이 있음
ㄴ. 솔로몬은 잠언과 관련이 있음(왕상 4:29-34; 시 72; 127 편; 잠 1:1; 10:1; 25:1)
ㄷ. 히스기야는 지혜문학의 편집과 관련이 있음(잠 25:1)

III. 목적

가. 지혜문학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행복과 성공에 초점을 둘 수 있는가를 말한다. 지혜문학은 우선적으로 개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이전 세대의 경험
2. 인생에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3.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지식을 신뢰함(참조, 신 27-29 장)

나. 지혜문학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사용한 방법이었다.

다.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항상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삶의 배경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낸다.

라. 지혜문학은 전통적인 신학에 도전을 하며 균형을 가지게 한다. 현인들은 교과서적인 진리에 묶여 있던 자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가였다. 그들은 "왜," "어떻게," "그렇다면 무엇이"를 대담하게 질문한다.

IV. 해석의 열쇠

가. 금언적인 짧은 진술
1.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삶의 일반적인 요소를 찾으라
2. 단순한 형태의 선언적 문장을 사용하여 중심진리를 나타내라
3. 문맥이 도움이 되지 않기에, 같은 주제를 다룬 평행본문을 찾으라

나. 보다 긴 형태의 문학적 본문
1. 전체의 중심진리를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라
2. 문맥을 무시하고 절들을 이해하지 않도록 하라
3. 역사적 상황 또는 저작의 이유를 파악하라

다. 일반적으로 범하는 잘못된 해석(피와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7 쪽)
1. 사람들은 전체 지혜문학(욥기와 전도서 등의 책)을 읽지 않고 그 중심진리를 찾으려 한다. 사람들은 오히려 책의 일부분을 취하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려 든다
2. 사람들은 이 문학적 장르의 독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집약적이고 회화적인 고대 근동의 문학이다
3. 잠언은 일반적 진리를 제시한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진리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펜을 통하여 제시하는 개략적인 진리의 진술이다

V. 성경의 예

가. 구약
1. 욥기
2. 시 1, 19, 32, 34, 37(알파벳 시), 49, 78, 104, 107, 110, 112-119(알파벳 시), 127-128, 133, 147, 148 편
3. 잠언
4. 전도서
5. 아가
6. 애가(알파벳 시)
7. 요나

나. 정경 이외의 책
1. 토빗
2. 벤 시라의 지혜(집회서)
3. 솔로몬의 지혜(지혜서)
4. 마카비 4 서

다. 신약
1. 예수님의 잠언과 비유
2. 야고보서

부록 8

묵시문학

(이 특별주제는 나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I.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유대적 문학 장르인 묵시문학에 속한다. 이 책은 종종 긴장으로 가득찬 시대를 나타내어(즉, 이방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함),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시한다. 이러한 종류의 문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심에 대한 강한 확신(유일신 주의 및 결정론)

나. 선과 악, 오는 의의 세대 및 이 악한 세대의 갈등(이원론)

다. 비밀스런 부호가 되는 단어의 사용(대개의 경우 구약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 묵시문학에서 취한 용어임)

라. 색, 짐승 혹은 짐승들/사람들을 언급함

마. 상징적인 수의 사용(즉, 4, 6, 7, 10, 12)

바. 천사가 환상이나 꿈을 중재함, 대개의 경우 천사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 줌

사. 곧 일어나며 절정을 이루게 될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주로 초점을 둠(새 시대)

아. 어떤 실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사용된 여러 상징으로써 나타냄

자. 이러한 종류의 장르에 속하는 본문은 다음과 같다:

1. 구약
   - ㄱ. 사 13-14 장; 24-27 장; 56-66 장
   - ㄴ. 겔 1 장; 26-28 장; 33-48 장
   - ㄷ. 단 7-12 장
   - ㄹ. 욜 2:28-3:21
   - ㅁ. 슥 1-6 장; 12-14 장
2. 신약
   - ㄱ.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고전 15 장(어떤 면에서)
   - ㄴ. 살후 2 장(대부분)
   - ㄷ. 계시록(4-22 장)
3. 정경에 속하지 않은 책 D. S. 러쉘, *유대 묵시문학의 방법과 메시지*, 37-38 쪽에서 인용함)
   - ㄱ. 에녹 1 서, 에녹 2 서(에녹의 비밀)
   - ㄴ. 주빌리
   - ㄷ. 시빌린의 계시, III, IV, V
   - ㄹ. 열두 족장의 증언
   - ㅁ. 솔로몬의 시편
   - ㅂ. 모세의 승천
   - ㅅ. 이사야의 순교
   - ㅇ. 모세의 묵시(아담과 이브의 삶)
   - ㅈ. 아브라함의 묵시
   - ㅊ. 아브라함의 증언
   - ㅋ. 에스드라 2 서(IV Esdras)
   - ㅌ. 바룩 2 서, 바룩 3 서

차. 이 장르에는 이원론적 개념이 나타난다. 이 장르는 다음의 내용을 이원론적으로 제시하고, 대조시키며, 긴장의 연속으로 나타내어 실제를 제시한다(요한의 글에서 이것은 공통점을 이룬다):

1. 하늘 – 땅
2. 악한 세대(악한 인간들과 악한 천사들) – 의의 새 세대(경건한 인간과 경건한 천사들)
3. 현재적 실존 – 미래적 실존

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신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계획과 사역과 일을 계속하여 진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분깃점을 이루지만,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은 현재를 이원론적으로 제시한다.

부록 9
비유

I. 비유

가. 복음서들은 예수의 공생애 사역이 여러 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 복음서 저자들은(성령의 도움을 받은) 구전 문화에 익숙했다. 랍비들은 구전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구전전 방법을 따와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께서는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기록하지 않으셨다. 기억을 돕기 위해 반복적인 교수법과 요약, 예화를 사용하셨다.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억에 이러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비유의 사용은 이러한 교수법에 속한다. 비유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이야기로서 비유를 정의할 수 있다: 이야기는 실재에 대한 거울로서 실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돕는다," *예수와 복음서 사전*(594 쪽)에서.

> "비유는 화자가 일상생활에서 취한 경우를 가지고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 혹은 이야기이다,"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590 쪽)에서.

나. 예수님 당시에 "비유"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였는가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1. 어떤 이는 이것이 수수께끼(막 3:23), 지혜로운 말(잠언, 눅 4:23), 짧은 이야기(막 7:15), 신비스러운 격언("난해한 말") 같은 종류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인 *마샬*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2. 다른 이는 보다 더 제한적으로 이를 정의하여 비유가 짧은 이야기를 뜻한다고 말한다.

다.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삼분의 일 이상이 비유적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한 주된 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비유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두 번째 정의를 취한다면 여러 종류의 짧은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다
1. 단순한 이야기(눅 13:6-9)
2. 복잡한 이야기(눅 15:11-32)
3.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눅 16:1-8; 18:1-8)
4. 모형적/우화적 이야기(마 13:24-30,47-50; 눅 8:4-8,11-15; 10:25-37; 14:16-24; 20:9-19; 요 10 장; 15:1-8)

라. 이렇게 다양한 비유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 단계를 따라서 해야 한다. 해석의 처음 단계는 성경의 모든 장르에 적용되는 해석학의 일반적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침은:
1. 책 전체 혹은 적어도 문학적인 대단위의 목적을 파악하기
2. 원래의 청중을 확인하기. 종종 같은 비유가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ㄱ. 눅 15 장에 나오는 잃은 양은 죄인들을 가리킨다
   ㄴ. 마 18 장에 나오는 잃은 양은 제자들을 가리킨다
3. 비유가 들어 있는 직접적 문맥을 확인하기.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은 종종 비유의 마지막 부분(혹은 비유를 마친 후 바로)에서 핵심을 말한다.

4. 비유가 중심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비유에는 종종 두 명 혹은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다. 대개는 각 사람이 각각 의도하는 진리, 목적, 핵심(개요)을 나타낸다.
5. 다른 복음서에서 평행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신약과 구약에서 평행되는 내용을 확인한다.

마. 해석의 두 번째 단계는 특별히 비유로 쓰여진 부분과 관련된 원리를 다룬다
1. 비유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라(만일 가능하면 반복해서 들으라). 비유는 구두 전달을 위한 것이지 분석을 위한 기록이 아니다.
2. 대부분의 비유는 오직 하나의 중심 진리만 갖는다. 이 진리는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과 관련이 있다.
3. 세세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종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의 배경을 나타낼 뿐이다.
4. 비유가 실재는 아님을 기억하라. 비유는 삶의 경험과 유사하지만 종종 과장적 표현으로써 사실(진리)을 나타낸다.
5. 1 세기의 유대인 청중이 이해했을 핵심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는 변형이나 놀람을 파악하라. 이 내용은 대개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참조, A. 버클리 미켈슨, *성경의 해석*, 221-224 쪽).
6. 모든 비유는 반응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반응은 대개 "하나님의 왕국" 개념과 관련이 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새 왕국을 시작하신 분이시다(마 21:31; 눅 17:21).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지금 반드시 그분께 응답해야 한다!

    왕국은 또한 미래적이다(마 25 장).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예수께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왕국의 비유는 예수 안에서 도래한 새 왕국을 나타낸다. 비유는 제자도에 요구되고 있는 윤리적 근본적 요구에 대해 말한다. 이전의 어떤 것도 쓸 수 없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우며 또한 예수께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7. 비유는 종종 요점이나 중심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해석자는 원래의 문화에서 명백히 전해졌을 중심 진리를 밝히는 문맥적 열쇠를 찾아내야 한다.

바. 세 번째 단계는 종종 논란이 되는 내용으로서 비유적 진리가 감추어진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예수께서는 종종 비유가 감추인 것임을 말씀했다(참조, 마 13:9-15; 막 4:9-13; 눅 8:8-10; 요 10:6; 16:25). 이 사실은 사 6:9-10 에 있는 예언과 관련이 있다. 청중의 마음이 이해의 정도를 결정짓는다(참조, 마 11:15; 13:9,15,16,43; 막 4:9,23,33-34; 7:16; 8:18; 눅 8:8; 9:44; 14:35).

한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중(막 15:10; 막 7:14), 바리새인들(마 21:45; 막 12:12; 눅 20:19)이 종종 정확히 이해했지만 믿음과 회개로써 적합하게 응답하기를 거부했음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어떤 면에서 이점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진리이다(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

비유는 진리를 숨기거나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마 13:16-17; 16:12; 17:13; 눅 8:10; 10:23-24).

그란트 오스본은 *해석학적 나선* (239 쪽)에서 이렇게 말한다.

"비유는 청중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기작'이며 기능이다. . . 비유로 인해 각 그룹의 사람들(지도자들, 대중, 제자들)은 다르게 말씀에 대면했다. 제자들도 종종 예수의 비유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참조, 마 15:16; 막 6:52; 8:17-28,21; 9:32; 눅 9:45; 18:34; 요 12:16).

사. 네 번째 단계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이 단계는 비유의 중심 진리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비유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그게 옳다). 우화적인 해석은 세세한 내용을 진리의 체계 속에 집어 넣는다. 이 해석 방법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배경 혹은 저자의 의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생각을 제시한다.

한편 예수께서 비유를 해석하신 방법은 우화적 혹은 모형론적 해석에 상당히 근접함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사용하셨다(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 악한 농부의 비유, 마 21 장; 막 12 장; 눅 20 장).

어떤 비유는 여러 개의 주요 진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탕자의 비유이다(눅 15:11-32). 이것은 성부의 사랑과 둘째 아들의 고집스러움 뿐 아니라 형의 태도까지 포함하여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전달한다.

피터 코터렐과 맥스 터너의 *언어학과 성경 해석*에서 인용한 유용한 내용이 있다:

> "신약 학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가르침에 있어서 비유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바로 아돌프 주리허이다. 그는 극단적인 우화적 방법으로 비유를 이해하지 않고 그 참된 의미를 꿰뚫는 요소를 찾도록 했다. 그러나 제레미아스가 분명히 밝혔듯이 '그가 비유의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환상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해석을 지양하게 한 노력은 또 다른 중요한 잘못을 가져왔다.' 그 잘못은 비유가 한 가지 내용만 전달한다는 점을 고집한 점 뿐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한 일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있다" (308 쪽).

그란트 오스본의 책 *해석학의 나선*에 또 하나의 유용한 내용이 있다:

> "나는 비유가 비록 저자의 의도에 의해 조정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우화임을 여러 사실을 통해 확인한다.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은 사실상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나타내며 실제로 비유는 우화에 속한다고 블롬버그(1990)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는 과장된 것이지만 비유가 '한 가지 진리'만을 나타낸다는 주장보다는 진실에 더 가깝다(240 쪽).

아. 비유로써 교리적 진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교리적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가?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화적 방법을 남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의 원래 의도 및 복음서 저자의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었다. 의미는 반드시 저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수와 복음서 저자들은 영감을 받았지만 해석가들은 그렇지 않다.

한편 비유는 여전히 교리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으로 심하게 남용되어 왔다 버나드 램은 이 점을 지적하여 말한다.

> "비유가 교리에 대해 가르치므로 교리적 가르침을 위해 비유를 전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적절치 않다. . .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결론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다른 곳에 나타난 분명하고 명확한 가르침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주의 깊게 다루어진 비유는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예시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성경해석학* (285 쪽).

II.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내용에 대한 3 가지 인용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책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 "비유는 교회에서 계시록 다음으로 잘못 해석되는 고통을 받았다"(135 쪽)

나. J. 로벗슨 맥퀼린의 책 *성경의 이해와 적용*에서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함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원천이 되어 왔다. 동시에 비유는 교회에서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혼동의 통로가 되어 왔다"(164 쪽)

다. 그란트 오스본의 책 *해석학의 나선*에서

"비유는 성경에서 이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부분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해석학적으로 가장 남용된 부분의 하나로서. .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이다. 비유가 일상생활의 경험에 기초한 비교 혹은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비유를 통한 의사소통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이야기 자체가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에 현대의 독자는 고대의 청중이 경험했듯이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다"(235 쪽).

부록 10

역사적, 본문적, 사전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한 용어의 해설

고등비평.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과 문학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성경해석의 방법이다.

고의적 다의성.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뜻을 갖거나 혹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결과를 낳는 표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요한은 일부러 다의성(두 가지 뜻)을 지닌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성경. 이것은 1633 년에 발행된 엘제빌의 헬라어 신약성경에 적용되었다. 이 역본은 기본적으로 후기의 몇 헬라어 사본과 에라스무스(1510-1535)의 라틴어 역본, 스테타누스(1546-1559), 엘제빌(1624-1678)에 기초한 헬라어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의 본문비평개론*, 27 쪽에서 A. T. 로벗슨은 말하기를 "비잔틴사본은 실제적 공인성경이다." 비잔틴사본은 초기의 헬라어 사본의 세 계열(서방, 알렉산드리아, 비잔틴)에서 가장 가치가 적다. 이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손으로 쓰여지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 한편, A. T. 로벗슨은 또한 말하기를 "공인성경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본문을 우리들을 위해 보존해 왔다"(21 쪽). 이 헬라어 사본전통은(특히 1522 년에 출판된 에라스무스의 3 판) 1611 년에 출판된 흠정역의 기초를 이룬다.

관용적 표현. 이 단어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각 단어의 일상적 의미와는 맞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구의 사용을 가리킨다. 현대적 예로서는: "그것은 상당히(끔찍하게) 좋았다" 혹은 "당신은 나를 정말 웃긴다(죽인다)" 이다. 성경 역시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구문. 이것은 문장의 구조를 가리키는 헬라어 용어이다. 완전하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문장에서 각 품사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다룬다.

귀납법. 이것은 논리나 추론의 방법으로서 부분에서 출발하여 전체로 나아간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경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접근방법이었다.

그리스도 중심적.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 되심을 나타낸다. 나는 이 용어를 예수께서 모든 성경의 주님이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는 성경의 완성이요 목적이시다(참조, 마 5:17-48).

동의어. 이것은 어떤 단어들이 정확하게 혹은 매우 비슷하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비록 어의적으로 어떤 두 단어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어떤 문장에서 의미의 변함없이 단어들을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시의 세

평행법가운데 하나를 일컫는다. 즉 시의 두 행이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03:3).

네스토리안주의. 네스토리우스는 5 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다.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훈련받았고, 예수께서 완전히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신 두 본질을 가지셨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정통적인 교리인 한 본질과 달리하는 것이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요 관심사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에 있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과 그 자신이 교육받았던 안디옥학파의 연루에 의해 반대되었다. 안디옥은 역사적-문법적-본문중심의 성경해석의 본산지였고, 알렉산드리아는 4 중해석(우화적)의 본산지였다. 네스토리우스는 완전히 면직되었고 추방되었다.

디아스포라. 이것은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용한 특별한 헬라어 용어이다.

랍비적 유대교. 이것은 바빌론 유수(주전 586-538)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었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각 지역에 있던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문화, 사교, 예배, 성경연구의 장이 된 회당은 국가적으로 종교생활의 구심점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의 종교"는 제사장들의 종교와 쌍벽을 이루었다. 주후 70 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있던 서기관적 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의 지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탈무드)의 실제적이고 율법적 해석으로 특징을 짓는다.

맛소라본문. 이것은 9 세기히브리 구약성경 사본으로서 유대 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왔으며 모음부호와 다른 본문주석과 관련된 참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구약성경에 기초를 이룬다. 이 사본은 역사적으로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 특히 사해사본 이사야서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약어로 "MT"라고 불린다.

무라토리안 단편. 이것은 신약의 정경목록이다. 주후 200 년 이전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기독교의 신약성경과 똑같은 27 권을 제시한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지역교회들이 4 세기에 있었던 주요 교회회의 이전부터 이미 "실제적으로" 정경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모형론. 이것은 특별한 해석방법이다. 유추적인 심볼에 의해 구약의 성경귀절과 연관되는 신약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해석방법이었다. 이것의 오용을 막기위해서는 신약에 기록된 명확한 경우로만 그 사용을 한정지어야 한다.

묘사적 표현. 이것은 구약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용된 관용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오감으로 알 수 있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묵시문학. 이것은 유대문학에서 독특하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세계열강들이 유대를 공격하여 지배하던 시기에 비밀스런 형태로 기록된 글을 뜻한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구속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문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많은 용어들로 인해 매우 상징적이고 환상적이다. 이 방법은 진리를 여러 가지의 색, 숫자, 환상, 꿈, 천사의 중계, 비밀 암호같은 단어들, 선과 악의 날카로운 이원론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장르에는 (1) 구약에서 에스겔 (36-48 장), 다니엘 (7-12 장), 스가랴 (2) 신약에서 마 24; 막 13; 살후 2 와 계시록이있다.

문단. 이것은 산문으로 된 문학형태의 기본적 해석단위이다. 이것은 하나의 중심주제와 그것의 전개를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중심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 미미한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원저자의 의도를 놓치는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문자적. 이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본문중심의 역사적 해석방법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이 인간 언어의 정상적이고 분명한 의미와 연관됨을 뜻한다.

문학장르. 이것은 시나 역사적 이야기체처럼 사람의 의사전달이 취하는 독특한 표현을 가리킨다. 모든 종류의 문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들 외에 각 문학장르마다 독특한 해석학적 절차가 있다.

문학단락.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주요 개념에 따른 구분을 지칭한다. 단락은 몇 절, 몇 문단, 혹은 몇 장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중심주제를 갖는 독립적인 단위이다.

바티칸역.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원래 구약 외경 신약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분은(창, 시, 히, 목회서신, 몬, 계) 유실되었다. 이것은 원본의 글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본이다. "B"로 표시된다.

벌게이트역. 이것은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의 이름이다. 로마천주교회의 기본적 또는 "공통의" 역본이 되었다. 주후 380 년에 번역되었다.

반대의. 이것은 히브리 시행의 평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세 가지 설명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시행의 관계를 나타낸다(참조, 잠 10:1; 15:1).

베자사본. 이것은 주후 6 세기의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사본이며, "D"라고 명명된다. 이 사본은 복음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 사본은 서기관의 수 많은 추가기록으로 특징을 이룬다. 이 사본은 "공인성경"의 기초를 이루며, 흠정역본의 배후에 있는 주요 헬라어 사본이다.

변증론자(변증론). 이것은 "법적방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증거와 이성적인 논증을 제시하기 위한 신학의 한 분야이다.

변증법. 이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역설적인 양면을 포함하는 통일된 답을 구하는 사고방법이다. 많은 성경적 교리는 변증법적 짝을 이룬다, 예정—자유의지; 안전—성도의 견인; 믿음—행위; 결단—제자도; 기독교인의 자유—기독교인의 책임감.

병행귀절.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경자체가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자이며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불확실하거나 이중적인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용하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관한 성경귀절을 모두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가장 명확한 본문을 파악하게 돕는다.

본문비평. 이것은 성경사본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원래의 본문이 남아있지 않고 사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문비평이 요구된다. 이것은 상이점들을 설명하고, 구약과 신약의 원본(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을 파악하려고 한다. 종종 "하등비평"이라 불린다.

분석적 사전.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모든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돕는다.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 단어의 변화와 기본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행간에 번역이 들어가 있는 성경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신약성경의 헬라어 문법과 구문적 형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본.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개 다른 종류로 구별하는 방식은 (1) 사본이 기록된 재료(파피루스, 가죽) 혹은 (2) 글자자제의 형태 (대문자체 혹은 흘림체)이다. 약어로는 "MS"(**단수**) 혹은 "MSS"(**복수**)로 나타낸다.

사해사본. 이것은 1947 년에 사해근처에서 발견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일련의 고대사본들을 가리킨다. 이 사본들은 1 세기 유대 분파의 종교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사본들이었다. 로마의 점령으로 인한 압력과 열심당원들이 60 년 대에 시작한 전쟁은 그들로 두루마리 사본들을 동굴이나 구멍속에 있는 항아리에 밀봉하여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1 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고, 맛소라 사본이 매우 정확하며 주전의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확인해 준다. 이 사본들은 "DSS"라는 약어로 표현된다.

석의. 이것은 어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행해지는 어떤 접근법을 의미하는 전문적 용어이다. (본문으로부터) "읽어 내 옴"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의 목표가 역사적 상황, 문자적인 문맥, 구문과 당시의 단어 의미에 비추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선험적. 이것은 "전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기존에 받아들여진 정의나 원리 혹은 사실이라고 가정되는 견해에 기초한 논리전개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점검이나 분석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성경의 유추.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성경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전제적 확신은 성경에서 평행되는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성경적 권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이것은 원저자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 한 바를 이해하는 것과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권위는 성경자체를 우리의 유일한 권위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부적절한 성경해석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 의미를 제한하여 역사적-문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구사전. 이것은 성경연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구사전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성경의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한다 (2) 같은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포함하는 절을 비교 할 수 있게 한다 (3)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한글성경의 어디에서 같은 단어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4) 어떤 단어가 성경의 어떤 책, 혹은 저자별로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5) 성경에서 어떤 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참조, 왈터 클락의 *어떻게 신약성경헬라어 연구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54-55 쪽).

세계이해와 세계관. 이것은 서로 같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둘 다 창조와 연관된 철학적 개념이다. "세계이해"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세계관"은 "누가" 창조했는지를 말한다.이 개념은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창조인지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창세기 1-2 장의 해석에 있어 중요하다.

시내사본.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이 사본은 독일 학자인 티첸도르프에 의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예벨 무사에 세워진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인 "알레프"[א]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전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가운데 하나이다.

신인동형. "인간과 관련된 특성을 갖는"의 뜻을 지닌 이 용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말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용어로써 표현되고 있다(참조, 창 3:8; 왕상 22:19-23). 물론 이것은 유추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과 관련된 용어외에는 달리 우리가 사용할 용어가 마땅히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되지만 제한적이다.

아리안주의. 아리우스는 3 세기와 4 세기 초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는 예수께서 선재하신 분이심을 인정했으나 아마도 잠 8:22-31 에 기초하여 신성은 부인했다(성부와 같은 본질이 아님). 그의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에 의해 거부되었는데, 그 주교는 주후 318 년에 시작되어 여러해 동안 계속된 논쟁을 일으켰다. 아리안주의는 동방교회의 공식적 신조로 받아들여졌다. 주후 325 년의 니케아회의에서는 아리안주의를 정죄하고 성자의 신성과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제자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많은 영역에 미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관찰과 분류에 의한 지식을 강조했기 때문이다.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특색을 이룬다.

안디옥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법은 주후 3 세기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한 우화적 방법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방법의 핵심은 성경의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점이었다. 이들은 성경을 인간의 일반적인 문학작품으로 이해했다. 이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질을 갖고 계신지(네스토리안 주의) 혹은 한 본질을 갖고 계신지(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신)에 대한 논쟁에 연관되었다. 이들은 로마카돌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페르시아에 다시 정착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들의 해석학적 기본원리는 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되었다(루터와 칼빈).

알렉산드리아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방법은 주후 2 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플라톤주의자였던 필로의 해석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이것은 종종 우화적 방법으로 불린다. 종교개혁 때까지 이 방법이 횡횡했다.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이 학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모이셋 실바, *교회가 성경을 잘못해석했는가?*(아카데믹사, 1987)을 보라.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것은 5 세기의 헬라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졌으며, 구약, 외경, 대부분의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주요 사본중의 하나이다(마태복음 일부분과 요한복음, 고린도후서를 제외한). "A"라고 칭해진 이 사본과 "B"(바티칸사본)이 일치할 때,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원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야웨(여호와).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다. 출 3:14 에서 그 의미가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이다"의 뜻을 갖는 히브리 **동사**의 원인을 야기하는 형태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부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이름 발음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신하여 사용했다. 이것이 이 언약적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이유이다.

양자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초기의 견해중 하나였다. 이 견해는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이었으나 그의 침례시(참조, 마 3:17; 막 1:11) 혹은 부활시(참조, 롬 1:4)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양자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때에(침례, 부활)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양자삼았다(참조, 롬 1:4; 빌 2:9). 이것은 초대교회와 8 세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성육신)을 바꾸어 놓아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 견해는 성자이시고 선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 그의 모범적인 삶을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상 주시고 그를 높이셨는가를 말하기가 어렵다. 만일 그가 이미 하나님이셨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선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그가 더 명예를 얻게 될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부의 뜻을 그가 온전히 이루심을 인해 성부께서는 어쨌든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를 영예롭게 하셨다.

어원론. 이것은 어떤 단어의 원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단어 연구를 말한다. 어원적인 뜻을 앎으로써 특별한 용례에 따른 의미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석에 있어서 주요 관점은 어원론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단어가 동시대에 지닌 뜻과 용례에 있다.

어의론적 세계. 이것은 한 단어와 관련된 뜻이 미치는 범위 전체를 통털어 지칭한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문맥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역동적 등가번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튜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게 읽을 것인가*, 35 쪽과 로버트 브랫처의 TEV 서론에 나와 있다.

역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사실이면서 서로 간에 긴장이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역설은 반대방향에서 진리를 제시한다. 성경의 많은 진리는 역설적(혹은 변증적) 짝으로 나타난다. 성경적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별들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이루는 별들로 구성된 성단과 같다.

연역법. 이것은 논리에 의해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별한 적용으로 나아가는 논리나 사고방법이다. 이것은 귀납법과 반대되는데, 귀납법은 관찰된 특별한 사실로 부터 일반적인 결론(이론)으로 나아가는 과학적인 방법을 뜻한다.

영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개념이다. 이것의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영지주의. 이 그룹에 대한 우리의 대부분의 지식은 2 세기에 쓰여진 영지주의 작품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의 초기적인 모습은 1 세기(혹은 그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

2 세기의 발렌티안과 세린티안 영지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물질과 영은 상호-영적(존재론적 이원론)이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형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2) 하나님과 물질사이에 유출(*에온* 혹은 천사적 수준의)이 일어난다. 가장 마지막 혹은 가장 낮은 존재는 구약의 야웨인데, 그는 우주(*코스모스*)를 형성했다 (3) 예수는 야웨와 같은 유출의 결과이지만 좀 더 높은 계급, 즉 참 하나님과의 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는 그를 가장 높지만 아직 하나님에 비해 낮고, 성육신한 신은 확실히 아니었다(참조, 요 1:14).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었고 아직 신적 존재였다. 그는 영적 환영(참조, 요일 1:1-3, 4:1-6)이었다 (4) 구원은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데,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지식(암호)은 천상의 영역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주의 또한 요구되었다.

영지주의의 거짓교사들은 두가지 상반되는 윤리적 가르침을 전했다; (1)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을 위해 구원과 영성이 천사적인 영역(*에온들*)을 통과하여 비밀스런 지식(암호)으로 합쳐졌다 (2) 다른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금욕적 삶을 참된 영성의 증거로 강조했다.

영해. 이것은 성경귀절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무시하고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는 점에서 우화화와 동의어이다.

왜곡.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한 강한 선입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하여 공평한 견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선입관적 입장을 취하게 한다.

우화. 이것은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에서 출발한 성경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알렌산드리아의 필로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성경을 자신의 문화나 철학적인 체계에 상응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아래 성경의 역사적 상황과/혹은 문학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뜻을 찾으려고 했다. 예수께서 마 13 장에서 바울은 갈 4 장에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우화적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화가 아니라 모형적인 해석방법이다.

원저자. 이것은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저자/사람을 의미한다.

율법주의. 이것은 규정이나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규율을 지킴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관계를 덜 중요시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u>둘 다</u> 중요한 요소이다.

의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튜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게 읽을 것인가*, 35 쪽에 있다.

인용을 위한 성경사용. 이것은 성경의 어떤 절을 그것의 문학적 단위가 갖는 직접적 포괄적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저자의 의도로 부터 그 절(들)을 빼내게 되고, 대개 자신의 개인적 견해에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여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읽어 들어가기. 이것은 석의의 정반대 방향이다. 만일 석의가 원저자의 의도를 "읽어 내는 것"이라면, 이 용어는 이질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읽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방법이다. 이것은 자연질서(롬 1:19-20)와 도덕적 의식(롬 2:14-15)을 포함한다. 이것은 시 19:1-6 과 롬 1-2 에서 말해진다. 이것은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되 특히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특별계시와 구별된다.

이 신학적 용어는 크리스챤 과학자(예, 휴지 로스의 글)들의 "헌 지구"운동에 의해 재 강조되었다. 그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자연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다; 이것은 특별계시(성경)와 구별된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자연질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점은 현대의 서구의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놀라운 새 기회이다.

장르. 이것은 문학의 다른 종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이 용어의 핵심은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형태로 문학작품을 구별짓는 것에 있다: 역사적 이야기체, 시, 잠언, 묵시문학, 법률.

전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해를 뜻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이슈에 대해 성경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의 견해나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 전제는 왜곡, 선험적인 생각, 가정, 또는 기존 지식 등으로 불린다.

정경. 이것은 독특하게 영감되었다고 믿어지는 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일컫는다.

조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조직신학.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항목별(신, 인간, 죄, 구원 등)로 제시한다.

종합. 이것은 히브리시의 세 가지 평행법 가운데 하나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어떤 것에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행이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 "점증적"인 평행법으로 불린다(참조, 시 19:7-9).

주석. 이것은 특별한 형태의 연구도서이다. 이것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그 책의 각 부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책은 적용에, 어떤 책은 보다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다루고 있다. 이 책들은 유용하지만, 반드시 자기 스스로 기초적인 공부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주석을 사용하든지 그 주석가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된다.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여러 종류의 주석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지혜문학. 이것은 고대 근동(그리고 현대)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문학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시, 잠언, 짧은 글 등을 통하여 자라가는 세대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그 내용은 공동체 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다. 성경에서 욥기 부터 아가서 까지 야웨의 존재와 그분께 대한 예배를 전제하고 있지만, 인간 경험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종교적 사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장르이다. 이 장르는 모든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술로서 각 각의 특별한 경우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현인들은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탐구했다. 그들은 종종 전통적인 종교적 견해에 도전했다(욥기와 전도서). 그들은 인생의 비극에 대한 가벼한 견해들에 대항하여 균형잡히고 긴장이 느껴지는 답을 주고 있다.

취사선택. 이것은 본문비평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다른 헬라어 사본들로 부터 원래의 필사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을 찾기 위해 본문을 선택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 방법은 어느 한 헬라어 사본의 계열이 원본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배격한다.

친필본. 이것은 성경의 원본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맨 처음 손으로 쓰여진 원본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사본들의 사본들만 남아 있다. 이 사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인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에 나타나는 본문의 상이점들에 대한 원인이 된다.

칠십인역. 70 인역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다. 전통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위해 유다의 70 명의 학자들이 70 일동안 마쳤다고 한다. 전통이 말하는 연대는 주전 250 년 전후(사실상 그 번역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100 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이 번역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이 사본은 히브리 맛소라 사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고대 역본이다 (2) 이 사본은 주전 2-3 세기에 유대인들이 해석한 내용을 보여준다 (3) 이 사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기 전에 이해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사상을 알게 한다. 약어로 "LXX"로 칭한다.

탈무드. 이것은 경전화된 유대 구전전통을 일컫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두로 이 내용을 주셨다고 믿는다. 사실상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걸친 유대 교사들의 지혜를 집대성한 것이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다른 본문이 있다: 바빌론 탈무드와 짧으면서 미완성의 팔레스타인 탈무드.

토라. 이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히브리어 용어이다. 이것은 모세의 책(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을 일컫는 공식적인 명칭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권위있는 부분이다.

파피루스. 이것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책의 재료이다. 강에서 자라는 갈대로 만들었다. 그 위에 가장 오래된 헬라어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다.

편협. 이것은 지역에 따른 신학적/문화적 배경으로 둘러싸여 생기는 왜곡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를 뛰어넘는 성경진리의 이해와 그 적용에 장애를 준다.

플라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였다. 이집트의 알렌산드리아 학자들과 후기의 어거스틴을 통하여 그의 철학은 초대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환영으로 이해했고 영적 원형의 복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신학자들은 후에 플라톤의 "형태/개념"을 영적 세계와 동일시했다.

하등비평. “본문비평”을 보라.

해석학. 이것은 석의를 하는 원리들을 일컫는 전문적 용어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들과 예술/은사의 조합이다. 성경해석학은 대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일반적 원리들과 구체적인 원리들. 이 원리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문학적 종류에 기인하다. 각기 다른 타입(장르)에 적합한 지침들이 있지만 어떤 공통의 전제들과 해석의 과정을 공유한다.

행간삽입성경. 이것은 성경원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뜻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자료이다. 한글로 된 성경을 원어마다 그 바로 밑에 해당되는 뜻을 제시한다. “분석사전”과 더불어 사용함으로써 이 책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형태와 기본적 뜻을 제공한다.

환유법. 이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이 그것과 관련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면,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끓고 있다”는 뜻이다.

부록 11

인용한 참고문헌 및 추천도서

바르, 제임스. *성경 언어의 의미론*.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출판사, 1961.

바르톤, 존. *거룩한 책들 – 신성한 본문: 초기 기독교의 정경*. 리치몬드: 존 녹스 출판사, 1997.

벌코프, 루이스. *조직신학*.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39.

_____. *성경 해석의 원리*.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50.

블랙, 데이빗 A. 편저. *신약 본문비평을 재고함*.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아카데믹, 2002.

브라가, 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포트랜드: 물트노마, 1982.

브루스, F. F. *성경과 양피지*. 올드 톱팬, 뉴저지: 레벨, 1963.

_____. *신약의 역사*. 가든시티: 더블데이, 1969.

_____. *영어 성경: 가장 오래된 역본에서부터 새영어성경까지의 역사*.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출판사, 1970.

_____. *질문에 대한 답*.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72.

_____ 편저. *새국제주석의 신약주석*.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55.

칼슨, D. A. *흠정역에 대한 논란: 사실주의에 대한 간청*, 1979.

_____. *성경 해석과 교회*. 내쉬빌: 토마스 넬슨, 1984.

_____. *석의적 오류*.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84

코울, 알랜. *갈리디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64.

코드렐, 피터와 맥스 터너. *언어학과 성경해석*. 1989.

다나, 하비 유진. *성경을 찾아사. 캔사스 시티: 중앙 신학교, 1946.*

댕커, 프레데릭 W. *성경 연구를 위한 여러 도구*. 콘코디아, 1970.

뎀스키, 윌리암 A. 편저. *창조 뿐*.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98.

에르만, 마르트 D. *성경에 대한정통주의의적 오류*.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출판사, 1993.

폭, 대럴 R. *과학과 평화를 누리기*.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2004.

피, 고든 D. *복음과 성령: 신약의 해석학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 피바디: 헨드릭슨. 1991.

피, 고든 D.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82.

_____. *석의의 끝은?*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2001.

퍼거슨, 던칸 S. *성경적 해석학*. 아틀란타: 존 녹스 출판사, 1937.

프로리히, 칼프리드. *초대 교회의 성경해석*. 필라델피아: 포트레스, 1984.

길버트, 조지 홀리. *성경의 해석: 간략한 역사*. 뉴욕: 맥밀란, 1908.

그란트, 로버트 M.과 데이빗 트레이시. *성경해석의 간략한 역사*. 필라델피아: 포트레스, 1984.

그린리. J. 해롤드. *신약 본문비평 개론*.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72.

헤이스, 존 H.와 칼 R. 할러데이. *성경 석의*. 아틀란타: 존 녹스 출판사, 1934.

헨드릭스, 하워드 G. *책대로 살기*, 1991.

헨릭센, 왈터 A. *평신도를 위한 성경 해석 안내*.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73.

힐쉬, E. D. *해석의 유효성*. 뉴 해븐: 예일 대학교, 1967.

_____. *해석의 목적*. 뉴 해븐: 예일 대학교, 1978.

후이카스, R. *종교와 현대 과학의 발흥*.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72.

잰센, 존 프레드릭. *성경 해석의 실제*. 필라델피아: 제네바 출판사. 1968.

지브스, 말콤 A. *과학적 연구와 기독교 신앙*.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91.

젠센, 어빙 L. *독립적 성경 연구: 분석적 표와 귀납법의 사용*. 시카고: 무디, 1963.

존슨, 엘리엍 E. *강해적 해석학*.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90.

존슨, 필립 E. *재판을 받고 있는 다윈의 학설*.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93.

카이저, 오토와 워너 G. 쿰멜. *석의적 방법*. 뉴욕: 시버리, 1981.

카이저, 왈터 C. Jr. *석의적 신학을 향하여*.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81.

카이저, 왈터 C. Jr., 피터 H. 데이비스, F. F. 브루스, 맨프레드 T. 바룩. *성경의 어려운 말*.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91.

키친, K. A. *고대 동양과 구약*.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66.

쿠보, 사캐와 왈터 스페트. *상당히 많은 역본*.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83.

쿠핫첵, 잭. *성경을 적용하기*.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90.

래드, 조지 엘돈. *신약신학*.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74.

리펠트, 왈터 L. *신약 강해*.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84.

_____. *사도시대의 성경 석의*.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99.

롱맨, 트렘퍼 III. *성경해석의 문학적 접근*. 제 3 권, 1987.

말, 레네 S. J. *해석학 개론*. 뉴욕: 허더와 허더. 1967.

마샬 I. 하워드, 편저. *신약의 해석*.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77.

메이휴, 리처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시카고: 무디, 1986.

맥퀼킨, J. 로벗슨. *성경의 이해와 적용*. 시카고: 무디, 1983.

메츠거, 브루스 M. *신약: 그 전달, 오류와 회복*.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출판사, 1964.

_____. *신약: 그 배경, 성장과 내용*. 뉴욕: 아빙돈, 1965.

_____. *헬라어 신약에 대한 본문적 주석*. 뉴욕: 세계성서공회, 1971.

_____. *신약의 초기 역본들*. 1977.

_____. *신약의 정경*. 옥스포드: 클라렌돈 출판사, 1997.

미켈센, A. 버클리. *성경을 해석하기*.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63.

뉴포트, 존 P.와 윌리엄 캐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놓고 다투는가*. 내쉬빌: 토마스 넬슨, 1974.

니다, 유진. *사람의 언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런던: 윌리암 캐리, 1952.

오스본, 그란트 R_. *해석학적 나선*.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91.

오스본, 그란트 R.과 스테벤 B. 우드워드. *성경공부를 위한 핸드북*.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79.

파테, 다니엘. *팔레스타인에서 초기에 유대인이 사용한 해석*. 미술라, MT: SBL and Scholars 출판사, 1975.

포우, 해리 L.과 지미 H. 데이빗. *과학과 믿음*. 내쉬빌: 브로드맨, 2000.

포이트레스, 번 S. *과학과 해석학*. 그랜드 래피즈: 아카데미, 1988.

램, 버나드. *과학과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54.

_____. *프로테스탄트 성경 해석*.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70.

랏츠, 델. *시작에 대한 전쟁*.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96.

라울리, H. H. *성경의 계시*. 1940.

샌디, D. 브렌트와 로날드 L. 기제, Jr. *구약의 암호를 해독하기*. 내쉬필: 브로드만, 1995.

_____. *쟁기와 전정고리: 성경의 예언과 묵시문학의 용어를 다시 생각함*.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2002.

스콜러, D. W. *신약의 석의를 위한 기본적 도서목록 안내*.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73.

슐츠, 사무엘 J.와 모리스 A. 인치 편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시카고: 무디, 1976.

실바, 모이세스. *성경의 단어와 그 의미*.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83.

_____. *교회가 성경을 잘못 읽었는가?*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87.

실바, 모이세스 편저. *오늘날의 해석적 기초*.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96.

사이어, 제임스 W. *성경의 왜곡*.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80.

스택, 프랭크. *신약신학*. 내쉬빌: 브로드만, 1962.

스타인, 로버트 H. *성경 해석에 대한 기본적 안내: 원칙에 따라 하기*.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2000.

스테렛, J. 노톤. *당신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배시티 출판사, 1973.

스테와트, 더글라스. *구약석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1980.

스테와트, 제임스 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뉴욕, 하퍼와 로우, 1935.

스팁스, 알란 마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런던: 인터배시티, 1950.

스튜어트, 더글라스. *구약석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1980.

테니, 메릴 C.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50.

테리, 밀톤. *성경 해석학*.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74.

티셀톤, 앤터니 C. *두 지평*. 그랜드 래피즈: 어드만, 1980.

트레이나, 로버트 A. *조직적인 성경연구*.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85.

반후저, 켈빈 J. *이 본문에 의미가 있는가*.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98.

보근, 쿠르티즈 편저. *성경의 26 개 역본*. 차타누가: AMG, 1985.

바인, W. E. *신약 단어에 대한 바인의 강해 사전*. 웨스트우드, N. J.: 레벨, 1966.

버클러, 헨리 A. *해석학*.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81.

왈트키, B. K., D. 거스리, G. D. 피와 R. K. 해리슨. *성경비평: 역사적, 문학적, 본문적*, 1997.

부록 12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아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와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

시

이것이 결코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이것은 의미할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내 머리 속에 아로새겼다
또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나는 그 절을 되새긴다
나는 해석학을 공부하였고 석의도 배웠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로
나는 내 생각을 어느 정도 바꾸었다.
어떤 용어는 너무 길어
정의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이 점은 문화적 상대성과 본문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진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알기 원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다.
나는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어느 날 탐정이 되기 바라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나를 사로 잡았다.
이 일은 나에게 진리를 알도록 영감을 주었고,
그 말씀이 들려진 것 처럼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반드시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갔고,
내가 이 전에 있던 자리로는 결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팻 버게론
11/27/91